

남환박물관

이형상 지음
김새미오 · 이진영 역주



일러두기

1. 본 책은 이형상의 『남환박물관(南宦博物)』을 번역하였다.
 2. 본 책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 소장된 것을 저본으로 하였다.
 3. 본 책은 번역본, 원문, 영인본의 순서로 편집하였고, 목차에 각각의 페이지를 병기하였다.
 4. 원문에는 다른 판본과의 교감사항을 병기하였다.
 5. 영인본은 우철로 수록하였다.
-

역자 서문

병와(瓶窩)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의 『남환박물(南宦博物)』을 다시 세상에 내보이게 되었다.

이형상은 조선후기 문신이다. 벼슬살이 초반에는 중앙 요직을 맡기도 했지만 주로 지방관으로 경력을 쌓았다. 1699년(숙종 25) 경주부윤으로 재직하던 중, 예조에서 올린 관찰사 후보 명단에까지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정전(井田) 문제로 상관 이었던 경상감사 이세재(李世載)와 갈등을 빚다가 1700년(숙종 26) 3월 관직을 내려 놓고 영천으로 돌아가 버렸다. 다음해 1701년(숙종 27) 11월, 조정에서 부호군(副護軍)으로 보임되었다가 다시 제주목사에 임명되었다. 그가 제주로 들어온 것은 다음해인 1702년(숙종 28) 3월이었다.

그가 제주를 대하는 방식이나 인식은 이전의 목민관들과 현저히 달랐다. 쌓인 폐단들이나 풍속교화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원했으며, 방식은 강온(強穩)의 철저하고도 계획적인 병용이었다. 도민들을 괴롭히던 마정(馬政)과 공물(貢物)을 손보고 구근과(久勤窠)를 설치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삼성사(三姓祠)를 세워주며 인심을 모으는 한편 예(禮)에 벗어난 제례나 음사(淫祠)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자 했다. 부임 다음 해인 1703년, 제주에 유배되었던 오시복(吳始復)과 류항(柳沆)의 방면을 청하는 장계[放未放 稟秩]가 문제되어 3월에 파직되고 6월에 떠났다.

주지하다시피, 『남환박물』은 이원진 목사의 『탐라지(耽羅志)』 이후 처음으로 확인되는 제주지리지이다. 그는 『탐라지』를 보았음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구성이나 내용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았다. 『남환박물』의 주요 인용서목은 『지지(地誌)』,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 『남명소승(南溟小乘)』, 『남사록(南槎錄)』 등이다. 『탐라지』에는 『남명소승』, 『남사록』 등의 인용이 없으며, 또한 『남환박물』에는 『탐라지』에 소개된 많은 문학작품들이 배제되었다. 이런 차이는 두 사람의 제주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원진 목사가 당시 남인계열 인사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지리지의 모범적 형태를 따르려 했다면, 이형상 목사는 당시 제주의 실정과 바로잡아야 할 현안에 집중하려 했던 탓으로 보인다. 그래도 전체적인 면모에서 볼 때, 『남환

박물』은 『탐라지』를 수정·보완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남환박물』은 이미 번역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번역을 하게 된 이유는, 예전 번역본이 번역문만 실려 있거나 펜으로 필사된 방식이어서 학술적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전 번역본에서는 원문이나 원본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당연히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고 인용을 해도 근거를 제시 못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여러 가지 판본들이 유통되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한몫 했다. 이 저술의 가치를 생각하면 아쉬운 일이기에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주관으로 재번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저술의 직접적인 집필 동기는 책머리에서 형[衡徵]의 사위인 윤두서(尹斗緒)가 탐라의 옛 기록을 묻기에 이에 대한 답변으로 짓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면에는 이원진 목사의 『탐라지』가 발간된 지 51년의 시간이 흘렀고, 1677년 제주향교의 책판이 화재로 소실된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저술관점은 매우 실증적이다. 여러 가지 기록이나 전언에 대해 ‘과장’이거나 ‘와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는 당시 윤두서를 매개로 교유했던 지봉(芝峯) 이수광(李睟光)이나 성호(星湖) 이익(李瀾) 등 근기남인(近畿南人)이나 영천 인근 영남 인사들의 학풍과도 관련 깊은 것이다.

『남환박물』은 기본적으로 2종의 필사본이 전한다. 1979년 보물로 지정되어 문중에 소장되어 있는 본[문중본]과 현재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본[박물관본]이 그것이다. 또한 문중본에는 문화재청 국가유산포털에 등재되어 있는 본[문화재청본]과 1979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한 본[정문연본] 2종이 있다. 문중본에 해당하는 이 두 판본은 영인본으로서 완전히 같으나, 추가된 내용에 조금의 차이가 있다. 결국 『남환박물』은 크게는 2종, 작게는 3종의 필사본이 있다는 것이다.

이형상 목사가 자신의 재임 시절을 노래한 장편 배율인 「황복원대가(荒服願戴歌)」는 박물관본에만 보이며, 문중본인 문화재청본과 정문연본에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 문화재청본에는 「황복원대가」 대신 『북설습령(北屑拾零)』이 들어가 있으며, 정문연본에는 「황복원대가」나 『북설습령』이 보이지 않는다. 문중본의 이런 구성 차이는, 처음부터 「황복원대가」를 제외한 본문만 필사했던 탓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전부를 필사했었다면 손자 이만송(李晩松)의 주도로 문집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시로 구성된 「황복원대가」가 지리지인 『남환박물』과 성격이 맞지 않다고 판단해 빼버리고 같은 성격의 『북설습령』을 붙여 넣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판본들을 비교 검토해본 결과, 이형상 목사가 『남환박물』의 초고를 잡아가기 시작한 시점은 제주목사에서 파직되어 호연정으로 돌아간 1703년 후반으로 보인다. 1704년 원고가 완성되자, 「황복원대가」와 차운한 원래의 시들까지 깨끗하게 필사해 윤두서에게 보냈다[박물관본]. 이 판본을 필사해 문중에 보관해오던 것이 문중본[정문연본·문화재청본]이다. 정문연본에는 1706년 내용까지, 문화재청본에는 1716년 내용까지 추가되어 있다. 결국 문화재청본이 더 오랫동안 문중에 남아있던 판본이며, 정문연본은 그 중간에 영인된 판본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다만 언제 누구에 의해 내용이 추가되었는지는 미상이다. 따라서 조카사위인 윤두서에게 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저술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번 번역의 저본으로 삼은 박물관본이 완성본, 이른바 정본(定本)인 것이다. 원문은 박물관본을 기준으로 삼아 세 판본을 비교하면서 교감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자료로서의 가치를 고려해 문중본[정문연본·문화재청본]의 내용은 주석으로 처리해 두었다.

새삼스럽지만, 이 저술은 책 제목에서도 언급되듯 제주 최초의 박물지이다. 지리지로서는 답을 수 없는 제주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시시콜콜 기록해 놓았다. 당시 제주에 관한 백과사전이라 보아도 무리가 없을 정도이다. 또한 이번 번역의 저본인 박물관본에는 이형상 목사의 「황복원대가」까지 실려 있어 더욱 가치가 높다. 이는 156운(韻)이라는 장편의 배율로 이번 번역에서 처음 소개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이형상 목사가 제주와 관련해 남긴 대표적인 저술로 『남환박물』 이외에도, 『탐라장계초』, 『탐라록』 등이 있다. 이들 모두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2020년 『탐라록』, 2021년 『탐라장계초』가 번역 출간되었다. 또한 거의 같은 시기에 이형상 집안 소장 간찰집이 몇 해에 걸쳐 번역 출간이 완료되었다. 올해 『남환박물』을 마지막으로 이형상 목사가 남긴 제주 관련 주요 기록들에 대한 번역이 마무리 된 셈이다.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노정래 관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들의 배려가 있었다. 오문복(吳文福) 선생님의 격려가 있었으며, 김익수(金益洙) 선생님은 교감과 교정에 까지 도움을 주시면서 이 번역의 가치를 되새기는 여러 조언까지 아낌이 없으셨다. 이에 대한 보답은 훗날 우리 두 역자의 공부가 더 깊어진 연후에 기약할 수 있는 일이며, 두 분 선생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역시 곱게 새긴다.

역자 識.

목 차

역자 서문 3

남한박물관 南宦博物	10	158	9
읍의 호칭을 기록하다[誌邑號]	11	158	9
노정(路程)을 기록하다[誌路程]	12	158	9
바다를 기록하다[誌海]	14	159	11
섬을 기록하다[誌島]	16	160	13
기후를 기록하다[誌候]	21	162	20
지리를 기록하다[誌地]	22	162	22
형승을 기록하다[誌勝]	37	169	37
사적을 기록하다[誌蹟]	43	171	41
성씨를 기록하다[誌姓]	49	175	48
인물을 기록하다[誌人]	50	175	48
풍속을 기록하다[誌俗]	52	176	50
문(文)을 기록하다[誌文]	65	182	59
무(武)를 기록하다[誌武]	67	182	61
밭을 기록하다[誌田]	68	183	62
산물(産物)을 기록하다[誌産]	69	183	63
날짐승들을 기록하다[誌禽]	70	183	63
들짐승들을 기록하다[誌獸]	71	183	63
풀들을 기록하다[誌草]	72	184	64
나무들을 기록하다[誌木]	73	184	64
과일을 기록하다[誌果]	75	184	65
말과 소를 기록하다[誌馬牛]	80	186	68
물고기를 기록하다[誌魚]	84	187	73
약재들을 기록하다[誌藥]	87	188	75

공물(貢物)을 기록하다[誌貢]	90	189	76
부역(賦役)을 기록하다[誌賦役]	94	190	80
사당(祠堂)을 기록하다[誌祠]	95	190	81
관방시설들을 기록하다[誌關防]	101	192	88
봉수(烽燧)를 기록하다[誌烽]	102	193	89
창고를 기록하다[誌倉]	103	193	90
관청 건물들을 기록하다[誌廳]	104	193	90
군사를 기록하다[誌兵]	107	194	92
공인(工人)들을 기록하다[誌工]	109	194	94
노비(奴婢)들을 기록하다[誌奴婢]	110	194	94
서리(胥吏)들을 기록하다[誌吏]	111	195	94
행실(行實)을 기록하다[誌行]	112	195	95
고적(古跡)을 기록하다[誌古]	114	195	96
이름난 관리들을 기록하다[誌名宦]	121	199	100
황복원대가 荒服願戴歌	126	200	105
점필재의 탁라가 원운을 붙임[附佔畢齋毛羅歌]	141	203	115
충암 김정의 우도가 원운을 붙임[附金冲庵牛島歌]	145	204	118
금남 최부의 탐라시 35절구 원운을 붙임[附崔錦南耽羅詩三十五絶]	148	204	120

南宦博物 原文 157

찾아보기(索引) 207

南宦博物 影印本 우철

남원박물관

南宮博物

남환박물관 南宦博物

효언(孝彦)¹⁾이 편지로 탐라(耽羅)의 고적(古蹟)을 물으면서, ‘장차 기이한 견문을 넓히려 합니다.’라고 하여, 『남환박물관(南宦博物)』 13,850여 언을 지었고, 편지로 주었다. 갑신년(甲申年, 1704) 초가을, 영양(永陽)의 호연정(浩然亭)에서.²⁾

1) 효언(孝彦): 윤두서(尹斗緒 1668~1715)이다. 자는 효언, 호는 공재(恭齋), 본관은 해남이다. 윤선도의 증손이다. 윤두서의 첫째 부인이 지봉(芝峯) 이수광(李睟光)의 증손녀, 두 번째 부인이 이형상의 형인 이형징(李衡徵)의 딸이었으므로, 윤두서는 이형상의 조카사위가 된다.

2) 갑신년……호연정에서: 박물관본에서만 보이는 내용이다. 문중본[정문연본·문화재청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읍의 호칭을 기록하다[誌邑號]

본래 구한(九韓)의 하나이며, 처음에는 탁라(毛羅)라고 불렸다. [『안홍기(安弘記)³⁾』에 구한을 열거했는데, 탁라는 네 번째 위치한다.]

간혹 탐라(耽羅)라고 불렸다. [신라 때에 봉해졌다. 고후(高厚) 등이 탐진(耽津)에 정박하고, 신라에 조회했기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다. 탐진은 지금의 강진현(康津縣)이다.]

간혹 탐모라(耽牟羅)라고 불렸다. [백제 때에 봉해졌다. 한문공(韓文公) 역시 탐모라(耽牟羅)⁴⁾라고 하였다.]

간혹 동영주(東瀛洲)라고 불렸다. [세상에서 전하길 “진나라·한나라 두 황제가⁵⁾ 신선을 찾을 때에 방사(方士)들이 삼신산(三神山)이라고 칭했던 것은 모두 우리 동방에 있고, 금강산은 봉래산(蓬萊山)이고, 지리산은 방장산(方丈山)이고, 한라산은 영주산(瀛洲山)이라 하였는데, 더구나 이 섬에 동영주산(東瀛洲山)이 있으니, 원래 이 산을 말하는 것이리라.]

제주(濟州). [고려 충렬왕(忠烈王) 21년 을미년(1295)에 제주로 바꾸었다.]

3) 『안홍기(安弘記)』: 신라 진평왕 대 승려 안홍(安弘)과 관련된 기록인 『해동안홍기(海東安弘記)』를 말한다.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4) 한문공(韓文公)……탐모라(耽牟羅): 한문공은 당나라 때 문장가인 한유(韓愈, 768~824)를 말한다. 유종원과 함께 고문운동을 이끌었다. 인용문은 『창려집(昌黎集)』 「송정상서서(送鄭尚書序)」에 나온다.

5) 진나라·한나라 두 황제: 진시황(秦始皇)과 한무제(漢武帝)를 말한다.

노정(路程)을 기록하다[誌路程]

섬의 둘레는 458리이며,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178리이다. 북쪽으로 바다까지 1리이며, 남쪽으로 바다까지는 120리이다. 큰 길을 따라 돌면 370리이다. 동쪽으로 정의현(旌義縣) 경계까지 80리이며, 서쪽으로 대정현(大靜縣) 경계까지는 81리이다.⁶⁾

자(子)방으로 해남(海南) 관두량(館頭梁)까지 970리이다. [조천관(朝天館)에 묻혀있던 돌을 발견했는데, 옛날에 새긴 기록이 이와 같다. 내가 몸소 건너보니, 600여 리를 넘지 않을 듯하다.]

을(乙)방으로 대마도(對馬島)까지 2,000여 리이다.

진(辰)방으로 강호(江戶) [왜(倭)의 수도이다.]까지 4,000여 리이다.

선(巽)방으로 옥구도(玉球島) [일본(日本)에 있다.]까지 3,000여 리이다.

사(巳)방으로 일지도(一岐島) [일본(日本)에 있다.]까지 3,500여 리이다.

병(丙)방으로 여인국(女人國)까지 8,000여 리이다.

오(午)방으로 유구국(琉球國)까지 5,000여 리이다.

정(丁)방으로 안남국(安南國)까지 17,000여 리이다.

미(未)방으로 섬라국(暹羅國)과 점성(占城)까지 10,000여 리이다.

곤(坤)방으로 영파부(寧波府)까지 8,000여 리이다.

신(申)방으로 소주(蘇州)·항주(抗州)까지 7,000여 리이다.

경(庚)방으로 양주(楊州)까지 7,000리이다.

신(辛)방으로 산동성(山東省)까지 10,000여 리이다.

술(戌)방으로 청주(靑州)까지 10,000여 리이다. [다른 나라에서 표착한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이와 같다. 본도에서 표류했다가 돌아온 사람 중에도 나이가 있고 일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어볼 때마다 이와 같이 말했다.]

대개 제주도에서 육지로 나가려면, 정남풍이 필요하다. 배는 조천관(朝天館) 또는 화북포(禾北浦)를 경유해서 바다로 나간다. 화탈도(火脫島)·사서도(斜鼠島) 사이로 나와서, 보

6) 북쪽으로……81리이다. 이는 제주읍성을 기준으로 한 거리이다.

길도(甫吉島)의 경두(鯨頭)를 거쳐 광아도(廣鵝島) 앞길을 나가 갈두포(葛頭浦)·어란포(魚蘭浦)에 이르면 영암(靈巖)이고, 배가 이진(梨津)이나 가리포(加里浦)에 도착하면 강진(康津)이고, 배가 관두(館頭)나 완도(莞島)에 도착하면 해남(海南)이다. 그때 혹 옆바람을 만나면 표류하여 벗어나기도 한다. 화탈도(火脫島) 안쪽이면 추자도(楸子島)에 정박하고, 화탈도(火脫島) 밖이면 진도(珍島)에 정박한다.

또 서쪽이면 흑산도(黑山島)·홍의도(紅衣島)·가가도(可佳島)이고, 더 서쪽으로 가면 바깥 큰 바다이다. 간혹 서풍(西風)에 백량(白梁)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다. 또 동쪽으로는 동여서도(東餘鼠島)이고, 또 그 동쪽은 청산도(靑山島)이고, 또 그 동쪽은 삼도(三島)이다. 불행하게도 또 동쪽이나 남쪽은 옥구도(玉球島)나 일지도(一岐島)인데 곧 거기에 표착하게 된다.

만약 대정(大靜)에서 배를 띄우면 서풍에 백량(白梁)에 도착할 수 있다. 정의(旌義)에서 배를 띄우면 동풍에 추자도(楸子島)에 도착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출발하는 배를 점검하는 관례가 있는데 [목사와 군관이 장부와 이름을 점검하여 간특하고 거짓된 행위를 막는다.] 화북(禾北)·조천(朝天) 두 포구 이외에는 의례 다른 제방에서 출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또 한라산 일대가 그 남쪽을 자른 듯 막고 있다 해도 비록 순풍을 얻을지라도 해도 큰 바다 앞에 이르기 전에 바람이 회오리쳐 돌면 돛을 펼치기에 불리하다. 이것이 후풍(候風)이 어려운 까닭이다.

바다를 기록하다[誌海]

전라도(全羅道) 남해(南海) 밖은 이른바 추자도(楸子島)·동여서도(東餘鼠島)·청산도(靑山島) 등의 섬이 있다. 이 섬들은 내양(內洋, 안쪽바다)의 끝자락에 있다. 서쪽 추자도(楸子島)에서 동쪽 청산도(靑山島) 일대는 ‘제해(濟海, 제주로 가는 바다)’라 이르고, 또 ‘수종(水宗, 물마루)’이라고도 칭한다. [두 물이 교차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컫는 것이지, 실제 물마루는 아니다.]

바다의 형태는 남쪽이 낮고 북쪽이 높다. 들어갈 때는 순류이지만, 나올 때는 역류이다. 그 곳의 바다는 검푸른 빛이고, 수심이 매우 깊다. 뱃사람에게 새끼줄로 재어보게 하니, 모두 150장(丈)이었다. 동해(東海)는 비록 조수가 없다고 해도, 이곳은 날마다 두 차례씩 조수가 드나든다. 다만 서해(西海)만큼 조수가 빠르지는 않으며, 불어나는 것도 몇 장(丈)에 그치는데 불과하다. 혹시 모든 물이 모여드는데 땅이 동남쪽은 부족하기 때문에 오르내리는 압력이 육지와 달라 조수의 출입이 세차지 않은 것인가? 마도(馬島)의 위아래에서 나와 청산도(靑山島)·추자도(楸子島)의 앞뒤를 경유한 조류는 전라도(全羅道)·충청도(忠淸道) 지경으로 들어간다. 대탈도(大脫島) 안팎을 경유하여 들어가는 조류는 산둥(山東)·청주(靑州)·제주(濟州) 지역으로 흘러든다. 이곳에서 나중에 두 조류가 서로 만나 교차하며, 물결은 매우 광활하다. 물결이 대단히 높아 표착했던 외국 배들이 거의 모두 침몰했던 것이다. 만약 순풍이 충분하지 않으면, 며칠간 이 바다를 빠져나갈 수 없고, 소용돌이치는 곳에서 빙빙 돌며 오락가락할 뿐이다. 예전에 중국으로 가는 왜선들은 바람을 받지 못하거나 길을 헛갈리는 경우를 제외하면 절대 이곳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들이 흑 바람 따라 이곳에 이르면, 그때마다 기울어지고 침몰했으니, 이것이 제주 북쪽 바다의 바닷길이다.

한라산 남쪽은 모두 바깥 바다로 이어지고, 바다에서 돛을 펴고 왕래하는 배를 가끔 바라보면 간혹 대포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아마 이는 오(吳)·월(越)에서 장기도(長崎島, 나가사키)로 가는 직항로이기 때문이다.

최부(崔溥)의 『금남표해록(錦南漂海錄)』⁷⁾에는 “추자도(楸子島) 앞 초란도(草蘭島)에서

7) 최부(崔溥)의 『금남표해록(錦南漂海錄)』: 최부(崔溥, 1415~1504)는 조선 성종 때 제주추쇄경차관(濟州推刷

7일 밤낮을 표류하여 푸른 바다를 지나, 백해(白海)에 들어섰다.”라고 했다. 지금 한라산에 올라 바라보면 서쪽 끝에 모래사장 같은 하얀 빛이 있는데, 아마도 백해(白海)가 바라보였던 듯하다.

敬差官)으로 제주에 부임하였다. 부친상으로 돌아가던 중, 표류하여 중국 영파에 이르렀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절강성, 강소성, 요동성 등을 거쳐 조선에 입국하였다. 귀국 후에 성종의 명으로 『금남표해록(錦南漂海錄)』을 작성하였다. 이 책은 중국 강남에 표류하여 육로로 귀국까지를 기록한 중국기행기이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책이다. 국문은 물론 에도시대 일본어로 번역되기도 하였다.

섬을 기록하다[誌島]

묘(卯)방에 우도(牛島)가 있는데, 누운 소의 모습이다. 정의현 지역으로 별방진(別防鎭)과 수산진(首山鎭) 사이에 있다. 나무는 없고, 닥나무만 생산된다. 이번 정축년(1698)에 새로 목장을 설치하였다.⁸⁾ 둘레는 50리이다. 물길은 10리인데, 파도가 매우 험하여 건너기가 어렵다. 동남쪽에 어룡굴(魚龍窟)이 있고, 천연 돌집의 모습이 마치 대롱을 파놓은 것 같다. 길이는 800~900척이고, 폭은 200척이다. 돛을 펴고 노저어 들어가면 돛대도 들어갈 높이다. 햇볕이 물에 떠서 빛나고 푸른 유리마냥 맑고 차갑다. 바다 기운이 사람을 따듯하여 온돌에 들어간 것 같다. 그 바닥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여지지(輿地誌)』·백호(白湖) 임제(林悌)의 『소승(小乘)』·충암(冲庵)⁹⁾ 김정(金淨)의 『풍토록(風土錄)』·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의 『남사록(南槎錄)』 등에서 모두 “세속에서 신룡(神龍)이 머무는 곳이라고 하는데, 가까이 가면 가끔 큰 바람과 우레 비가 내리쳐서 나무를 뽑고 벼를 손상시킨다. 마주한 해안에서도 역시 북과 뿔피리 소리, 닭과 개 소리도 금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우레와 바람에 의한 재앙이 유달리 이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수령(守令)·교수(教授)·막료(幕僚)·이민(吏民)들이 서로 아뢰고 나에게 간언했지만 신설한 목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보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나는 길에 들려 들어가는데, 옆에는 수우(水牛)¹⁰⁾가 있었는데 놀라 울부짖으며 바다로 뛰어 들었고, 소리가 마치 산을 치는 듯했다. 또 괴이한 새가 있었는데 흰 기러기 같은 모습이지만 조금 컸다. 색은 푸르고 부리는 고왔고 두 다리 모두 붉은색이었다. 수백 마리가 무리를 지어 어지럽게 날아갔다. 이는

8) 새로 목장을 설치하였다: 우도목장 설치를 말한다. 우도목장은 유한명(柳漢明) 목사 때 신설되었다.

9) 충암(冲庵): ‘庵’과 ‘菴’은 이체자로서 같다. 원문에서도 혼용하고 있는데 이하는 원문표기를 따른다.

10) 수우(水牛): 미상. 물소로 번역되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물소는 아니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울릉도에 대해 변증하면서, 『문헌비고』를 인용하며 “바다 속에 소처럼 생긴 큰 짐승이 있는데, 눈동자는 붉고 꼬리는 없으며, 떼를 지어 바닷가 언덕에 나와 누워 있다가 혼자 가는 사람을 보면 해(害)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 달아나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름을 가지(可之)라 한다. 상고하건대, 그 짐승의 가죽은 물에 젖지 않으므로, 안장·풀무·가죽신 등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는 울릉도의 강치를 설명한 것이다. 이형상이 본 것 역시 강치로 생각된다.

분명 다른 바다에는 없는 새였다. 늙은 어부들끼리 전해지지만, 옛날부터 그 이름은 알지 못한다고 한다. 굴은 전부 남쪽으로 향해 있는데, 더구나 인적이 없기 때문에 와서 깃드는 것이다. 앞에는 돌로 둘러 있어 통하는 곳이 없어 보이지만, 조금 들어가면 처음부터 깎여진 듯한 돌문이 있었다. 배를 타고 그 가운데 들어가면 역시 5~6척의 배를 숨길 수 있었다. 공기는 싸늘하여 모골이 송연한데, 물빛은 그윽하여 마치 귀신과 괴물이 있어 음침한 모양으로 모여 있는 듯하였다. 올려다보면 흰 돌이 둥글둥글한데 마치 해·달·사발·술잔·거위알·탄환과 같은 것들이 북두성처럼 흩어져 있었다. 대개 굴 전체가 모두 검푸른 빛인데 흰 돌이 사이사이에 있어, 별과 달처럼 빛을 내는 것이었다. 이날 날씨는 맑고 바람은 없었으니, 속설은 거짓이었다.

해(亥)방에는 대화탈도(大火脫島)가 있다. 도근천(都近川)과 마주하고 있으며, 추자도가 서남쪽에 있다. 대화탈도는 제주에서 추자도의 반 정도 되는 지점에 있다. 주위 몇 리가 모두 돌이며, 뽕족 솟은 데는 가파르게 깎여 있다. 샘은 있지만 나무는 없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풀은 부드럽고 질겨 그릇을 만들 수 있다.

건(乾)방에는 소화탈도(小火脫島)가 있고, 애월(涯月)과 마주하고 있다. 대화탈도에 비해 작으며 서남쪽에 있고, 역시 모두 돌 병풍을 이루고 있다. 두 섬 사이는 파도가 매우 세차게 일어 많은 배들이 바위에 부딪치고 쪼개져 정박할 수 없다. 이곳을 왕래하는 사람들도 매우 괴로워 한다.

술(戌)방에는 비양도(飛揚島)가 있고, 명월(明月)과 마주하고 있다. 물길로 5리이며, 주위는 10리이다. 전죽(箭竹)¹¹⁾이 생산된다. 최영(崔瑩)이 합적(哈赤)을 토벌할 때 이곳에 정박하였고, 명월에서 적을 깨뜨렸다.

대정(大靜) 서쪽에는 죽도(竹島)가 있다. 물길로 10리이고, 사면이 모두 돌이다. 동남쪽에 배를 정박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죽도(竹島) 남쪽에 개파도(蓋波島, 가파도)가 있다. 물길로 30리이며, 둘레는 40리이다. 나무는 없고, 풀만 무성하여 개인의 말 목장이 되었다. 고려(高麗) 목종(穆宗) 5년(1002) 6월에 바다 가운데에서 산이 용출하였다. 산에 구멍 4개가 뚫리고 용암이 용출하더니, 5일 있다가 멈추었고, 모두 기와돌이 되었다. 10년에 서산(瑞山)이 바다 가운데에서 용출하여, 태학박사(太學博士) 전공지(田拱之)를 보내어 가서 보게 하였

11) 전죽(箭竹): 화살을 만드는 대나무를 말한다.

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산이 처음 솟아나올 때에 구름과 안개가 어둑하게 깔리고 땅이 우레와 같이 진동하는게 모두 7일 밤낮이었다. 비로소 개이니, 산의 높이는 100여 장(丈) 정도 되고 둘레는 40여 리였다. 풀과 나무는 없고 늘 연기가 그 정상에 짙게 끼어 있었으며, 바라보면 돌 유황(硫黃)과 같았다. 공지(拱之)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었고, 직접 산 아래에 가서 그림으로 그려 올렸다.” 『여지지(輿地誌)』에는 “지금 대정에 속한다고 하니, 아마 이 섬인 듯하다.”라고 하였고, 『남사록(南槎錄)』에는 제주목의 비양도(飛揚島)가 그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비양도의 둘레는 10리가 되지 않는다. 또 우도(牛島) 이외에는 본디 30~40리 정도 되는 섬이 없다. 『고려사(高麗史)』에서 그랬다는 40여 리라는 것은 이 섬이 아니라면 비슷한 것이 없다. 늙은이나 이민(吏民)들에게도 전하는 이야기가 없으니 때마침 파문힌 것일까?

개파도(蓋波島, 가파도) 동남쪽에 마라도(摩蘿島)가 있다. 물길로 20리이고, 둘레는 5리이다.

마라도(摩蘿島) 동쪽에 관도(貫島)가 있다. 둘레는 5리이고, 돌이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다. 그 동쪽에 또 큰 돌이 있는데, 우뚝 선 것이 마치 성문과 같다. 세속에서는 ‘팔운석(八雲石)’이라 부른다.

정의현(旌義縣) 서쪽에 호도(虎島)가 있다. 『여지(輿地)』에서 말한 범도(凡島)이다. 석벽이 빙 둘러 서 있고, 잡풀들이 뺨뺨하여 오갈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다.]

두락도(斗落島). [지지(地誌)에서 말한 두락(豆落)이다.]

독도(秃島). [지금의 문도(文島)이다. 제주의 돌은 모두 거친 검은 빛인데, 유독 이 섬만은 하얀 빛갈이며, 깎아 문지른 듯하다. 또 기이한 너럭바위와 괴이한 절벽이 많다.]

삼도(森島)·지귀도(知歸島)·초도(草島)는 모두 홍로고현(洪爐古縣)에 있는데, 해안에서 가깝고 크기는 작다. 고려 말 원(元)나라 목자 석가을비(石加乙碑)·초고도보개(肖古道甫介) 등이 도망쳐 이 섬에 웅거하였고, 최영(崔瑩)이 전선을 모아 포위하고 밧줄로 병사를 올려 보냈다. 초고도보개는 벼랑에서 떨어져 죽었고, 석가을비는 사로잡혔다. 위의 섬들은 삼읍(三邑)에 소속되어 있고, 모두 사람이 살지 않는다.

추자도는 영암군(靈巖郡)에 속해 있고, 둘레가 30리이다. 두 개의 봉오리가 우뚝하고, 풀과 나무가 뺨뺨하다. 제주 북쪽 임(壬)방과 자(子)방 사이에 있고 물길로 770리이며 [전하는 말은 이와 같지만, 500리에 불과하다.], 보길도(甫吉島)에서는 70리이다. 보길도(甫吉島)에

서 어란포(魚蘭浦)까지는 30리이다. 수점(水站) 옛 터가 있고, 성균관에서 둔감(屯監)¹²⁾을 두었다. 신도(身島)가 바로 그 주봉(主峯)이다. 고려 삼별초의 난 때에 김방경(金方慶)과 몽고장군 혼도(忻都)가 이곳에서 바람을 기다렸고, 마침내 큰 공을 세웠다. 제주사람들이 이를 생각하여 후풍도(候風島)라고 불렀다. 대정 지역과 마주하고 있다.

청로도(淸路島)·지도(知道)·초란도(草蘭島)·수덕도(愁德島) 4개 섬은 모두 추자도 서남쪽에 있는데, 20~30리의 거리이다. 바위의 형세가 험악하고 또 물과 샘이 없다. 옆바람으로 이곳에 도착하면 해안에 내리지 못하고 섬에 의지해 닻을 내려 잠시 풍랑을 피할 뿐이다. 금남(錦南) 최부(崔溥)가 닻줄이 끊겨 표류한 곳이 초란도(草蘭島)이다.

또 작은 섬 하나가 있는데, 파도 위에 쪽진 머리처럼 솟아 있다. 제주 사람들은 유녀도(遊女島)라고 부른다. 『남사록(南槎錄)』에서 말하였다. “제주는 여자 숫자가 남자의 배가 되어 지아비가 없는 여자가 많고, 먹고사는 것이 매우 어렵다. 북쪽 상인들이 장사하러 들어오게되면 고을 유녀(遊女)들이 머리를 빗고 곱게 단장하여 포구에서 촘촘히 모여 바라본다. 멀리서 이 섬을 바라보면, 마치 큰 배가 돛을 펼친 듯하여 상선으로 착각하고는 서로 돌아보며 기뻐한다. 호사자(好事者)들이 이 때문에 이 섬을 이렇게 이름 지은 것이다.”

흑산도(黑山島)는 제주에서 서북쪽으로 1,500여 리 거리에 있고, 둘레는 35리 이다. 예전에 흑산현(黑山縣)으로 일컬어졌고, 유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 『송사(宋史)』에 명주(明州) 정해현(定海縣)에서 순풍을 만나면 3일 만에 바다로 들어서고, 또 5일이면 흑산도에 도착한다고 하니, 바로 이 섬이다. 지금 둔감(屯監)이 있고, 나주(羅州)에 속해 있다. 나주(羅州)와의 거리는 물길로 900리이다.

가의도(紅衣島)·가가도(可佳島) 두 섬은 나주(羅州)지방 소속이고, 흑산도 서남쪽에 있다. 제주에서의 거리는 1,200여 리이고, 나주에서는 물길로 1,300리이다. 모두 사람들이 살고 있다.

사서도(斜鼠島)는 추자도 동남쪽에 있다. 둘레는 3리이고, 제주에서의 거리는 700여 리이다. 사람이 사는 집은 없다. 항구가 있기 때문에 어선들이 많이 모여든다. 제주를 오가다 바람을 잃은 배들이 이 섬 덕에 많이들 온전할 수 있었다.

동여서도(東餘鼠島)는 강진(康津)에 소속되어 있다. 사서도(斜鼠島) 동쪽에 있고, 제주의 별방진(別防鎭)과 마주하고 있다. 물길로 900여 리 떨어져 있다. 사람도 없고 항구도 없

12) 둔감(屯監): 둔토(屯土)를 감독하는 벼슬을 말한다. 둔토는 관공서가 관리하는 공적 토지를 말한다.

어, 표착한 사람들에게 해가 될 뿐 도움이 안된다.

청산도(靑山島) 역시 강진(康津)에 소속되어 있다. 동여서도(東餘鼠島)의 동북쪽에 있고 정의현 지경과 마주하고 있다. 물길로 1,100여 리이고, 사람들이 많고 항구는 평온하다.

삼도(三島)는 청산도(靑山島) 동남쪽에 있다. 제주에서 1,400여 리 떨어져 있다. 전민(田民)들은 장흥부(長興府)에 예속되어 있다.

백량(白梁)은 본래 해남현(海南縣)의 백도(白島)이다. 서쪽에 보길도(甫吉島)가 있고, 동쪽에 서안도(鋤安島)가 있다. 자지도(者只島)가 앞에 있고, 노도(露島)가 뒤에 있다. 동광아도(東廣鵝島)·서광아도(西廣鵝島)가 또한 보길도 서쪽에 있다. 대저 토지는 비옥하고 나무는 뾰뾰하다. 거주민이 많고 경치도 빼어나다.

완도(莞島)는 백량(白梁)의 동북쪽에 있다. 둘레는 290리이다. 바로 신라(新羅) 때의 청해진(淸海鎭)이다. 진도(珍島)의 벽파진(碧波津)과 함께 모두 해남(海南)에 속해 있다.

거추리도(巨趨里島)는 둘레가 30리이다.

매응골도(每應骨島)는 둘레가 15리이다.

대마월도(大磨月島)는 둘레가 20리이다.

죽향도(竹項島)는 둘레가 10리이다.

도거유도(道巨有島)는 둘레가 20리이다.

모두 진도(珍島) 남쪽에 있다. 백량(白梁)에서 이곳까지를 내양(內洋, 안쪽바다)이라한다. 위의 섬들은 육지 읍에 소속되어 있다. 민가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기후를 기록하다[誌候]

지지(地誌)에서 말했다. “봄·여름에는 구름과 안개에 바다가 킁킁하고, 가을과 겨울에야 갠다. 초목과 곤충은 겨울이 지나도 죽지 않는다. 폭풍이 많다.”

『풍토록(風土錄)』에서 말했다. “이 고을의 풍토는 별다른 구역이어서, 모든 일이 다르다.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서늘하며 날씨가 변화무쌍하다. 바람은 따뜻한 듯하지만, 날카롭게 옷 속을 파고든다. 입고 먹는 것은 조절하기 어려워 생병에 걸리기 쉽다. 게다가 구름과 안개가 늘 덮여 있고 수증기와 습기로 푹푹 찐다. 땅에는 벌레가 많고 파리와 모기는 더욱 심하다. 지네·개마·지렁이와 같이 꿈틀거리는 벌레들이 모두 겨울이 지나도록 죽지 않는다.”

『남사록(南槎錄)』에서 말했다. “내가 9월에 닳을 내렸고, 정월에 돛을 걸었다. 바로 개일 때이지만, 그 사이 5개월 동안 해·달·별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겨우 10일이었다. 이밖에도 항상 흐린 날씨는 개이지 않았다. 비가 오지 않으면 눈이 내렸고, 바람은 불지 않는 날이 없었다. 가난하여 옷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은 멍석에 구멍을 뚫은 도롱이를 걸쳐 겨울 추위를 막았다. 서울에서 죄를 짓고 들어와서 옷 없이 헐벗는 사람들 역시 풍속을 따라 추위를 견딘다. 백성들은 골골거리며 부스럼이 몸에 가득한 사람들이 많은데, 틀림없이 이는 풍토병에 걸린 것이다.” 또 말하길 “봄·여름 낮에 안개가 끼면, 온 섬이 마치 시루 가운데 있는 것 같아 지척도 구분할 수 없고, 사람과 마주 앉아 있어도 얼굴은 보이지 않고 그저 말소리만 들린다.”

그런데 내가 1년을 지내다가 나왔는데, 그 사이 회오리바람이 많기는 해도 모진 정도는 아니었고, 낮 안개와 눈이 내리는 것도 자주 심하지 않았다. 1개월 동안 습하고 흐린 날은 4~5일에 불과하다. 마주하고 있어도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어찌 옛날과 지금이 달라서 그런 것이 겠는가? 뱀·땅강아지·나비·나방·거미와 같은 벌레는 겨울과 여름동안 내내 살아있다. 한문공(韓文公)의 조주시(潮州詩)에서 “혹한에도 부채를 흔들고, 한여름에도 겹으로 갖옷을 입네¹³⁾”라고 한 말은 거짓이 아니다.

13) 혹한에도…… 입네: 원문은 ‘궁동혹요선 성하혹중구(窮冬或搖扇 盛夏或重裘)’이다. 이 구절은 한유의 「赴江陵途中寄贈王二十補闕李十一拾遺」에 나온다.

지리를 기록하다[誌地]

제주는 전라도(全羅道)에 예속된 지역이고, 방성(房星)의 분야(分野)이다. [우리나라의 기미성(箕尾星) 분야와는 다른 지역이니, 풍토가 다른 것은 당연하다.] 산천(山川)의 형국(形局)은 육지와 크게 다르다. 지면은 평평하고 완만하고 산기슭이나 산줄기는 전혀 없다.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낮은 산들은¹⁴⁾ 간간히 언덕과 골짜기를 이룬다. 혹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에서 산을 ‘오름[兀音]’이라 한다.] 봉우리가 뽕족하거나 가파르지 않고 꼭대기에는 고인 연못이 많다. 평지에서 돌출되어 있어 마치 산을 만든 것 같다.

하천은 모두 땅속으로 스며든다. 폭우로 물이 불어나는 때가 아니면 모두 말라 있다. 이쪽 골짜기의 물은 저쪽 산 기슭 밖으로 멧대로 스며 나온다. 대개 돌이 쌓인 산에 흙이 얽게 덮여 있기 때문이다.

수풀은 [방언에서는 꽃자왈을 ‘꽃[花]’이라고 한다.] 산허리 아래로 평원과 골짜기 곳곳에 숲을 이룬다. 넓은 곳은 50~60리이고, 좁은 곳도 10여 리는 된다. 높은 나무가 하늘을 찌르고 해와 바람을 가리며, 등나무 덩굴이 첩에 얽히고 휘휘 감겨 그물을 펼친 것 같다. 섬 전체의 형승은 대개 이와 같다.

내가 처음 바다를 건널 때, 배가 보길도(甫吉島) 앞바다를 나오니 멀리 한라산이 바라보였다. [한라산(漢拏山)이라고 한 것은 은하수를 끌어당길 만하다는 것이다. 두무악(頭無岳)이라고도 하는데, 봉우리가 모두 평평하기 때문이다. 원산(圓山)이라고도 하는데, 길게 구부러져 둥그렇기 때문이다. 부악(釜岳)이라고도 하는데, 정상에 연못이 있어 마치 솥과 같기 때문이다. 높이는 60리이고, 길이는 200리이다. 하늘로 매우 높이 솟아 삼읍(三邑)에 자리를 점거하고 있다. 바라보면 높아 보이지는 않아도, 구름과 안개가 늘 산허리에 있으니, 그 높이를 상상할 수 있다.] 한라산은 구름 밖 하늘로 높이 솟아 있어 마치 일자(一字) 병풍이 남쪽 지축을 가린 것 같다.

무릇 보이는 것은 모두 바다이다. 높은 파도와 [성이나 집채 같고 획하니 왔다가 획하니

14) 멀리……산들은: 원문은 ‘요연음사(遼然陰沙)’이다. 음사는 풍수 용어로, 사격(沙格) 또는 사격(砂格)이라고 한다. 평지에 낮게 솟은 산의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다.

간다.] 큰 물결이 넘쳐난다. [물과 하늘에 맞닿아 있고 끝없이 펼쳐져 있다.] 고래 [벃머리에 출몰하고 물줄기를 뿜으면 허공을 가린다.]와 날치 [모습은 송어[秀魚]와 같고 길이는 1척이다. 골격과 날개는 맑고 얇아, 물에서 1장 정도 떠서 100보 정도를 재빨리 날아간다. 또 다른 물고기가 있는데, 날치가 떨어지는 장소에 미리 가 있다가, 날치가 물로 들어오는 족족 모두 잡아먹는다. 벃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물고기는 날치를 매우 좋아하여, 재빨리 먼저 가서는 잡아먹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제주도에 들어온 후 날치 맛을 보니, 송어[秀魚]보다 뛰어났다.]들은 눈에 낫설지 않은 것이 없었다. 내가 일찍이 동해와 서해를 본 적이 있는데, 비록 바다가 넓다고 해도 섬 사이에 있었다. 또 언덕 위에 있어 마음속으로는 의지할 곳이 있었는데, 그 바다가 이렇게나 클 줄은 몰랐다.

늦봄이 되어 [임오년 3월 25일이었다.] 바람은 빠르고 조수는 급해졌다. [배는 매우 빨리 달렸다. 벃사람들이 “탄환도 뒤쳐질 것입니다.”고 하였는데, 겪고 보니 그 말이 맞았다.] 사시(巳時) 끝에 돛을 걸었고, 술시(戌時) 초에 닻을 내렸으니, 바로 제주였다. 집집마다 굴나무이고, 곳곳에 화류마(驪駒馬)가 있었고, 기이한 너럭바위와 물속의 검은 바위에 기쁘기도 하고, 탄식이 나오기도 하였다. 다만 돌 색깔은 추악하고 흙은 뜨고 말랐으며, 구릉의 평지와 물가도 밍살스러웠다.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갑작스레 지팡이와 나막신을 갖추었다. [4월 15일이었다.] 새벽에 40리를 가서 동틀 녘 산 밑에 도착하였다. [관아터 역시 산 아래에 있다. 지세는 점점 높아지다가 이곳에 이르러 비로소 높아지고 가팔라졌다. 지지(地誌)에는 “대정(大靜)에 높고 험한 길 하나가 있다”라고 하였다. 지금은 삼읍에 각각 희미한 길이 있다.]

일대는 비단과 같고 휘황찬란하여 휘장과 치마를 드리운 듯하고, 깔개를 쪽 펼쳐놓은 듯한데, 모두 영산홍(映山紅)이었다. 붉은 꽃이 만발하고 사이에 소나무·대나무·향기로운 풀과 여린 초록빛이었다. 이것이 초반부의 흥취였다.

가마는 두고 말을 타고 계속해서 숲으로 돌아 들어가니, 계곡마다 시냇물이고 무성한 초목이 사랑스러웠다. 여러 잡목들이 하늘을 가렸고 [동춘백·산유자나무·이년목·영능향·늑각·소나무·비자나무·측백나무·황벽나무·적율나무·가시울나무·용목·저목·뽕나무·단풍나무·옷나무·후박나무], 뽕뽕하게 늘어선 것은 일산으로 가린 것 같았다. 기이한 꽃과 아름다운 풀들이 [푸르거나 흰가 하면 붉거나 노랗다.] 무성하였고, 비취빛이 도드라졌다. 괴이한 새

와 신기한 벌레들이 [크거나 작으나 하면 곱거나 밍살스럽기도 하였다.] 바위 깊숙한 곳에서 화답하듯 소리가 들렸는데, 노인이나 산척(山尺)¹⁵⁾들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였다.

때때로 사람 발길이 닿지 않은 골짜기를 바라보면, [양쪽 벼랑은 험하고 아스라하여 더위 잡고 오를 수 없다.] 굽은 소나무와 가느다란 사목이 시원하면서도 그윽하여, 마치 신선의 관(冠)과 도복을 입고 남몰래 도도히 노는 것 같았다. 만약 진나라·한나라 두 천자가 본다면, 이를 바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벽에 붙어 줄을 잡고 올랐고, 오솔길 역시 희미했다. 옷을 걷고 두건을 젖혀 쓰고 몸을 구부려 안장에 달라붙어 10여 리를 가니 비로소 햇빛을 볼 수 있었다. [수풀이 끝난 곳이었다.] 이곳이 산허리였다.

간간이 서 있는 것은 5~6장(丈) 높이의 향나무였다. [만 리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받아, 예로부터 자라지 않았다.] 한 척 정도의 대나무가 촘촘하게 땅에 깔려 있었다. 향나무는 껍질이 벗겨져 줄기가 하얗고, 대나무는 댓잎이 마르고 줄기는 꺾였으니, 그것은 바람과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은 것이었다. 말갈기와 말총이 마른 나무 위에 걸려있는 것이 있었다. 앞에서 이끄는 자가 “깊은 겨울 눈이 쌓이면 혹 100장(丈)에 이르는데, [산이 높아 눈이 많을 뿐만 아니라, 바람이 여러 봉오리를 감돌아 저절로 100장(丈)에 이르게 된다.] 산마(山馬)가 높은 꼭대기에서 굶어죽으면, 눈이 녹은 후에 고기는 까마귀와 솔개들이 쪼아 먹고, 조각조각 찢어진 가죽이 가지 끝에 아직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아! 포구 주변은 점점이 눈이 내려도 땅에 떨어지면 바로 녹는다. [섬은 날씨가 따뜻하여 겨울에도 한 조각 얼음이 없다.] 다만 이 깊은 계곡에 눈이 내리면, 골짜기를 메우고 나무까지 물어버린다. 산에 방목되어 자유롭게 놀던 저 말들도 높은 곳에 들렀다가 죽음에 이르렀으니, 사대부들은 자신이 거처할 곳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는 산길이 더욱 험해져서 걸음걸음이 위험하였다. 견여(肩輿)에 부축되어 밀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갔다. 또 10여 리에 이르니 정상이었다. 남에게 이끌리며 지팡이를 짚으며 비틀비틀 올라 바라보니, 커다란 솔 하나가 [함몰된 정상에 연못이 있어 보이는 것이 이와 같았다.] 큰 바다 가운데에 높이 지탱하고 있었다. 흙은 검붉은 빛이었고, 벽은 불에 탄 것과 같았다.

『남사록(南槎錄)』에서는 겁회(劫灰)¹⁶⁾에 비유했지만, 이것은 허무맹랑한 소리이다. 극도

15) 산척(山尺): 산에 살면서 사냥이나 약초를 캐는 사람들을 말한다.

16) 겁회(劫灰): 전란이나 세상이 멸망할 때에 일어난다는 큰불의 재를 말한다.

로 춥고 더워지다가 구름과 안개에 찌는 듯 끓는 듯하니, 토맥(土脈)이 저절로 그 성질을 잃은 것이라 생각된다. 향기로운 대나무 역시 뿌리를 붙이지 못했다. 혹 향기로운 덩굴과 철쭉이 바위틈을 휘감았고, 단단하고 낮게 서려 있었다. 화분에 심으면 모두 제일 멋진 작품이 된다. 사방으로 새나 짐승이 없었고, 땅강아지나 개미도 없었다.

산 남쪽의 풀과 나무들은 겨울 내내 푸르렀다. 벼랑 북쪽은 눈이 쌓여있고, 더운 여름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 [관가에서 쓰는 얼음 조각은 산허리에서 가져온다.] 5월에도 저고리를 입고, 8월에도 갓옷을 입는다. 가까운 거리에도 차갑고 더운 것이 이와 같으니, 변화하는 세상살이에 또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풍토록(風土錄)』¹⁷⁾에서 말했다. “산의 전체 모습은 물러난 듯해도 다시 서 있다. 그 밖에서 올려다 보면 길게 구부러져 높아 보이지 않고 비탈져도 가파르지 않은 듯하고 별판 가운데 높이 솟은 오름과 같아 그다지 높거나 험한 모습은 아니다. 나아가 더위잡고 산속으로 가다보면, 높은 바위와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구불구불한 골짜기와 굴은 킁킁한 것이 곤륜산(崑崙山)의 언덕과 판동(板洞)의 계곡¹⁸⁾과 한 가지이며, 세상을 벗어난 깨끗하고 아름다운 정취가 있다. 향아리 같은 높은 바위들이 7~8인(仞) 높이로 호랑이처럼 웅크려 있고, 웅이가 박힌 전나무는 장대와 같은데, 4~5아름으로 삼처럼 서 있다. 단향목과 박달나무와 같은 향목(香木)들은 무리지어 뻗뻗하게 자랐다. 산의 정령과 골짜기 도깨비들이 대낮에도 노닌다. 바람은 산들산들 불러오고 생황과 통소 거문고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리는 것 같고, 구름이 끼어 아지랑이를 덮었고, 비단으로 수놓은 듯한 햇살이 안팎에 깔렸다. 높은 곳은 칼과 창을 묶은 것처럼 아스라하고, 낮은 곳은 술과 책상을 던져 놓은 것처럼 울퉁불퉁하였다. 산봉우리는 얽혀 달리면서 끊어지다가 다시 이어졌고 끝내는 합쳐졌다. 구덩이 같은 골짜기는 탁 트였는데 밑은 움푹 패어 있었다. 아래는 으쓱한데 길고 넓었다. 높이는 일정치 않고 깊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어둑하며 하늘과 해를 가려 사방을 분간할 수 없었다. 이것이 한라산 동서남북의 열개였다.” 지금 형국(形局)으로 보자면, 애당초 갈려진 산줄기가 없고 온 산이 모두 돌이 쌓인 것이었다. 오랜

17) 풍토록(風土錄): 본문 내용은 『소총유고(篠叢遺稿)』 「존자암개구유인문(尊者庵改構侑因文)」의 일부이다.

18) 판동(板洞)의 계곡: ‘판송(板松)’ 혹은 ‘번동(樊桐)’이라고도 한다. 신선들이 산다는 공간인 곤륜산의 제일 아래 부분을 말한다. “곤륜산(崑崙山)은 세 층차로 되어 있는데 맨 아래는 번동(樊桐)으로 일명 판송(板松)이라고 하며 두 번째는 현포(玄圃)로 일명 낭풍(閻風)이라고 하며 세 번째는 층성(層城)으로 천정(天庭)이라고 하니 이곳이 천제(天帝)의 거처이다.〔崑崙之山三級 下曰樊桐 一名板松 二曰玄圃 一名閻風 三曰層城 一名天庭 是爲天帝之居〕”라고 하였다. 《水經注 河水》

세월에 시내가 깎아내어 산 골격이 드러나 언덕과 골짜기가 되었는데 그 모습과 정취가 여러 가지였다. 기이한 바위와 아스라한 절벽은 절로 그렇지 않은 것이 없었다.]

혈망봉(穴望峯)을 마주하여 앉으니, 봉우리에는 구멍 하나가 있어, 높은 하늘을 엿볼 수 있었다. 아스라한 골짜기를 굽어보니 천장(千丈) 높이로 깎아지른 절벽이었다. 굽어봐도 땅이 보이지 않았고, 뼈까지 떨어져 차마 끝자락에 앉을 수 없었다.¹⁹⁾ 봉우리가 사방으로 둘러 있고, 솔이나 성과 같은 모양이다. 둘레는 10여 리이고 『소승(小乘)』에서는 18리라고 하였다.] 깊이는 800척 정도이다. 그 아래에 백록담(白鹿潭)이 있는데, 둥그런 둘레가 400보이고, 물의 깊이는 몇 장(丈)에 불과했다. [지지(地誌)에서 “깊이를 헤아릴 수 없고, 사람들이 떠들면 바람과 비가 사납게 일어난다.”고 했지만, 잘못 전해진 것이다.]

물이 불어도 늘 가득차지 않는 것은 근원 없는 물이 고여 연못이 되었는데,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북쪽 절벽으로 새어 나가기 때문이다. 물고기나 해초는 없고 주변은 모두 깨끗한 모래였다. 지지(地誌)에서 “여러 신선들이 흰 사슴을 먹이러 와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허황된 말이다. 『소승(小乘)』에서 “인간세상의 바람과 햇빛은 멀리 3,000리 밖에 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멋진 모습을 잘 표현한 말이다. 지금 사방으로 희미하게 짐승의 발자국이 있으니, 흰 사슴이 물을 먹으러 온다는 것이 혹 그럴 수 있겠다. 『선경(仙經)』에서 말했다. “사슴이 1,000년을 살면 푸른빛이고, 또 100년을 살면 흰 빛이 되고, 또 500년 살면 검은 빛이 된다.” 『남사록(南槎錄)』에서 말했다. “세간에서 전하길 이사영(李思瑩)과 이경록(李慶祿)이 제주에 안무사(按撫使)로 왔을 때에 흰 사슴을 사냥했다고 한다.” 『소승(小乘)』에서 이른 바 “백발의 늙은이가 흰 사슴을 타고 슬피 탄식했다.”라고 한 것은 과장된 것이다.]

다만 이상한 것은 백록담 옆에 조개껍데기이다. 모두 바닷새가 물어다 놓은 것이라고 하는데, 새의 우는 소리가 공공(貢貢)하기에 이름을 공조(貢鳥)라고 하였다. 반 백리나 되는 산꼭대기까지 부지런히 옮겼으니, 참으로 수고로웠을 것이다. 바다를 메우려 했던 정위(精衛)와는 상반된 것이었다.²⁰⁾

19) 끝자락에 앉을 수 없었다. “혹시 처마 끝의 기왓장이 떨어져 다칠지도 모르니, 귀한 집 자손은 마루 끝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 [家累千金 坐不垂堂]”라는 말이 있다. 《史記 司馬相如列傳》

20) 정위(精衛)와는 상반된 것이었다. 공조(貢鳥)는 바다의 물건을 산으로 옮겼고, 정위는 산의 물건을 바다로 옮겼다는 말이다. 염제(炎帝)의 막내딸인 여와(女娃)가 동해에 빠져 죽었다. 그 뒤 여와는 정위(精衛)라는 작은 새가 되어 항상 서산(西山)의 나무와 돌을 입에 물고 동해를 메우려고 하였다. 《山海經 北山經》

조금 숨을 고르고 바위에 기대어 사방으로 삼읍(三邑)을 바라보았다.

[제주(濟州)는 산 북쪽에 있다. 읍 안은 3리이고, 동쪽으로 34리, 서쪽으로 53리, 남쪽으로 5리이며, 합쳐서 95리이다. 연호(烟戶)는 7319호이다. 정의(旌義)는 한라산 왼편인 동쪽이다. 읍 안은 1리, 동쪽으로 10리, 서쪽으로 12리이며, 합쳐서 22리이다. 연호(烟戶)는 1436호이다. 대정(大靜)은 한라산 오른 편인 서쪽이다. 읍안은 1리, 동쪽으로 9리, 서쪽으로 2리, 합쳐서 12리이다. 연호(烟戶)는 797호이다.]

구진(九鎭)은 바둑알처럼 벌려 있다.

화북소(禾北所)는 별도(別刀)라고 하기도 한다. 관아에서 동쪽으로 10리에 있고, 후풍관(候風館)이 있다.

조천관(朝天館)은 화북에서 동쪽으로 10리에 있고, 역시 후풍관(候風館)이 있다.

별방소(別防所)는 조천에서 55리에 있고 창곡(倉穀)이 있다. 정덕(正德) 경오년(庚午年, 1510)에 김녕진(金寧鎭)을 철수하여 이곳으로 옮겨 설치하였다.

수산소(首山所)는 정의에서 동북쪽으로 30리에 있다.

서귀소(西歸所)는 정의에서 서남쪽으로 70리에 있다.

모슬소(募瑟所)는 대정에서 서남쪽으로 10리에 있다.

차귀소(遮歸所)는 대정에서 서쪽으로 27리에 있다.

명월소(明月所)는 제주에서 서쪽으로 80리에 있고 창곡(倉穀)이 있다.

애월소(涯月所)는 제주에서 서쪽으로 40리에 있다.

모두 성곽(城郭)·군기(軍器)·조방장(助防將)이 있다.

성산(城山)·산방산(山房山)·송악산(松岳山)은 바다 가운데에 돌출해 있고, 문도(文島)·우도(牛島)·비양도(飛揚島)·개파도(蓋波島, 가파도)·마라도(磨蘿島)는 파도에 점처럼 둥둥 떠 있어 눈앞에 있는 듯 했다. 동쪽으로부터 삼도(三島)·청산도(靑山島)·동여서도(東餘鼠島)·백량(白梁)·여서도(斜鼠島)가 있고, 서쪽으로 추자도(楸子島)·흑산도(黑山島)·홍의도(紅衣島)·가가도(可佳島)·대소화탈도(大小火脫島)가 저 멀리 바다 가운데 흩어져 있다. 진도(珍島)·해남(海南)·강진(康津)·영암(靈岩)·광주(光州)·장흥(長興)·보성(寶城)은 구름밖에 희미하게 있었다. 구불구불 저절로 파도의 형상을 만들고 있으니 역시 조물주의 솜씨가 교

묘하였다. 산의 맥은 사방에서 나타나는데 호랑이가 걷고 거북이가 웅크린 것 같았다. [봉우리는 뾰족하지 않고 그 형세가 둔하여 이와 같이 보였다.]

한라산 북쪽에 있는 오름으로는 삼의양(三義讓) [제주에서 남쪽으로 15리에 있다.]

운우로(雲雨路) [제주에서 동남쪽으로 25리에 있다.]

열안지(悅安止) [제주에서 남쪽으로 20리에 있다.]

어승생(御乘生) [제주에서 남쪽으로 25리에 있다. 정상에 연못이 있고, 둘레는 100보이다. 세속에서 전하길 이 오름 아래에서 어승마(御乘馬)가 태어났다고 한다.]

노로객(勞老客) [제주에서 남쪽으로 18리에 있다.]

감은덕(感恩德) [제주에서 서남쪽으로 34리에 있다.]

답인(踏印) [제주에서 동남쪽으로 25리에 있다.]

도전(倒轉) [제주에서 동남쪽으로 30리에 있다.]

장울(長兀) [제주에서 동남쪽으로 45리에 있다. 네 봉우리 가운데에 한 봉우리가 가장 높다. 위에는 용지(龍池)가 있는데, 직경이 50보이며,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용지(龍池) 옆에는 백록담(白鹿潭)처럼 조개껍데기가 쌓여있는데, 역시 공조(貢鳥)가 옮겨온 것이라고 한다.]

사라(紗羅) [제주에서 동쪽으로 6리에 있다.]

원당(元堂) [제주에서 동쪽으로 20리에 있다. 봉우리에 귀지(龜池)가 있는데, 개구리 밭·거북이·자라가 많고, 큰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

곽지(郭支) [제주에서 서쪽으로 45리에 있다.]

상시(相時) [제주에서 서쪽으로 60리에 있다.]

효성(曉星) [제주에서 서쪽으로 50리에 있다.]

영통(靈通) [제주에서 남쪽으로 15리에 있다.]

동산(洞山) [제주에서 남쪽으로 25리에 있는데, 무릇 99골이다.]

입산(笠山) [제주에서 동쪽으로 52리에 있고, 위에 연지(蓮池)가 있다.]

기(箕) [제주에서 동남쪽으로 35리에 있고, 모양이 키와 같다.]

흑(黑) [제주에서 서쪽으로 50리에 있다. 봉우리가 매우 평평하고 좌우로 계곡이 있다.]

저(猪) [제주에서 동쪽으로 75리에 있다.]

장(獐) [제주에서 동남쪽으로 66리에 있다.]은 제주목에 있다.

동남쪽에는 삼매양(三梅陽) [현(縣)에서 서쪽으로 75리에 있고, 그 가운데가 널찍하며, 수십 이랑의 벼 밭이 있다.]

영주(瀛洲) [현(縣)에서 북쪽으로 5리에 있다.]

성불(成佛) [현(縣)에서 북쪽으로 5리에 있다.]

감은(感恩) [현(縣)에서 북쪽으로 22리에 있다.]

수성(水城) [현(縣)에서 북쪽으로 30리에 있다. 벼랑이 성과 같고, 가운데 큰 연못이 있다.]

수영(水盈) [현(縣)에서 북쪽으로 30리에 있고, 정상에 연못이 있다.]

한좌(閑坐) [현(縣) 동쪽으로 7리에 있다.]

독달(秃達) [현(縣) 동쪽으로 20리에 있다.]

지미(指尾) [현(縣) 남쪽으로 35리에 있다.]

수정(水頂) [현(縣)에서 남쪽으로 30리에 있다. 정상에 연못이 있고, 깊이는 알 수 없다.]

운지(雲之) [현(縣)에서 서쪽으로 33리에 있다.]

지세(地稅) [현(縣)에서 남쪽으로 40리에 있다. 둘레는 30리이다.]

자포(紫蒲) [현(縣)에서 서쪽으로 40리에 있다. 둘레는 30리이다.]

현라(懸蘿) [현(縣)에서 서쪽으로 50리에 있다.]

성판(城板) [현(縣)에서 서쪽으로 50리에 있다. 석벽이 성을 쌓는 널판과 같다.]

영천(靈泉) [현(縣)에서 서쪽으로 50리에 있다.]

두(斗) [현(縣)에서 동쪽으로 27리에 있다.]

달(達) [현(縣)에서 남쪽으로 9리에 있다.]

수(水) [현(縣)에서 남쪽으로 45리에 있다. 정상에 용추(龍湫)가 있고,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방(方) [한라산 꼭대기에 있다. 모양이 정방(正方)인데, 마치 사람이 깎아서 만든 것 같다. 그 아래 오솔길로 잔디가 깔려 있고, 향기로운 바람이 산에 가득하여 생황과 줄풍류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세속에서 전하길 신선들이 노닐던 곳이라고 한다.]

토(兔) [현(縣)에서 남쪽으로 17리에 있다.]

응(鷹) [현(縣)에서 서쪽으로 20리에 있다.]은 정의현(旌義縣)에 있다.

남한박물

서남쪽에 시목(柿木) [대정에서 북쪽으로 25리에 있고, 섬이 있다. 또 두좌관(斗坐館)이 있다.]

차귀(遮歸) [현(縣) 서쪽으로 25리에 있다.]

모슬(摹瑟) [현(縣) 서쪽으로 5리에 있다.]

고근(孤根) [현(縣)에서 동쪽으로 57리에 있다. 꼭대기에 큰 구멍이 있고, 깊이를 헤아릴 수 없고, 둘레는 17리이다. 지지(地誌)에 “읍인(邑人) 문질(文秩)이 재물을 잃어버려 여기에 있을까 하는 생각에 동아줄을 타고 100장(丈)을 내려갔는데, 구멍 밑에 나뭇잎들이 쌓여 있어 다치지 않았다”고 한다.]

귀(龜) [현(縣) 동쪽으로 45리에 있다.]

호(蠓) [현(縣)에서 동쪽으로 25리에 있다.]

궁(弓) [현(縣)에서 동쪽으로 40리에 있다.]

담(簞) [현에서 남쪽으로 5리에 있다.]은 대정현(大靜縣)에 있다.

하천은 다음과 같다.

산저천(山底川) [제주 동성(東城) 가운데로 2리를 흘러, 건입포(健入浦)로 들어간다.]

화북천(禾北川) [화북소(禾北所)에 있다.]

병문천(屏門川) [제주 서성(西城) 밖에 있다. 벌랑포(伐浪浦)로 들어간다.]

개로천(介路川) [정의(旌義) 동쪽 3리에 있다. 성을 안고 서쪽으로 2리쯤 흐른다. 깊은 연못이 있고, 성안에서 물을 길어 간다.]

수망천(水望川) [정의(旌義) 서쪽 30리에 있다.]

영천천(靈泉川) [정의(旌義) 서쪽 55리에 있다.]

홍로천(洪爐川) [정의(旌義) 서쪽 72리에 있다.]

감산천(紺山川) [대정(大靜) 동쪽 25리에 있다.]

색달천(塞達川) [대정(大靜) 동쪽 35리에 있다.]

대가래천(大加來川) [대정(大靜) 동쪽 50리에 있다.]

소가래천(小加來川) [대정(大靜) 동쪽 55리에 있다.]

수(藪, 꽃자왈)는 다음과 같다.

- 묘평(猫坪) [제주에서 동남쪽으로 23리에 있다.]
 김녕(金寧) [제주에서 동쪽으로 50리에 있다. 둘레는 50리이다.]
 점목(黏木) [제주에서 서남쪽으로 60리에 있다.]
 개사(蓋沙) [제주에서 서쪽으로 70리에 있다. 둘레는 50리이다.]
 암수(暗藪) [제주에서 동쪽으로 95리에 있다. 둘레는 30여 리이다.]
 목교(木橋) [정의(旌義)에서 동쪽으로 17리에 있다.]
 대수(大藪) [정의(旌義)에서 남쪽으로 4리에 있다.]
 소근(所近) [대정(大靜)에서 서쪽으로 26리에 있다.]
 판교(板橋) [대정(大靜)에서 서쪽으로 5리에 있다.]
 나수(螺藪) [대정(大靜)에서 동쪽으로 10리이다.]

그 밖에 샘물은 다음과 같다.

[섬 안에는 모두 단 샘물이 없다. 10리 안에서 길어 오면 가깝다고 여긴다. 샘물이 먼 경우는 혹 30~40리에서 길어오고, 맛도 짜서 차마 마실 수 없다. 제주사람들은 익숙해서 괴로운 줄 모르지만, 외지인들이 마시면 바로 구역질을 하고 병이 생긴다. 오직 제주의 가락천(嘉樂泉)만은 성 안의 돌구멍에서 용출하기도 하고 마르기도 한다. 전하는 말에 김충암(金冲庵)이 유배 왔을 때에 뚫은 것이라고 한다. 명월소(明月所)에도 달콤한 샘물이 있지만, 맛이 그다지 좋지는 않다.]

제주 동성(東城) 안에는 산저천(山底泉)이 있다. 돌구유 같은 모양이고, 길이가 3칸, 넓이는 1칸이다. 천맥(泉脈)이 4면에서 용출하고 맛은 매우 달고 차갑다. 겨울에는 끓인 듯 따뜻하고 여름에는 얼음처럼 차갑다. 성안에 있는 3,000호가 모두 여기에서 길는데, 예로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마른 적이 없으니, 실로 서울 밖에서는 보기 드문 명천(名泉)이다. 풍토병에 걸린 사람들이 마시면 바로 저절로 차도를 보인다.]

연못 [흐르는 하천은 비록 땅속으로 스며들고 세지만, 깊어져서 연못이 된 것도 많다.]과 포구들 [삼읍(三邑)을 둘러 모두 77개의 포구가 있다.]은 가리키는 곳마다 아름답고, 회포가 저절로 넓어진다.

서쪽 기슭 50리 밖에 영실동부(瀛室洞府)가 있는데, 속칭 오백장군동(百將將軍洞)이다.

천심(千尋) 높이의 푸른 암벽이 병풍처럼 늘어서 있고, 위로는 괴이한 바위가 있다. 모습은 마치 나한(羅漢)과 같은데, 무릇 500개이다. 아래에 3개의 폭포가 있는데 하나의 계곡으로 쏟아진다. 옆에는 오래된 단(壇)이 있는데 단(壇)위에는 복숭아나무를 심었고, 대나무 무더기 사이에 우뚝 서 있다.

남쪽 기슭에는 측백나무·삼나무·박달나무·편백나무도 아닌 것이 당개(幢蓋)²¹⁾처럼 은은한데, 계수나무라고 전한다. 또 덩굴과 지초(芝草)들이 땅에 붙어 있고, 무성한 줄기와 가지에는 가는 털이 있고 푸른 이끼와 같은 색깔이고, 마디마디 뿌리가 있었다. 흑 비녀다리 와도 같고, 흑 명주실과 같아 맛은 달면서도 향기로웠다. 비록 계수나무나 지초는 아닐지라도 역시 기이하였다. 위에는 수행동(修行洞)이 있고, 골짜기에는 칠성대(七星臺)가 있는데, 좌선암(坐禪岩)이라고 한다. 이곳은 옛날 스님이 입정(入定)한 터이고, 존자암(尊者庵)이라고 하였다.

[충암기(冲庵記)에서 말했다.²²⁾ “존자암(尊者庵)은 삼성(三姓)이 일어났을 때 처음 만들어졌고, 삼읍(三邑)이 만들어진 뒤에도 오래토록 전해왔다. 그 터로 말하자면, 주봉(主峯)은 넓고 둥그렇게 튀어나왔고, 험하고 가파르다가 조금씩 낮아지는 것이 마치 난새와 봉황이 훨훨 날다가 아래로 웅크려 아기 새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것 같으니, 기이한 현무(玄武)의 형세이다. 차가운 샘물은 근원이 깊어 옥소리를 내며 흐르고 푸른빛에 향기는 맑았다. 이른바 월덕(月德)이 그 방정함으로 가뭄에도 마르지 않으니 기이한朱雀(朱雀)의 형세이다. 계속 이어지면서 꿈틀거리는 것은 마치 허리에서 왼팔로 인끈을 풀려고 하는 것 같으니, 돌아가는 청룡(靑龍)의 형세이다. 꼬리를 끌며 다시 움직이는 것은 마치 머리에서 오른손으로 무릎을 만지려는 것과 같으니, 아름다운 백호(白虎)의 훌륭한 함이다. 그 지경으로 말하자면 기암괴석(奇巖怪石)이니, 새기고 같고 깎아지른 바위가 높이 솟아있고, 혼자 서있고, 우두커니 서있고, 기우뚱 서있고, 짝지어 서있다. 속삭이듯 이야기하듯 서로 돌아보며 따라가는 것 같으니, 이것은 조화옹의 은근한 솜씨로 만든 것인가? 이곳의 좋고 기이한 나무들은 푸른빛으로 물들어 뽀뽀하고, 가지를 오무리고, 등을 오무리고, 옆을 오무리고, 옆드려 오무리며, 크기를 다투는 듯, 빼어남을 다투는 듯, 어지럽게 일어나 춤추고 읊하며 늘

21) 당개(幢蓋): 붉은 깃발과 굵은 덮개로, 장군들의 의식이나 불상 등을 쓰는 일산과 같은 것이다.

22) 충암기(冲庵記)에서 말했다: 이 부분은 『소총유고(篠叢遺稿)』 「존자암개구유인문(尊者庵改構侑因文)」의 일부를 변형하여 기록한 것이며, 『충암집』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어선 것 같으니, 이것은 대지의 신이 애써서 심은 것인가? 신선과 아라한이 늘 그 사이를 소요하며 거닐고, 기이하고 괴상한 새와 짐승들이 사시사철 그 사이를 날고 걸어 다니니, 이는 참으로 멋진 경치이다. 장령(長嶺)과 원악(圓岳)이 겹으로 안으면서 아울러 솟았고, 붉은 구름과 푸른 안개에 햇볕을 뿜어대니, 백 걸음 밖의 먼 거리가 아니라 반걸음 사이였다. 푸른 바다 흰 물결은 쪽빛에 눈이 쌓인 것 같고, 자봉(紫鳳)과 창봉(蒼鵬)²³⁾은 하늘 덮으며 날아오르는 듯하였다. 30리도 되지 않았는데²⁴⁾ 식사시간이 되었다. 비가 개고 구름이 걷히니 하늘은 새 거울과 같았다. 아지랑이가 바람에 쓸리니 자그마한 티끌도 모두 사라졌다. 만 리를 뚫어보니 하늘 밖 섬나라들이 바둑돌 흩어진 것처럼 또렷하게 보였다. 눈 뜰 수 없는 바람과 귀를 멍멍하게 하는 비에 하늘과 땅이 어두컴컴하고, 텅 빈 듯 혼란스러워 지척을 구별할 수 없었고, 큰 땅덩이도 혼돈스러워 아스라이 거위 알 가운데 있는 듯하였다. 이에 속세의 어지러움을 벗어나 변경의 먼곳에서 심원함에 가득 찼으니, 이는 열자어구(列子禦寇)의 글에 보이는 원교산(圓嶠山)²⁵⁾이며, 동방만천(東方曼倩)²⁶⁾이 영주(瀛洲) 땅이라 기록한 것이다.”

이는 과대포장한 말이지만, 느낌을 모두 표현한 것이다. 지금은 스님은 없고 해진 온돌 몇 칸이 있을 뿐이다.] 역시 각 일면만을 본 것이니, 『소승(小乘)』에서 이른바 가는 곳마다 신선의 취향이며, 걸음마다 기이한 경관이라고 하였는데, 참으로 사실을 기록한 것이었다.

서쪽 하늘가를 바라보니, 흰 빛깔 모래사장처럼 보이는 곳이 있으니, 바로 『표해록(漂海錄)』에서 말한 백해(白海)이다. 쇄해가는 눈으로도 만 리 밖 바닷길을 볼 수 있으니, 그 또한 다행이었다. 옆에 늙은 아전²⁷⁾이 있었는데, 일찍이 안남(安南)에 표류되었다가 돌아왔다. 『과해일기(過海日記)』를 손에 들고 무릎을 꿇면서 앞으로 와서는, “저기가 마도(馬島)

23) 자봉(紫鳳)과 창봉(蒼鵬): 자주빛 봉황과 푸른 봉새라는 의미로 모두 전설상의 신비로운 새이다.

24) 30리도 되지 않았는데: 원문은 ‘일치지내(一置之內)’이다. 일치(一置)는 역(驛)이다. 과거에는 30에 역을 하나씩 두었다.

25) 열자어구의……원교산(圓嶠山): 『열자(列子)』 「귀허편(歸墟篇)」에 “다섯 산이 있는데, 여섯 자라가 이것을 이고 있었다. 용백국(龍伯國)의 사람들이 자라를 낚은 뒤로는 이 다섯 산이 물결을 따라 오르내려 대여(岱輿)와 원교(圓嶠) 두 산은 표류하여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다만 봉래·방장·영주 세 산만이 처음으로 뿌리를 박았다.”라고 하였다.

26) 동방만천(東方曼倩): 중국 전한 때 문인 동방삭(東方朔)을 말한다. 만청(曼倩)은 동방삭의 자이다. 걸출한 외모, 익살스러운 언변과 거침없는 행동에 사람들은 좋아했고, 그에 관한 설화는 한국에서도 널리 확인된다.

27) 늙은 아전: 김대황과 고상영 등이 안남지역에 표류하다가 돌아왔는데, 병와가 만난 사람이 이들이다. 이들의 표류에 대해서는 『지영록(知瀛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고, 강호(江戶)이고, 옥구도(玉球島)이고, 일지도(一歧島)이고, 여인국(女人國)이고, 유리국(琉璃國)이고, 안남국(安南國)이고, 섬라국(暹羅國)이고, 점성(占城)이고, 만랄가(滿刺加)이고, 영파부(寧波府)이고, 소항주(蘇抗州)이고, 양주(楊州)이고, 산둥(山東)이고, 청주(靑州)입니다.”라고 하였다. [『일기(日記)』중에는 풍토(風土)와 물산(物産)을 갖추어 기록하였는데, 이지봉(李芝峯)의 문답²⁸⁾과 거의 동일했다. 또 말하였다. “안남(安南)에서 3년을 머물렀고, 마침 등주(登州)와 내주(萊州)로 올라가는 장삿배를 만났고, 돌아오는 뗏가로 대미(大米) 600섬을 약속하였습니다. 바다로 중국 지방을 돌다가 곳곳에서 검색을 당하여 선봉(船篷)에 숨어 있었습니다. 소주(蘇州)와 항주(抗州)의 경계를 지나 대정(大靜)에 돌아와 배를 정박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당시 계문을 올린 것 역시 이와 같다.] 하나하나 헤아리는데, 마치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 같았다.

하물며 이리저리 거니노라니, 눈과 마음이 어지러웠지만, 그저 하늘이 덮개가 되고 물이 땅이 되어, 내 다리 아래에서 입술처럼 딱 합치됨을 느꼈다. 그 밖에 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으니, 바로 내가 앉아 있는 바위는 바로 천하의 중심에 해당되는 셈이다. 모두 가지런히 정돈되어 사방이 비뚤어지게 보이지 않았다. 「우공(禹貢)」편에서는 승고산(嵩高山)을 중심으로 생각했고, 이마두(利瑪竇)²⁹⁾는 일본 동남쪽을 중심이라 생각했으니, 서로 현격할 뿐만 아니라 이는 개미뚝에서 다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노나라 공자께서 동산에 올라 천하가 작다는 말³⁰⁾은 내 일찍이 다른 세상 일로 알았는데, 지금에야 과연 경험할 수 있었다.

우리는 『여지도(輿地圖)』를 손으로 짚어보며, 마음속에 옛 사람들의 책을 간직하고 이치로서 사물을 바라보아도 하늘은 더욱 높고 바다는 더욱 넓어 궁구할 수가 없었다. 사물로 사물을 관찰하면 손으로 가리킬 수 있고, 1척이면 도달할 수 있다. 서쪽의 바다나 몽고의 사막³¹⁾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충암(冲庵)이 “남자로 태어나서 큰 바다를 가로질러 이렇게 기이한 곳을 밟아보고, 이렇

28) 이지봉(李芝峯)의 문답: 이지봉은 지봉(芝峯)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을 말한다. 이수광은 『안남사신문답록(安南使臣問答錄)』 『조완벽전(趙完壁傳)』과 같은 안남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

29) 이마두(利瑪竇): 마테오리치를 말한다. 16세기 중국 명대(明代)에 그리스도교를 전한 이탈리아의 예수회 선교사였다.

30) 동산에……말: 『맹자(孟子)』에 “공자가 동산에 올라가서는 노나라를 작게 여겼고, 태산에 올라가서는 천하를 작게 여겼다(孔子登東山而小魯 登太山而小天下)”라는 말이 나온다. 《孟子 盡心上》

31) 몽고의 사막: 원문은 ‘한해(瀚海)’이다. 몽고의 항원산(杭愛山)에 대한 음역(音譯)이다. 한(漢)나라 곽거병(霍去病)이 이곳에 출정하여, 멀리 사막을 건너고 봉선(封禪)을 행하였다. 《史記 卷111 衛將軍驃騎列傳》

게 특이한 풍속을 바라보았다. 대개 오려고 해도 그럴 수 없고, 머물고자 해도 벗어날 수 없으니, 역시 명수(冥數)가 예전에 정해진 듯하다.”라고 하였으니, 더욱 달관(達觀)한 사람의 말임을 알겠다.³²⁾

구릉(丘陵)·연못·계곡이 파도에서 재주를 부리고, 땅의 중심 형상이 본래 이와 같았다. 지난 날 내가 시골에서 누워 쉬면서도 잠봉(蠶蜂) 무더기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날아갈 듯 시원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이는 진작부터 믿어왔던 것이었다. 평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건만, 찬란히 빛나는 노인성은 보지 못했으니, 세속의 인연이 다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 『풍토록(風土錄)』의 주(註)에서 말했다. “오직 중원(中原)의 형악(衡岳)과 이 산에서만 노인성(老人星)을 볼 수 있다.” 『남사록(南槎錄)』에서 말했다. “춘분(春分)과 추분(秋分)에 반 시진 정도 바라볼 수 있다. 절제사(節制使) 심연원(沈連源)·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이 모두 보았다고 한다.”]

돌아보고 따르던 수령(守令)들에게 말했다. “산은 높고 정상은 움푹하고 땅은 오목하다. 이 봉우리를 들면 중간에 여러 봉우리들이 별처럼 펼쳐져 있으니, 온 섬으로 보자면 ‘연엽로주형(蓮葉露珠形)’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지 않겠는가? 또 하늘이 열릴 때에 만물이 녹아내려 강(剛)한 것은 변하여 부드럽게 되고, 부드러운 것은 변하여 강(剛)하게 되었다. 이 높은 언덕과 거대한 골짜기에 어찌 섬과 육지의 구별이 있겠는가?”

생각건대 산맥은 육지에서 이어져 들어왔는데, 바람이 때리고 물결이 갇아먹어, 오랜 세월에 무너지고 뚫린 것이다. 지금 비록 바다와 조수로 떨어져 있지만, 기맥(氣脈)은 이어졌다는 것을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주인(廚人) 가운데에 포한(鮑漢)³³⁾이 있었는데, 손을 들어 가리키며 말했다. “저 바다의 칼 같은 바위가 가까운 바다와 포구 주변에 여기저기 꽃혀 있으니, 이것이 섬을 둘러 배가 정박할 항구가 없는 이유입니다. 석맥(石脈)이 서로 이어져 대소화탈도(大小火脫島)에 묶여 있다가 추자도(楸子島)·백량(白梁)에서 육지 고을에 이어 집니다. 중간에 열 아릅이나 되는 느티나무 뿌리가 아직도 바다 밑에 있으니, 분명 바다가 되기 전 육지에 심은 것입니다.” 내가 “푸른 바다가 뽕나무 밭이 되었다는 것³⁴⁾도 혹 그럴

32) 충암(冲庵)이……알겠다. 본 내용은 『남사록(南槎錄)』에서 그대로 확인된다.

33) 포한(鮑漢):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소금에 절이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을 말한다. 제주에서는 주로 전복을 채취하여 바쳤다.

34) 푸른 바다가 뽕나무 밭이 되었다는 것: 원문은 ‘벽해상전(碧海桑田)’이다. 뽕나무 밭이 변하여 바다가 될 정도로 세상일이 변천되었다는 뜻이다. 《神仙傳 麻姑》

수 있겠구나. 그러면 한라산 서쪽이 머리고, 동쪽이 발이 되겠구나.”라고 하니, 사람들이 ‘예예’하면서 흠어들었다.

포(晡)시에 산에서 내려왔다. 반도 내려오지 못했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이맘 때 신기루 역시 기이한 광경입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또 바위에 자리를 깔고 찬찬히 살펴보았다. 대소화탈도(大小火脫島)가 처음에는 옥교(屋轎)와 같더니, 머리가 커지고 배는 작아지기도 하고, 발이 뽀족하다가 어깨 쪽은 낮아지기도 하였다. 살펴볼수록 점점 바뀌고 획획 변하였다. 마치 흙 언덕처럼, 옥비녀처럼, 달리는 일산처럼, 누운 소처럼, 배에 누각이 있는 것처럼, 스님이 합장한 것처럼, 봉황을 끼고 나는 것처럼, 무지개에 멩에를 매고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변하였다. 푸른빛이었다가 흑 흰빛이었고, 붉은빛과 자주빛도 간간히 섞여 있었다. 기기괴괴한 모습이 천만가지 모습이었고, 층층 기둥에 커다란 건물이 순식간에 만들어졌다. 북쪽 바다 한 면이 마치 수놓은 병풍과 같았다. 떨어지는 노을과 사라져가는 빛이 아지랑이를 가리며 깜박이는데, 형형색색으로 움직이는 것이 놀라웠다.

생각하건대, 조물주께서 속좁은 나를 가엾게 여기시고 성긴 내 마음을 걱정하여, 거대한 바다로 넓혀주고 꼼꼼하게 새겨주시어, 변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리라. 이번 행차에서 얻은 것이 이미 많지 않은가? 서로 박수치면서 내려왔고, 어둠이 깔릴 때에 감영(監營)으로 돌아왔다. 오후에 한바탕 소나기가 내려 먼지를 짹 적셔 주었다. 우리들이 하루 종일 구름 위에서 휘파람 불며 놀다온 것은 참으로 신선세계³⁵⁾에 있었던 것이지, 세속 사람들의 세계는 아니었다.

35) 신선세계: 원문은 ‘삼천동부(三天洞府)’이다. 도가(道家)에서 말하는 옥청(玉淸)·상청(上淸)·태청(太淸)의 삼천(三天)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신선이 산다고 한다. 삼청세계(三淸世界)라고도 한다.

형승을 기록하다[誌勝]

섬을 둘러 모두 바위였다. 뽀뽀하고 높이 해안에 웅크리듯 꽃혀 있었다. 산이 바다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다가 처음부터 산을 뚫은 것이었다. 고래 같은 파도가 부서지니 눈에 닿는 곳 모두 매우 놀라웠다. 또 많은 산·숲·시내·골짜기는 그윽하면서도 담담하고 기이하면서도 장대하였다. 어느 곳인들 뛰어나지 않을까마는 가장 멋진 곳은, 취병담(翠屏潭)이었다. [일명 용추(龍湫)이다. 제주성 서쪽으로 2리에 있다. 이곳은 병문천(屏門川) 하류이다. 양쪽 벼랑에 뾰족한 돌이 수 십 장(丈)이 벽처럼 서있다. 하류는 맑은 못인데, 길이는 수 백 칸이며 넓이는 100척(尺)이다. 물의 깊이 역시 수 장(丈)이며, 가운데 농석(礮石, 솟돌)이 많고, 두충(杜冲)·감굴·석류가 양쪽 벼랑에 펼쳐 있다. 뱃놀이 하기에 딱 좋다.]

용두(龍頭) [취병담(翠屏潭) 서쪽 벼랑에 있다. 바다에 바위가 솟아 있는 것이 마치 용의 머리와 같다. 높이는 10장(丈)이 되고 꼭대기가 평평하여 앉을 수 있다. 좌우로 또 괴이한 바위들이 있어, 전복 채취하는 것을 굽어볼 수 있다.]

장사(長沙) [제주 동쪽 56리에 있다. 길이는 15리이다. 이곳은 파도가 모래를 이는 듯 한 곳이다. 조수가 빠지고 햇볕이 내리쬐는 후에 바람을 타고 날아온 것이다. 가까운 곳에서 멀어지고 낮은 곳에서 높아져, 점점 더해져서 산처럼 쌓인 것이다. 애월(涯月)·별방(別防) 근처에도 있다.]

협재암(夾財巖) [명월(明月) 서쪽 5리에 있다. 돌집과 같은 형태이며, 모습이 둥그렇다. 위에는 흰 모래가 깔려 있고, 아래에는 큰 굴이 있다. 햇불을 붙여 들어가 보면 80보 정도로 넉넉하다. 서북쪽에 다시 두 개의 굴이 있는데, 이름하여 ‘소협재(小夾財)’이다. 서쪽에 있는 것은 겨우 50보 정도이고, 동쪽에 있는 것은 100보이다. 뒤에는 점점 좁아져서 들어갈 수 없어,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마른 뼈가 소복히 쌓여 있는데, 도둑놈들이 소와 말을 훔쳐서 잡아먹어 그런 것이다. 세 개의 굴에는 박쥐가 많고, 흰 색이면서 큰 것도 있다. 또 응결

된 종유석이 생산되는데, 마유(馬乳)와 같기도 하고, 유소(流蘇, 유황)와 같기도 하다. 맷
하지 않은 것은 비처럼 방울방울 떨어져 옷과 관을 적시는데, 굴을 나오면 바로 바스러지는
모래 돌이 된다. 대개 후미지고 으스스한 곳에서 간사한 짓을 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은밀한
굴은 어딘들 사특하지 않을까?]

김녕굴(金寧窟) [김녕촌(金寧村)에서 남쪽으로 5리에 있다. 넓이는 30척, 높이는 5~6척
이 되고, 깊이는 5리 정도이다. 양 옆이 모두 돌인데, 누대와 같기도 하고 벽과 같기도 하다.
역시 길게 구부러졌는데 햇불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면, 기운이 음습하고 모습은 기괴하다.
이곳에서도 종유석이 생산된다.³⁶⁾]

도근천(都近川) [방언이 상스럽고 난삽한데, 조공(朝貢)을 ‘도근(都近)’이라고 부른다. 제
주에서 서쪽으로 20리에 있고, 일명 수정천(水精川)이다. 시내의 상류에는 수 십척의 나는
듯 쏟아지는 폭포가 있고, 7~8리를 땅속으로 흐르다가 돌 틈으로 용출하여 드디어 깊은 연
못이 되었다. 지지(地誌)에서 말했다. “수달이나 큰 개와 같은 것이 있는데, 잠수하면서 모
양을 바꾸고, 사람들의 보물을 보면 연못 속으로 가지고 간다.” 지금은 이 생물이 없고, 그
저 은어(銀口魚)가 잡힌다.]

무수천(無愁川) [제주 서남쪽으로 18리에 있으니, 조공천(朝貢川)의 상류이다. 양쪽 언덕
은 석벽이며, 매우 기이하고 험하다.]

동무협(東巫峽) [고기(古記)에서 말했다. “한라(漢拏) 동쪽에 동무협(東巫峽)이 있는데,
신선이 산다. 그 동쪽에 또 영주산(瀛洲山)이 있다. 세상에서 탐라(耽羅)를 영주(瀛洲)라고
일컫는다.”]

천석(穿石) [정의(旌義) 남쪽 10리에 있고, 돌이 서 있고, 구멍이 있다.]

36) 종유석이 생산된다: 이형상목사의 『탐라록(耽羅錄)』 「김녕굴(金寧窟)」이라는 시에, “육지(肉芝), 종유(鍾乳)
는 어느 때에 있었나? 이곳 백성에게 나누어주어 장수의 땅이 열렸구나(肉芝鍾乳於焉在 分付斯民壽域開).”
라는 대목이 보인다.

성산(城山) [정의(旌義)]에서 북쪽으로 30리, 제주에서 120리에 있다. 우도(牛島)의 어룡굴(魚龍窟)과 마주하고 있다. 성(城)의 높이는 300여 장(丈)이며, 전체가 층층 바위로 큰 바다 가운데 뾰족하게 서 있다. 대개 한라산 한 줄기가 떨어져 구름이 되었고, 동북쪽으로 바닷가 작은 언덕에 이르렀고, 구불구불 바다로 5리를 들어가서 갑작스럽게 우뚝 솟았다. 바깥 사면은 대패로 깎은 듯, 거울을 간 듯하다. 우뚝하고 쪽쪽 뻗어 있어 새나 짐승도 다 날 수 없다. 서쪽 바위에는 돌이 서 있는데,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하고, 짐과 같기도 하고, 성과 같기도 하다. 높이는 모두 수백 척이다. 그 사이에 돌로 된 잔도(棧道)가 있는데, 험하다 험하다. 성의 산허리는 더욱 기울어져 있고, 돌을 뚫고 더위잡고 올라야 한다. 겨우 실 같은 길 하나가 있지만, 갈 수는 없었다. 나무와 돌을 쌓아 잔도(棧道)를 만들었는데, 빙빙 굽어 돌면서 수 백보를 가니 비로소 산 정상이었다. 오경(五更)이 되니, 달은 서쪽 바다로 기울고, 오직 땅이 흐릿하게 보이고 파도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갑자기 동쪽 방향에서 점점 새벽빛이 비치더니, 바다 빛은 점점 밝아졌다. 연꽃 한 가지가 바다 깊은 곳에서 솟더니, 뛰어올라 공중에 매달렸다. 만 가지 형상으로 모두 비추니, 세상 어디에 어두운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예전에도 여러 번 동해와 동래(東萊) 바다에서 본 적이 있지만, 매번 안개가 가렸었다. 이날은 가느다란 구름도 사방으로 걷혀, 바다와 하늘에 막힌 것이 없었다. 몸은 층층의 험악한 파도 가운데 있으면서, 장쾌하게 부상(扶桑)에서 목욕한 태양의 빛을 보았다. 한 조각 마음이 시원히 뚫린 듯하니, 날아올라 신선이 되어도³⁷⁾ 아마 이보다 뛰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벼랑을 올라 굽어보니, 삼면이 모두 바다였다. 고래 같은 파도와 악어 같은 물결이 산 밑동에 격렬히 부딪쳤다. 갈매기와 수우(水牛)들이 바위틈을 왕래하는 모습이 나방과 하루살이가 어지럽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보는데 어질어질하고 다리는 떨리고 심장은 샷대질 하는 듯하였다. 성 서쪽 한 면이 비록 육지와 연결되었다고 해도, 큰 물결 밖에서 선 같은 산기슭으로 지렁이와 뱀이 실처럼 얽혀 달리며 이어진 것 같았다. 1,000인(仞) 높이로 깎아지른 듯 서있어, 나는 새들도 쉬어간다. 보이는 곳마다 시원하지만, 서 있으면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성안은 마치 솔과 같은데, 깊이는 100여 장(丈)이다. 평평하고 넓게 펼쳐져 있고, 감굴 나무 100그루가 있었다. 천연으로 만들어진 석

37) 날아올라 신선이 되어도: 원문은 ‘우화등선(羽化登仙)’이다. 소식의 『전적벽부(前赤壁賦)』에서 “훨훨 나부껴 인간 세상을 버리고 홀로 서서, 날개를 달고 신선되어 오르는 것 같더라(飄飄乎如遺世獨立 羽化而登仙)”라고 하였다.

성(石城)의 둘레는 7~8리이다. 사람이 사는 마을이 수십 리 밖에 있고, 눈앞에는 시끄럽고 지저분한 모양새가 없었다. 세상에서 말하는 신선이 과연 있다면, 결코 이곳을 버려두고 다른 곳에 살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은 궁벽지기 때문에 왜구(倭寇)들 중 우리 땅을 침략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곳에 숨을 것이다. 두 번 지난 정축년(丁丑年)에 백성을 끌어 모아 이곳에 살게 하였고, 서쪽 기슭에 진해당(鎭海堂)을 지었다. 물도 없고 농사지을 땅도 없어 살 길이 없었다. 지금은 모두 철폐되었고, 그저 옛 터만 남아 있다.]

정방연(正方淵) [정의(旌義) 서쪽 68리에 있다. 섬 안의 산은 대부분 짙막한 평상 모양인데, 유독 이 산기슭은 매우 단정하다. 한 줄기 푸른 벽이 바다까지 이어지고 높이는 수십 장(丈)이며, 위에는 소나무가 서려 있고 아래에는 거대한 물결이 출렁인다. 서쪽 바위에 80여 척(尺)의 긴 폭포가 바다로 거꾸러져 쏟아지니, 참으로 제일명승이라고 할 수 있다.]

천지연(天池淵) [서귀(西歸)에서 서북쪽에 있다. 뾰족한 봉우리가 서로 끌어안아 활처럼 굽어졌고, 좌우를 둘러 마치 화살을 묶어 놓고 그 가운데에 꽂은 것 같다. 돌아보면 왼쪽 어깨 쪽으로 폭포가 떨어지는데, 길이는 정방(正方) 다음이다.]

소천지연(小天池淵) [대정(大靜)에서 동쪽으로 35리에 있으니, 이는 색달천(塞達川)의 하류이다. 『남사록(南槎錄)』에서 말했다. “바다 입구에서 좌우로 석벽이 병풍처럼 안은 모양이고 구불구불하고 고요하다. 골짜기의 나무들은 모두 겨울에도 푸르다. 벽 위를 따라 몇 리(里)를 가면 한 가닥 길이 있다. 더위잡고 아래로 가면 험한 바위와 깊은 골짜기인데, 대낮에도 음침하여 마치 감춰졌던 비바람이 치는 듯하고, 귀신이 신음하는 듯 싸늘한 느낌이 든다. 숙연한 기운을 품은 기이한 형상은 그윽하고 괴이하여 모두 말할 수 없다. 폭포의 상류는 한라산 남쪽 계곡에서 발원하여 그 사이 50~60리는 평평하여 흘러져 흘렀고, 움푹 패인 곳은 연못이 되기도 한다. 이곳에 이르러 폭포가 되어 떨어지는데 쿵쿵 우레처럼 울리며 눈을 뿜어대니, 그 소리가 몇 리까지 들린다. 양 갈래 흰 무지개는 마치 허리 굽혀 천부(天釜)의 물을 마시는 듯하다. 형승은 실로 박연폭포와 우열을 다투는데, 폭포의 높이 나 동굴의 넓이는 혹 미치지 못하는 면이 있다. 그렇지만 바다 밖에 숨겨진 곳이어서 유람하거나 보러오지 못하니, 그 경치를 아는 사람이 드물다.” 지지(地誌)에서도 “빼놓고 기록

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애석하다.”라고 하였다. 지금 초가집 세 칸이 있는데, 동쪽 바위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

산방(山房) [대정(大靜) 동쪽 10리에 있다. 길게 굽은 산 하나가 해안가에 붙들 서 있다. 높이는 500장(丈), 둘레는 10리(里)인데, 모두 돌이며 사방이 험하여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다. 오직 동쪽에 한 갈래 길이 있어 더위잡고 올라갈 수 있다. 잡초들이 포기로 자라고 사슴과 멧돼지가 새끼를 친다. 산 남쪽 중간쯤에 석굴이 있는데 기울어진 집 같다. 굴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을 구유에 받으니, 맑고 차갑고 맛이 좋다. 옛날에 스님들이 그 가운데에 부처님 상을 만들고, 굴암(窟庵)이라고 불렀다. 그 남쪽에 굴이 있는데, 이름 하여 암문(暗門)이다. 양쪽의 돌은 저절로 갈라졌고, 1척(尺) 정도의 구멍이 있는데, 깊이는 100척(尺)이 되며, 길이 역시 50여 척(尺)이 된다. 그 북쪽에도 큰 굴이 있는데, 깊이를 헤아릴 수 없고, 피생문(彼生門)이라고 부른다. 김자상(金自祥)의 「산방기(山房記)」에서 말했다. “돌 기와가 자연스럽게 덮여있어 계속 비가 와도 새지 않고, 돌바닥이 깔려 있어 들불에도 타지 않는다. 돌벽이 자연스럽게 서 있어 광풍(狂風)에도 흔들리지 않고, 돌 틈에서 샘물이 저절로 솟구쳐 고인물인데도 더럽혀지지 않는다.” 『남사록(南槎錄)』에서 말했다. “세속에서 전하길, 상고(上古)시대에 우인(虞人, 사냥꾼)이 한라산(漢拏山)에 올랐는데, 활 끝으로 하늘의 배를 툭툭 치자, 천제(天帝)가 노하여 주봉(柱峯)을 꺾어다가 이 곳에 옮겼다고 한다. 지금 나수(螺薺)를 살펴보니 산기슭에서 이곳까지 30리 사이에는 잡석(雜石)들이 거꾸러지고 뒤섞여 완연히 산을 굴린 모양새인데, 호사자(好事者)들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한다.”]

송악(松岳) [대정(大靜) 남쪽 15리에 있다. 『소승(小乘)』에서 말했다. “산의 형세가 돌출하다가 평야가 남쪽으로 펼쳐지고 바다에 들어가서 끊어진다. 그 위는 손바닥과 같이 평평하고 북쪽에는 사다리마냥 기이한 바위가 마주하여 서 있는데, 엄연한 하나의 돌문이었다. 길은 돌문을 따라 낮은 봉우리로 들어가는 것이 마치 꾸며놓은 산³⁸⁾과 같다. 종횡으로 펼쳐진 모습이 참으로 조화옹(造化翁)이 장난한 것처럼 더욱 괴이하다. 아스라한 절벽은 천인(仞)의 높이이고, 모두 파도가 잡아먹은 모습이였다. 앞에는 한 무더기로 가로지른 모래

38) 꾸며놓은 산: 원문은 ‘가산(假山)’이다. 정원 등에 돌을 쌓아 만들어 관상용으로 만든 산을 말한다.

봉우리가 있는데, 그 위에 바닷물이 왕래한 흔적이 있다. 이로 보건대 누런 먼지가 되었다가 푸른 물이 되었다³⁹⁾는 이야기가 어찌 맹랑한 것이겠는가? 『남사록(南槎錄)』에서 말했다. “산은 원대한 기세는 없고, 바닷가에 불뚝 솟아 있다. 둘레는 겨우 수십 리(里)이고, 꿈틀꿈틀 광대한 모습이다. 동남쪽 한 모퉁이는 평평한 것이 제단⁴⁰⁾과 같고, 수백 명이 앉을 수 있다. 그 아래 험한 절벽은 수 만 인(仞)이 넘는 높이로 우뚝 서 있어 그 깊이를 알 수 없었다. 세차게 솟구치는 고래 같은 파도에 하늘 끝까지 바라보아도 한 점 섬조차 보이지 않는다.” 지금 산의 형세를 보니 둘레는 겨우 5리이고 높이는 성산(城山)에 미치지 못한다. 수만 인(仞)이라는 이야기는 혹 잘못 전해진 것인가? 그 좌측에는 형제도(兄弟島)가 있다. 깎아지른 돌이 바다 가운데 우뚝 서 있다. 형세가 매우 높고 기이하였다. 산방(山房) 등을 돌아보니, 돌벽과 맑은 모래가 30여 리 펼쳐져 있었다. 이는 참으로 기이하다.]

바로 이곳들이 더욱 빼어난 곳들이다. 그 밖에 산악(山岳)·해도(海島)·천석(泉石)·임수(林藪)·초목(艸木)·화훼(花卉)가 기이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다 기록할 수 없다.

39) 누런……되었다: 원문은 ‘황진청수(黃塵淸水)’이다. 세상 일의 변천이 심하다는 의미이다. 이하(李賀)의 「몽천(夢天)」에서 “삼산 아래가 누런 먼지도 되고 푸른 바다가 되었는데, 다시 달리는 말처럼 천 년을 변했어라(黃塵淸水三山下 更變千年如走馬.)”라고 하였다. 《昌谷集 卷1》

40) 제단: 원문은 ‘단선(壇墠)’이다. 단은 흙을 쌓아 올려 만든 제단(祭壇)이고, 선은 평지를 깨끗이 소제하여 만든 제단이다. 《禮記 祭法》

사적을 기록하다[誌蹟]

처음에 고을라(高乙那)·양을라(良乙那)·부을라(夫乙那) 형제 3인이 그 땅을 나누어 거처하였고, 사는 곳을 ‘도(徒)’라고 하였다. 『고씨세계록(高氏世系錄)』에서 말했다. “세 사람이 활을 쏘아 땅을 정하였다. 고씨(高氏)가 사는 곳을 제일도(第一徒)라고 하니 한라산 북쪽 일도리(一徒里)이고, 양씨(良氏)가 사는 곳을 제이도(第二徒)라고 하니 한라산 오른 편 남쪽 산방리(山房里)이며, 부씨(夫氏)가 사는 곳을 제삼도(第三徒)라고 하였으니 한라산 왼 편인 토산리(土山里)이다. 900년 후 세 사람이 각자 돌에 활을 쏘아 용기와 힘을 시험하였는데, 고(高)씨가 상(上), 양(良)씨가 중(中), 부(夫)씨가 하(下)였다. 그러므로 민심(民心)이 모두 고씨에게 모였다. 고씨를 군장(君長)으로 하고, 양씨를 신하로 하고, 부씨를 백성으로 하였다. 국호는 탁모(毛牟)라고 하였는데, 모곡(牟穀)이 무성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주성(州城)안을 세 지역으로 나누어 일도(一徒), 이도(二徒), 삼도(三徒)라고 한다. 도(徒)자는 아마도 ‘도(都)’자가 잘못된 것 같다. 방언에서 도(徒)를 ‘내(乃)’라고 하는데, 아마 그때의 발음인 것 같다.]

신라(新羅) 때 고을라(高乙那)의 15대 손인 고후(高厚)·고청(高淸)이 [세계(世系)에는 초명(初名)은 잉(孕)이고 후에 청(淸)으로 고쳤다고 한다.] 그 막내 [기록에는 그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와 조회하였다. 이에 앞서 태사(太史)가 점을 치고 말했다. “객성(客星)이 남쪽 방향에 출현했으니,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조회할 형상입니다.” 이때에 왕이 기뻐하여 고후(高厚)를 성주(星主)라고 하였고 [하늘의 형상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고청(高淸)을 왕자(王子)라고 하였으며 [그 출현이 아래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막내를 도내(徒內)라고 하였다. 탐라(耽羅)라는 국호를 내려주었고, 각각 보개(寶蓋)와 의대(衣帶)⁴¹⁾를 내려주어 보냈다. 이로부터 자손이 번성하였고, 고씨를 성주(星主)로 양(良)씨를 왕자(王子)로 부(夫)씨를 도상(徒上)으로 삼았다. 그 후에 양(良)은 양(梁)으로 바꾸었다. [세계(世系)에서 말했다. “열종(烈宗) 조에 탐라왕이 광순사(廣巡使) 양탕(良宕)·안무사(按撫使) 부계량(夫繼良)을 보내어 입조하게 하자, 후한 상을 내려주어 보냈다. 양(良)을 양(梁)으로, 부(夫)를 부

41) 보개(寶蓋)와 의대(衣帶): 보개(寶蓋)는 제왕들의 의식에 쓰는 일산과 같은 것이며, 의대는 옷과 띠를 말한다.

(浮)로 바꾸었다. 이것이 양씨(梁氏)와 부씨(浮氏) 두 성의 시작이다.] 그 후에 백제(百濟)에 복종하여 섬겼다.

문주왕(文周王) 2년 병진년(丙辰年)에 탐라의 사자를 은솔(恩率)로 삼았고, 성주(星主)를 좌평(佐平)으로 봉하였다. [은솔(恩率)·좌평(佐平)은 백제(百濟)의 관명(官名)이다.]

동성왕(東城王) 20년 경신년(庚申年)에 탐라(耽羅)에서 직공(職貢)을 바치지 않는다고 하여 몸소 무진주(武珍州) [광주(光州)이다.]에 이르렀다. 탐라의 임금인 [세계(世系)에서는 고소(高昭)라고 하였다.] 사신을 보내어 죄를 빌고 군대를 멈추게 하였다. 하지만 따르기도 하고 거스르기도 하여 전쟁과 토벌이 멈추지 않았다.

백제가 망하고, 신라 문무왕(文武王) 원년 임술년(壬戌年)에 탐라 임금인 좌평(佐平) 도동음률(徒冬音律)이 와서 항복하였다.

고려(高麗) 태종(太宗) 20년 무술년(戊戌年)에 태자(太子) 말로(末老)를 [세계(世系)에서 “성주(星主) 고자견(高自堅)이 아들 말로(末老)를 보내었다.”라고 하였다.] 보내어 조회하였고, 그대로 성주(星主)와 왕자(王子)의 작위를 내렸다.

숙종(肅宗) 10년 을유년(乙酉年)에 탁라(毛羅)를 바꾸어 탐라군(耽羅郡)으로 하였다. 의종(毅宗) 때에는 현(縣)으로 강등시켜 령(令)을 두었다. 고종(高宗) 때에는 부사(副使)를 두었다.

원종(元宗) 8년 정묘년(丁卯年)에 초적(草賊) 문행노(文幸奴)가 반란을 꾸몄고, 부사(副使) 최탁(崔托)이 주륙하였다. 11년 경오년(庚午年)에 반적(反賊) 김통정(金通精)이 삼별초(三別抄)를 이끌고 진도(珍島)에 웅거하였다가 다음 해 신미년(辛未年)에 와서 웅거하면서 침략하였다. 성주(星主) 고인조(高仁朝)⁴²⁾·왕자(王子) 문창우(文昌佑) 등이 보고하였다. 3년 후 계유년(癸酉年)에 왕이 김방경(金方慶) 등에게 명하여 원나라 병사와 함께 토벌하게 하였다. 다음해 갑술년(甲戌年)에 원나라에서 초토사(招討使)를 설치하였다.

충렬왕(忠烈王) 원년(元年) 을해년(乙亥年)에 원나라에서 다시 탐라(耽羅)라고 불렀다. 2년 병자년(丙子年)에 원(元)에서 군민총관부(軍民摠官府)를 설치하였다. [고인조(高仁朝)를 총관(總官)으로, 고적(高適)을 총관부(摠官副)로 문신(文愼)을 동지총관(同知總官)으로

42) 고인조(高仁朝): 원래는 ‘고인단(高仁坦)’이다.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면서 이성계의 이름자인 ‘단(坦)’을 피휘(避諱)하여 ‘조(朝)’로 기록한 것이다.

로, 탑아(塔兒)를 부판(副判)으로, 고정(高貞)을 간지사(幹知事)로, 김숙(金叔)을 제공진사(提控進士)로, 정혼(鄭混)·양기(梁琪)를 지방진사(知房進士)로, 부정재(夫貞才)·고순시(高順時)·문절수(文節隨)·조유현(趙有賢)·안비(安庇)를 영사행서부사사(令司行署府使事)로 삼았다.]

3년 정축년(丁丑年)에 섬이 방성(房星)의 분야(分野)로 속하기에 동서아막(東西阿幕)을 세웠다. [탑라적(塔羅赤)을 달노화적(達魯花赤)으로 삼아, 말·소·낙타·나귀·양을 싣고 와서 수산평(首山坪)에서 방목하였다.]

10년 갑신년(甲申年)에 원(元)에서 총관부(總官府)를 혁파하고 탐라군민안무사부(耽羅軍民安撫使府)를 두었다. [탑라적(塔羅赤)을 달로화적(達魯花赤)으로 고인조(高仁朝)를 안무사(安撫使)로, 문창우(文昌佑)를 부사로, 정총(汀總)을 도달동지사(都達同知事)로, 채유인(蔡有仁)을 첨지행서부사(簽事行署府事)로 삼았다.]

20년 갑오년(甲午年)에 왕이 원(元)에 조회를 했고, 탐라(耽羅)를 돌려달라고 청했다. 원 나라 승상(丞相) 완택(完澤) 등이 황제에게 아뢰어 고려에 돌려주었다. 다음 해 을미년(乙未年)에 제주(濟州)로 고쳤다. [조임(趙任)을 도지초사(都指招使)로, 최서(崔瑞)를 목사(牧使)로, 지남익(池南翼)을 판관(判官)으로 삼았다. 정유년(丁酉年)에 채득공(蔡得公)을 방어사(防禦使)로, 임숙(林叔)을 만호도지휘사(萬戶都指揮使)로 삼았다.] 목사(牧使)와 판관(判官)을 두었다.

26년 경자년(庚子年)에 동서도현(東西道縣)을 설치하였다. [지금의 귀일(貴日)·고내(高內)·애월(涯月)·곽지(郭支)·귀덕(歸德)·명월(明月)·신촌(新村)·함덕(咸德)·김녕(金寧)·호촌(狐村)·홍로(洪爐)·예래(猓來)·산방(山房)·차귀(遮歸) 등 이다. 대촌(大村)에는 호장(戶長) 3인, 성상(城上) 1인을 두었고, 중촌(中村)에는 호장(戶長) 2인을 두었고, 소촌(小村)에는 1인을 두었다. 구설에 신라에서 고후(高厚)를 봉했을 때에 마을을 두었다고 한다. 고려(高麗) 의종(毅宗) 때에 현(縣)으로 나누었다. 원종(元宗) 때에 삼별초(三別抄)가 합하여 하나의 주(州)로 만들었다. 이때에 이르러 현(縣)을 설치했다고 하는 것은 그럴듯해도 연대는 자세하지 않다.] 이해에 원(元)나라 기황후(奇皇后)가 또 황실의 말을 방목하였다. [인조(仁朝)의 동생 수좌(秀佐)를 성주(星主)로, 공제(公濟)를 왕자(王子)로 삼았다.]

28년 임인년(壬寅年)에 원나라에서 군민만호부(軍民萬戶府)를 세웠다.

31년 을사년(乙巳年)에 다시 고려에게 돌려주었다.

충숙왕(忠肅王) 5년 무오년(戊午年)에 초적(艸賊) 사용(土用)·암복(岩卜) 등이 군사를 모아 난리를 일으켰다. 왕자(王子) 문공제(文公濟)가 군대를 일으켜 주륙하였다. 원(元)에 보고하니, 다시 관리를 배치하였다.

공민왕(恭愍王) 11년 임인년(壬寅年)에 [세계(世系)에는 “또 고복수(高福壽)를 성주(星主)로 봉하였다.”라고 하였다.] 원(元) 목자(牧子)들이 원(元)에 하소연하여 다시 만호부(萬戶府)를 설치하였다. [원(元)에서 부추문(副樞文)·아단불화(阿但不花)를 정치사(整治事)로 삼았다. 아단불화(阿但不花)는 본국의 천한 노비 김장로(金長老)와 제주에 도착하였고, 만호(萬戶) 박도순(朴都孫)을 몽둥이질하여 바다에 수장하였다.]

16년 정미년(丁未年)에 원나라가 망했다. 명나라 태조(太祖)가 즉위했고, 제주를 다시 고려에 속하게 하였다. [이때 원(元) 목자들이 강포하고 여러 차례 만호(萬戶)를 죽여 배반하였다. 김유(金庠)가 목자(牧子)를 토벌하였다. 왕이 아뢰어 우리 관리를 두고, 예전처럼 목자(牧子)들이 기르던 말을 바치겠다 청했다. 황제가 이를 따랐다.]

18년 을유년(乙酉年)에 비로소 김세봉(金世奉)을 안무사(安撫使)로 삼았다.

21년 임자년(壬子年)에 원(元) 목자(牧子) 석가을비(石加乙碑)·초고도보개(肖古道甫介) 등이 스스로 동서합적(東西哈赤)이라 칭하고 관리를 살해하였다. 왕자(王子) 문신보(文臣輔)가 아우 신필(臣弼)을 보내어 [세계(世系)에는 아우 신길(臣吉)을 보냈다고 하였다.] 보고하였다. 2년 지난 갑인년(甲寅年)에 왕이 도통사(都統使) 최영(崔瑩)을 보내어 토벌하였다. 김중광(金仲光)을 만호겸목사(萬戶兼牧使)로 삼았다.

우(禍) 7년 신유년(辛酉年)에 비로소 판관(判官)을 두었고, 본조(本朝)에서 따라했다.

우리 태조대왕(太祖大王) 6년 정축년(丁丑年)에 만호(萬戶)를 혁파하고, 목사첨절제사(牧使僉節制使)를 두었다.

공정대왕(恭靖大王) 2년 경진년(庚辰年)에 판관(判官)이 교수(教授)를 겸하였다.

태종대왕(太宗大王) 원년(元年) 신사년(辛巳年)에 다시 안무사겸목사(安撫使兼牧使)를 설치하였다.

2년 임오년(壬午年)에 성주(星主) 고봉례(高鳳禮)·왕자(王子) 문충세(文忠世) 등이 성주(星主)·왕자(王子)의 호칭이 참람한 듯하다 하여 고치기를 청하였다. 성주(星主)를 좌도지관(左都知管)으로, 왕자(王子)를 우도지관(右都知管)으로 하였다.

8년 무자년(戊子年)에 동서아막(東西阿幕)을 혁파하고 감목관(監牧官)을 두었다.

13년 계유년(癸酉年)에 따로 교수(教授)를 두었다.

16년 병신년(丙申年)에 안무사(安撫使) 오식(吳湜)이 계(啓)를 올려 대정(大靜)·정의(旌義) 두 현을 세웠다.

세종대왕(世宗大王) 10년 무신년(戊申年)에 감목관(監牧官)을 혁파하고 판관(判官)이 겸하게 하였다.

25년 계해년(癸亥年)에 안무사(安撫使)에게 목사(牧使)를 겸하게 하고, 감목사(監牧事)를 맡게 하였다.

27년 을축년(乙丑年)에 좌우도지관(左右都知管)을 혁파하였다. 고을에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상진무(上鎭撫)·부진무(副鎭撫)로 삼고 방어의 일을 나누어 담당하게 하였다. [세계(世系)에서 말했다. “고을라(高乙那)의 61대손 고승조(高承祖)를 삼읍도지상진무(三邑都知上鎭撫)로 삼았다고 한다. 위 아래 천여 년간 틀림없이 고을의 역사가 있었을 것인데, 세종대왕(世宗大王) 17년에 최해산(崔海山)⁴³⁾가 안무(安撫)했을 때에 관부(官府)의 실화(失火)로 문적들이 모두 재가 되어버렸다고 한다.]

단종대왕(端宗大王) 2년 갑술년(甲戌年)에 안무사(安撫使)가 감목사(監牧使)를 겸하게 하였다.

세조대왕(世祖大王) 12년 병술년(丙戌年)에 안무사(安撫使)를 고쳐 감목사(監牧使)를 겸하게 하였다. 진(鎭)을 설치하고, 병마수군절제사겸목사(兵馬水軍節制使兼牧使)를 삼고, 판관(判官)에게 감목관절제도위(監牧官節制都慰)를 겸하게 하였다.

예종대왕(睿宗大王) 원년(元年) 을축년(乙丑年)에 다시 목사겸병마수군절제사(牧使兼兵馬水軍節制使)를 두었고, 판관(判官)에게 절제도위감목관(兼節制都慰監牧官)을 겸하게 하였다.

선조대왕(宣祖大王) 기축년(己丑年)에 선산인(善山人) 길운절(吉雲節)과 익산인(益山人) 소덕유(蘇德裕)·해남(海南)의 승(僧) 혜수(惠修) 등이 제주로 들어와서 몰래 사민(土民) 문충기(文忠基)·홍경원(洪敬源) 등 십여 인을 몰래 꺾어 목사 이하 삼읍 수령을 죽이고, 제주에서 반란을 일으키려 하였다. 거사하기로 약속한 날, 마침 일은 성공하지 못했고, 모의가 누설되어 운절(雲節)은 자수하였다. [이는 『남사록(南槎錄)』에 나온다. 본주(本州)

43) 최해산(崔海山): 원문에는 ‘崔山海’되어 있는데로 최해산(崔海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의 관노(官奴) 의남(義男)·식이(植伊)·효일(孝一)·신길(信吉)·원생(元生) 등이 을묘년(乙卯年)에 순무어사(巡撫御史) 이선(李選)에게 올리니, 어사가 몸소 제음(題音)을 쓰고 도장을 찍었다. 소지(所志)에서 “길삼봉(吉三峯)은 정여립(鄭汝立)의 잔당으로 도망쳐서 운절(雲節)이라 이름을 바꾸었고, 익산(益山)의 스님 연법주(衍法主)⁴⁴⁾는 소덕유(蘇德裕)라고 성과 이름을 바꾸어, 함께 제주로 들어왔습니다.”라고 하였다. 관기(官妓) 중 운절(雲節)과 친한 사람들이 운절(雲節)이 흥계를 꾸민다고 고발했다고 한다. 그 관기의 손자인 문두성(文斗星)이 당시 진무(鎭撫)였다. 그의 할머니도 이로 인해 천한 신분을 면하게 되었다고 한다.]

신축년(辛丑年) 6월 초나흘, 목사(牧使) 성윤문(成允文)이 치계(馳啓)하였고, 정국(庭鞠)하여 형벌을 시행하였다. 9월에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이 순무어사(巡撫御史)로 섬에 들어와 선유(宣諭)하였다. [관풍안(觀風案)에 나와 있다. 청음(淸陰)의 『남사록(南槎錄)』은 바로 이때 지은 것이다.]

효묘조(孝廟朝)에 토인(土人) 김대길(金大吉)이 산마(山馬) 200여필을 바치기를 원했다. 조정에서 그 뜻을 가상히 여겨 그 자손들에게 대대로 자기 말을 감독하는 일을 세습하게 하였다.

금상(今上, 숙종) 병인년(丙寅年)에 육지 사람 양우철(梁禹轍)이 익명서(匿名書)를 만들어 삼성혈(三姓穴)에 몰래 두고는 자기가 관아에 알렸다. 체포하여 서울 옥으로 보내어 실상을 파악하고, 법대로 처리하였다. 무고에 끌어들인 제주도민은 바로 풀어 주었다.

이번 계미년(癸未年)에 우도(牛島)의 말을 감독할 사람이 없어 내가 별방진(別防鎭) 조방장(助防將)에게 감목과 기르는 것을 돌보도록 계청(啓請)하였고, 조정에서 허락하였다.

지금 관원은 목사(牧使)·판관(判官)·교수(教授) 각 1원(員), 현감(縣監) [정의(旌義)·대정(大靜)] 2원(員), 감목관(監牧官) 1원(員), 겸감목(兼監牧) 4원(員) [판관(判官)·정의(旌義)·대정(大靜)·별방진조방장(別防鎭助防將).], 심약(審藥)·한역(漢譯)·왜역(倭譯) 각 1원(員)이다. 검율(檢律)은 두 번 지난 무오년(戊午年)부터 조정에서 임명하여 보내지 않았고, 율생(律生)에게 법률을 살펴보게 하였다. 이것이 제주 연혁의 큰 일개이다.

44) 연법주(衍法主): 정여립(鄭汝立)과 함께 도참(圖讖)을 빙자하여 모반한 요승(妖僧) 의연(義衍)을 말한다.

성씨를 기록하다[誌姓]

고(高)·양(良)[후에는 양(梁)으로 바꾸었다]·부(夫)가 가장 앞선다. 그 후에 문(文)[보성(寶城)의 복성(福城) 사람이 들어와 고씨의 사위가 되었고, 계승하여 왕자(王子)가 되었다]·정(鄭)·김(金)·이(李)·문(文)·안(安)·현(玄)·함(咸)·양(楊)씨가 모두 본주(本州)의 현(縣)의 무리이다.

김(金)·이(李)·박(朴)·임(林)·유(兪)·주(周)·조(趙)·송(宋)·정(鄭)·홍(洪)·서(徐)·최(崔)·오(吳)·차(車)·지(池)·한(韓)·마(馬)씨 모두 타지에서 왔다.

조(趙)·이(李)·석(石)·초(肖)·강(姜)·정(鄭)·장(張)·송(宋)·주(周)·진(秦)씨는 모두 원나라에서 말을 키울 때에 온 성씨이다. 모두 원나라 성씨이며, 말을 키우며 제주에 남았다.

양(梁)·안(安)·강(姜)·대(對)는 운남(雲南)에서 왔다. 대명(大明) 초에 운남(雲南)을 평정하여 양왕(梁王)의 집안을 이주시켜 본주에 안치시켰다. 서로 얽혀 있고, 비록 파가 다르다고 해도 모두 삼성(三姓)에서 근원한다고 한다.

인물을 기록하다[誌人]

신라(新羅)

고후(高厚)·고청(高淸).

고려(高麗)

고유(高維) [처음으로 고려에서 벼슬살이를 하였다. 빈공(賓貢)에 등제(登第)하고 관직은 우복야(右僕射)에 이르렀다.]

고조기(高兆基) [유(維)의 아들이다. 예종(睿宗)조에 등제(登第)하였고, 관직은 정당문학(政堂文學)·참지정사(參知政事)에 이르렀다.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에 이르렀다.]

고적(高適) [조기(兆基)의 손자이다. 본주(本州) 유총관(留總官)이 되었다.]

본조(本朝)

고득중(高得宗) [적(適)의 10대손이다. 등제(登第)하였고, 관직은 한성판윤(漢城判尹)에 이르렀다.]

고태필(高台弼) [득중(得宗)의 아들이다. 등제하여 관직은 개성유수(開城留守)에 이르렀다.]

고태정(高台鼎) [태필(台弼)의 아우이다. 기묘년 과거에서 장원하였다. 관직은 봉상시정(奉常寺正)에 이르렀다.]

제주 사람들은 바탕이 맑고 민첩하다. 빼어나면서도 순박한 면은 적지만, 조심하고 재주가 많다. 『풍토록(風土錄)』에서 말했다. “인심은 거칠고 속여서 이익 얻기를 일삼으며 염치가 무슨일인지 모른다.” 『남사록(南槎錄)』에서 말했다. “겉으로는 우둔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속으로는 교활한 지혜가 많다. 일찍이 자신이 곤란했던 일과 수재(守宰)들의 형편없는 실상을 하나하나 꿰어서 말하는데, 매우 조리가 있었다. 또 의리(義理)를 섞어 가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경청하게 하니, 본래 전혀 무식한 부류라고 할 수 없다.”

충암(冲庵)이 본 때에서 거의 100년 전이니, 어찌 점점 왕화(王化)에 몰들어 날마다 좋은 풍속으로 나아 가기에 이른 것이 아니겠는가? 속여 이익만을 생각하고, 염치를 모르는 것은, 앞뒤로 부임해온 지방수령⁴⁵⁾들이 계속 이어받아 이렇게 된 것이니, 윗사람의 행동을 아랫사람이 본 받는다라는 말이 어찌 거짓이겠는가?”

지금 서리(吏胥)중에 문필(文筆)·공장(工匠)·기예(技藝)를 살피니 하나하나 기묘하다. 섬안의 유생(儒生)들은 비록 시를 짓는다고 해도 시격에 어긋나 보기에 민망하다. 내가 13명을 뽑아 [진사(進士) 오정빈(吳廷賓)·유학(幼學) 김계중(金繼重)·양유혁(梁維赫)·전만성(田萬成)·김정실(金鼎實)·정창원(鄭敞遠)·이시태(李始泰)·고복성(高福星)·고처안(高處安)·양우현(梁遇賢)·고만갑(高萬甲)·정창도(鄭敞道)·고세동(高世東)]이다. 이들에게는 감영(監營)에서 먹을 것을 제공하게 하였다. 나머지 제주(濟州)에서 20인, 정의(旌義)에서 7인, 대정(大靜)에서 5인은 계절을 따지지 않고, 급료(給料)를 계산해 주는⁴⁶⁾ 것을 영원히 정식(定式)으로 삼았다.] 책문을 짓게 하니, 열흘 안에 모두 글을 지었다. 날마다 연습하고 익히니 역시 시다운 시가 많았다. []⁴⁷⁾ 조금 문자를 아는 어린아이들에게 영산(影算)⁴⁸⁾을 가르치니, 한 달 만에 익혀 숙달한 이가 80여 인이나 되었다. 정의현과 대정현에서도 역시 성취한 이가 많았으니, 그 재능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45) 지방수령: 원문은 ‘승류(承流)’로, 승류선화(承流宣化)라는 말의 준말이다. 풍교(風教)를 받들어 숭상하고 은택을 베풀어 백성을 교화하는 관원의 직분을 가리키는 말인데, 보통 방백(方伯) 등 지방 장관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다. 《漢書 卷56 董仲舒傳》

46) 계산해 주는: 원문은 ‘회감(會減)’이다. 이것저것을 따져 계산 해준다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뜻한다.

47) []: 정문연본에는 ‘그 몇 년 후에 정창원·오정빈·고세태가 모두 문과에 급제하여 바로 수령이 되었다. [其後年, 吳廷賓·鄭敞遠·高世泰·皆登文科, 方做即官守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문화재청본에는 여기에서 ‘또 병신년(丙申年)에는 문과에서 3명이 뽑혔다. 앞뒤로 문과에 합격한 6명은 모두 내가 뽑았던 13명에게서 나온 것이다. [又於丙申取文科三人, 僅與前後計, 文科六人, 皆自十三人出.]’라는 내용까지 덧붙여져 있다. 위의 과거 합격자 중, 고세태(高世泰)는 고만첨(高萬瞻)으로 추정된다.

48) 영산(影算): 영수(影數)로, 삼각법(三角法)의 구칭(舊稱)이다. 삼각법(三角法)은 각의 측정 및 삼각형의 변과 각 사이의 양적 관계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측량·건축·천문·관측·항해 등에의 응용을 꾀하는 수학의 한 분과이다.

풍속을 기록하다[誌俗]

구역(區域)이 저절로 다르고 풍토(風土)도 매우 다르다. 흘러 내려오는 풍속을 익히고 숭상하여 걸핏하면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다만 왕령으로 외방에 문물이 펼쳐져 점점 물 들었으며, 하나의 나라가 되어 포모(苞茅)⁴⁹⁾를 해마다 바쳤다. 일단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만을 기록한다.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다. [지지(地誌)에 질병이 적어 요절하는 경우가 없고, 나이 80~90세까지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하였다. 토인(土人)에게 물어보면 예전에는 120여 세나 되는 사람도 많았지만, 을병년(乙丙年)⁵⁰⁾ 전염병에 거의 죽었다고 한다. 노인연(老人宴)에 온 사람들은 102세가 1인, 101세가 2인, 90세 이상이 29인, 80세 이상이 201인이며, 기력이 튼튼하고 대부분 기운 없어 빌빌거리지 않는다. 충암(冲庵)이 이른바 노인성이 비추는 곳이라고 한 것은 진실로 거짓이 아니다.]

여자는 많고, 남자는 적다. [매년 배가 침몰하여 빠져 죽는 사람이 매우 많다. 그렇기에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많다. 지극히 천한 사람이라고 해도 두세 명의 처(妻)가 있다. 혹 10여명의 처(妻)가 있기도 하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고래의 밥’이라고 하면서 그다지 아끼지 않고, 여자아이를 낳은 다음에야 ‘이 애가 나를 봉양할 아이’라고 기뻐하니, 마음이 참 애달프다.]

어리석고 검소하면서도 예양(禮讓)이 있다. [입고 먹는 것이 소박하고 비루하여, 화려한 것이 없다. 넉넉한 사람들도 거친 베로 옷을 입고 소금과 간장을 계속 먹을 수 없다. 귀해서

49) 포모(苞茅) : 제사용 술을 거를 때 쓰는 청모(菁茅)인데, 춘추 시대 제 환공(齊桓公)이 “포모를 공물로 바치지 않았다(爾貢苞茅不入)”라는 이유로 초(楚)나라를 정벌한 고사가 있다. 이후 공부(貢賦)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春秋左氏傳 僖公 4年》

50) 을병년(乙丙年): 숙종 21년(1695년) 을해년부터 25년(1699년)까지 있었던 대기근이다. 경신대기근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고 한다.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대개 지나치게 검소하여 그런 것이다. 겸손하고 사양하는 모습은 곡진하게 예를 차리려는 뜻이 있는 듯하다. 매번 성묘(聖廟)에는 분향(焚香)하거나 석전(釋奠)을 할 때에는 유생들이 제사를 행하는데, 예를 갖추어 서로 읊(揖)하는 것이 매우 익숙하며, 또 법식(法式)이 있었다. 관아를 출입하는 사람들도 비록 어리석고 미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예의를 잘 차린다. 길에서 관인(官人)을 만나면, 도망가서 숨어 보이지 않는다. 혹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길옆에 구부리고 엎드려 감히 머리를 들지 않는다.]

혼례(婚禮)할 때, 문에서 절을 한다. [지지(地誌)에서 말했다. “혼인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술과 고기를 마련하고, 납채(納采)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이다. 혼인 날 저녁에 신랑이 술과 고기를 마련하여 신부의 부모를 뵈는데, 음식이 조출하면 딸을 내주지 않는다. 술에 취한 다음에야 신방에 들어간다.” 지금도 이런 풍속이 있다. 또 동성(同姓)과 가까운 친족도 가리지 않고, 교배례(交拜禮)도 행하지 않아, 내가 여러 차례 알려 주었다. 또 남녀의 예복을 향청(鄉廳)에 내려주니, 문에서 절하는 것이나 술·고기를 마련하는 것을 과연 바로 폐하였다. 교배례(交拜禮)를 하면 신랑과 신부가 모두 부끄러워하고 심지어 우는 사람도 있었다. 익숙해진 후에는 사람들이 모두 좋다고 하였다. 지금은 공천(公賤)·사천(私賤)까지도 모두 행한다고 한다.]

사투리는 난삽하다. [지지(地誌)에서 말했다. “사투리가 난삽하여 처음은 높고 나중은 낮다. 서울은 ‘서라(西那)’라 하고, 덩불(藪)을 ‘곶[高花]’이라 하고, 산[岳]을 ‘오름[兀音]’이라 하고, 손톱을 ‘곶[蹄]’이라 하고, 입을 ‘룩(勒)’이라 하고, 말굴레[艸羈]를 ‘녹대(祿大)’라 하고, ‘철 재갈(鐵銜)’을 ‘가달(加達)’이라고 한다.”

『소승(小乘)』에서 말했다. “가끔 문자가 섞여 있다. 남자를 높일 때는 ‘관관(官官)’이라 하고, 흙[土]과 마늘[蒜]과 같은 글자는 지방음을 쓰지 않고, 글자에 알맞지 않아도 모두 한 자음을 사용한다.” 『풍토록(風土錄)』에서 말했다. “발음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가늘고 높아 대부분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조잘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니, 왜인(倭人)의 문자를 섞어 쓰는 것도 같고, 중국어와도 매우 비슷하다. 평상시 묻고 대답할 때에는 대부분 『노걸대(老乞大)⁵¹⁾』와 같다. 소와 말을 모는 소리는 역관들도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한다. 관인(官

51) 노걸대(老乞大): 조선에 있었던 중국어 학습서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중종 때 최세진(崔世珍)

人)들이 말하는 것은 대략 서울 말씨와 같지만, 자기들끼리 이야기 나누는 소리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시골 아낙들 중 관아에 하소연하는 자들은 마치 재두루미 우는 소리나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 더욱더 들리지 않았다. 반드시 아전들이 통역해주어야 알 수 있었다. 풍속이 중국과 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원나라 목자들이 서로 섞여 있고 익숙해서 그런 것인가?]

땅은 척박하고 백성은 가난하다. [『남사록(南槎錄)』에서 말했다. “땅에는 바위와 돌이 많고 흙이 깔린 것은 몇 촌(寸)이다. 삼과 목화는 생산되지 않는다. 입고 먹을 것이 모두 부족하고, 오직 해산물을 채취하여 생업으로 한다.”]

밭을 밟고 팔양(八陽)⁵²⁾을 한다. [고려(高麗) 문종(文宗) 12년에 문하성(門下省)에서 아뢰었다. “탐라(耽羅)는 땅이 척박하고 백성들은 가난하여 오직 배를 타며 삶을 꾸려갑니다.” 주기(州記)에서 말했다. “흙의 성질이 뜨고 말라서 밭을 일구는 자들은 반드시 소와 말을 몰아 밟는다. 2~3년 연달아 경작하면, 이삭에 알맹이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새로 밭을 일군다. 공은 배가 들지만 수확은 적으니, 곤궁한 백성들이 많은 이유이다.” 내가 밭의 상태를 살펴보니 과연 얇은 점토였다. 밟지 않으면 파종할 수 없고, 거름을 하지 않으면 이삭이 패지 않았다. 그러므로 소와 말을 몰고 나와 하루 종일 밟는데, 이를 ‘답전(踏田)’이라고 한다. 소와 말을 축장(築場, 타작마당) 안에 가두고, 밤낮으로 똥으로 밭에 거름하는 것을 ‘팔양(八陽)’이라고 한다. 대개 땅의 성질이 비옥하여 수확이 육지보다 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마다 밭을 갈 수 없어 그런 것이다. 또 소와 말을 몰 때에는 휘파람으로 하고 소리로 부르지는 않는다.]

여자의 노역이 매우 무겁다. [관아에는 『잠녀안(潛女案)』이 있는데, 진상하는 미역과 전복은 모두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맡긴다. 정의(旌義)·대정(大靜)은 시비(寺婢)에게도 수보(收保)를 정해 준다. 여염(閭閻)집에서 물 길고 곡식 베고 땀나무 모으고 전복을 채취하

이 한글로 번역했다.

52) 팔양(八陽): 보리를 벤 다음 한 철을 쉬면서 거름대신 밤마다 마소 떼를 가두어 놀리는 밭을 제주어로 ‘바령밭’이라고 한다. 이를 마소의 분노를 통해 땅의 힘을 돋우기 위한 것이다.

는 것 같이 힘써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여인이 담당한다. 제주 풍속에서는 등에 지며 머리에 이지는 않는다. 물 길는 사람들도 나무통을 등에 짊어지지 머리에는 이지 않는다. 또 치마는 없고, 다만 삼[麻] 끈으로 허리를 묶고, 몇 척의 거친 베로 꼬아 앞면을 꿰매고 엮어, 그저 음부를 가릴 뿐이다. 소략한 옷으로 몸통과 볼기가 드러나니, 참담하여 차마 볼 수 없다. 고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출입할 때에 흑 옷을 입기는 하지만, 습속이 오래되고 백성들도 익숙해져서 심상하게 생각하니, 부끄러운 줄 모른다. 매번 아전과 백성들에게 안 되는 이유를 말하여 부끄러움을 알게하였고, 그런 다음에 금지하는 명을 내렸다. 사람들이 모두들 영원히 이 습속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어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지를 알겠는가? 하지만 기창(妓娼) 중 조금 여유로운 이들은 비단옷을 걸치고 비단을 끌지 않는 이가 없으니, 관서(關西)지역과 비슷하다.]

그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지지(地誌)에서 말했다. 산은 험하고, 바다는 거칠어 그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물고기는 낚시로 잡고 짐승은 활쏘기로 잡는다.]

서울의 관직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지(地誌)에 “서울은 멀리 떨어져서 벼슬하기가 어렵다. 제주 사람들 중에 재주가 있어 물망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진무(鎭撫)가 되기를 구한다. 그러므로 세속에서는 관아(官衙)에서 일을 맡는 것을 영예롭게 생각하고, 서울 관직이 귀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풍토록(風土錄)』에서 말했다. “품관(品官) 이하 지극히 미미한 사람들까지 모두 조정의 귀한 사람들과 사귀고, 토호들은 진무(鎭撫)가 되기를 구한다. 다음은 여수(旅帥), 다음은 서원(書員)·지인(知印)·공생(貢生) 자리를 구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일삼는다. 털끝만한 작은 일에도 모두 뇌물을 쓰고, 강한 힘으로 약한 이를 억누르고, 폭력으로 어진사람을 겁박한다. 그러므로 관원 중에서 염치와 의리가 있는 자가 있으면,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은혜로움을 마음에 품으면서도 그 우활함을 비웃는다. 지금 삼읍(三邑)에서 다만 문과(文科) 출신이 2명이 있는데도, 찾아가는 사람도 없고 길에서 읍(揖)하는 사람도 없다. 사람들이 대접하는 것이 면임(面任)이나 장관(將官)보다 못하다.”고 한다.]

돌을 모아 담을 쌓는다. [지지(地誌)에서 말했다. “예전에는 받두둑이 없어, 힘 있고 강한

사람들이 빼앗았다. 김구(金丘)가 판관(判官)이 되었을 때, 사람들마다 담을 쌓게 하니, 사람들이 모두 편하게 생각하였다.” 지금은 밭 주변과 집 주위에 담장을 두어 경계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목장의 말도 막는다고 한다.]

집에는 온돌이 없다. [집은 모두 초가이며, 엮지 않고 그물처럼 하지 않는다. 풀을 쌓아 두텁게 덮어 짹짹 동여맨 것은 바람이 두렵기 때문이다. 온돌이 없는 것은 잠수하는 사람들이 난방하는 곳에 들어가면 피부가 터지고 살이 문드러져 꼭 큰 병이 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닥에서 잠을 자는 것이 예로부터 풍속이 되었다. 간혹 늙은 부모가 있는 사람들은 작은 온돌을 만들기도 하지만, 다만 천 백 중에 한명이다. 부엌에는 숯 하나만으로 밥을 한다.]

다듬잇돌이 있고, 공이는 없다. [예로부터 절구가 없다. 여자 3~7명이 손으로 나무절구를 뿜는데, 방아 소리가 처량하고 평소에 하는 말이 섞여 있다. 남자들이 힘써 일을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옷을 다듬이질하는데 다듬잇돌은 없고, 손으로 두드린다. 풀무질을 할 때에는 밟지 않고, 손으로 풀무질을 한다.]

시장에서 사고팔지 않는다. [노인들이 서로 전하길, 예로부터 수령(守令) 중에 시장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시장에 모이게 하니, 매고 지고 와서 만나 스치기만 할 뿐, 절대 사고팔지는 않았다고 한다. 대개 우매한 백성들은 매번 행상(行商)을 만날 때마다, 자기 집에서 만나 가격을 흥정하고, 시장의 일정한 가격을 싫어하였다. 이 때문에 예로부터 지금까지 원래 시장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백성들이 가난하고 부역이 무거워 생계가 막막하면, 부모를 팔고 처자식을 파는 습속이 예로부터 풍속이 되었다.

내가 장계(狀啓)를 올렸는데⁵³⁾, 대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도(諸道)의 목장(牧場)에는 모두 위전(位田)이 있고, 또 번(番)을 세우지 않습니다. 봄·가을로 말을 점검한 후에 사고로 잃은 말 수를 모두 계산하고, 여러 명의 호보(戶保)⁵⁴⁾들에게 균일하게 나누어 부과

53) 내가 장계(狀啓)를 올렸는데: 본 내용은 『병와선생문집(瓶窩先生文集)』 「제주민막장(濟州民瘼狀)」에서 확인된다.

54) 호보(戶保): 정병(正兵)·정군(正軍)으로 근무하는 호수(戶首)와 그에 딸린 보인(保人)을 말한다.

합니다. 목자(牧子)들에게 매년 징수하는 것은 많아도 무명[木疋] 몇 필에 지나지 않고, 적을 경우 쌀 한 말 정도입니다. 전답(田畠)의 수확으로 넉넉히 살아갈 만하고 그 값도 쉽게 마련할 수 있지만, 본도(本島)는 그렇지 않습니다. 7,600여 마리의 말과 620여 마리의 소들이 63장(場)안에 흩어져 있고, 목자(牧子)는 1,200명인데 모두 공천(公賤)으로 빠진 인원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미 위전(位田)도 없는데다가 너무나 가난하고 쇠약합니다. 계절에 상관 없이 번(番)을 나누어 지키고 있습니다. 비록 가축이 남아있는 폐마(斃馬)는 추궁하여 징수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300여 리의 숲속에서 시간이 지나 썩은 말도 있고, 금수(禽獸)들이 쪼아 먹은 것도 있고, 가축은 남아 있지만 표식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모두 말을 잃어버린 것으로 하는데, 한 사람에게 1년 징수할 것을 추궁하면, 10여 마리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타도(他道)의 목장에는 없는 부역입니다. 험벗은 백성들이 값을 마련할 수 없으면, 부모와 처자를 팔고 자기 자신을 파는 지경에 이릅니다. 세상 어디에 이런 풍속이 있습니까? 처자(妻子)가 없으면 부모(父母)를 팔고 동생(同生)이 없으면 자신을 팝니다. 앞서 판 것으로 값지도 못했는데, 다음에 죽은 말 값을 또 징수합니다. 찢어지는 마음은 차마 안타까운데 가슴 치고 땅을 두드리니, 지금 이런 상태이면 하늘도 색이 바뀔 것입니다. 예전에 드물었는데 지금은 더 심해져, 계속 이어져 풍속이 되었습니다. 성조(聖朝)에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가축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천륜(天倫)을 잔악하게 해치는 것은 진실로 큰 변고인데, 익숙해져 괴이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더욱더 큰 변고입니다. 삼읍(三邑)에 분부하여 가려 보고하게 하니, 부모를 팔아버린 사람이 5명, 처자를 팔아버린 사람이 8명이며, 자신을 판 자는 19명이며, 동생(同生)을 판 사람이 26명으로 모두 합하면 58명입니다. 당당한 예의(禮義)의 나라에서 백성들의 풍속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목자(牧子)들에게 받지 못한 액수를 책으로 만들어 비변사(備邊司)로 올려 보냈습니다. 이미 병폐가 드러났으니, 마땅히 관가에서 넉넉하게 구휼하여 조정의 덕의(德意)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신이 있는 제주감영에서 변통(變通)한다면, 나라를 원망하고 신을 은혜롭게 생각할 것이니, 감히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상평창(常平倉)에 명하여 본주(本州)의 모곡(耗穀)을 위아래로 참작하여 속환(贖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는 이미 천하 만고에 없는 풍속이니, 조목을 나누어 윤리 기강을 세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민생을 넉넉히 하지 않고, 그저 파는 것만을 금지한다면, 소위 ‘들어가

고자 하는데 그 문을 닫아 버린다⁵⁵⁾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적어도 흑우(黑牛)를 줄였던 예에 따라 말 징수하는 것을 반으로 줄인다면,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백성들은 지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금하는 명령을 내려 골육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께서 허락하셨다. 이미 팔아버린 경우는 속환(贖還)하고, 또 금하는 조목을 세웠다. 사는 자와 파는 자는 각각 그 죄를 논하고 조정의 덕의(德意)를 행하니, 백성들은 모두 기뻐하며 북 치고 춤추다가 흠어졌다.]

조리희(照里戲) [지지(地誌)에서 말했다. “매해 8월 15일에는 남녀가 같이 모여 노래하고 춤추고, 좌우로 무리를 나누어 큰 줄 양쪽을 당기면서 승부를 내는데, 이를 ‘조리희(照里戲)’라고 한다. 또 이 날에 그네타기와 닭 잡는 놀이를 한다.” 지금은 줄다리기와 그네 타기는 단오(端午)에 행하고, 닭 잡는 놀이는 다시 하지 않는다.]

밭 끝에 무덤을 만든다. [지지(地誌)에서 말했다. “상을 치르는 것은 100일이면 탈상 한다. 밭 끝에 대략 땅을 파서 무덤을 조성한다. 간혹 3년 상을 행하는 사람도 있다. 풍속에서는 풍수지리와 점을 사용하지 않고, 또 부도법(浮屠法)도 사용하지 않는다.” 지금은 모두 삼년상을 행한다. 지리(地理)·복서(卜筮)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매년 업중세(業中稅)⁵⁶⁾이라 칭하면서 거친 베 2필을 징발하여 상평창(常平廳)에서 기록한다.⁵⁷⁾ 이른바 업중세(業中稅)이라는 것은 대개 지술(地術)에 대한 것인데, 틀림없이 탐라구례(耽羅舊例)일 것이다. 밭 끝에 무덤을 조성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절이 없고, 스님이나 비구니도 없다. [삼읍(三邑)에는 사찰 터가 매우 많다. 지지(地誌)·『풍토록(風土錄)』·『남사록(南槎錄)』에서 모두 말했다. “스님은 있지만, 비구니는 없다.” 지금 제주에는 원래 스님이나 비구니가 없고, 사찰 역시 모두 철폐되었다. 제주성(濟州城) 동

55) 들어가고자……버린다: 원문은 ‘욕기입이폐기호야(欲其入而閉其戶也)’이다. 『맹자(孟子)』 「만장하(萬章下)」에 “현인을 만나 보고자 하면서 그 도로 하지 않는다면,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문을 잠그는 것과 같다[欲見賢人而不以其道 猶欲其入而閉之門也]”라고 하였다.

56) 업중세(業中稅): 업중(業中)이란 박수, 즉 남자 무당을 말한다. 무격(巫覡)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무녀(巫女)에게 거뒀던 세금과 업중세(業中稅)가 따로 있었다.

57) 기록한다: 원문은 ‘회록(會錄)’이다. 금전이나 곡물 따위를 용도별로 모아서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일을 말한다.

쪽에 만수사(萬壽寺)가 있고, 서쪽에는 해륜사(海輪寺)가 있다. 모두 불상(佛像)이 있지만 늘 지키고 있는 사람은 없어서 마을에서 한 사람을 정하여 살펴보고 있다. 또 사명일(四名日)⁵⁸⁾에 서로 모여서 예불을 드릴 뿐이다. 내가 오래 유지할 수 없으니, 두 사찰을 헐고 공해(公解)로 옮겨 세우자고 하였다.

대정(大靜)에는 유일하게 존자암(尊者庵)이 있는데, 초가 몇 칸뿐이고, 거처하는 스님도 없다. 다만 어사⁵⁹⁾가 산에 오를 때에 자거나 쉴 뿐이다. 섬 전체는 폭이 500리 크기인데, 지금 사찰에는 불상·스님·비구니가 없고 또 염불하는 사람도 없으니, 불도(佛道)가 곤궁한 처지라고 하겠다.]

음사를 숭상한다. [주기(州記)에 풍속은 음사(淫祀)를 숭상한다. 산·숲· 시내· 연못· 하천 연안과 평지· 나무· 돌에 모두 신사(神祀)를 마련한다. 매해 1월 1일에서 15일까지 무격(巫覡)들이 모두 신독(神籙)을 들고, 굿을 행한다. 쟁과 북을 치고 깃발을 세우고 창칼을 앞세워 여염집을 출입한다. 관원(官員) 이하로 다투어 옷·재물·쌀을 내놓아 제사를 지낸다. 또 2월 삭일(朔日)에는 귀덕(歸德)·김녕(金寧) 등에서 나무장대 12개를 세워 신을 맞이하며 제사를 지낸다. 애월(涯月)에 사는 사람들은 말머리 같은 나뭇가지에 비단으로 꾸며 약마희(躍馬戲)⁶⁰⁾를 하면서 신을 즐겁게 한다. 다음 날에야 파하는데, 이를 ‘연등(燃燈)’이라고 한다. 이 달에는 배에 오르는 것을 금지한다. 또 봄가을로 남녀들이 무리지어 광양당(廣壤堂)·차귀당(遮歸堂)에 모여, 술과 음식을 갖추어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또 땅에는 뱀과 지네가 많은데, 잿빛 뱀을 보면, 차귀신(遮歸神)으로 생각하여 금기시하여 죽이지 않는다. 이른바 ‘차귀(遮歸)’라는 것은 방음(方音)이 심히 와전된 것이니, 뱀 귀신을 차귀(遮歸)라고 한다.

58) 사명일(四名日): 우리나라에서 지내는 네 번의 중요한 명절로, 설·단오·추석·동지를 말한다.

59) 어사: 원문은 ‘별성(別星)’이다.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외국이나 지방으로 나가는 봉명사신(奉命使臣)을 이른다.

60) 약마희(躍馬戲): 기존 연구에서는 ‘테우말이 놀이’ 또는 ‘떼를 몰아 경주하는 놀이’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온 ‘사(槎)’를 때배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제주에서는 영등달에 하루에도 해풍이 수시로 변하므로 결코 배를 띄우지 않았다. 때배놀이로 보는 것은 정황상으로도 의아하다.

1960~70년대만 해도 애월지역에서는 약마희가 행해졌었다고 한다. 번역자가 들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먼저 나뭇가지로 말머리 모양을 만들고, 여기에 포목을 씌워 눈과 입을 그려놓고 막대를 꽂아 놓고는, 머리를 흔들면서 말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표현했는데, 이것이 ‘약마희’라는 것이다. 이는 음력 2월경에 주로 애월지역에서 성행했었다. 이에 대해 애월진성에서 점마할 때, 중산간의 말들이 애월의 하물에서 샘물을 마시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다. 추후의 연구를 기대하는 바이다.

『풍토록(風土錄)』에서 말했다.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지독히 숭상하고, 남자 무당이 매우 많다. 재화(災禍)로 사람들을 협박하여 재산을 훔쳐모은다. 삭(朔)·망(望)·7일·17일·27일⁶¹⁾에는 희생을 죽여 제사를 지낸다.” 또 말했다.⁶²⁾ “백성들의 풍속이 비루하여 어리석고 거칠어, 기회를 틈타 도살하기를 좋아한다. 무릇 빌거나 병이나 액운, 이득과 손실, 화와 복은 모두 신(神)에게 듣는다. 질병이 심해도 약 먹는 것을 두려워하고, 귀신의 분노라 생각하며,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한다. 세속에서는 뱀을 매우 꺼려하며 신으로 받들고, 보이면 술을 뿌리며 빌고, 감히 몰아내거나 죽이지 않는다.”

『남사록(南槎錄)』에서 말했다. “풍속에서 2월을 연등절(燃燈節)이라고 한다. 세속에서 전하길 당나라 상인의 배가 침몰했고, 표류하여 죽은 자의 사지가 나누어졌다. 머리는 제주 동쪽 어등포(於等浦, 행원리)에, 손과 발은 제주의 서남쪽인 고내(高內)·애월(涯月)·명월(明月) 등의 포구로 들어갔다. 이에 고을 사람들은 정월 28일부터 마을에서 쌀을 걷어서, 2월 초5일에 연등신(燃燈神)에게 제사를 지낸다. 매년 정월 그믐에 바람이 서쪽바다에서 불어오면, 다른 지방의 신이 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러 무당들이 모여 들에서 밤과 낮으로 제사를 지내고, 마을 집을 돌아다닌다. 2월 상순에 배 모양을 만들고, 돛과 돛대를 갖추고, 포구에서 띄우는데, 이를 ‘송신(送神)’이라고 한다. 이때에 바람은 동북쪽에서 불어오는데, 이를 다른 지방의 신이 떠나간다고 하였다. 2월 초길(初吉)부터 15일 이후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배를 띄우지 않는다. 오직 진상하는 선박은 관가의 독촉 때문에 세속의 금기에 구속되지 않는다. 하지만 왕왕 침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 사람들은 이런 풍속을 지키지 않아 그런 것이라고 한다.”

또 말했다. “이 풍속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 광양(廣壤)·차귀(遮歸) 등의 음사는 통소와 북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곳 사람들은 하늘 같이 경외한다.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은 반드시 이곳에서 기도하고 난 후에야 실행한다. 설날에 신을 맞이하여 성에 들이는 것을 ‘신유(神遊)’라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투어 의복을 내놓는다.”

또 말했다. “마을 사람들이 늙어 병에 들어 오래 위독한 경우에는 그 자식들은 정성들여

61) 7일……27일: 원문은 ‘칠칠(七七)’이다. 제주무속에서 매달 이레에 신당을 찾아가는 풍속이 있다. 이를 제주에서는 ‘일렛당’이라고 한다.

62) 또 말했다: 본 내용은 『팔오헌선생문집(八吾軒先生文集)』 「남천록상(南遷錄上)」에 있고, 여기에는 충암(沖庵)의 「수정사중수기(水精寺重修記)」라고 되어 있다. 이는 충암의 「도근천수정사중수권문(都近川水精寺重修勸文)」이며, 본문은 이를 변형하여 기록하였다.

기도를 한다. 만약 나아지지 않으면, 귀신이 빨리 잡아가서 오래도록 괴롭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와 같이 해야 모두들 효성스럽다고 한다. 이것은 대개 오랑캐의 풍속이 다 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지금은 갈수록 더욱 심해졌다. 심지어 소와 말, 농장까지 빼앗고 모여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전 보다 더 심해졌다.

내가 또 장계를 올렸다.⁶³⁾ 대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격(巫覡) 무리들이 무혹하는 습속은 천하 만고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고질적인 병폐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주도는 더욱 유별합니다. 이미 상하의 명분(名分)도 없고, 또 의리상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집집마다 신위를 설치하고 곳곳에 신사를 세우니, 숭봉하는 습속이 모두 육지의 백배입니다. 이른바 남격(男覡)과 여무(女巫)들은 기세등등 사람들을 부리고, 무뢰배들은 당한(堂漢, 당놈)이라 하면서 서로 모임을 만드니, 그 수가 1,000명이 넘습니다. 혹은 여염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혹은 신당(神堂)에서 소를 잡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베와 명주를 보관하고 있으면, 처음에는 귀신의 재앙이라고 하며 두렵게 합니다. 만약 내놓아 베풀지 않으면, 귀신의 차사라고 하면서 당한(堂漢)을 보내어 결박하고 빼앗습니다. 심지어 소와 말을 빼앗는데, 거의 100필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그 밭까지 빼앗고는 각각 나누어 먹으면서, 위전(位田)이라 하기도 하고, 혹은 사시(捨施, 보시)라고 합니다. 밭은 밭두둑으로 이어지고, 당(堂)에는 보물들이 쌓입니다. 무릇 배를 움직일 때에도 그저 신이 재앙을 내린다고만 생각하고, 관가의 명령은 알지 못합니다. 진상선이 바람을 기다릴 때에도 역시 신당(神堂)에서 하직인사를 합니다. 아마 이런 풍습은 다른 고을에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마음이 따르는 것은 예로부터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잡류(雜類)들이 무리를 짓게 되면 역시 염려됩니다. 형세를 살펴보면 흑세무민(惑世誣民)에 불과할 뿐입니다. 비록 금지하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형편입니다. 신이 순력(巡歷)할 때에 삼읍(三邑)의 백성들이 천 백으로 무리지어 곳곳에서 송축했던 것은 이번에 비국(備局)의 회계(回啓)⁶⁴⁾ 중에서 변통하여 혜택을 베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달 20일에 향소(鄉所)의 유생(儒生)·무사(武士)·이서(吏胥)와 각 면(面)의 면임(面任)과 각 리(里)의 이임(里任)들이 깨끗한 곳에서 만나 북향(北向)하고 사배(四拜)를 한 후에, 800여인이 신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지금 국가의 은혜는 예전에 없었던 것입니다. 죽은 말에 대한 징수를 반으로 하였으니, 목자(牧子)들이 살 수 있게 되었고

63) 내가 또 장계를 올렸다: 이 부분은 『탐라장계초(耽羅狀啓抄)』 「순력후계문(巡歷後啓聞)」에 보인다.

64) 회계(回啓): 임금의 물음에 대하여 신하들이 심의하여 대답하는 일을 말한다.

추복(槌鰓)에 가격을 지급해주시어 포민(浦民)들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곡(耗穀)을 관가에서 지급하니 백성들의 노역이 느긋하게 되었고, 퇴선(退船)을 나누어 주시어 큰 노역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래도록 근무한 사람을 적절히 등용하여 벼슬길에 통할 수 있게 되었고, 계후(繼後, 양자)에게 입안(立案)을 내려주시니 끊어진 제사를 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섯 가지 은혜는 이미 뼈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팔아버린 가족을 속환(贖還)하게 하고 이를 금지하니, 이로부터 도민들은 아비와 자식 관계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같은 임금의 성덕(聖德)에 보답할 길 없어 북쪽을 향하여 절하며 그저 고마운 마음을 펼쳤을 뿐입니다. 은혜가 이 정도이니 정성된 마음으로 스스로 격려하며 백성들이 서로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섬의 풍속은 성화(聖化)에 젖지 못하여, 동성(同姓)과 가까운 친족들이 서로 혼인합니다. 혼인할 때에는 교배례(交拜禮)를 행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혼인할 때는 반찬을 보내고, 여자들은 몸도 가리지 않습니다. 아내가 있어도 다시 아내를 취하고, 남편이 있어도 남편을 바꾸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하여 지금부터는 서로 금지하였습니다. 음사(淫祀)는 각각 헐어버리고, 은혜와 덕을 품고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간절하게 한꺼번에 찾아와서 하소연하였고, 빼앗았던 백성들의 발문서들을 모두 봉하여 왔습니다. 신(臣)도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여, 말을 하며 따져 물으니 과연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임금과 백성의 명분과 의리는 당연히 이와 같아야 한다는 뜻으로 잘 타일러 보냈습니다. 과연 다음 날 삼읍에 있는 신당 129곳을 태웠습니다. 개인이 소장한 주술 기구와 길옆에 있는 숲의 신당과 무격(巫覡) 무리의 신의(神衣)·신철(神鐵)도 한번에 태워버렸습니다. 심지어 나무뿌리도 파내고, 불상도 헐어버려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 재직하던 세 읍 수령들이 잇달아 이를 알려 왔습니다. 또 다음 날, 무남(巫男) 수백 명이 함께 나와 하소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저희들이 즐거워서는 하는 일이 아닙니다. 관가에서 쓰는 면포(綿布)를 모두 무격(巫覡)에게 요구하니, 빈 손 빈 주먹으로는 마련할 방법이 없어, 서로 무업(巫業)에 뛰어들어 돌고 돌아 풍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미 이런 폐단이 혁파되었고, 영원히 무안(巫案)에 치부(置簿)되지 않고 또 없애 주신다면, 대대로 서로 금하면서 사람마다 힘써 영원히 무당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일반 백성이 되고자 합니다.’ 지식이 있는 부노(父老)들이 잇달아 와서 ‘음사(淫祀)가 이미 혁파되었으니, 의술과 의약에 힘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의 심약(審藥)은 항상 약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차하게 충원되어 파견되고 있습니다. 원컨대 이런 뜻을 조정에 아뢰

어 주시고, 의학의 이치를 어느 정도 아는 자를 계속해서 보내 주신다면, 백성들의 마음은 안정되고 적폐는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며, 여러 차례 와서 간절히 하소연 하였습니다.

『사기(史記)』에는 음사(淫祠)를 철폐한 때도 있고, 임금께 알리기도 하고[적인걸(狄仁傑)⁶⁵], 명령으로 금지시키기도 했지만[장남헌(張南軒)⁶⁶], 모두 관가에서 휘철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이미 조정의 명령도 없었고, 또 관가에서 금하는 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누천 년 동안의 고질적인 관습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졌으니, 참으로 다행이다. 또 들으니, 민간에서는 모두들 예전에 정성스럽게 무속을 숭봉했음에도, 거세게 몰아치는 비바람에 매년 곡식이 상하고, 또 많은 배들이 전복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태우고 헐어 버린 지 반년인데 이로운 일만 있으니, 예전에 속은 것을 매우 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만날 때마다 서로 잘 되었다고 하고, 무격(巫覡)을 원수처럼 보면서 그들과 같은 무리가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올해는 천연두가 삼읍에 두루 퍼졌지만, 모두 신상(神床)을 마련하지 않았고, 사람마다 약을 먹었으니, 이는 실로 예전에는 없었던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먼 지방에서 떠받치는 일은 성덕(聖德)에 관련되기에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약(審藥)을 임명하여 보내주는 한 조항은 여러 백성들이 원하는 것인데, 역시 일리가 있습니다. 매년 체직하여 바뀔 때에 각별하게 골라 보내주실 것을 해당 원(院)⁶⁷에서 정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미 정서(正書)했지만, 장계(狀啓)를 올리지 못하고 돌아왔다. 지금 들으니 후임자⁶⁸가 제주에 온 다음 날, 크게 신사(神祀)를 행했다고 한다. 또 무당들에게 빨리 신당(神堂)을 만들게 하고, 의생(醫生)을 없앴으니, 백성들이 모두 낙담하였다. 등장(等狀)까지 올려 멈추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조금도 늦추지 않았다. 또 무녀안(巫女案)을 만들어, 예전처럼 포(布)를 거두고, 무당들이 재력을 각출하여 이미 두 신당을 세

65) 적인걸(狄仁傑): 적인걸은 당나라 측천무후 때 사람이다. 688년 강남 안무사(江南按撫使)로 부임하여 두 달 동안 오초(吳楚) 지방의 음사 1700개소를 없앴다. 《新唐書 卷105 狄仁傑列傳》

66) 장남헌(張南軒): 송나라때 성리학자 장식(張栻)을 말한다. 남헌은 그의 호이다. 하지만 장식이 무속철폐에 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범중엄(范仲淹)의 오식으로 생각된다. 범중엄은 북송 시대 사람으로 흥년이 든 강희(江淮) 지역에 안무사로 가서 백성들을 구휼하고 음사를 금지하였다. 《宋史 卷314 范仲淹列傳》

67) 해당 원(院): 전의감과 헤민서를 말한다. .

68) 후임자: 이형상의 후임자는 이희태(李喜泰)이다. 1703년(숙종 19) 6월에 도임하고 이듬해 갑신년 10월에 육지 연해의 투채선(偷採船, 도적질하는 배) 50여척이 가파도에 들어와 도적질하였는데, 장계의 글 가운데 비선(飛船, 나는 듯 빨리 가는 배)이라고 일컬은 일로 파직되어 떠났다.

왔다고 하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⁶⁹⁾

고을에는 도적이 없다. [마을과 도로에 강도들이 아예 없다. 소·말·농기구·곡물들은 들에 그냥 두어도 잃어버리는 일이 전혀 없다. 혹 도둑질하다 붙잡힌 사람은 백성들이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잡힌 사람 역시 스스로 죽게 될 것으로 안다.] 이는 가상하고 놀랍다.

아! 풍속(風俗)이란 관리들이 마땅히 먼저 해야 할 것이며, 용렬한 사람들은 소홀하게 생각한다. 교화(教化)는 백성을 다스릴 때에 느긋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속된 아전들은 방만하게 생각한다. 하물며 이곳은 바다를 건너 풍속이 다르고, 사람들이 품은 생각도 유별나고, 조정에서 내륙을 보는 것과는 더욱 다른 지역이다. 예전에 말하지 않았던가? “사발이 네모나면, 물도 네모나고, 소리를 내면 메아리가 응한다고.”⁷⁰⁾ 풍속과 교화를 담당한 사람들은 의당 살펴야 할 것이다.

69) []: 박물관본과 정문연본에는 보이지 않는 내용이다. 문화재청본에는 ‘또 들으니, 금년 병신년(1716)에 이르기 까지 아직도 다시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又聞, 到今年丙申, 尙未更設云]’라는 내용까지 보인다.

70) 사발이……응한다고: 원문은 ‘우방칙수정 성발이향응(孟方則水正 聲發而響應)’이다. 윗사람의 행동을 따라가는 것을 말한다. “임금은 사발이니 사발이 모나면 물도 모나는 법이다.〔君者 槃也 槃圓而水圓 君者 盂也 孟方而水方〕”라고 하였다. 《荀子 君道》

문(文)을 기록하다[誌文]

향교(鄕校)는 예전에 가락천(嘉樂川) 서쪽 언덕에 있었다. 만력(萬曆) 임오(壬午, 1582)에 성 동남쪽 안으로 이견하였다. 봉안하는 위패의 수는 성균관(成均館)과 동일하다. 지금 교생(校生) 수는 350여 인이다.

정의향교(旌義鄕校)는 현 서쪽 성 안에 있다. 지금 교생(校生) 수는 180여 인이다. 대정향교(大靜鄕校)는 예전에 북성(北城) 가운데에 있었는데, 동문 밖으로 옮겼다가, 다시 성 서쪽 안으로 옮겼다. 지금은 성 남쪽 점산(簾山) 아래에 있다. 지금 교생(校生) 수는 60여 인이다. 양현(兩縣)의 봉안하는 위패의 수는 여러 현들과 동일하다.

내가 장계(狀啓)을 올렸는데,⁷¹⁾ 대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도(本島) 선비들의 풍습은 이미 말할 것이 없습니다. 향교에 풀이 무성히 뒤덮힌 지경⁷²⁾이니, 귀로 듣고 눈으로 보이는 것은 놀랍고 부끄럽습니다. 신(臣)이 도임한 후에 비록 양현(兩縣)을 돌며 점검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주는 매월 삭망(朔望)으로 분향(焚香)한 후에 형세를 살펴보니, 위에는 비가 새고 옆으로 바람이 들어 사정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종향(從享)하는 양무(兩廡)의 위판(位板)도 간혹 젖고 축축하였습니다. 양현(兩縣)을 방문하니, 대정현(大靜縣)은 대성(大聖) 이하 20위(位)의 위판(位板)은 꺾이고 훼손되어 자획(字劃)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위의 위치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삼읍(三邑)에 분부하여 각각 살펴본 후에 첩보(牒報)하게 하니, 본주(本州)의 판관(判官) 이태현(李泰顯), 정의현감(旌義縣監) 김익구(金益九), 대정현감(大靜縣監) 최동제(崔東濟)가 각각 첩정(牒呈)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먼 바다 밖의 문교(文教)가 비록 매몰(埋沒)되었다고 해도, 성묘(聖廟)의 위판(位板)이 이미 이 지경이 되었고, 전우(殿宇)의 장벽(牆壁)에서 비가 새고 퇴락한 것이나 상·탁자·자리가 부러지고 썩은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전부터 놔두고 개수(修改)하지 않은 죄는

71) 내가……올렸는데: 같은 내용이 『탐라장계초(耽羅狀啓抄)』 「삼읍향교(三邑鄕校)……개장(改狀)」에 보인다.

72) 향교에……지경: 원문은 ‘국초(鞠草)’인데, 국화 종류의 풀들이다. 이진상(李震相)의 「창산학계안서(昌山學契案序)」에, “근일에 유평이 부진하여 여부(廬阜)가 절소(絶塑)하는 근심과 녹동(鹿洞)이 국초(鞠草)되는 일이 있다며 한탄하고 있다. (逮至近日 儒風不振 廬阜有絶塑之患 鹿洞有鞠草之歎)”라고 하였다.

피하기 어렵습니다. 삼읍(三邑)의 재임(齎任)과 색리(色吏)는 신의 영(營)에서 무겁게 죄를 물을 것입니다. 탈난 곳은 연유를 갖추어서 치계(馳啓)할 것입니다. 개수(修改)와 환안(還安)하는 날짜는 바다를 건너는 시간을 참작하시어 선택해 주시고, 향축(香祝)과 울목(栗木)은 해당 조(曹)에 명하여 급히 보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께서 윤허해주셨다.

삼읍의 전우(殿宇)·명륜당(明倫堂)·동서재(東西齋)와 제기(祭器)·제복(祭服)·상탁(床卓)·자리 중에 수가 모자란 것은 수리하고 고쳤다. 위판이 깨지거나 상한 것은 혹 개조(改造)하고 혹 개제(改題)한 후에 거행하고, 현황을 또 계문(啓聞)하였다. 또 삼읍(三邑)의 향교(鄕校)와 각 면의 훈장(訓長)을 두루 뽑았다. [제주도훈장(濟州都訓長) 양유혁(梁維赫), 동중면(東中面) 양원필(梁元泌), 서중면(西中面) 양광하(梁廣廈), 별방면(別防面) 고세준(高世俊), 엄장면(嚴壯面) 안택(安宅), 애월면(涯月面) 변희로(邊希簾), 예비면(輓飛面) 양중구(梁重球), 명월면(明月面) 양진연(梁振演), 대정도훈장(大靜都訓長) 전현감(前縣監) 문영후(文榮後), 정의도훈장(旌義都訓長) 고세유(高世維).]

뽑은 유생은 [제주(濟州) 277인, 정의(旌義) 161인, 대정(大靜) 42인이다.] 매월 삭망(朔望)일에 서도(書徒)들에게 관에 바치게 하였고, 이들의 출석과 결석에 따라 각각 상과 벌을 내렸다. 공생(貢生) 500여 인 역시 훈장을 정하여 글과 셈을 가르쳤다. 1년 후에 각자 힘을 썼고, 순강(巡講)할 때에는 경서를 배강(背講)하는 사람도 많았으니, 어찌 가상(嘉尙)하지 않으랴. [73]

73) [] : 박물관본에는 보이지 않는 내용이다. 정문연본에는 ‘그 후 5년 동안 문과(文科) 합격자 3명을 배출하였으니, 위의 인물조(人物條)에 보인다. 금년 병신년(丙申年, 1716)에 또 어사가 문과 합격자 3명을 뽑았다. [其後, 文科三人, 并出於五年之內, 見上人物條. 今年丙申, 又別遣御史抄出文科三人]’라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문화재청본에는 위 내용에서 ‘역시 이 중에서 나왔다. [亦自此中出.]’라는 내용까지 추가되어 있다. 여기서 합격자 3명은 정창원, 오정빈, 고세태를 말한다. 1706년 어사 이해조가 선발하여 직부전시(直赴殿試)하였다.

무(武)를 기록하다[誌武]

무예(武藝)는 본래 이 고장의 장기(長技)이다. 집은 가난하고 부역은 무거워 연습할 겨를이 없다. 하물며 출신(出身)하여 벼슬할 희망이 없음에랴.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포기하여 스스로 진작할 수 없었다.

내가 삼읍에 명하여 각 고을에서 교사장(敎射長)을 차출하여, [제주(濟州) 50인, 정의(旌義) 7인, 대정(大靜) 5인] 공사천(公私賤)을 막론하고 모두 활쏘기를 익히게 하였다. 삭망(朔望)으로 획지(劃紙)를 관아에 납부하게 하여 상과 벌로 베풀었다. 뽑힌 사원(射員)들도 [제주(濟州)는 1,270여 인, 정의(旌義) 350여 인, 대정(大靜) 160여 인] 모두 앞을 다투었다. 활쏘기를 시험볼 때 살펴보니 만점을 맞은⁷⁴⁾ 무리들이 많았다. 대개 그들의 재능과 기질은 말 타며 활 쏘는 것을 가장 잘하였다. []⁷⁵⁾

74) 만점을 맞은: 원문은 ‘몰기(沒技)’이다. 이는 무과(武科)의 시취(試取)에 있어서 유엽전(柳葉箭)·편전(片箭)·기추(騎蓼) 등 정한 화살의 수를 다 맞히는 것을 말한다. 이 후 한 기술에서 만점을 얻는다는 의미가 되었다.

75) []: 박물관본에는 보이지 않는 내용이다. 문중본 중에서 오직 문화재청본에만 ‘그 후에 13인이 같이 무과에 합격하였다. [其後年, 十三人同登武科.]’라는 내용이 보인다.

밭을 기록하다[誌田]

이 지방 밭들은 하중(下中)⁷⁶⁾이다. 흙은 검고 부풀어 기장·피·메벼·차조·콩·보리·메밀·사탕수수 [맛이 달고 또 무성하게 자라니, 이 땅에 맞는 듯하다.] 등을 심기에 적당하다. 다만 대정현에 약간의 논이 있다. 정의현에는 매우 드물고, 제주목은 더욱 적다. 임오년(1702) 현재 제주목의 전답은 3,357결(結)⁷⁷⁾ 33부(負) 9속(束)이며, 정의현은 140결 32부 5속, 대정현은 149결 91부 4속이다.

마(麻)인 경우는 육종(陸種)⁷⁸⁾을 취해 씨앗을 심는데, 3년도 못 되어 앵두 정도의 크기가 된다. 실은 모시풀에서 뽑아낸 것과 비슷하지만, 방직(紡績)할 정도는 아니다. 면(綿) 역시 매우 귀하다. 대정현 한 면(面)에 경작하는 이가 있는데, 씨가 크고 부드러운 털은 성글어 따뜻한 옷을 만들거나 실을 켤 일엔 모두 알맞지 않다. 내가 두 현(縣)에 지시를 내렸으니 역시 모두 경작에 힘썼겠지만, 가을 열매가 어떨지는 모르겠다.

76) 하중(下中): 토질 등급에 있어 9등급 중에 8번째의 땅, 토질이 매우 나쁘다는 말이다.

77) 결(結): 토지 면적의 단위이다. 양전척(量田尺)에 의한 일평방척(一平方尺)이 1파(把), 10파가 1속(束), 10속이 1부(負=卜), 100부가 1결(結)이다.

78) 육종(陸種): 마에는 수종(水種)과 육종(陸種)이 있는데, 본문에서는 마른 땅에 심는 것을 말한다.

산물(産物)을 기록하다[誌産]

이 지방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은 종물(鬃物)·나전(螺鈿)·양태(涼臺)·모자(帽子)·수채(首鬚) [이곳 사람들의 머리가 매우 길기 때문이다.] 등 이다. 생산되지 않는 물건들은 면포(綿布)·도와(陶瓦)·도기(陶器)·동철(銅鐵), 그리고 소금이다. [정의현에 염전 한 곳이 있는데, 구워내는 양이 매우 적다. 『남사록(南槎錄)』에 “예부터 소금이 나지 않는다. 두 번 지나간 무오년(戊午年) 강여(姜侶)⁷⁹ 목사 시절에 소금 굽는 법을 가르쳤다. 한 솥에 구워내던 양이 겨우 4~5말에 불과했고, 맛이 아주 쓰다.”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육지에서 쇠 4천여 근을 사와 가마솥 3개를 만들어 제주목에 2개 대정현에 1개씩, 민간에 나누어 주었다. 또 육지에서 소금 굽는 이를 불러들여 한 달 동안 배우게 했더니, 한 솥에서 구워내는 양이 많게는 60여 말에 이르렀다. 지금은 거의 수익을 낼 만하다고 한다.]

또 산림에 지천인 것이 뽕나무인데, 섬사람들이라 누에치고 길쌈하는 방법을 모른다. 내가 깨우쳐 타이르기를 명하자 세 읍(邑)에서 각자 준비했는데, 누에 종자 1장(張)을 갖춘 집이 겨우 1,500여 호에 불과하다고 한다. 하지만 여름을 지내지 못하고 돌아와 버려, 그 뒤의 경과를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

79) 강여(姜侶): 본관은 진주(晉州)이고, 1556년(명종 11) 8월 군관으로 재직 중 당시 제주목사 김수문(金秀文)이 왜선 6척을 포획하는 과정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칠방과 삼수군수 등을 역임하다가 1559년(명종 14) 4월 까지 대정현감을 지냈으며, 1573년(선조 6) 4월 제주목사에 임명되었고 다음 해 임기를 마쳤다.

날짐승들을 기록하다[誌禽]

날짐승에는 매·꿩·까마귀·솔개·제비[칼새[胡鷺]⁸⁰⁾는 없다.]·참새·갈매기·해오라기·두루미·두견새·피꼬리·기러기·올빼미·부엉이 등이 있으며, 황새와 까치는 없다. [지지(地誌)에 부엉이가 없다고 한 것은 잘못 전해지는 것이다.]

80) 칼새[胡鷺]: “배가 지나가는 자리에 수천 마리의 제비들이 이 구멍에서 나와 나는데 죽지는 그리 검지 않으며 턱밑의 빛깔은 담황색이다. 이것은 호연(胡燕)이니 세속에서는 명막(明漠)이라 부르고 뱃사람들은 귀연(鬼燕)이라 하기도 한다.”라고 되어있다. 《靑莊館全書》

들짐승들을 기록하다[誌獸]

들짐승에는 살괭이·오소리[토저(土豬)⁸¹]·돼지·노루·사슴[속설에 물고기가 변해 노루나 사슴이 된다고 하는데, 간혹 반만 변화해 완전히 변화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내가 보기에 한라산이 비록 크다고 하나, 산허리 밑으로 설치된 마장소(馬場所)를 제외하면 넓이가 수백 리가 안 된다. 공(公)과 사(私)에서 잡는 수는 일 년 통틀어 계산해보면 당연히 수천 마리에 이를 것이다. 그런데도 끝내 귀해질 때가 없으니, 물고기가 노루나 사슴으로 변한다는 말은 이치가 진실로 그럴 듯도 하다.] 등이 있다. 호랑이·표범·곰·큰곰·승냥이·이리·여우·토끼 등은 없다.

81) 토저(土豬): 오소리의 이칭, 김정외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에는 ‘오아리(吾兒里)’로 나와 있다.

풀들을 기록하다[誌草]

풀에는 거친 띠가 많으며, 길이가 간혹 한 길이 넘기도 한다. 채소에는 고비와 고사리가 많은데, 말뚝처럼 우뚝 선 것이 다발과 같다. 상추와 질경이, 무와 양하 종류는 겨울부터 여름까지 오래도록 푸르다. 또 곰취[香蔬]가 많긴 하나, 가는 사초[細莎]는 없다.

나무들을 기록하다[誌木]

무회목(無灰木)⁸²⁾[우도(牛島)와 화탈(火脫) 등에서 난다. 바다에 있을 때는 부드럽고 연한데, 물에서 나오면 단단해지고 질겨진다.]

산유자(山柚子)

이년목(二年木)⁸³⁾

노목(櫨木) [뇌향(腦香) 기운이 있어서 용뇌목(龍腦木)⁸⁴⁾과 비슷하지만, 채취하는 법을 모른다. 『본초강목(本草綱目)』에, “기운이 새어버리면 액(液)이 없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는 혹시 도끼로 찍어버려 액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일까?

만향목(蔓香木)⁸⁵⁾

부향목(浮香木)

청양목(靑楊木) [나무는 버드나무 같고 잎은 참솔나무와 같은데, 좀 더 가늘고 여리다.]

금동목(金桐木) [잎은 가죽나무 같은데 가시가 있다. 거문고를 만들 만하다.]

점목(黏木) [껍질은 후박나무 같은데 뽕아서 가루를 낸다. 물로 씻어 찌꺼기를 제거하고 즙을 취해 물건에 붙이면, 까마귀나 쥐, 벌레나 뱀 등이 아교처럼 달라붙어 움작달작 못한다.]

무환자나무[無患子]⁸⁶⁾

82) 무회목(無灰木): 불회목(不灰木)이라고도 한다. 제주 바다 깊은 곳에서 나는 흑산호, 나무 모양으로 가지가 뻗어 제주 방언으로 ‘무낭’이라 부른다. 1910년경, 일본인이 이것을 가공해 지팡이나 담뱃대 등으로 가공하여 판매했었다. 김윤식(金允植)의 『속음청사(續陰晴史)』에 관련 기록이 보인다. 또한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에는 ‘무회목(無灰木)은 원래 제주에서 나는 물건이 아니며 파도에 떠서 밀려온 것을 줍는 것이어서 매우 희귀하다’라는 내용까지 보인다.

83) 이년목(二年木): 가시나무이다. “가시목(哥斯木)인데 탐라에서 생산된다. 이것이 이년목이다.”라고 하였다. 《五洲衍文長箋散稿》

84) 용뇌목(龍腦木): 용뇌(龍腦)는 용뇌수(龍腦樹) 혹은 용뇌향(龍腦香)으로도 쓰인다.

85) 만향목(蔓香木): 『탐라지(耽羅誌)』에 만향목(蔓香木)은 한라산 위에서 나며, 모양은 자단(紫檀)과 같다. 소나무에 기생하는데 역시 한라산 고지대에서 난다.”라고 하였다. 《五洲衍文長箋散稿》

86) 무환자나무[無患子]: 무환자나무과에 속하는 낙엽교목. 이 나무를 심으면 자식에게 화가 미치지 않는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 한다.

동춘백(冬春栢)⁸⁷⁾

측백(側栢)

가죽나무[樗木]

뽕나무[桑木]

옷나무[漆木]

등이 있고, 이름은 모르지만 사시사철 푸른 나무들이 매우 많다. 그러나 괴목·오동나무·수양버들은 없다. 다만 이아(貳衙)에 버드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바다에서 표류했던 중국인이 말하길, '서역의 버드나무'라고 했다.], 실처럼 드리운 것이 몇 장이나 되고, 가지 끝에 흰 꽃이 있는데 여뀌와 같다.

87) 동춘백(冬春栢): 피는 시기에 따라 춘백(春栢)·동백(冬栢) 등으로 부른다.

과일을 기록하다[誌果]

가정(嘉靖) 병술년(1526) 이수동(李壽童) 목사가 다섯 방호소에 과원(果園)을 설치하고 감귤나무를 심어, 방호소에 있는 군사들에게 맡아서 지키는 일까지 겸하게 하였다. 그 후 점차로 더 설치하였다.

동과원(東果園)

서과원(西果園)

남과원(南果園)

북과원(北果園) [동헌 곁에 있는데, 굴림당(橘林堂)을 지었다.]

중과원(中果園)

별과원(別果園)

신과원(新果園)

연로과원(延老果園)

소림과원(小林果園)

신촌과원(新村果園)

조천관과원(朝天館果園)

함덕과원(咸德果園)

고여지과원(古礮池果園)

선흘과원(先訖果園)

북포과원(北浦果園)

김녕과원(金寧果園)

청동뢰과원(靑洞磊果園)

묘이과원(猫伊果園)

노형과원(老兄果園)

덕천과원(德泉果園)

해안과원(海安果園)

용좌동과원(龍佐洞果園)

우라시과원(牛羅屎果園)

광령과원(光令果園)

부면과원(夫面果園)

월계과원(月溪果園)

판지와원(板旨果園)

문건과원(文巾果園)

용선달리과원(龍先達里果園) 등은 제주목이다.

읍내과원(邑內果園)

고둔과원(羔屯果園) [이곳이 바로 감사(監司) 고득종(高得宗)의 유지(遺址)이다. 부러진 주춧돌과 무너진 담이 어제 일처럼 완연(宛然)하다. 굴나무와 유자나무가 숲을 이루었고, 매화나무 가지가 굽어져있다. 『남사록(南槎錄)』에, ‘동정호(洞庭湖)에는 굴은 있지만 매화는 없고, 서호(西湖)에는 매화는 있지만 굴은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서호와 동정호가 모두 눈앞에 있는 것 같다.]

법화과원(法華果園)

동수과원(洞水果園)

암림과원(暗林果園)

아악과원(丫岳果園) 등은 대정현이다.

정자과원(亭子果園)

독학과원(獨鶴果園)

성산과원(城山果園) [빼어난 풍경은 앞쪽을 보라.⁸⁸⁾

우진전과원(牛陳田果園)

금물과원(禁勿果園)

상우둔과원(上牛屯果園)

원통과원(元通果園) 등은 정의현이다.

88) 앞쪽을 보라: 앞쪽 「지승(誌勝)」편을 말한다.

모두 42곳인데, 직군(直軍) 880여 명으로 밤낮으로 맡아서 지키게 하니, 백성들이 그 괴로움을 감당하지 못한다. 만약 풍광의 운치로써만 말을 해본다면, 가을과 겨울 낙엽 지는 시절에 홀로 과원만이 봄빛으로 단장하여 녹음이 하늘을 가린다. 노란 열매가 햇살을 튕겨 내며 나무마다 영롱하고 잎마다 찬란하다. 어떤 것은 고니의 알 같고 어떤 것은 달걀 같다. 간간이 매화가 있고 치자까지 섞여 있기도 하다. 그 아래에서 술을 마시며 읊조리다보면, 겨울 추위의 절기를 느낄 수 없다. 각처의 과원이 대체적으로 이와 같지만, 특히 제주목의 북과원(北果園)과 정의현의 성산과원(城山果園), 대정현의 고둔과원(羔屯果園)이야말로 가장 빼어난 절경이다.

임오년(1702)인 경우,

당금귤(唐金橘) [크기가 달걀만하고 9월에 가장 먼저 익는다. 제주목 북과원(北果園)에 2그루뿐이다. 매년 달리는 것이 많아야 수십 개가 못 된다. 번번이 금귤(金橘)로 대신 봉진하곤 한다. 임오년(1702)에는 1,100여 개를 봉진했는데, 예전에는 없던 일이라고 한다.]

금귤(金橘) [크기가 당금귤과 같은데, 익는 시기는 조금 늦다. 맛 역시 조금 시다. 현재 165그루가 있으며, 열매 맺은 것이 10,833개이다.]

동정귤(洞庭橘) [금귤보다 조금 작고 신맛은 조금 낫다. 10월이 되어서야 익는다. 현재 28그루가 있으며, 열매 맺은 것이 3,364개이다.]

유감(乳柑) [나무는 유자나무 같으나 조금 작으면서 껍질이 얇고 매끄럽다. 생김새는 금귤과 같은데, 맛은 매우 달면서 살짝 신맛이 난다. 10월이 되어서야 익는다. 현재 45그루가 있으며, 열매 맺은 것이 4,785개이다.]

감자(柑子) [잎이 가장 두껍고 열매 껍질에서 살짝 향이 난다. 현재 120그루가 있으며, 열매 맺은 것이 48,947개이다.]

청귤(靑橘) [껍질은 당유자(唐柚子)와 비슷하면서도 작는데, 이것이 청피(靑皮)가 된다. 가을과 겨울에는 너무 시어 먹을 수 없다. 2~3월이 되어서야 신맛이 조금 덜해진다. 5~6월의 묵은 열매는 찬란한 황금색이고, 새 열매는 푸르고 여리다. 한 가지에 같이 달려 있으니, 보기에 기이하고 빼어난 풍경이다. 맛이 매우 달아 마치 꿀과 식초를 섞은 것 같다. 7월이 되면 열매 안의 씨가 모두 물로 변했다가, 8~9월이 되면 도로 푸른 씨가 다시 생기는데, 맛이 다시 시어져 새 열매와 차이가 없다. 현재 255그루가 있으며, 열매 맺은 것이 70,438개

이다.]

산귤(山橘) [이것이 진피(陳皮)가 된다. 열매가 작은 것은 유자만한데, 맛은 달고 시다. 11월이 되어야 익는다. 현재 2,252그루가 있으며, 열매 맺은 것이 185,455개이다.]

석금귤(石金橘) [크기가 비둘기 알만하다. 맛은 매우 달며 신맛이 없다. 11월에 익는다. 현재 5그루가 있으며, 열매 맺은 것이 1,021개이다. 이것은 봉진하지 않는다.]

등자귤(橙子橘) [두보(杜甫)의 시에, “서리 맞은 등자, 향기로운 감귤을 압도하네.”⁸⁹⁾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열매는 작으며 맛은 시다. 현재 15그루가 있으며, 열매 맺은 것이 4,369개이다. 이것 역시 봉진하지 않는다.]

당유자(唐柚子) [나무는 유자나무와 같은데, 열매 크기가 모과만하여 한 되는 넉넉할 듯하다. 향은 유자에 미치지 못하나 과즙이 아주 많아 매우 상쾌한 맛이다. 큰 열매가 매달려 드리워 황금빛으로 빛나는 것은 진풍경이라 할 만하다. 『과보(菓譜)』에서 말한 ‘여자귤(荔子橘)’이 이것일까? 현재 173그루가 있으며, 열매 맺은 것이 9,533개이다.]

유자(柚子) [가지와 잎에 가시가 많으나, 열매의 껍질은 가장 향기롭다. 전라도 연안에 있는 것에 비해 더욱 크다. 현재 3,620그루가 있으며, 열매 맺은 것이 22,041개이다.] 등이다.

대체로 귤나무 꽃은 모두 희며, 나무의 높이는 3장을 넘지 않는다. 큰 것은 간혹 기둥 같고 가지와 줄기 역시 크다. 무더기로 자라는 것을 좋아해, 간혹 수십 그루가 서로 이어지기도 한다. 껍질은 매우 얇은데, 오래된 것은 황자색 이끼가 벗겨졌고 새것은 푸른색으로 얼룩덜룩하다. 다만 접목(接木)은 안 되며 반드시 모두 무더기로 자라나서 간혹 탕자가 되어 버리기도 한다. 이외에 개인 소유의 감귤 역시 직군(直軍)을 정하여 지키고 기르게 하는데, 가을이 되면 수를 계산해 익은 후에 따서 받아들인다. 감자(柑子)와 유감(乳柑) 한 알에 전미(田米)⁹⁰⁾ 1홉이고, 금귤(金橘)과 동정귤(洞庭橘), 청귤(靑橘)과 산귤(山橘) 이하는 두 알에 1홉이었으나, 원래부터 제급(題給)⁹¹⁾해주는 일은 없었다.

89) 서리……압도하네.: 두보(杜甫)의 「자경부봉선현영회(自京赴奉先縣詠懷)」에 “손에게 낙타 발굽의 국을 권하는데, 서리 맞은 등자는 향귤을 압도하네(勸客駝蹄羹 霜橙壓香橘)”라는 대목이 보인다.

90) 전미(田米) : 발벼를 찐 쌀, 혹은 껍질을 벗기지 않은 쌀을 말한다.

91) 제급(題給): 행정용어로서 제사(題辭)를 적어 내려준다는 뜻인데, 간혹 관청에서 물건을 내어줄 때도 이 표현을 사용한다. 내용대라면 개인소유인 감귤을 관에서 가져가면서 한 알에 전미(田米) 얼마씩 돈을 지불해주는 규정은 있었지만, 처음부터 지급해 준 경우는 없었다는 말이 된다.

비자(榧子)

석류(石榴)

적율(赤栗) [도토리 열매 같으나 맛이 달다. 구우면 요기할 만하다.]

가시율(可是栗) [밤과 비슷하나 맛이 바삭바삭하다.]

보리실[菩提實]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크기가 연밥만하고 가을에 열매를 맺어 겨울을 지나 봄에 이르면 익는다. 민간에서 전해지길, 설사나 이질을 치료한다고 한다.]

영주실(瀛洲實) [한라산 위에서 나는데, 열매는 마치 능금 같고 색은 검으면서 달다.]

녹각실(鹿角實) [이것이 바로 육지에서 녹관자(鹿貫子)라고 하는 것이다. 육지 것은 열매가 푸르면서 먹지 못하지만, 이곳의 것은 색이 붉으면서도 달고 매끄럽다.]

연복자(燕覆子) [『풍토록(風土錄)』에, “열매 크기가 모과만하고 껍질은 붉고 검은데 갈라보면 씨는 마치 으름[林下夫人]과 같은데, 씨가 조금 크고 맛도 조금 진하다는 차이가 있다. 대개 같은 으름 종류이면서도 조금 큰 것이다.”라고 했다. 해남(海南) 등 해변가에 간혹 있다고 들었는데, 주기(州記)에서도 “해남 등지에 과연 그것이 있다.”라고 했다. 의학에 해박한 이에게 물어보니, 그 줄기를 채취해서 목통(木通) 대신 쓰면 공을 들인 보람이 갑절이 넘는다고 한다. 또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도, “열매가 마치 산낭(算囊)⁹²⁾과 같다.”라고 했다. 민간에서 연복자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굽어졌고 바깥 면이 갈라져 산낭과 같지 않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짜 연복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지금 그 형태를 보니 껍질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으름과 같은 것이 아니다. 진짜 연복자인지 아닌지 역시 아직 알지 못하겠으나, 맛이 매우 달면서도 매끄럽고 상쾌해 이것은 가래를 내리는 약일 것도 같다.] 등이 있다.

이 외에, 앵도(櫻桃)·승도(僧桃)·능인(菱仁)·감인(芡仁)·오얏[李柰]·사과[林禽]·은행(銀杏)과 살구[杏] 등은 육지 것과 모양새가 같은데, 배[梨]·대추[棗]·감[柿]·밤[栗] 등은 매우 드물고, 모두 품질이 나쁘다. 잣[海松子]·모과[木瓜] 종류는 원래부터 없다.

92) 산낭(算囊): 주판 등을 넣고 다니는 주머니를 말한다.

말과 소를 기록하다[誌馬牛]

세 읍(邑)의 목장 63개 중, 제주목 제1소 천(天)·지(地)·현(玄)·황(黃)·우(宇)·주(宙)·출(出) 자 목장과 별목장(別牧場)인 천(天)·지(地) 자 두 목장은 별방소(別防所)에 속한다. 제2소 홍(洪)·황(黃)·일(日)·영(盈) 자 네 목장은 조천소(朝天所)에 속한다. 일(日)·측(昃) 자 두 목장은 화북소(禾北所)에 속한다. 결(結) 자 목장과 제3소 진(辰)·숙(宿)·치(致)·우(雨)·로(露) 자 목장과 대3소의 위(爲)·려(麗) 자 두 목장은 애월소(涯月所)에 속한다. 제4소 장(張)·한(寒)·래(來)·서(暑) 자 목장과 대1소의 왕(往)·추(秋)·수(收)·동(冬)·장(藏)·윤(閏)·상(霜)·금(金)·생(生) 자 목장은 명월소(明月所)에 속한다.

대정현의 현(玄)·황(黃)·우(雨) 자 목장은 모슬소(募瑟所)에 속한다. 열(列) 자 목장과 별도로 설치한 현(玄) 자 목장은 차귀소(遮歸所)에 속한다.⁹³⁾

정의현 제1소 이(李)·내(奈)·개(芥)·강(薑)·해(海)·하(河)·담(淡) 자 목장과 제2소 인(鱗)·잠(潛)·우(羽)·상(翔) 자 목장, 그리고 제3소 용(龍)·사(師)·화(火) 자 목장은 수산소(首山所)에 속한다. 채(菜)·중(重)·함(鹹) 자 목장은 서귀소(西歸所)에 속한다. 산둔(山屯)은 감목관(監牧官)에 속하며, 우도(牛島)는 별방소(別防所)에 속한다.⁹⁴⁾ 이 외에도 흑우(黑牛) 목장이 있다. 임오년(1702) 현재, 장부에 부쳐진 7,699필 안에 산둔(山屯)의 말이 2,375필이다. 새로 낳은 것이 1,674필이고, 물고(物故)된 말이 522필이다.⁹⁵⁾

이곳 풍토는 말을 기르기에 매우 적합하다. 공사(公私)의 둔마(屯馬)가 각각 무리를 이루며 달아나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는다. 스스로 무리를 이루는데, 마치 우두머리가 있는 것처럼 서로 어울려 다닌다. 이것들은 이미 풀어놓고 기르는 것이니 산짐승과 같지만, 일절 뒷

93) 별도로……속한다: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한라장축(漢拏壯囑)」에도 별현자장(別玄字場)이 보이며, 『탐라장계초(耽羅狀啓抄)』「별방진(別防鎭)……절목계문(節目啓聞)」에도 열(列) 자 목장과 별현(別玄) 자 두 목장의 말을 차귀진과 정의현에 나눠주겠다는 내용이 보인다.

94) 우도(牛島)는……속한다: 우도(牛島)에 목장을 설치한 이는 1696년(숙종 22) 7월에 제주목사에 임명되었던 유한명(柳漢明)이다. 「교폐절목(矯弊節目)」에 자세한 내용이 보인다.

95) 임오년(1702)……522필이다: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서문(序文)에는 국마(國馬)가 모두 9,372필이라고 나와 있다.

발질하거나 깨물지 않는다. 육지로 나가 집에서 길러진 다음 비로소 사람을 상하게 할 뜻이 있게 된다. 아마 괴롭게 매여 있어서 그럴 것이다.

재질과 등급으로는 잘 달리거나 걷는 놈들은 많으나, 몸집이 큰 준마는 끝내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순력하며 점검할 때, 산마(山馬)는 성질이 거칠어 4~5장이나 되는 큰 나무들을 엮어 환장(環場)을 만들고 오천의 군사들로 에워싸서 그 안으로 몰아넣었는데, 몇 필은 특히 매우 빼어난 준마여서 오천 군사들의 포위를 뚫고 5장 높이의 목책까지 뛰어넘었다. 여러 차례 다시 몰아넣었지만, 끝내 낙인을 찍지 못했다. 민간에서 ‘말의 왕[馬王]’이라거나 ‘용종(龍種)’이나 ‘비마(飛馬)’라는 속설도 혹시 이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겨나듯, 마정(馬政)도 매우 허술해졌다. 내가 장계로⁹⁶⁾ 대략, “섬 안의 일 중 마정보다 큰일이 없고, 민력(民力)을 피곤하게 하는 것도 역시 마정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급하게 하면 백성들이 해를 입고, 느슨하게 하면 공사(公事)가 손해를 입습니다. 예로부터 이 섬을 다스림에 적당함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臣)은 무늬[文]가 피폐해지면 바탕[質]을 숭상해야 하고, 일이 궁해지면 반드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⁹⁷⁾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짐승을 천하게 여겨야 하지만, 오직 왕정(王政)에서 우선으로 할 일은 대궐 마구간[天廄]의 장마(仗馬)⁹⁸⁾로서, 오로지 이 섬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공사(公私)의 이해를 참작한다면 그 형세가 공(公)을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목장과 관련된 모든 일이 엉망진창인지라,⁹⁹⁾ 원래부터 있던 말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는데도 헛되이 빈 장부만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는 조정에서 소중히 여기는 바와 상반될 뿐만이 아니라 그 폐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가 사목(事目)을 따르지 않는 데서 말미암아 그리된 것입니다. 선왕들께서 법을 만드신 것이 지극히 자세하고 또한 정밀하여 만약 어지럽게 고치지 않았다면, 어떤 폐단이 감히 틈을 탈 수 있겠습니까? 온 나라의 관리와 백성들이 모두 자신만을 이롭게 하려 든다면, 명예를 좋아하고 비방을 싫어할 것은

96) 내가 장계로: 『탐라장계초(耽羅狀啓抄)』「별방진(別防鎭)……절목계문(節目啓聞)」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보인다.

97) 그래서……생각합니다: 『논어(論語)』의 문질(文質), 『주역(周易)』의 궁즉변(窮則變)이라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다.

98) 장마(仗馬): 원문은 노장(路杖)이다. 길 가는 지팡이라는 뜻으로서 장마(仗馬)라는 말과 같다. 곧 임금이 행차 시에 타는 의장용 말을 뜻한다.

99) 엉망진창: 원문은 ‘백공천창(百孔千瘡)’이다. 백 개의 구멍과 천 개의 종기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 폐단으로 엉망진창이 된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인지상정입니다. 법이 어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마정(馬政)이 어떻게 병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 목장 절반이 민간 목장으로 편입되고 심지어 나라의 말까지 멋대로 타고 다니는 지경입니다. 그리고 관청은 나그네를 맞는 여관과 같이 되어 버렸고 왕법은 도리어 거적때기가 되었는데도, 한가하게 헛되이 세월만 보내느라¹⁰⁰⁾ 지금은 변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니, 저도 모르게 한심스러웠습니다. 소소한 폐단들로 글을 올려 번거롭게 아될 수 없는지라, 그중 큰 것만을 모아 후록(後錄)으로 계문(啓聞)합니다. 이는 모두가 백성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것들인데, 위를 덜어 아래를 돕는 뜻으로 생각한다면 신의 죄 역시 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라도 변통해나가지 않는다면, 끝내 공마(貢馬)를 궤봉(闕封)하다가 이후로는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매함을 무릅쓰고 번거롭게 아웁니다. 지금 반드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세울 것 없이 옛 법을 신칙(申飭)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묘당(廟堂)에 명해 좋은 쪽으로 품처(稟處)하게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아뢰었다. 곧바로 이어 다섯 조항의 법을 세우기를 청하였는데, 주상께서 윤택해주셨다.

순력(巡歷) 후 장계로 대략, “마정(馬政)이 한심하게 된 연유는 이미 여러 차례 아뢰었습니다. 지금 점고하며 낙인찍을 때 직접 살펴보니, 8,000여 필의 말무리 가운데 간혹 재주와 품격이 자못 좋은 것이 있기는 하나, 몸집이 큰 준마 끝내 찾아볼 수 없으니, 이는 매우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지난 20년간의 마적(馬籍)을 자세히 살펴보니, 일 년 안에 고실(故失)¹⁰¹⁾된 말이 간혹 1,700필이 넘고 생산된 말은 간혹 660필 안쪽이니, 마정의 허술함은 이로 미루어 보아도 알만합니다. 매년 한 번씩 장부를 살펴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한심해집니다. 올해 각 둔(屯)을 합해 계산해보니, 생산된 말은 작년보다 조금 늘었으며 고실(故失)은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인 경우, 세 읍(邑)의 수령과 목사가 서로 이어가며 교체되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어 잠시 경진년(庚辰年)과 비교해보니, 경신년에 생산된 말이 1,008필이었고 금년 생산된 말이 1,678필입니다. 경신년 고편(故斃)¹⁰²⁾된 말이 1,111필이었고 금년 고편된 말이 524필입니다. 경신년 서실(闕失)¹⁰³⁾된 말이 382필이었고 금년 서실된

100) 한가하게……보내느라: 원문은 ‘유범완계(悠泛玩愒)’이다. 한가하게 헛되이 세월만 보낸다는 말로서 완세계일(玩歲愒日)이라고도 한다.

101) 고실(故失): 사고(事故)로 말미암아 말 따위를 잃어버린다는 말이다.

102) 고편(故斃): 고실(故失)되거나 폐사(斃死)됨을 말한다.

103) 서실(闕失): 이런 저런 이유로 잃어버린다는 말이다.

말이 67필입니다. 올 여름 봉진된 말이 434필이고, 금년 생산된 말이 경신년에 비해 늘어난 것이 674필이고, 고편된 말이 경신년에 비해 줄어든 것이 587필입니다. 서실된 말이 경신년에 비해 줄어든 것이 315필이고, 생산된 말이 늘어난 것과 고편 혹은 서실된 말이 줄어든 것과 금년 봉진된 말의 숫자를 모두 더해 계산해보니, 금년 마필이 경신년에 비해 늘어난 것이 모두 2,006필입니다. 이는 비록 전일 복계(覆啓) 중에 언급했던 다섯 조항의 법을 세운 까닭으로 말미암는 일이겠지만, 세 읍(邑)과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의 마정을 신칙(申飭)한 까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을 행한지 오래지 않았는데도 벌써 이런 실효가 있었으니, 진실로 다행이라 여겨집니다.”라고 아뢰었다.

흑우(黑牛)를 기르는 목장 세 곳에는 현재 620두가 있는데, 매년 20두를 봉진하고 있다. 대개 이 섬에는 흑우가 많으나, 간혹 색이 섞인 소도 있으며 누런 소는 거의 없다. 개인 소유 목장의 소와 말은 간혹 4~500두에 이르기도 하는데, 말 중에서 순색과 겉 색이 붉[赤多]거나 밤색[仇郎]이거나 자색[紫驪]인 것, 불총가라(佛驄加羅)·총구랑(驄仇郎)·유총(榆驄)·연설아가리(烟雪阿加里)·온청가라(溫淸加羅)·백골송(白松骨) 등, 봉진하는 종류에 합당한 것과 암말까지 포함해 육지로 반출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데, 역시 법으로 금지했기에 그런 것이다.

물고기를 기록하다[誌魚]

바다 밑은 모두가 돌이며, 또 썰물과 밀물이 드나드는 갯가가 없다. 어장(漁場)과 어망(魚網) 모두 보급된 바가 없다. 다만 낚시로 잡는 물고기들을 말해보자면,

교어(鮫魚, 상어) [민간에서는 상어[沙魚]라고 부르는데 큰 것은 십여 장에 이른다. 낚시를 삼킨 놈은 줄을 끊어주지 않으면 배가 뒤집어진다. 낚시로 잡히는 것들은 겨우 한 장(丈) 정도이다.]

악어(鱷魚) [명월 등에서 많이 있다. 간혹 사람을 해치기도 한다.]

경어(鯨魚, 고래) [바다 생물 중에서 이 물짐승은 매우 거대해서 간혹 수천 리까지 이르는데, 다만 배를 삼킬 뿐만이 아니다. 남만(南蠻) 여러 나라에서는 모두 쇠뇌를 쏘아 잡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인 경우 그렇지 않다. 동북(東北) 양계(兩界)에서 때때로 폐사되어 걸리는 일이 있는데, 이 섬에서도 또한 그렇다. 내가 재임할 당시에도 과연 폐사된 고래가 떠밀려와 갯가 근처에 걸쳐졌던 일이 있었다.¹⁰⁴⁾ 몸소 가서 보니, 길이가 125척이고 너비가 10척이고 높이가 32척이었다. 허리에서 배까지 주름 같이 드리워진 살덩이가 층층이 얹어졌고, 부드러운 뺨이 출렁거리는 것이 마치 장막 같았다. 갈라진 입은 정수리까지 이어졌다. 그 구멍은 말통 만한데, 이곳으로 물을 뿜어 쏜다. 머리는 황새를 닮았고 꼬리는 물고기를 닮았는데, 흐린 눈과 뽀족한 코가 영락없는 물고기였다. 좌우로 어깨팔[膀]이 있는데, 바로 민간에서 지느러미[振禦]라고 하는 것이다. 길이는 2장 남짓 너비는 1장 남짓이다. 이른바 수염이라는 것은 코에서 정수리까지 두 줄로 몰려 서있는 것이 모두 240여 개나 된다. 차례대로 조금씩 높아져, 높은 것은 2척, 낮은 것은 1척, 너비는 모두 8~9촌이다. 뻑뻑하게 이어져 마치 쪼개지지 않은 커다란 널빤지 같다. 다만 그 끝이 가늘게 갈라져 보기에는 마치 말갈기 같다. 옛말에, “하늘을 뒤흔들만한 갈기[掀天鬚鬣]”라는 것이 바로 이것일 것이다. 척추뼈는 뚫어서 절구를 만들 만하고, 갈비뼈는 시렁 걸어 다리를 만들 만하다. 머리에는 쇠뇌 촉 수백 개가 꽃혀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왜인(倭人)들이 쏜 것이다. 허리와 척추 사이

104) 내가……있었다. 『탐라록(耽羅錄)』에 이형상목사가 재직시절 한경면 두모리에서 고래를 직접 보고 지었다는 「두모촌관경(頭毛村觀鯨)」이라는 시가 있다.

사이에 살점이 찢어져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못 고기들이 뜯어먹은 것이다. 그 크기가 이렇게나 컸음에도 여러 자잘한 물고기들에게 뜯김을 막을 수 없었으니, 약육강식(弱肉強食)이라는 말과는 상반되는 일이라고 할만하다. 지방 기름 역시 80석(石)에 가깝다. 보기에 매우 장대한데도 모두 말하길, ‘이놈은 금년에 태어난 것’이라 하니, 큰 놈은 더욱 클 것임을 가히 상상할 만하다.]

문어(文魚) [낙지 중에서 특별히 큰 것인데, 맛은 매우 좋지 않다.]

망어(望魚) [생김새가 마치 전어(鱸魚)와 같은데 태(胎)로 부화하며 알로 기르지는 않는다.]

갈치[刀魚]

고등어[古刀魚]

멸치[行魚]

생어(生魚)

옥돔[玉頭魚]

날치[飛魚] [지지(誌地)편에 자세하다.]

은어[銀口魚]

승어[秀魚] [정의현에 잡는 곳이 있는데, 너무 기름져 맛이 별로 없다.]

오징어[烏賊魚] [육지의 읍에 비해 매우 크다.]

방어(魴魚)

전복[鰓] [매우 크고 매우 많다.]

해삼(海參)

홍합(紅蛤)

빈주(蠙珠)

바다거북[玳瑁] [간혹 산채로 잡거나, 간혹 껍데기만 얻기도 한다.]

조개[貝子]

앵무조개[鸚鵡螺] [우도에서 난다.]

게[蟹] [대정현에서 나는 것이 있지만, 맛이 형편없다.]

백합(白蛤) [정의현에서 난다.]

굴[牡蠣] [대정현에서 나는데 몸집이 매우 커서 구워먹을 수는 있으나, 염장은 안 된다.]

남환박물

해달(海獺) [큰 화탈섬과 작은 화탈섬에서 난다.]

수달(水獺) [우도 등에 간혹 보인다.]

가지(可之) [우도에서 난다. 모양은 수달과 같고, 피부는 강치[水牛]와 같다.]

곽(藿, 미역) [바닷가 근처에서 쭉처럼 자라는데, 돌 위가 이것으로 지천으로 깔린다.]

청각(靑角)

황각(黃角)

우미[牛毛] 등이 있다.

이외 다른 여러 종류는 낚시로는 얻지 못하니, 있고 없음을 알지 못한다. [연못에는 잉어·고둥·메기·드렁허리 등이 없으며, 또한 거북이는 있으나 자라는 없다. 산에는 꿀벌[蜂蜜]과 썩기[雀瓮]¹⁰⁵가 없다.]

105) 썩기[雀瓮]: 사람을 쏘는 푸른색 벌레로, 속명(俗名)은 ‘썩기’이다. 작옹(雀甕)이라고도 하였다.

약재들을 기록하다[誌藥]

녹용(鹿茸)
 송기생(松寄生)
 상기생(桑寄生)
 향심(香薷) [민간에서는 표고(藁朮)라고 부른다.]
 진피(陳皮) [산골의 껍질이다.]
 청피(靑皮) [청굴의 껍질이다.]
 치자(梔子)
 회향(茴香)
 팔각향(八角香)
 영릉향(零陵香)¹⁰⁶⁾
 안식향(安息香) [황칠나무의 진액이다.]
 지각(枳殼)
 지실(枳實)
 후박(厚朴)
 고련근(苦楝根)¹⁰⁷⁾
 해동피(海桐皮)
 필징가(萹澄茄)
 석곡(石斛)
 무환자(無患子)
 촉초(蜀椒)

106) 영릉향(零陵香): 이유원의 『임하필기(林下筆記)』 「사시향관편(四時香館編)」에, “협제(夾際) 정초(鄭樵)의 『초목략(草木略)』에 난(蘭)과 혜(蕙)를 하나의 식물로 보았으니, 모두 지금의 영릉향(零陵香)이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107) 고련근(苦楝根): 원문의 楝은 楝의 오기이다. 고련근이란 소태나무의 뿌리를 말한다. 구충이나 지혈, 위장병 따위에 쓴다.

두충(杜冲)

천문동(天門冬)

맥문동(麥門冬)

향부자(香附子)

만형자(蔓荊子)

반하(半夏)

석종유(石鍾乳)

백랍(白蠟)

석결명(石決明)

오미자(五味子) [크기는 산포도만한데 색은 검붉다. 조금 시지만 매우 달다. 내가 장계로¹⁰⁸ 대략, “이 섬의 오미자는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맛이라고 하는데, 『본초강목(本草綱目)』과 선배들의 논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초강목』에서는 ‘조선에서 나는 오미자는 매우 좋은 치료제’라고 했고, 맛이 단 것이 최상품입니다. 선정신(先正臣) 김정(金淨)은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에서, ‘우리나라에서 나는 오미자는 열매가 자주색으로 맛이 별로 없으며 매우 신데도 오히려 『본초강목』에서 귀하게 여긴다. 이 섬에서 나는 오미자야말로 틀림없이 천하에서 최고임을 의심할 바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고인(古人)들이 논한 바가 다만 이와 같을 뿐만이 아니며, 크기가 크고 맛이 달아 육지에서 나는 것들과 더욱 비길 바가 아닙니다. 이 섬에서 나는 약재 중에 반하(半夏), 향부자(香附子) 등이나 몰산 가운데 조곽(早藿)과 곱이(藿耳) 종류 등까지 모두 공안(貢案)에 올라 있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좋은 물품이야말로 또한 진상에 적합한데도, 도리어 공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 섬 백성들의 여력이 비록 진상(進上) 올리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는 천하에 다시 없을 물품이니 인정과 의리로 헤아려보아도 감추어 두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오미자 5말을 금년 연말 진상 시에 같은 것으로 감독하고 봉하여 주원(廚院)에 올려 보내니, 내년부터 시작해서 거듭 진공하여 바치게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아뢰었다.] 등이 있다.

이외 비록 약간의 향상 쓰이는 약재가 있지만, 인삼과 창출[蔘朮]은 전혀 없고, 도라지

108) 내가 장계로: 『탐라장계초(耽羅狀啓抄)』 「오미자공안조치품계(五味子貢案措置稟啓)」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보인다. 『숙종실록(肅宗實錄)』 숙종 29년 5월 20일 기사에, 숙종이 특명을 내려 봉진하지 말게 하였으며, 예조판서 김진귀(金鎭龜)가 중중추고(從重推考)를 청하자 숙종이 이를 승낙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桔梗]이나 잔대의 뿌리[沙蔘] 종류는 너무 거칠고 가늘어 약재로 들어갈 수 없다. 우거진 수풀 사이¹⁰⁹⁾의 기이한 꽃이나 풀들 중에는 반드시 장수할 수 있는 약재가 있을 것이지만, 아는 이가 없다. 진한(秦漢)시대, 이른바 불로장생이라는 명성이 아마 혹시 이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109) 우거진 수풀 사이: 원문은 수간(藪間)이다. 꽃자왈을 뜻한다.

공물(貢物)을 기록하다[誌貢]

내가 장계로¹¹⁰⁾ 대략, “이 섬은 먼 바다 밖에 있고 원래부터 별도의 지역이어서, 풍토가 매우 다르며 백성들의 습속이 틀어지고 어긋나서 부끄러워할 만합니다. 다만 왕실의 존엄이 밖으로 펼쳐져 문물이 조금씩 교화되면서 우리나라[版圖] 안으로 부속되어 지방의 특산물을¹¹¹⁾ 해마다 조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너비가 지극히 적고 백성들은 많지 않아, 묵히거나 갈아먹는 밭이 모두 3,200결에 미치지 못합니다. 인구라고 해봐야 세 읍(邑)을 다 합쳐 겨우 9,200호 정도입니다. 경기도와 비교해보면 중간 읍 정도를 넘지 않는데, 상납하는 원래의 수량으로 통영(統營)과 비교해도 백배가 넘습니다. 경기도 중간 읍 정도의 쇠약한 역량으로 통영의 백배나 되는 역(役)을 감당해야 하니, 백성들의 삶이 곤궁하고 고달픈 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종류로 말해보자면, 일 년 안에 올려야 하는 품목이 공마(貢馬) 4~5백 필, 각종 전복이 9,000여 첩, 오징어 700여 첩, 산과(酸果) 38,000여 개, 말안장 4~5십 부, 사슴가죽 5~6십 령, 노루가죽 50령, 사슴 혀 5~6십 개, 사슴 꼬리 5~6십 개, 사슴 육포 200여 조, 각종 약재 470여 근, 말에 입히는 옷[馬衣]과 여러 가지 연장[諸緣] 680여 부 등입니다. 기타 표고(蓼古)·비자(樺子)·백랍(白蠟)·산유자(山柚子)·이년목(二年木)·궁대(弓袋)·통개(筒箇)·나전(螺鈿)·포갑(鮑甲)·총결(驄結)·양대모자(涼臺帽子) 및 빗술[梳省]·천막[衫帳] 등의 자잘한 잡물들이 모두 공헌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어찌 감히 털끝만큼이라도 애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9,000의 가구와 3,000의 전결(田結)로 이런 역(役)에 응하고 있으니, 이 섬의 백성들이 쇠잔한 역량으로는 이 역시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하물며 본관(本官)의 9진보(鎭堡)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공(支供)¹¹²⁾과 63개의 목장, 42개의 과원, 63개의 봉수대, 속오군(束伍軍) 3,700여 명, 아병(牙兵) 990여

110) 내가 장계로: 『탐라장계초(耽羅狀啓抄)』 「제주민막장(濟州民瘼狀)」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보인다.

111) 지방의 특산물을: 원문은 포모(苞茅)이다. 제사용 술을 거를 때 쓰는 청모(菁茅)를 말한다. 춘추시대 제 환공(齊桓公)이 “포모를 공물로 바치지 않았다(爾貢苞茅不入)”라는 이유로 초(楚)나라를 정벌한 고사에서 유래하여, 이후 공부(貢賦)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112) 지공(支供): 음식물이나 기타 물품 등을 이바지하는 일을 말한다.

명, 목자(牧子) 1,200여 명, 과원 수직(守直) 880여 명, 선격(船格)¹¹³⁾ 300여 명, 봉군(烽軍) 490여 명, 차비군(差備軍) 100여 명, 성정군(城丁軍) 2,800여 명, 수솔군(隨率軍) 480여 명, 유직군(留直軍) 500여 명, 기치군(旗幟軍) 200여 명 등을 모두 합하면 11,600여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지장(紙匠)·기보병(騎步兵)·관리(官吏)·진무(鎭撫)·취수(吹手)·나장(羅將)·군뢰(軍牢)·관노(官奴)와 같은 온갖 역들도 모두 이 중에서 책임져 나가니, 한 사람이 열 가지의 역을 겸해야 합니다. 남녀 각각에게도 신공(身貢)이 있습니다. 문무(文武) 출신(出身)을 막론하고 모두 사람 숫자대로 뽑아내어 한 명당 5되씩 해마다 독촉하여 받아들이니, 갓 태어난 아이의 머리가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역을 맡게 됩니다. 이는 실로 팔로(八路, 전국) 어느 관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정입니다.

만약 밭이나 땅이 척박하지 않거나 바다에서 나는 어염(魚鹽)으로 흑시라도 의지할 바 있다면, 이런 역들은 모두 각자 맡은 본분이므로 어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갈밭을 경작하여 수확하는 것이¹¹⁴⁾ 어린애들 장난 같고 소금을 굽는 일이나 어망(魚網) 같은 것은 처음부터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데 관청의 온갖 역에 나가려면 백성들은 며칠의 여가조차 없게 됩니다. 만약 이런데도 능히 살아갈 방도가 있었던 적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앞뒤의 수신(守臣)¹¹⁵⁾들이라고 어찌 아뢰어 변통하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세 읍(邑)의 수령들은 모두 조정에서 마음에 들어 임명하는 벼슬자리가 아닙니다. 매번 저와 같이 노둔하고 못난 사람들을 구차하게 충원해 보내고 있으니, 종적(蹤跡)이 영락하고 언어가 원활하지 못하여 뜻이 있어도 토해내지 못해 구차하게 임기가 차기만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간 간혹 한두 번 장계(狀啓)하여 아뢰어도 묘당(廟堂)에서 복계(覆啓)할 때, 간혹 외람되다거나 황당하고 번잡스럽다고 하면서 매번 장계를 막아버려, 청한 바를 보내도 얻지 못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일이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비록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라 해도 스스로 그 몸을 아끼지 않음이 없는데, 누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까지 해치려 하겠습니까?

보잘 것 없이 미욱한 저에게까지 중책을 맡겨주셨는데, 글로 아뢴 내용이 어찌 하나라도

113) 선격(船格): 격군(格軍)이라고도 한다. 배에서 사역하는 결꾼을 말한다.

114) 자갈밭을……것이: 원문은 ‘석각경획(石角耕穫)’이다. 석각(石角)이란 돌부리를 말한다. 제주 특유의 열악한 돌밭을 말한다.

115) 수신(守臣): 변방을 지키는 신하를 말하는데, 주로 지방 수령들의 자칭으로 쓰인다.

취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임 또한 여름 농사에 매우 바빴던 때의 뒤인지라, 제가 맡은 지역 안까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귀로 듣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만 못하고, 실행할 때는 말할 때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외람되이 자질구레한 일들을 아뢰는 죄를 피할 바 없음을 잘 알고 있으나, 나라의 일은 끝내 돌아보지 않을 수 없고, 백성에게 폐가 되는 일 역시 끝내 구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정을 찾아다니며 묻고 기록을 참고하여 약간의 조목을 후록(後錄)하여 장계로 아뢰었습니다. [일곱 조항은 위쪽 음사(淫祀)편을 보라.] 조정에서 신의 불초함을 알지 못하여 이미 이 임무를 맡기셨으니, 아뢴 바의 변방 사정을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신(臣)이 양주목사로 재직¹¹⁶⁾하고 있을 때, 홀연 주정소(晝停所)¹¹⁷⁾에서 인견하는 은혜를 입게 되어 망령되이 광세(曠世)의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아뢰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상께서는 외람되게 번잡한 일을 아뢴다고 죄로 여기시지 않으시고, 특별히 10,000여 석의 환곡과 80동의 신포(身布)¹¹⁸⁾를 덜어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대동호급두미(大同戶給斗米)까지 덜어주라는 명령까지 내려주시었습니다. 나이 든 늙은이나 어린 아이들이 지금까지 감축하여 돌에 새겨 이 일을 기록하고자 하고 있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물며 이 바다 밖의 궁벽한 백성들은 내복(內服)¹¹⁹⁾과 같지 않으므로, 편안하게 어루만져주는 도리는 마땅히 원래 달라야합니다. 지금 신이 아뢰는 바가 비록 거칠고 조잡함에 이르렀지만, 일언반구라도 어찌 거짓으로 아뢰겠습니까? 특별히 파격의 은혜를 내리시어 온 섬의 백성들의 마음을 묶어주신다면, ‘황복원대(荒服願戴)라는 말이¹²⁰⁾ 오로지 앞 세대만을 훌륭하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묘당(廟堂)에서 전례를 원용하여 좋은 쪽으로 품

116) 재직: 원문은 ‘대죄(待罪)’이다. 실제로 죄를 지어 벌을 기다린다는 말이 아니라, 직책을 맡고 있다는 겸양의 말이다. 병와는 숙종 18년(1692) 10월, 양주목사(楊州牧使)에 부임하였으며, 이때 백성들의 역(役)을 덜어주는 문제로 숙종과 독대하였다.

117) 주정소(晝停所): 왕이 능행 중에 들러 점심식사를 하던 곳이다.

118) 신포(身布): 조선시대 군역 대신으로 바치던 베를 말한다.

119) 내복(內服): 천자가 직할하는 사방 천리의 지역. 복(服)이란 천자의 일에 복무한다는 의미로써, 내복은 사방 천리의 왕기(王畿) 이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칭하고, 왕기 이외의 지역은 외복(外服)이라 함. 여기에서는 제주를 제외한 내륙 지방 전체를 말한다.

120) 황복원대(荒服願戴)라는 말이: 『열자(列子)』에서 나온 말이다. “요 임금이 천하를 다스린 지 50년에 천하가 잘 다스려지는지, 그렇지 못한지, 역조의 백성들이 자기 떠받들기를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를 알 수 없어〔堯治天下五十年, 不知天下治與, 不治與, 億兆願戴己與, 不願戴己與.〕”라고 했다는 데서 온 말이다. 먼 지방 [荒服] 백성들이 자신들의 임금을 성군으로 떠받든다는 의미이다. 이 책 말미의 『황복원대가(荒服願戴歌)』 역시 같은 의미이다.

처하도록 명하심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아뢰었다.

뒤에다 일곱 조목을 적어 올렸는데, 주상께서 모두 윤희해 주셨다. 남녀노소 모두 복치고 춤추었다. 음사(淫祀)를 철폐한 일도 아마 이 일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부역(賦役)을 기록하다[誌賦役]

세법이 바르지 않다. 처음부터 경계(經界)가 이미 잘못 계산되어, 올해 분이 또 너무 적게 거두어졌다.¹²¹⁾ 묵힌 밭과 재해를 입은 밭을 제외하고, 결(結)대로 거둬들이는데, 매 짐[負]¹²²⁾마다 쌀과 콩인 경우 1되 5홉이다. 산미(山米)와 전미(田米)인 경우 7홉 5석¹²³⁾이다. 이것이 토지에 대한 세금이다.

대동(大同)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정(男丁)을 뽑아내어 한 사람 당 전미(田米) 5되를 부과한다. 이 외에 다른 결역(結役)¹²⁴⁾은 없다. 표고(藁古)와 백랍(白蠟)은 군병(軍兵)에게 거두며 미역·전복·생선·게 등은 포한(鮑漢)¹²⁵⁾에게 받으며, 모든 여러 역역(力役)과 떨감·풀·핑·닭 등의 물품은 모두 민호(民戶)에게 책임 지운다.

121) 너무……거두어졌다: 원문은 ‘맥도(獠道)’이다. 『맹자(孟子)』 「고자하(告子下)」에 “백규(白圭)가 말하기를, ‘세법을 고쳐서 20분의 1을 수취하고자 하는데 그 방법이 어떻습니까.’ 하자, 맹자가 이르기를, ‘당신의 방법은 맥도(獠道)다.’라고” 하였다는 대목에서 나온 말, 여기서 세(稅)를 너무 적게 징수하고 있다는 말이다.

122) 짐[負]:卜과 같음. 토지의 면적단위로서 전지(田地)의 면적과 수확량을 표준으로 하는 과세 단위의 하나이다.

123) 석: 석(夕)은 토지나 약재 등의 양을 계산하는 단위이다. 한 되의 100분의 1이다.

124) 결역(結役): 조선 후기에 토지에 부과되었던 부가세의 일종. 당시 토지에서 거두었던 정식 세금인 전세(田稅)·대동미(大同米)·삼수미(三手米)·결전(結錢) 이외의 부가세로서, 지방의 여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징수하던 세금이다.

125) 포한(鮑漢):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소금에 절이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을 말한다. 제주에서는 주로 전복을 채취하여 바쳤다.

사당(祠堂)을 기록하다[誌祠]

이 지방의 사당은,
 삼성사(三姓祠) [임오년(1702)에 창건되었다. 삼성(三姓) 시조를 제사한다.¹²⁶⁾
 사직단(社稷壇)·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 [둘 다 모두 성 남쪽 3리 거리에 있다.]
 성황사(城隍祠) [한(漢)의 기신(紀信)을 제사한다.¹²⁷⁾ 주성 남쪽 16리, 한라산 아래에
 있다.]

여단(厲壇) [주성 서쪽 2리 거리에 있다.]

독사(蠹祠) [남과원(南果園)에 있다.]

포사(酹祠) [소림과원(小林果園)에 있다.]

굴림서원(橘林書院) [충암(冲菴) 김정(金淨)을 제사하는데, 향교 남쪽에 있다.]
 등이 있다.

대정현과 정의현에도 각각,

사직(社稷)

성황(城隍)

여단(厲壇) 등이 있다. 이런 사당들이 있는 곳은 마땅히 공경해야한다.

그러나 음사(淫祠)인,

광양당(廣壤堂)

차귀사(遮歸祠)

천외사(川外祠)

126) 삼성(三姓)……제사한다: 『탐라록(耽羅錄)』에 이형상목사가 직접 지어준 「삼성사상량문(三姓祠上樑文)」, 「삼성묘봉안제문(三姓廟奉安祭文)」, 「춘추축문(春秋祝文)」 등이 보인다.

127) 한(漢)의……제사한다: 육무관(陸務觀)의 「진강부성황사기(鎮江府城隍祠記)」에, “한(漢)나라 장군 기신(紀信)이 형양(滎陽)에서 죽었으므로 이곳에서는 기신을 성황신으로 여겨 제사 지내왔다.”라는 대목이 보인다. 기신은 한 고조(漢高祖)가 항우와 싸우다가 아주 위급한 지경에 빠졌을 때, 기신이 한 고조로 가장하여 대신 죽고 고조를 탈출시켰다.

신춘사(新春祠) 등과 각 면(面)과 각 관(官)에 소재하는 곳까지, 모두 129곳은 건물을 갖추고 있으면서, 국가의 사전(祀典)을 더럽히고 백성들을 속인 것이 매우 오래되었다. 지금은 모두 불태워져 하나도 남은 것이 없다. [자세한 것은 음사(淫祠)편을 보라.]

내가 장계로 대략, “국가의 대사는 제사[祀]와 전쟁[戎]에 달렸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예(禮)의 품급(品級)과 제한(制限)으로 본다면, 오직 제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본도(本島)의 제례(祭禮)는 와전되고 어그러진 것이 매우 많습니다. 절목상의 일은 원래 전례(典禮)에 있기에 비록 감히 아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품정(稟定)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을 후록(後錄)으로 계문하니, 해당 부처[曹, 예조]에게 명하여 예를 상고하여 품처하라 하심이 어떻습니까?”라고 아뢰었다.

후록(後錄)으로 아뢰기를,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에 대한 제사는 중사(中祀)¹²⁸⁾에 올라 있습니다. 다만 축문에 대해 말해보자면, 주상께서 칭신(稱臣)해야 하는 등 체례(體禮)가 너무나 확실한지라, 다른 지방에서는 감히 제사를 행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또한 신위의 차례로 말해보자면, 풍운뇌우가 중간에 자리하고 산천(山川)이 좌측에 자리하고 성황(城隍)이 우측에 자리합니다. 본주(本州) 구례에 따르면, 매년 봄과 가을 사직단을 제사하는 날에 별도로 하나의 단을 사직단 아래 진설하여 풍운뇌우를 제사 합니다. 또 위판(位版, 위패)을 만들어 사직 위판을 모신 방에 봉안하였습니다. 생각건대 틀림없이 탐라(耽羅)의 구례(舊例)를 이어받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판적(版籍)¹²⁹⁾ 안으로 부속된 주목(州牧)인 경우, 관청이 설치된 이후라면 마땅히 품정하기를 여쭙어 변통해야 하는 바인데도, 어찌된 일인지 지금까지 낡은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이 사직(社稷) 제일(祭日)에 입재(入齋)하는 날, 처음 이러한 사례가 있음을 듣고 이윽고 감히 이전대로 행례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감히 무단으로 철폐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단 본관(本官)에 분부하여 기록에 의거해 유생들에게 섭행(攝行)

128) 중사(中祀): 조선시대 나라에서 지내는 제향(祭享)하는 등급(等級)을 말한다. 중사에 드는 제향은 하늘의 신에게 제사하는 풍운뢰우(風雲雷雨), 농사를 관장하는 신농씨(神農氏)에게 제사하는 선농(先農), 양잠법(養蠶法)을 시작한 서릉씨(西陵氏)에게 제사하는 선잠(先蠶), 비가 오도록 하늘에 기원하는 우사(霽祀), 그리고 공자(孔子)의 위패(位牌)를 모신 사당에서 지내는 문선왕묘(文宣王廟), 이상 다섯 가지였다.

129) 판적(版籍): 토지(土地)와 호적(戶籍)을 기록한 대장. 토지와 호적을 기록한 대장에 들었다는 것은 나라를 들어 다른 나라에 부속된다는 의미이다.

하게 하고, 그 연유를 이렇게 아뢰입니다.

태산도 계씨(季氏)의 여제(旅祭)를 흠향(歆饗) 않았는데,¹³⁰⁾ 하물며 이 주현(州縣)의 관리로서는 분명 감히 할 수 없는 일이니, 첩파하는 사유를 고하고 그 위판을 묻는 것이 마땅할 듯싶습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첩파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향축(香祝)을 내려주심이 있고 난 이후에 신(臣)이 섭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전례(典禮)에서는 산천과 성황의 단은 함께 제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럴 경우 사직 하단에서 별도로 제사함이 의미가 없을 듯하니, 예를 상고하여 품처케 하심이 어떻겠습니까?

노인성(老人星)과 마조제(馬祖祭)가 소사(小祀)에 올라 있다는 것은 예법의 본의가 지극히 깊고도 또 은밀합니다. 이른바 마조(馬祖)라는 것은 대개 방성(房星) 소속 천사(天駟)의 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¹³¹⁾ 본주는 이전부터 방성 분야(分野)로 여겨졌기 때문에 목장을 만든 것입니다. 노인성은 오직 중국 땅 형악(衡嶽)과 본주 한라산에서만 보인다는 것이 『동사(東史)』¹³²⁾와 유현(儒賢)들의 문집에 분명하게 실려 있습니다. 실제 방성 분야와 노인성이 비치는 땅이기에 해마다 향축을 내려 예에 의거해 설행함이 사전(祀典)의 본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예를 상고해 품처하게 하심이 어떻습니까?

산악[嶽]·바다[海]·하천[瀆]은 기고제전(祈告祭典)에 올라 있고, 명산대천은 소사(小祀)에 올라있는 것 역시 예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한라산과 큰 바다는 예로부터 중국 땅에 까지 널리 알려져 칭송되는 것이니, 앞으로도 다른 지방 명산대천의 사례에 따라 향축(香祝)을 내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일의 도리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예를 상고해 품처하게 하심이 어떻습니까?

역대 시조에 대한 제사는 우리 조정의 관대한 은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김해(金海) 등 땅에도 역시 있는 것입니다. 본도 삼성혈은 이 섬의 풍속이 어둡고 몰지각함으로 인하여 예로부터 사전(祀典)이 없었는데, 근년 이래 단(壇)을 설치하고 예를 행하였습니다.

130) 태산도……않았는데: 원문은 ‘태산불향여씨지여(泰山不享季氏之旅)’이다. 계씨(季氏)가 태산(泰山)에 여제(旅祭)를 지내니, 공자가 그 참절(僭竊)한 일이라고 하였다. 《論語 八佾》

131) 이른바……것입니다: 원문은 ‘천사방성(天駟房星)’인데, 거마(車馬)를 맡았다고 하는 별 이름이다. 이십팔수(二十八宿) 가운데 방성(房星) 소속의 네 개의 별을 천사(天駟)라고 한다. 참고로 중국 북건이나 광서, 대만 등 남방에서 어민들이 모시는 여신(女神)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마조(馬祖)가 방성(房星)의 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132) 동사(東史): 조선 후기 이종휘(李種徽)가 지은 우리나라 역사이다. 그의 문집인 『수산집(修山集)』 안에 수록되어 있다.

지금은 도민들이 힘을 모아 묘를 세우고 고을라·양을라·부을라를 주벽(主壁)으로 삼고, 고후(高厚)·고청(高淸), 막내까지 배향(配享)하여 봄과 가을에 향사(享祀)할 계획이라 합니다. 섬 안의 백성들은 이 삼성(三姓)의 자손이 아님이 없는데, 도민들이 묘를 세움은 정리와 예의에도 그럴 듯합니다. 그리고 저들 역시 모두 나라를 누렸던 사람들이니, 나라의 법도로 헤아려 봐도 물어버림은 부당한 일입니다. 또한 고후·고청, 막내가 처음 신라에 입조하였고, 이어 영토 안으로 부속해 와 당시 성주(星主)와 왕자(王子) 작호로 포상되어 지금까지 공물(貢物)을 바치는 직분에 태만하지 않고 있습니다.¹³³⁾ 마땅히 공에 보답하고 위로하는 도리가 있어야 하지만 또한, 멋대로 사사로이 묘를 짓는 것도 부당한 일입니다. 위판을 봉안한 후에 다시 계문하면, 그곳에 사액(賜額)해 주도록 품지하심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예조에서 복계(覆啓)한 내용은, 『오례의(五禮儀)』의 내용에 따르면, 주현(州縣)은 오로지 사직(社稷)·문선왕(文宣王, 공자)·포제(醕祭)·여제(厲祭)·영제(祭) 등만을 제사할 수 있을 뿐이니, 주현에서는 감히 풍운뇌우에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실상은 장계에서 아뢴 내용 그대로입니다. 본주만이 유독 이런 사전(祀典)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탐라의 구례(舊例)를 답습하는 것이라는 것 역시 장계에서 아뢴 내용 그대로입니다. 본주는 바다 밖의 별도의 지역이어서 내륙의 읍과는 다릅니다. 또한 그 사전의 유래 역시 이미 까마득히 오래된 것이라고 하나, 이미 전례에 실린 바가 아닙니다. 수신(守臣, 이형상)이 이런 내용을 장계로 아뢰었는데도 다시 하던 대로 철폐하지 말라고 하면, 사체(事體)가 매우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마땅히 철폐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듯 싶습니다. 풍운뇌우에 드리는 제사는 만약 지금 철폐한다면, 그 위패의 차례와 사직단에 제사 드리는 날에 별도로 단을 따로 설치할 것인지는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산악[嶽]·바다[海]·하천[瀆]과 명산대천에 대한 제사는 소사(小祀)에 실려 있다는 것 역시 장계에 아뢴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본주 한라산과 대해서는 명산대천의 사례에 의거하여 한꺼번에 사전을 행하는 것 역시 합당할 듯 싶습니다. 그러나 한라산에 제사를 드리는 일만큼은 진실로 창시(創始)에 관계된 일이어서 모두 경솔하게 논의하기 어렵습니다. 본주 삼성혈은 도민 등이 묘를 세워 삼을라(三乙那)를 주향하

133) 지금까지...있습니다: 원문은 ‘도금불태공모속미지직(到今不怠貢茅粟米之職)’이다. 원문의 공모(貢茅)란 춘추시대 제 환공(齊桓公)이 포모(苞茅)를 공물로 바치지 않았대(爾貢苞茅不入)는 이유로 초(楚)나라를 정벌한 고사에서 유래하여, 이후 공부(貢賦)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고 고후(高厚) 등을 배향하여 향사할 계획이라 하는 것과, 저들은 모두 나라를 누렸던 사람들이어서 물어버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고후 등이 내부(內附)한 공은 배향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도 역시 장계에 아뢴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삼을라가 비록 본도 인물의 시조라고는 하나,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 삼국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대로 그 후예들이 사사로이 묘우(廟宇)를 세우고, 조정에서 이에 따라 사액해야 마땅한가는, 사체(事體)를 헤아려보아야 하겠기에 역시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본주에서 정한 법도를 참작하여 제수(祭需)를 돕는 것이 사체를 얻게 될 것 같으니, 이렇게 분부하심이 어떻습니까?”라는 것이었다.

내가 또 재계(再啓)하여 아뢰길, “당초 계품(啓稟)할 적에는 갑자기 이런 사례를 듣게 되어, 감히 그것이 온당하지 못한 사유를 아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후 상세하게 조사해보니, 비단 본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의현과 대정현 역시 이와 같았는데, 성황 위판을 관청에 봉안했다가 여제(厲祭)를 지낼 때 북쪽 교외에서 행례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또 성황 위판을 만들어 별도로 사직에 보관했다가, 산천 위판과 함께 풍운뇌우에 제사 드립니다. 성황 위판은 이미 관청에 봉안되어 있는데도 다시 위판을 만드니, 이는 매우 무식한 소치입니다. 산천 위판 역시 다른 지방에는 없는 것인데도, 유독 본주에서만 풍운 뇌우에 제사를 드리면서 별도로 산천의 위판을 만들고 또 다시 성황 위판까지 만드니, 예법으로 헤아려본다면 이는 정말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지금 만약 철폐하려 한다면 별도로 만드는 산천의 위판과 누차 만드는 성황 위판과 풍운뇌우 위판까지 함께 물어버리고 철폐 할까요? 분수와 의리로는 감히 못합니다. 비록 물어버리자 해도 만약 고유하는 제사가 없다면, 역시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묘당에서 복계했던 내용 중 이 한 조항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처로 하여금 다시 품처하게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례의(五禮儀)』를 상고해 보니, 주현의 사직(社稷)은 오로지 정위(正位)만을 제사하고 배향(配享)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주인 경우, 정위 외에 다시 배위 위판까지 만들었지만, 원래부터 배위 위판에는 제사를 행할 때가 없었습니다. 다만 기우제를 지낼 때만 아울러 정위와 함께 제사 지내는데, 이미 이런 예법에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런 위판을 만들었으며, 끝내 위판을 만들었으면 또 어째서 제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섬안의 모든 일이 본디 모두 이와 같으나, 막중한 제례를 잘못 답습해서는 안 되기에 감히 이렇게 번거롭게 품의 합니다. 배위 위판 역시 풍운뇌우의 사례에 의거해 고유하고 물어버릴

까요? 아울러 해당 부처에 품쳐하도록 하심이 어떻습니까?

명산대전은 소사(小祀)에 올라있고 이는 이미 전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치악산이나 감악산과 같은 소소한 산들 역시 사전에 올라있는데, 한라산은 바다 밖의 명산으로서 중국 땅에까지 알려져 칭송되는 그 돋보임이 치악산이나 감악산 등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법을 헤아려 봐도, 여기는 굽히면서 저기는 펴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¹³⁴⁾ 본주는 바다 밖의 별도의 구역인지라 끝내 내지와 소통할 수 없었기에, 모든 차림을 자기들 멋대로 행한 것입니다. 한 방위의 중심에 자리하면서 이렇게 중국 땅에까지 명산이라고 칭송되는데도, 처음부터 사전(祀典)에 누락된 것은 반드시 그 곡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인지상정으로 이 일을 논의해보자면, 우리 조정의 전례는 『오례의』를 전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례의』는 성화(成化) 연간¹³⁵⁾에 편찬된 것입니다. 그때는 본주가 잠깐 순종했다가 잠깐 반역하여 완전히 내복(內服)하였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혹시 이로 인해 사전에 오르지 못했던 것이 아닌지요? 지금 내부(內附)한 후에 이르러서까지 이 같은 명산으로서 끝내 제사를 행하지 않는다면, 법으로 보든 예로 보든 온당하지 않을 듯합니다. 만약 한라산에 치제하는 일은 창시(創始)와 관계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해당 부처에서도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비록 대신들이 논의하여 결정하더라도¹³⁶⁾, 사전에 관계된 일인지라 조금의 소홀도 용납할 수 없으니, 해당 부처로 하여금 전례를 두루 상고하게 하여 다시 품쳐하게 하심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복계(覆啓)한 결과를 보지 못하고 돌아왔기에, 채택되어 시행되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듣지 못했다. 여단(厲壇)의 위판 18위(位)는 자잘한 소나무로 갑작스럽게 깎았기 때문에 정식에 맞지 않아서 예에 의거해 밤나무로 고쳐 만들었다.

134) 여기는……부당합니다. 원문은 부당굴차신틸피(不當屈此伸彼)이다. 차(此)는 한라산, 피(彼)는 육지의 명산을 말한다. 한라산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서 치악산이나 감악산 같은 육지부의 명산에는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한다.

135) 성화(成化) 연간: 중국 명나라의 제8대 황제인 성화제(成化帝) 주견심(朱見深) 때의 연호(1465~1487년)이다. 1465년(세조 11)을 원년으로 1487년(성종 18)까지 23년 동안 사용되었다.

136) 결정하더라도: 원문은 ‘정탈(定奪)’이다. 신하들이 올린 몇 가지의 논의나 계획 중에서 임금이 가부(可否)를 논하여 그 어느 한 가지만을 택하는 일을 말한다.

관방시설들을 기록하다[誌關防]

사방을 둘러 칼 같은 돌들이 다발로 서 있어 갯가 주변에는 선박을 정박할 수 없다. 예전부터 왜선들이 침략해도 하나라도 얻은 이익이 없던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예전에는 화북·조천·어등·애월·명월 등 각 포구에 전함(戰艦)이 있었으나, 암초가 많아 운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은 모두 훼파(毀破)되었다. 다만 구진(九鎭)에 합쳐 육군으로 만들었다.

봉화 두 개가 오르면 속오군병(束伍軍兵)이 각각 그 관할 지역¹³⁷⁾에 모여 대기한다. 봉화 세 개가 오르면 수첩군(守堞軍)이 성을 오른다. 봉화 네 개가 오르면 화약을 장전하고, 봉화 다섯 개가 오르면 접전(接戰)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약조되어 있다. 비록 다른 나라 배가 표류해 오는 경우라도, 문정(問情)하기 전까지 봉화를 드는 것은 모두 이와 같이 한다. 간혹 연습해보고자 야밤에 장대(將臺)에서 취각을 불면 주성(州城) 안의 남녀노소가 무기를 잡고 성에 오른다. 감히 조금이라도 느슨함이 없으니, 그 방어의 면밀함을 볼 수 있다.

137) 관할 지역: 원문은 '신지(信地)'이다. 규정된 순찰 분담 지역 또는 미리 정해놓은 위치를 말한다.

봉수(烽燧)를 기록하다[誌烽]

사방을 두른 봉수(烽燧)와 연대(煙臺)가 모두 63곳이다. 각각 별장(別將)과 망한(望漢), 그리고 봉군(烽軍)을 둔다. 주야로 수직하며 번을 서는데, 동서(東西)가 서로 서로 준행하여 영문(營門)에 도달한다. 평상시에는 봉화 하나를 올리고, 황당선(荒唐船)¹³⁸이 출현하면 봉화 두 개를 올린다. 경계로 다가오면 봉화 세 개를 올린다. 경계를 넘어서면 봉화 네 개를 올린다. 접전(接戰)이 시작되면 봉화 다섯 개를 올린다.

밤에는 햇불로 하고 낮에는 연기를 올리는데, 감히 다르거나 그르치지 않는다. 만약 구름이 끼거나 어두운 날에는 입으로 전하여 서로 알린다. 과거에는 한라산 중턱에 봉수 하나가 있어서 남해 백량(白梁)과 이어져, 이로써 급함과 급하지 않음을 통보했었다. 그러나 바다가 해무로 항상 덮여 있어서, 지금은 모두 철폐되었다.

138) 황당선(荒唐船): 우리나라 연해에 출몰하던 소속 불명의 외국 선박이다. 뒤에는 이양선(異樣船) 또는 이국선(異國船)으로도 불렸다.

창고를 기록하다[誌倉]

본주(本州) 창고에는 각종 곡물 30,044석이 있다. 동창(東倉)에 2,869석, 서창(西倉)에 3,310석이 있다. 정의현에는 4,256석, 대정현에는 1,957석이 있다. 제주영(濟州營)의 곡물과 세 읍(三邑)의 곡물을 다 합하면 11,700여 석이다. 곡물은 많고 백성은 적으니, 진실로 조적(糶糶)¹³⁹⁾이 어려운 처지인데, 습한 안개에 오랫동안 잠겨 아주 쉽게 썩어버린다.

139) 조적(糶糶): 환곡을 꾸어 주거나 받아들이는 일을 말한다.

관청 건물들을 기록하다[誌廳]

영주관(瀛洲館) [35칸이다. 제주성 북쪽 안에 있는데, 이곳이 객사(客舍)이다.]

관덕정(觀德亭) [18칸이다. 홍화각(弘化閣) 남쪽에 있는데, 좌위랑(左衛廊)이 48칸인데, 역생(譯生)·모장(毛匠)·상장(床匠)·나장(羅將)·약방(藥房)·전장(甄匠)·취수(吹手)·기수(旗手)·방포수(放炮手)·전장(箭匠)·궁장(弓匠) 등이 거처하는 곳이다. 우위랑(右衛廊)은 56칸인데, 혈청(歇廳)·영리청(營吏廳)·찬주헌(贊籌軒)·세병헌(洗兵軒)·기패(旗牌)·아병(牙兵)·정갑(定甲)·지인(知印)·가솔(假率)·의국(醫局)·무학(武學)·군기(軍器)·마구(馬廐) 등이 거처하는 곳이다. 건물이 굉장히 크고 웅장하면서도 아름답다. 통영(統營)의 세병관(洗兵館)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항상 이곳에서 무예를 시재(試才)한다.]

상아(上衙) [37칸이다.]

연희각(延曦閣) [곧 동헌(東軒)이다. 홍화각(弘化閣) 북쪽에 있으며 모두 14칸이다.]

망경루(望京樓) [동헌 곁에 있으며 모두 17칸이다. 북쪽으로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 눈가는 데까지 아득하다.]

종루(鍾樓) [3칸이며, 곧 동헌(東軒)의 외대문(外大門)이다.]

굴림당(橘林堂) [5칸인데, 동헌 동쪽에 있다. 창으로 북과원(北果園)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데, 감굴이 눈에 가득하다.]

애매헌(愛梅軒) [8칸]

우련당(友蓮堂) [10칸인데, 연지(蓮池)가 있다.]

홍화각(弘化閣) [9칸인데, 상아 남쪽에 있다.]

군관청(軍官廳) [31칸]

공수(公須) [18칸]

영청(營廳) [30칸]

군뢰청(軍牢廳) [4칸]

마방(馬房) [6칸]

별청(別廳) [3칸]

군기(軍器) [14칸]
 장춘원(藏春院) [4칸]
 자전고(紫電庫)¹⁴⁰⁾
 청상고(淸霜庫) [4칸인데, 운주당(運籌堂) 서쪽 편에 있다.]
 화약고(火藥庫) [4칸인데, 운주당(運籌堂) 서쪽 편에 있다.]
 호적고(戶籍庫) [종루(鍾樓) 서쪽에 있다.]
 진무청(鎭撫廳) [7칸]
 교방(敎坊)
 장군청(將官廳) [8칸]
 삼학청(三學廳) [12칸]
 향청(鄉廳) [12칸]
 주사(州司) [3칸]
 영선(營繕)
 책판고(冊板庫)
 기치고(旗幟庫)
 사창(司倉) [60칸]
 군향고(軍餉庫) [17칸]
 이아(二衙) [47칸인데, 성 남쪽에 있다.]
 찰미헌(察眉軒) [곧 이아(二衙)의 외동헌(外東軒)이다.]
 생백헌(生白軒) [내동헌(內東軒)이다.]
 운주당(運籌堂) [9칸인데, 성 안 동남쪽 모서리에 있다.]
 목군관청(牧軍官廳) [8칸]
 목가솔청(牧假率廳) [3칸]
 목공수(牧公須) [10칸]
 목작청(牧作廳) [7칸]
 관노방(官奴房) [12칸]
 형옥(刑獄) [21칸]

140) 자전고(紫電庫): 군기고(軍器庫)의 일종이다.

남한박물관

향교(鄕校) [71칸]

명륜당(明倫堂) [12칸]

동서재(東西齋) [20칸]

강당(講堂) [7칸인데, 이곳이 제주교수(濟州敎授)¹⁴¹⁾가 거처하는 곳이다.]

서원(書院) [6칸]

박심당(博審堂) [7칸]

장수당(藏修堂) [9칸]

독실(蠹室) [5칸인데, 남과원에 있다.]

삼성묘(三姓廟) [25칸인데, 남성 안쪽에 있다.]

제중루(濟衆樓) [6칸인데, 곧 동쪽 성문이다.]

정원루(定遠樓) [6칸인데, 곧 남쪽 성문이다.]

백호루(白虎樓) [6칸인데, 곧 서쪽 성문이다.]

공신루(拱辰樓) [곧 홍문(虹門)인 북수구(北水口)이다.]

남수구(南水口) [홍문에서 절벽을 굽어보면 빼어나고 고색창연해 완상할 만하다.]

격대(擊臺) [28곳인데, 각 1칸이다.]

연무정(演武亭) [10칸인데, 남성 밖 1리 거리에 있다. 상시 무예를 검열하는 장소이다.] 등이 있다.

대정현과 정의현, 그리고 9진(鎭)에 모두 객관(客館)이 있으나, 누추하고 낮고 비좁아 쓸 만한 곳이 못된다.

141) 제주교수(濟州敎授) : 제주의 경우, 파견이 일정하지 않았다. 이형상 목사 당시 제주교수는 영천 출신의 이동식(李東植)이었다. 『탐라록(耽羅錄)』에 주고받은 시가 확인된다.

군사를 기록하다[誌兵]

조방장(助防將) 9인
천총(千摠) 3인
파총(把摠) 6인
초관(哨官) 30인
마대별장(馬隊別將) 1인
초관(哨官) 5인
아병초관(牙兵哨官) 4인
성장(城將) 4인
대정현 성장(城將) 4인
정의현 성장(城將) 2인
교련관(教鍊官) 12인
기패관(旗牌官) 94인
출신(出身) 34인
군관(軍官) 356인
영직(影職) 112인
훈도(訓導) 17인
무학(武學) 174인
정로위(定虜衛) 126인
여수(旅帥) 6인
갑사(甲士) 95인
기병(騎兵) 791명
보병(步兵) 1,090명
대정(隊正) 51명
기수(旗手) 84명

나장(羅將) 61명

취수(吹手) 103명

군뢰(軍牢) 127명

경루직(更漏直) 6명이며, 각 군의 총수(總數)는 이미 공(貢)편 기록에 보이므로, 여기서는 다시 논하지 않는다.

내가 장계로 대략¹⁴²⁾, “각 군문의 장교들이 오래 근무하는 경우 자리를 바꿔줌은 다만 격려하고 권장하려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해를 근무하는 중에 혹시라도 아까운 인재가 있을까봐서 그런 것입니다. 본도는 아득히 바다 밖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어서, 동쪽으로는 일본에 접하고 남으로는 유구(琉球)나 안남(安南)에 접하고 서로는 중국의 연(燕)·제(齊)·오(吳)·월(越) 등의 지방과 접하고 있습니다. 왕래하는 돛단배들이 이 섬으로 표도(漂到)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니, 이곳은 진실로 우리나라 변방의 요새입니다. 그러나 고립되어 의지할 수 없으니, 동래(東萊)나 의주(義州)가 내지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밤낮으로 수직(守直)하는 일은 경사(京司) 입직(入直)보다 더욱 힘이 듭니다. 그 부지런히 노력하는 바는 진실로 잔인할 지경인데 수십 년을 근무해도 끝내 한 번의 인사 명령조차 받을 수 없으니, 지위가 높거나 낮은 백성들이 거의 모두 마음이 흩어져 버립니다. 이곳은 피복(皮服)의 땅으로¹⁴³⁾ 문물(文物)이 흩어져 찾아볼 수 없는 곳이어도 때때로 문무(文武) 출신(出身)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모두 관작을 얻지 못하고 늙어 죽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섬 안의 풍습은 경직(京職)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어, 어리석음으로 돌아감을 면치 못합니다. 구진보(九鎭堡, 9진)의 조방장(助防將)과 속오군(東伍軍)의 아병(牙兵)이나 장관(將官)들을 한번만이라도 양주(楊州)나 광주(廣州), 그리고 수원(水原)의 사례대로 오랫동안 근무하면 자리를 바꿔주어, 저 바다 밖 어리석음에 빠진 땅으로 하여금 의관(衣冠)의 고장이 되게 해주심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아뢰었다. 주상께서 윤희해 주셨다.¹⁴⁴⁾

142) 내가……대략: 『탐라장계초(耽羅狀啓抄)』 「제주민막장(濟州民瘼狀)」 후록(後錄) 다섯 번째 항목에 보이는 내용이다.

143) 피복(皮服)의 땅: 처음에 기주(冀州) 동북 땅에 동이(東夷)가 살았는데, 요(堯)의 덕이 널리 입혀지자 모두 귀화하여 그들의 피복(皮服, 가죽옷)을 공물(貢物)로 바쳤다. 여기서 전하여, 변경 미개한 지역이라는 비하의 의미로 쓰인다.

144) 주상께서……주셨다: 위의 내용을 숙종이 다 윤희해주었다고 했는데, 1705년(숙종 31)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2월 6일 조예, 우의정 이유(李濡)가 본목(本牧, 제주) 장관(將官)들 중에서 오래 근무한 이들은 조방장

공인(工人)들을 기록하다[誌工]

공방(工房) 각각의 공장(工匠)은 448명, 군기(軍器)를 만드는 장인이 325명이다. 세 읍(邑)에 각각 수백 여 명이 있는데, 번(番)을 여섯으로 나눈다. 밤낮으로 모여 대기하는데, 숨씨가 모두 매우 뛰어나다.

(助防將)으로 승진시키고, 조방장들 중에 오래 근무하고 재능이 있는 자들을 만호(萬戶)로 승진시켜주자고 건의하는 내용이 보인다.

노비(奴婢)들을 기록하다[誌奴婢]

관노(官奴) [현재 111명이 남아있다. 악공이 7명, 영급창(營及唱) 26명, 목급창(牧及唱) 21명]

관비(官婢) [현재 83명이 남아있다. 이 중 기생이 66명이다.]

내수사(內需司) [남자 노비와 계집종, 현재 427구가 남아있다.]

각사(各司) [남자 노비와 계집종, 현재 23,948구가 남아있다.]

대군방(大君房) [남자 노비와 계집종, 현재 26구가 남아있다.]

향교(鄕校) [남자 노비와 계집종, 현재 21구가 남아있다.]

서원(書院) [남자 노비와 계집종, 현재 7구가 남아있다.] 등이다.

이외에도 육지에 거주하는 노비는 도회(都會)에서 신공(身貢)을 거둬¹⁴⁵⁾ 제주로 들여보낸다.

145) 신공(身貢)을 거둬: 원문은 '수공(收貢)'이다. 노비로부터 신공(身貢)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서리(胥吏)들을 기록하다[誌吏]

서리[吏] 730인

어린아이[小童]¹⁴⁶⁾ 186인

진무(鎭撫) 119인

의생(醫生) 62인

율생(律生) 32인

한역생(漢譯生) 56인

왜역생(倭譯生) 33인 등이다. 번(番)을 여섯으로 나누어, 매월 5일씩 돌아가며 역(役)을 선다.

이방[吏]

호방[戶]

예방[禮]

병방[兵]

형방[刑]

공방[工]

도훈도(都訓導)

영청호방(營廳戶房)

마병방(馬兵房)

선색(船色)

군향색(軍餉色)

군기색(軍器色)

통인(通引) 등이다. 각 1명씩 대가를 지급하여 길게 번(番)을 선다.

146) 어린아이[小童]: 잔심부름을 하는 어린 사람이다. 제주지역인 경우, 공생(貢生) 역시 아전 일을 배우는 어린 사람을 뜻하는 경우가 있다.

행실(行實)을 기록하다[誌行]

효자 김평(金秤) [그의 모친은 김녕촌에 살았는데, 김평이 기관(記官)으로 관문(官門)에 있을 때, 모친이 종기로 기절했다는 소식을 듣자, 즉시 신과 갓을 벗어던지고 집으로 달려갔다. 하루 두 번, 다시 자신의 정강이 살을 베고 피를 받아 술과 함께 모친에게 드리자 회복되어 소생하였다. 임종할 때까지 20여 년을 봉양하였다. 성화(成化) 정미년(1487, 성종 18)에 사실을 아뢰어 정려(旌閭)되었다.]

진대석(秦大石) [보병(步兵)이었는데, 일찍이 부친을 여의고 모친을 봉양하고 있었다. 모친에게는 다리병이 있어서 앉고 일어설 때 반드시 남에게 기대야 했다. 대석이 입번(入番)하게 되면 모친을 성안으로 업고 왔으며 쌀을 빌어다 공양하였다. 번이 끝나면 모친을 업고 여러 곳을 다니며, 반드시 모친이 드실 음식을 마련했다. 처자식을 기르는 일은 모친을 봉양하는데 전념하지 못할까봐 장가들지 않고 혼자 살면서 직접 밥 짓는 일을 맡아서 했다. 숭정(崇禎) 7년(1634, 인조 12)에 정려되었다.]

열녀 천덕(天德) [일찍이 지아비를 여의자 슬픔과 정성 두 가지를 다해 아침저녁으로 음식을 올렸다. 삼 년 후 삭망전(朔望奠)을 마련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미모에 혹하고 재물을 탐했다. 어떤 사람은 관청에 소를 올려 곤장으로 겁주거나, 어떤 사람은 그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득으로 꾀었다. 그러나 죽음으로 스스로 맹서하여 머리를 깎고 목을 댔는데, 거의 죽다가 다시 살아나 종신토록 수절하였다. 만력(萬曆) 5년(1577, 선조 10)에 정려되었다.]

국지(國只) [사비(私婢)였는데, 품관(品官) 홍질(洪質)의 첩이었다. 젊은 나이에 지아비를 여의었다. 사람들이 그녀의 재색을 탐내어 호세(豪勢)로 겁박하는 자가 많았다. 그녀가 자신의 일을 버리고, 거처를 남편의 친족 집으로 옮겨 종신토록 수절하였다. 숭정(崇禎) 7년(1634, 인조12)에 정려되었다.]

고려 때의 정씨(鄭氏) [정의현 사람이었는데, 직원(職員) 석나리보개(石那里浦介)의 처(妻)였다. 합적(哈赤)의 난에 남편을 잃었는데, 안무사(安撫使)의 군관(軍官)이 그녀를 강제로 취하려 했다. 칼을 꺼내 스스로 목을 찢러 죽음으로 스스로 맹서했다. 이런 일이 알려져 정려되었다.]

고적(古跡)을 기록하다[誌古]

삼성혈(三姓穴) [주성(州城) 남쪽 3리 거리에 있다. 이곳이 예전 모흥혈(毛興穴)이라 불리던 곳이다. 『고려사(高麗史)』·고기(古記) 등에 이르기를, “그 처음에 인물이 없었는데, 삼신인(三神人)이 땅으로부터 솟아나왔다. 지금 진산(鎭山, 한라산) 북쪽 기슭에 혈(穴)이 있어 모흥(毛興)이라 부르는데, 이곳이 바로 그 곳이다. 첫째를 양을나(良乙那), 둘째를 고을나(高乙那), 셋째를 부을나(夫乙那)라고 부른다. 세 사람은 황량한 벽지를 돌아다니며 사냥하며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었다. 하루는 자색(紫色)으로 칠해진 밀봉한 목함(木函)이 떠와 동쪽 바닷가에 닿는 것을 보았다. 다가가 열어보니, 안에는 석함(石函)이 있었고, 붉은색 띠에 자색 옷을 입은 사자(使者)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말에 따라 돌 상자를 열어보니 푸른색 옷을 입은 처녀 세 사람과 여러 망아지와 송아지, 그리고 오곡의 종자가 들어있었다. 이내 말하길, “저는 일본국의 사자(使者)인데, 우리 왕께서 이 세 딸을 낳고 말하기를, ‘서쪽 바다 가운데 산악에 신의 아들 세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 장차 나라를 열려고 하는데 배필이 없다’라고 하시고, 이에 신에게 명하여 세 분을 모시고 온 것입니다. 마땅히 배필로 삼아 이로써 대업을 이루소서.”라고 하고는 사자(使者)는 홀연히 구름을 타고 떠나가 버렸다.

세 사람이 나이 차이로 나누어 장가들고, 물이 달고 땅이 기름진 곳으로 가서 활을 쏘아 살 땅을 가렸다. 양을나가 거주하는 곳을 제일도(第一徒), 고을나가 거주하는 곳을 제이도(第二徒), 부을라가 거주하는 곳을 제삼도(第三徒)라고 했다. 비로소 오곡을 파종하고 또 망아지와 송아지를 길러 날로 부유해지고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했다.

가정(嘉靖) 연간에 목사 이수동(李壽童)이 둘레 280여 척의 돌담을 쌓고, 혈(穴) 북쪽에 홍문(紅門)을 세웠다. 삼성(三姓)의 자손들이 봄가을로 제사 드리는데, 지금은 세 개의 혈이 모두 막히고 가시덤불에 파묻혀 있다. 다만 세 개의 돌이 솔밭처럼 서 있는 것만을 볼 수 있는데, 그 아래로는 땅이 조금 꺼져 있을 뿐이다. 광양신사(廣壤神祠)는 이곳 동쪽에 있는데, 그저 무격(巫覡) 무리들이 퉁소 불고 북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내 생각으로는, 개벽하던 처음에 음양이 뒤엎힘과 인회(寅會)¹⁴⁷⁾에 이르기까지 일 만년

147) 인회(寅會): 소강절의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에, “하늘은 자에 열리고, 땅은 축에 이루어지며, 사람은 인에

의 인온(網緇)¹⁴⁸이 교감한 이후에야 비로소 능히 만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상(空桑)¹⁴⁹이나 거적(巨跡)¹⁵⁰이라는 말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기화(氣化)라는 것 역시 근거하는 바가 있긴 하지만, 건도(乾道)나 곤도(坤道)를 말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아! 어찌 돌구멍에서 사람이 생겨나는 이치가 있을 수 있겠는가?

공자가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을 편집하면서 요임금과 순임금으로부터 끊었는데, 대개 사회(巳會)¹⁵¹ 이전의 세도(世道)가 매우 황당해 역사서에 실린 황당한 기록을 다 믿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사서(史書)의 기록은 바르고 말은 정확하여 중국의 사적에 실린 기록들은 이미 괴이하게 여길 만한 것이 없게 되었다.

지금 이 삼신인(三神人)이 과연 구한(九韓) 무렵에 솟아난 것이라면, 위로는 신시(神市) 단군(檀君)에 이르기까지 거의 수천 여 년 격차에 이르고 기자(箕子)로부터 헤아려도 역시 천 년이 넘는다. 헤아려보면 어찌 이치에 반하는 것이 있겠는가? 또한 『송사(宋史)』에도 선박이 표류하여 곤산현(崑山縣)에 도착하였는데, 당(唐)이 탁라도(毛羅島)에 고칙(誥勅)¹⁵² 한 문서가 있다고 했다. 처음 인물이 생긴 때부터 당나라 시절에 이르기까지 흥망성쇠가 네 차례 바뀌었으며, 동방에도 세상이 바뀌는 것 역시 여러 차례였으니, 그때의 운수가 이미 다했던 것이다. 인물이 본도에서 처음 생겨났다는 것은 과연 이치에 가까운 것인가? 우리나라 역사의 터무니없음도 이미 징험하기 부족한데, 하물며 문자가 있기 이전에서 다시 천년을 거슬러 오르는 아득하고 망망한 이야기를 누가 보고 누가 전할 수 있었던 말인가?

이 섬의 형상을 상상해보면, 반드시 군장(君長)이 있어서 부락을 나누어 다스렸을 것이다. 마치 계림(鷄林)의 여섯 부락과 같이 이치나 형세가 그리 되었을 것이다. 세 성씨가 서로 전해주며 이어왔다는 설은 오히려 기괴함으로 들어가 와전(訛傳)되고 와신(訛神)되어

생성된다(天關於子 地關於丑 人生於寅)”고 하여 사람을 비롯한 만물은 인회(寅會)에 생성된다고 하였다.

148) 인온(網緇): 「계사전(繫辭傳) 하(下)」에서 “천지의 기운이 얽히고 설켜 만물이 화하여 엉기고, 남녀가 정을 맺어 만물이 화생한다(天地網緇 萬物化醇 男女構精 萬物化生)”라고 하였다.

149) 공상(空桑): 마른 뽕나무를 말한다. 옛날에 유선씨(有侁氏)가 뽕을 따다가 이윤(伊尹)을 마른 뽕나무 속에서 얻었다는 고사(故事)가 있고, 이는 부모가 없이 태어났다는 말이다. 《水經註 卷15》

150) 거적(巨跡): 강원(姜嫄)이 나가 교매(郊禱)에 제사하다가 대인의 발자국을 보고는 그 엄지발가락을 밟아 임신하게 되었다는 고사를 말한다. 황당하다는 의미로 인용된 것이다. 《詩經 生民之什》

151) 사회(巳會):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에 의하면, 하늘은 자회(子會)에서 열렸고, 땅은 축회(丑會)에서 개벽하였고, 사람은 인회(寅會)에서 생겨났다고 하였으며, 요 임금 때는 사회(巳會)와 오회(午會)의 사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152) 고칙(誥勅): 중국 당(唐)나라 때의 조서와 칙서를 말한다.

기이하게 여기게 된 것이다. 과장된 것이 육지와 통하던 때여서 『고려고기(高麗古記)¹⁵³⁾』에서 들은 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니, 역시 심하게 책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매번 이 고장의 부로(父老)들을 만나면 이치로서 깨우쳐주며 말하길, ‘겨우 몇 촌의 구멍이 어찌 사람을 낳을 수 있겠는가? 끝내 땅에서 솟아났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형과 아우를 나누었겠는가? 이미 형제가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세 성씨라고 할 수 있나? 둘 상자의 세 자매가 만약 일본에서 왔다면, 일본인들 역시 평범한 사람인데 일본의 임금이 상서로운 기운을 보고 세 딸을 보냈다가, 사자(使者)가 구름을 타고 떠나갔다는 것은 또 무슨 모양의 이치인가?’라고 해주었다. 어떤 이들은 간혹 한라산신의 아우라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년 넘게 오래 살아 책에 기록되어 있고 현판까지 걸려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상식에 반하는 일이고 이치를 거스르는 소리이다. 이는 스스로 그 선조를 욕되게 하는 일이니, 그 자손되는 자라면 역시 부끄럽지 않겠는가?

시대의 멀고 가까움을 굳이 논하지 않더라도, 묘(廟)를 세워 향사(享祀)하는 것은 인정이나 예의로 보아 그럴만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지 않고 도리어 음사(淫祠)하고 있으니,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 놀랍고도 경악스럽다 할 것이다. 너희들은 명색이 선비 되는 자들이다. 처음에는 미혹에서 풀려나지 못하더라도, 깨우친 뒤에 이르러서는 분연히 다 같이 분개하여 음사(淫祠)를 철폐하여 묘를 세워 삼을나(三乙那)를 주벽(主壁)으로 모시고 고후(高厚) 등 세 사람을 배향(配享)한다면, 백성들의 풍속이 이에 비로소 바르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계문(啓聞)하니, 본주(本州)에 명해 제수(祭需)를 도우라는 뜻으로 이미 주상의 명령이 있었다. 그러므로 음사(淫祠)의 위전(位田)을 전부 나누어 주어 그것으로 하여금 향사(享祀)의 자본으로 삼게 하였다. 그러나 뒤이어 부임한 관리가¹⁵⁴⁾ 이 일을 무익하다고 여겨 여러 차례 훼손(毀撤)을 명했는데, 도민 3,000여 명이 밤낮으로 곡하고 울부짖어서 간신히 훼손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재물과 곡식, 그리고 전복(典僕)¹⁵⁵⁾ 등은 아울러 모두 관(官)으로 예속시켰고 위전(位田)까지 이속하였다. 또 음사(淫祠)까지 다시 돌아왔다고 한다.¹⁵⁶⁾

153) 고려고기(高麗古記): 고구려의 역사를 기록한 책.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154) 뒤이어……관리가: 원문의 후관(後官)이란 후임으로 온 관리로, 이형상목사의 후임인 이희태(李喜泰) 목사를 말한다.

155) 전복(典僕): 조선 시대 각사(各司)와 시(寺), 성균관(成均館)·사학(四學)·향교(鄉校) 등에 딸려 음식을 만들거나 수직(守直) 혹은 건물을 짓는 등의 잡역을 맡아 하는 노복(奴僕) 등을 뜻한다.

156) 또……한다: 이 내용은 앞쪽 「지속(誌俗)」에 자세하다.

칠성도(七星圖) [삼성이 처음 솟아나와 세 개의 도(徒)로 나누어 점유하였다가, 북두칠성의 형상을 모방하여 대(臺)를 쌓고 분거(分據) 하였는데, 이름을 칠성도(七星圖)라 하였다. 지금 그 옛터가 주성(州城) 안쪽에 있다.]

대촌(大村) [삼도(三徒)의 거소(居所)를 합쳐 대촌(大村)이 되었다. 지금 역시 성 안쪽을 대촌이라 부른다.]

고령전(高齡田) [예전에는 고령포(古齡浦)라고 불렀다. 지금 성안 삼성사(三姓祠)가 앉은 땅이다. 민간에서는 당(唐)나라 선박이 와서 부서졌던 곳이라고 전해진다. 지금도 밭을 가는 자들이 간혹 마유(碼瑙)¹⁵⁷⁾ 등의 보물을 얻곤 하는데, 당나라 선박이 남긴 것이라고 한다. 지금 보니 한라산 아래 바닷가의 암석 모두에 바닷물에 침식되었던 흔적이 있으니 의심컨대, 아득한 옛날에는 이곳까지 전부 바다였는데 지금은 변해 뽕밭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삼사석(三射石) [주성(州城)에서 동쪽 11거리에 있다. 민간에서 전해지기를, 삼성(三姓)이 땅을 가릴 때, 화살을 쏘았다던 돌이라고 한다. 지금도 화살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다.]

건입포(健入浦) [주성 동북쪽으로 1리 거리에 있다. 민간에서 전해지기를, 고후(高厚) 등이 신라에 조하(朝賀)하고 돌아와 정박하였는데, 친족들이 모여 이곳에서 맞아들였다고 한다.]

고토성(古土城) [주성 서남쪽 36리 거리에 있다. 둘레가 15리인데, 삼별초가 쌓은 것이다. 지금은 모두 무너졌다.]

고성(古城) [주성 서북쪽에 있는데 옛터가 남아있다.]

고장성(古長城) [해안선을 따라 둘러쌓았는데, 둘레가 300여 리이다. 고려 원종 당시 삼별초가 반역하여 진도(珍島)에 웅거하자, 왕이 시랑(侍郎) 고여림(高汝林) 등을 보내 병사 천 명을 이끌고 대비하게 하였다. 그래서 장성을 쌓았다. 지금도 해안선을 따라 간간히 부서진 성이 남아있는데, 이곳이 그 옛터이다.]

항파성(缸坡城) [주성 서쪽 25리 거리에 있는데, 성안에 샘이 있다. 고려 원종 12년에 김방경(金方慶)을 파견하여 삼별초를 진도에서 토벌하여 격파했는데, 김통정(金通精)이 삼별초를 거느리고 들어와 귀일촌(貴日村)에 웅거하며 이 성을 쌓고 저항하였다. 김방경 등이 공격하여 삼별초를 진압하고, 천호(千戶) 윤년보(尹年寶)가 거느리는 중국병사 400명과 관

157) 마유(碼瑙): 원문의 마유(碼瑙)는 마노(瑪瑙)의 잘못으로 보인다.

남한박물

군 1,000명으로 하여금 남아 지키게 명하고 돌아갔다.]

애월목성(涯月木城) [주성 서쪽 40리 거리에 있다. 이곳이 삼별초가 쌓은 성인데, 이로써 관군을 막았던 곳이다.]

동제원(東濟院) [주성 동쪽 9리 거리에 있다. 옛터가 있는데, 바로 이문경(李文京)이 병사를 주둔시켰던 곳이다.]

달로화적부(達魯花赤府) [고려 충렬왕 시절에 원나라 탐라적(塔羅赤)이 소·말·낙타·나귀·양 등을 수산평에 방목했다. 이어 달로화적부(達魯花赤府)를 설치했는데, 그 옛터가 주성 북쪽 해안가에 남아있다.]

군민안무사부(軍民安撫使府) [원나라가 달로화적부(達魯花赤府)를 철폐하고 군민안무사부(軍民安撫使府)를 설치했다.]

송담천(松淡川) [주성 동쪽 13리 거리에 있다. 이문경이 군사를 놓아 불 지르고 약탈하자 고여림(高汝林) 등이 이곳에서 맞아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이문경은 관군을 몰살시키고 조천포에 웅거하였다.]

귀일현(貴日縣) [주성 서쪽 25리 거리에 있다.]

고내현(高內縣) [주성 서쪽 35리 거리에 있다.]

애월현(涯月縣) [주성 서쪽 40리 거리에 있다.]

곽지현(郭支縣) [주성 서쪽 45리 거리에 있다.]

귀덕현(歸德縣) [주성 서쪽 50리 거리에 있다. 고려 희종(熙宗) 7년(1211) 주(州)로 승격하면서 석천촌(石淺村)을 귀덕현(歸德縣)으로 하였다.]

명월현(明月縣) [주성 서쪽 60리 거리에 있다.]

신촌현(新村縣) [주성 동쪽 20리 거리에 있다.]

함덕현(咸德縣) [주성 동쪽 30리 거리에 있다.]

김녕현(金寧縣) [주성 동쪽 50리 거리에 있다.]

국둔전(國屯田) [가정(嘉靖) 신묘년(1521)에 목사 이운(李耘)이 군자(軍資)가 부족하여 계청(啓請)하여 설치하였다. 백성들이 명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가정 병술년(1526) 목사 이수동(李壽童) 계문(啓聞)하여 혁파하였다.]

고득종구거(高得宗舊居) [지금 남성 안쪽에 있었는데, 과원이 되었다.]

판서정(判書井) [가락천 동북쪽에 있다. 돌 틈으로 물이 나오는데, 맑고 시원하며 맛이

달다. 충암(冲菴) 김정(金淨)이 적거할 때 판 것이다.]

고정의(古旌義) [정의현 동쪽 27리 거리에 있다. 원나라 목자(牧子) 합적(哈赤)이 제주만 호(濟州萬戶)를 여기에서 살해했다. 처음 세 읍(邑)으로 나눌 때, 여기에다 현(縣)을 두었다. 우도(牛島)에서 가까워 아침저녁으로 북치고 뿔피리를 불면 큰 바람이 누차 일어나 농사를 망치고 왜적이 번갈아 침입하였다. 세종 5년(1423) 안무사(安撫使) 정간(鄭幹)이 장계하여 진사(晋舍, 진사리)로 옮겼다. 이곳이 지금의 치소(治所)이다.]

토산현(兔山縣) [정의현 서쪽 50리 거리에 있다.]

홍로현(洪爐縣) [정의현 서쪽 61리 거리에 있다.]

수산평(首山坪) [수산소(首山所) 서남쪽에 있다. 고려 충렬왕 시절에 원나라 탐라적(塔羅赤) 등이 이 너른 들에 소·말·낙타·나귀·양 등을 방목하였다.]

서산(瑞山) [앞쪽 「지도(誌島)」편을 보라.]

예래현(猊來縣) [대정현 동쪽 25리 거리에 있다.]

죽도(竹島) [대정현에 있다. 태종 6년(1406)에 왜적이 침입해 들어왔는데, 정의현에서부터 벌려선 전함들이 이 섬에까지 이르렀다. 안무사 이원항(李元恒)과 제주판관 진준(陳遵)이 처서 물리쳤다. 고려 시절 왜적의 침입은, 충혜왕 후 2년(1341)에 정의현을 침입하였고, 다음해에는 700여 척으로 침입하였다. 충정왕 3년(1351)에는 귀일(貴日)을 노략질했으며, 공민왕 원년(1352) 우포(友浦)¹⁵⁸를 침범하였다. 8년(1359)에는 대촌(大村)까지 침입했으며, 신우(辛禰)¹⁵⁹ 2년(1376)에 다시 대거 침입해 들어왔다. 태종 원년(1401)에는 곱지를 침범했으며, 4년(1404)에는 고내와 명월 등을 침범했다. 6년(1406)에는 이 섬을 침범하였고, 8년(1408)에는 조공천을 침범하였다. 18년(1418)에는 우둔(牛屯)·우포(友浦)·차귀(遮歸) 지경 등을 침입하였다. 문종 원년(1451)에 다시 침범하였으나, 안무사 이명겸(李鳴謙)이 이를 물리쳤다. 전후로 침입한 왜구들이 한번이라도 뜻을 얻지 못했던 까닭은 섬을 두른 석벽들이 바다 가운데 늘어서 있어, 진실로 천연의 요새가 되었기 때문에 적선들이 정박하지 못했던 탓이다.

광해안치소(光海安置所) [제주 망경루(望京樓) 서쪽 성 안에 있다.¹⁶⁰ 늙은 아전이 기록한 바에 이르길, ‘정축년(1637) 6월 초6일에 폐조(廢朝, 광해군)를 안치하는 일로 중사(中

158) 우포(友浦): 한경면 용수리의 포구 이름이다.

159) 신우(辛禰): 신돈의 아들 우왕(禰王)이라는 뜻으로, 고려가 이미 정통성을 잃었다는 표현이다.

160) 제주……있다: 박물관본에서만 보이는 내용이다. 문종본[문종연본·문화재청본]에는 광해군 안치 장소에 관해 ‘제주 서쪽 성안에 있다.(在濟州西城內)’라고만 나와 있다.

使)·별장(別將)·내관(內官)·도사(都事)·대전별감(大殿別監)·나인[內人]·서리(書吏)·나장(羅將) 등이 광해군을 압송하여 어등포(於等浦)로 들어와 정박하였다. 다음날 주성(州城)으로 들어와 가시울타리를 두르고 나인[內人] 둘을 같이 들여보냈다. 밖에서 문을 닫고 봉해 잠근 후, 도사(都事) 등 다섯 사람은 서울로 돌아가고, 속오군 소속의 유진군(留陣軍) 30명으로 하여금 돌아가며 수직(守直)하게 하였다.

경신년(庚申年, 1640)¹⁶¹⁾ 6월 30일 오후, 나인이 했던 말 중에 광해군이 중병을 얻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7월 초1일 숨이 끊어지자 나인이 통곡하였다. 내관으로 하여금 나인에게 묻게 하니, 숨이 끊어진 지 이미 오래되어 임시로 소렴(小斂)을 하였다고 했다. 목사¹⁶²⁾가 즉시 세 읍(邑) 수령에게 소식을 전하여 모여 충분히 논의한 뒤, 초3일에 봉해진 문을 뿔아 열고 소렴을 고쳤다. 집사(執事)인 경우 출신이나 교생 등에게 맡겼고 서인(庶人)의 사례를 적용하여, 다음날인 초4일에 입관(入棺)하였다. 입관을 마치자 즉각 다시 문을 걸어 잠갔다.

광해군이 중병을 얻었다는 말을 들은 날부터, 연속해서 3일을 봉계(封啓)하여 빠른 배로 보냈다. 같은 달 27일에 호상(護喪)하는 일로 예조참의(禮曹參議)·정랑(正郎)·중사(中使)·별감(別監)·서리(書吏) 등이 별도포로 들어왔다. 다음날 직접 안치소로 가서 가시울타리를 걷어내었다. 명정(銘旌)은 예조정랑이 썼으며, 이금(夷衾)¹⁶³⁾으로 관을 덮고 관덕정으로 빈소를 옮겼다. 대제(大祭)는 세 읍(邑)이 돌아가며 지냈으며 시제(時祭)는 목관이 홀로 담당하였다. 지공(支供)은 한 읍에서 한 사람씩 맡았다. 상여(喪輦)에 들어가는 비용은 세 읍이 분담하고, 차사원(差使員)은 정의현에서 뿔아 상여를 제작하게 하였다. 8월 초5일 포구로 내려갔다. 16일, 배를 띄웠으나 돌아와 정박하였다. 18일, 제주를 떠나갔다.』라고 하였다.]

161) 경신년(庚申年, 1640): 당시를 경험했던 늙은 아전의 기록이지만, 실제 광해군이 사망한 해는 신사년(辛巳年, 1641)이다.

162) 목사: 이시방(李時昉)을 말한다. 인조반정의 주역 이귀(李貴)의 둘째 아들이다. 경상감사로 재직하다가 병자호란이 일어나 8도 감사들이 남한산성을 구원하지 못한 책임으로 파직된 후, 제주목사로 보임되어 광해군의 임종을 맞았다.

163) 이금(夷衾): 소렴(小斂)이나 대렴(大斂) 때 시체를 덮는 이불이다. 위쪽은 검은색, 아래쪽은 분홍색으로 만들었다. 구의(柩衣)라고도 한다.

이름난 관리들을 기록하다[誌名宦]

고려(高麗)

탐라령(耽羅令) 최척경(崔陟卿) [의종(毅宗) 때 도입하여, 이익을 늘려주고 폐막을 혁파 하니 백성들이 모두 그를 편안하게 여겼다. 그 후 탐라가 괴롭게 침학을 당하자 반란을 일으켜 말하길, ‘만약 최척경을 탐라령으로 삼아줄 수 있다면 당장 군사를 해산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길, ‘현명함이 이와 같으니, 어찌 기용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불려 비단을 하사하고, 즉시 탐라령을 제수(除授)하였다. 탐라사람들이 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빠른 배로 마중을 나갔다. 최척경과 마중 간 사람들이 나란히 제주 지경으로 들어오자 모두 창을 내려놓고 늘어서 절하며 말하기를, ‘공께서 오셨으니, 우리는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며 즉시 안도하였다.]

안무사 조동희(趙冬曦) [의종 때 토적(土賊) 양수(良守)의 난¹⁶⁴을 토벌하였고, 지절(持節)이 되어 선유(宣諭)하였다.]

판관 김구(金丘) [임기가 차서 조정으로 들어가 직한림원(直翰林院)에 제배(除拜)되었다.]

부사 경세봉(慶世封)¹⁶⁵·김지석(金之錫) [고종 대 사람이다. 제주의 풍속에 남자아이가 15세 이상이면 콩 1곡, 아전들은 말 1필씩 세공으로 바치는데, 이를 부사와 판관이 나누어 가졌다. 김지석은 도입 즉시 이를 덜어주었다. 다스림이 맑은 것은 물과 같았다. 백성들이 그를 칭송하여 말하길, ‘앞에는 경세봉(慶世封)이 있고 뒤에는 김지석(金之錫)이 있다네.’라고 하였다.]

목사 이백겸(李伯謙) [충숙왕 대에 적괴(賊魁) 사용(使用)과 김성(金成) 등이 성주(星主)와 왕자(王子)를 내쫓고 반란을 일으켜 말하길, ‘만약 이백겸(李伯謙)을 안무(按撫)로

164) 양수(良守)의 난: 1168년(의종 22) 양수는 세금 부담이 늘어난 데다, 탐관오리가 수탈을 일삼는 것에 불만이 커진 탐라민을 규합해 민란을 일으키고, 수령을 쫓아내었다.

165) 경세봉(慶世封): 본관은 청주(淸州). 고려 고종 때 제주도가 탐라군에서 주(州)의 명칭이 붙은 제주(濟州)로 승격됨에 따라 제주도의 수령으로 부사(府使)를 파견하게 되면서 초기에 제주부사에 임명되었다. 제주부사 재임 중 악습을 폐지하고 선정을 베풀어 제주 백성들로부터 청백리로 칭송받았다.

남한박물

오게 할 수 있다면, 우리들이 어찌 반란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이백겸을 보내 안무하게 하였다.]

사록(司錄) 전녹생(田祿生) [충혜왕 대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도순문사(都巡問使) 윤시우(尹時遇) [공민왕 5년(1356)에 찬성사(贊成事)로 들어왔다.]

안무사 임희재(林熙載) [공민왕 6년(1357)]

목사 박윤청(朴允靑) [공민왕 18년(1369)]

안무사 조익청(曹益淸)

목사 성준덕(成俊德) [공민왕 시절 성주(星主) 고복수(高福壽)가 반란을 일으켜 원나라 왕에게 예속을 청했는데, 성준덕이 이를 진압했다.]

선무사 임박(林樸) [공민왕 대에 제주로 들어와 그 만호(萬戶)에게 이르길, ‘달달목자(達達牧子)가 이반(離反)을 좋아하니 마땅히 진심을 다해 어루만져주고 너그럽게 대하라.’라고 하였다. 또 성주와 왕자에게 이르길, ‘그대들은 역대 왕들을 섬겼으며, 역대 왕들 역시 그대들을 대우하는 것이 매우 두터웠다. 마땅히 각각 한마음으로 목자(牧子)와 더불어 선동하여 변심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모두 엿드려 말하길, ‘왕의 관리가 모두 임(林) 선무사(宣撫使)와 같다면, 우리들이 어찌 반란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만호 겸 목사 김중광(金仲光) 등이다.

본조(本朝, 조선)

도안문사 겸 판목사 최해산(崔海山)

판관 겸 유학교수 한이(韓彝)

안무사 겸 판목사 오식(吳湜) [조정에 아뢰어 두 현을 설치했다.]

신숙청(辛淑淸)

안무사 겸 목사 기건(奇虔) [성질이 고집스러웠지만 청렴하였다. 본주에서 나는 전복과 물고기를 삼가 한 번도 입에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르기를, ‘백성의 해가 여기에까지 이르렀는데, 내가 차마 이것을 먹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절제사 겸 목사 이유의(李由義)

문여량(文汝良)

이약동(李約東) [대체(大體)를 알아 지금까지 칭송되고 있다.]

이종운(李從允) [다스림에 맑고 간솔함을 숭상했기에 서리들은 그를 사랑했으며 백성들은 그를 기뻐했다. 임기가 찼지만 머물러 주기를 청하여, 관(官)에서 생을 마쳤다.]

민휘(閔暉)·김률(金律)·방유녕(方有寧) [세 사람 모두 청렴하고 간솔함으로 칭송되었다.]

성수재(成秀才) [청렴하고 곧았으며 엄하고 무거웠다. 서리들이 방자하거나 간사할 수 없었다.]

이수동(李壽童) [국둔(國屯)을 파하고, 그 자리에 과원(果園)을 설치했다.]

송인수(宋麟壽) [호는 규암(圭菴)이다. 충암사(冲菴祠)에 배향되었다.]

심연원(沈連源)

조사수(趙士秀)

임형수(林亨秀)

남치근(南致勤) [왜구를 포획해 공이 있었다.¹⁶⁶⁾

김수문(金秀文) [왜적이 제주성을 3일간 포위하자 마침내 퇴각시키고, 쫓아가 쳐서 참수하거나 사로잡았다. 또 배 9척까지 나포하였다.]

민응서(閔應瑞) [청렴하고 간솔하였다.]

판관 조인후(趙仁後) [폐막을 혁파하고 학문을 진흥시켰다. 청렴하고 간솔하여 스스로 씹쓸이를 마련했다.]

목사 겸 절제사 임진(林晉) [청렴하고 간솔하였다. 선정을 베풀었다.]

심연(沈演) [청렴하고 간솔하였다. 선정을 베풀었다. 백성들이 쇠로 된 비를 세워 그를 기렸다.]

판관 유극량(劉克良)

목사 최여림(崔汝霖)·김응남(金應南) [모두 청렴하고 스스로 삼갔기에 서리들이나 백성이 추사(追思)를 그치지 않았다.]

판관 김치(金緻) [번(番)을 여섯으로 나누고 여러 폐막을 혁파하였다. 그 법은 지금까지도 행해지고 있다.]

166) 왜구를……있었다. 1552년(명종 7) 왜구가 제주를 노략질할 때, 제주목사 김충렬(金忠烈)을 대신하여 목사가 되어 이들을 무찔렀다.

목사 민기(閔機)¹⁶⁷[청백리였다.]

이원진(李元鎭) [치밀(緻密)하게 속속들이 뒤지어 밝혀 옛일에 정통했으며, 시설한 것도 많다. 또 『탐라지(耽羅誌)』를 지었다.]

이괴(李繪) [청렴하고 간솔하였으며, 진흙을 잘했다.]

최관(崔寬)·강세구(姜世龜) [두 사람 모두 매우 청렴하고 간솔하여 지금까지 칭송되며 일컬어지기를, ‘앞전에 최(崔)목사가 있었다면 뒤에는 강(姜)목사가 있다.’라고 한다.]

이 외에도 기리거나 송상할만한 이들이 많아서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다. 탐학(貪虐)했던 관리 같은 이들은, 말해봐야 입만 더러워진다.

임오년(壬午年,1702) 나와 같이 관리로 근무했던 자는,

제주판관 문과 이태현(李泰顯)

대정현감 문과 최동제(崔東濟)

정의현감 문과 김익구(金益九), 전임[前銜]¹⁶⁸무과 박상하(朴尙夏)

제주교수 문과 이동식(李東植), 김원호(金園皓)

감목관(監牧官) 상직(賞職) 김진혁(金振赫)

심약(審藥) 의과(醫科) 윤기은(尹起殷), 전임[前銜] 최후(崔垺)

한학(漢學) 역과(譯科) 오진창(吳震昌), 이희(李禧)

왜학(倭學) 전임[前銜] 박세영(朴世英), 최수종(崔壽宗) 등이다.

군관(軍官)은,

무과 절충(折衝) 이정진(李鼎鎭)·이정해(李廷楷)

무과 어모(禦侮) 이효일(李孝一)

무과 무신 겸 선전관 이형창(李亨昌)¹⁶⁹·김우천(金羽遷)

한량 전 행화도진(行花島鎭) 별장(別將) 김진기(金振淇)

한량 전 만호(萬戶) 유성서(柳星瑞)

무과 판관(判官) 전이호(全爾壕)

167) 기(機): 기(機)는 기(璣)의 오류이다.

168) 전임[前銜]: 원문은 전함(前銜)이다. 전임 벼슬아치를 말한다.

169) 이형창(李亨昌): 이형상 목사의 막료로서, 제주에서 사망했다. 『탐라록(耽羅錄)』에 그를 위해 쓴 제문, 「祭李宣傳亨昌文」과 만사, 「李宣傳亨昌挽」이 보인다.

한량 사과(司果) 최상습(崔尙燭)·김만중(金萬鍾)·최상태(崔尙泰)·도한필(都漢弼)·정동윤(鄭東潤)·유근(柳瑾)·홍우성(洪遇聖)·홍시범(洪時範)·하익청(河益淸)

무과 사과(司果) 권탁(權倬)

한량 장수천(張壽天)·윤호익(尹虎翼)·최치륜(崔致崙) 등이었다.

이들이 바로 내가 제주목사 전후(前後)로 데리고 있었던 이들이다.¹⁷⁰⁾

170) 문중본[정문연본·문화재청본]은 여기서 끝난다.

황복원대가 荒服願戴歌¹⁷¹⁾

삼가 점필재 김종직의 「탁라가(毛羅歌)」 14절구와 충암 김정의 「우도가(牛島歌)」, 금남 최부의 「탐라시(耽羅詩)」 35절구에 차운한다. 도합 156운(韻)이다.¹⁷²⁾

房星之分國以南	나라 남쪽 방성(房星)이 비추는 곳 ¹⁷³⁾
海有名區吾目親	바다 밖 이름난 땅, 내 직접 보았네.
超然空外絕世紛	하늘 밖에서 초연히 어지러운 세상과 떨어져
地無喧囂山多珍	소란스러움 없고 산에는 진기함 많은 이 땅.
秦皇漢武謾相待	진 시황과 한 무제까지 속아 기다렸고
此中焯灼多仙人	신선 많다고 예부터 잘 알려졌던 이곳.
蒼茫古蹟紀毛羅	아득한 옛 자취 탁라(毛羅) 기록에
石穴云生三姓人	돌구멍에서 세 성씨 생겨났다 하지.
陶甄造化自有漸	자연의 조화는 저절로 비롯되는 것이라지만 ¹⁷⁴⁾
玉女焉能來海濱	고운 여인들 어떻게 바닷가에 이를 수 있었나?
耽津星舶理或然	성주 배가 정박해서 탐진(耽津), 이치가 혹 그럴듯해도
舌及牟羅難重陳	말음이 모라(牟羅)에 이르면, 다시 설명하기 어렵지. ¹⁷⁵⁾
圖傳七星石矢古	칠성도와 옛적의 삼사석은 전해지건만
處處崩城雲雨涼	곳곳 무너진 성벽, 비구름 속에 처량하구나.

171) 황복원대가(荒服願戴歌): 『열자(列子)』에서 나온 말이다. 굳이 번역하자면, ‘먼 땅의 백성들까지 모두 성군을 떠받들고자 하는 노래’라는 의미이다.

172) 이하는 이형상 목사가 점필재(佔畢齋)와 충암(冲庵), 그리고 금남(錦南)의 시에 차운해 지은 장편 배율이다. 이는 정문연본과 문화재청본에는 없고, 박물관본에서만 보이는 내용이며, 이번에 처음 소개되는 내용이다.

173) 방성(房星): 28수(宿)의 하나로 마신(馬神)을 맡았다. 창룡 7수(宿) 가운데 네 번째에 있으며 4개의 별로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방(房)이라고만 표기하기도 한다.

174) 자연의 조화는: 원문은 도견(陶甄)이다. 도견(陶甄)이란 도공(陶工)이 녹로(轆轤)를 돌려 각종 질그릇을 만들어 내는 것과 같다는 말로, 조화 혹은 자연을 뜻하는 말이다.

175) 발음이……어렵지: 탐진(耽津)이라는 이름이 ‘탐라 성주의 배가 정박했던 나무터’에서 나왔다면, 모라(牟羅)라는 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의미이다.

撐空挈岳屋蹲鷺	하늘 떠받친 한라산은 웅크린 물새의 집 같고
秀色玲瓏金玉堂	영롱하게 빼어난 경치, 금옥으로 지은 집 같네.
長生靈藥此地秘	불로장생의 영약 이 땅에 숨겨졌는데
岐伯軒皇曾未諳	의학에 밝았던 기백과 황제도 몰랐지. ¹⁷⁶⁾
城山瑞山極環奇	성산(城山)과 서산(瑞山)은 극히 기이한 경치 둘렀고
瀛室山房西又南	영실(靈室)과 산방(山房)은 서쪽하고도 남쪽이지.
弓磨柱折說荒唐	활 끝으로 문지르자 산봉우리 꺾어 던졌다니 황당하고 ¹⁷⁷⁾
龍窟且爭眞贗間	어룡굴(魚龍窟)은 또 진짜인지 아닌지 다뤄봐야 하네. ¹⁷⁸⁾
砒然兩穴產鍾乳	매끄러운 두 동굴에서는 종유석 나니
夾財金寧開大閑	협재와 김녕굴, 크고 아름답게 열렸네.
龍湫穿石互有勝	용추(龍湫)와 천석(穿石)은 각각 빼어남 있고 ¹⁷⁹⁾
巫峽流沙猶散瑚	무협(巫峽)의 모래는 흩어진 산호 같구나. ¹⁸⁰⁾
天淵深邃正方端	천지연은 깊고 그윽하고 정방폭포는 단정한데
半空飛瀑人間無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포는 세상 어디에도 없지.
山多水痕海有槐	산에는 바다 흔적 많고 바다에는 괴목(槐木) 있으니
桑田碧海知斯須	상전벽해라지 않던가, 모름지기 이 일 명심해야지.
靈沼千尺絕巔在	백록담은 천 척 까마득한 정상에 있는데
巨擘何年開此山	조물주는 어느 해에 이 산을 개창했던가?
蛤殼輸山石輸海	조개껍데기 산으로 옮기고 돌은 바다로 날랐다니
貢鳥精衛非一般	공조(貢鳥)나 정위(精衛), 둘은 서로 같지 않은가? ¹⁸¹⁾
西洋雪色白海瞭	설색으로 빛나는 서쪽 바다, 백해(白海)가 또렷하고 ¹⁸²⁾

176) 기백과 황제: 원문의 ‘헌황(軒皇)’은 헌원씨(軒轅氏)인 황제(黃帝)를 말한다. 『황제내경(黃帝內經)』에서 황제(黃帝)와 기백(岐伯)이 의학에 관련한 많은 문답을 나눈다. 의학에 정통한 인물이라는 의미이다.

177) 활……던졌다니: 자세한 내용은 「지승(誌勝)」에 보인다.

178) 어룡굴(魚龍窟): 원문은 ‘용굴(龍窟)’인데, 우도(牛島)의 어룡굴(魚龍窟)을 말한다.

179) 용추(龍湫)와 천석(穿石): 용추(龍湫)는 지금의 용연(龍淵)이고, 천석(穿石)은 「지승(誌勝)」에 보인다.

180) 무협(巫峽): 동무협(東巫峽)을 말한다. 「지승(誌勝)」에 보인다.

181) 공조(貢鳥)나 정위(精衛): 신화 상의 새 이름이다. 공조(貢鳥)는 조개껍데기를 산으로 옮긴 새이고, 정위(精衛)는 돌을 바다로 옮긴 새이다. 무엇인가를 옮겼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말이다.

182) 백해(白海): 이에 대해서는 「지해(誌海)」에 자세하다.

北島沙光青鳥還 모래 색으로 빛나는 북쪽 섬, 푸른 새 돌아오네.
 文島松岳轟轟奇 문섬과 송악산은 우뚝 솟아 빼어나고
 鰲戴螺鬢今幾霜 바다거북이 인 한라산, 지금 몇 해이던가?¹⁸³⁾
 南蠻吳越指點間 남만과 오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사이에는
 水天如接波汪洋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듯 파도가 넘실대네.
 吾觀物色足天下 내가 보는 물색, 천하를 만족시킬만하고
 橘柚零陵安息香 귤과 유자, 영릉향과 안식향까지 나네.
 鯨鯢鮫鰐摠絲釣 고래와 상어, 악어까지 모두 낚싯줄로 낚고
 鹿猪雉獐皆打圍 사슴과 멧돼지, 꿩과 노루 등은 모두 에워싸 잡네.
 螺玳或自海島拾 소라나 바다거북은 간혹 바닷가에서 거둬지고
 珠貝時從蚌蛤披 진주는 때때로 조개를 열어보면 되네.
 蠶繭犂角廟享入 누에고치와 희생 소는 종묘 제향에 들어가고
 渥洼龍種天馬疑 한라산의 좋은 말은 천마인가 싶을 정도이네.¹⁸⁴⁾
 禽無鸛鵲獸無惡 날짐승에는 황새·까치, 나쁜 들짐승까지 없는데
 原野山樊多地龍 들판에 펼쳐진 산 목장에는 지룡(地龍)이 많구나.
 蜈蚣蛇虺寔繁徒 지네와 귀뚜라미, 뱀 등은 무리 지어 번식하고
 蝴蝶蚊蠅能耐風 나비와 모기, 파리 등은 바람까지 견뎌내네.
 窮冬薰熱或搖扇 선달에도 찌는 더위가 있어 간혹 부채질하고¹⁸⁵⁾
 盛夏炎蒸疑入筒 한여름 찌는 무더위는 통 속에 있는 듯하네.
 山南草木凍不死 한라산 남쪽의 풀과 나무, 얼어 죽지 않으며
 潭北冰雪蒸猶多 백록담 북쪽의 눈과 얼음, 더위에도 여전히 많네.
 居民習性亦癡儉 주민의 습성 역시 어리석지만 검소하며
 土俗何關文武科 풍속은 문무(文武) 상관하지 않는다네.

183) 바다거북이 인 한라산: 오대(鰲戴)는 자라가 세상을 머리에 이었다는 말로, 『열자(列子)』 「탕문(湯問)」에 보인다. 나환(螺鬢)은 소라모양의 쪽진 머리라는 의미로 먼 바다에서 바라다 보이는 한라산의 모습을 형용한 것이다.

184) 한라산의 좋은 말: 원문은 ‘악와(渥洼)’이다. 악와는 중국의 강 이름이며, 한나라 때 이 강에서 신마(神馬)가 나왔다 한다.

185) 선달에도……부채질하고: 한문공(韓文公)의 시에 ‘혹한에도 부채를 흔들고, 더운 여름에도 겹으로 갓옷을 입네[窮冬或搖扇 盛夏或重裘]’라고 하였다. 자세한 것은 「지후(誌候)」에 보인다.

春秋二分老宿現 춘분과 추분에 남극노인성 나타나니
 過百期頤猶健肥 백 세 지난 노인들은 오히려 건강하네.¹⁸⁶⁾
 鬻堂子衿禮數閑 학당 청금 자제들의 예의 품위있고
 童穉亦知官長威 아이들 역시 사또의 위엄을 아네.
 男無家役女卜負 남자는 집안일 앓는데 여자는 짐 지고
 舍傍田畔墻垣高 집 곁 밭두둑에도 높이 돌담을 쌓았네.
 方音艱澁雜漢倭 사투리는 난삽하여 중국과 일본말이 섞인 듯하고
 惻惻杵聲如細毛 처량한 방아 찧는 소리는 마치 가냘픈 털 같구나.
 婚非合卺拜不交 혼인에는 합환주도 없고 맞절도 없는데
 婿禮惟知勤酒杯 사위의 예의라곤 술 먹는 일만 아는구나.
 蠻邦菰荻大如椽 남방의 땅인지라 줄·역새 크기 서까래만 하고
 往往沙邊蘆實來 모래땅 근처에서는 왕왕 갈대들이 자라나네.¹⁸⁷⁾

田頭起墳莽相連 밭머리에 일으킨 무덤은 서로 이어져 우거졌고
 土瘠民貧家業傾 척박한 땅이라 가난한 백성들 생계 기우는구나.¹⁸⁸⁾
 驅牛以嘯踏田播 휘파람으로 소 몰아 밭 밟아 가며 파종하고
 藻藿收來杯視溟 마름·미역 거두느라 바다를 술잔 보듯 하네.
 寧聽捲石瘴雨頻 돌까지 날리는 모진 바람과 잦은 장기 어린 비
 白日軒檻生風霆 대낮에도 추녀 난간으로 바람과 번개 생겨나네.
 家無竈埃寢皆地 집에는 온돌 없이 잠자리는 모두 땅바닥이고
 斗屋何曾寬戶庭 작은 집이라 어찌 일찍이 집 마당 넉넉했겠는가?
 蕭條村落絕偷盜 쓸쓸하고 외진 마을까지 도둑도 전혀 없고
 人不相猜門不扃 사람들은 서로 의심하지 않아 문 걸어놓지 않네.

186) 백 세: 원문은 ‘기의(期頤)’이다. 100세의 노인이라는 말로서, 백 년의 수명을 누리면서 자손의 봉양을 받는 것을 뜻한다.

187) 여기까지가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의 「탁라가(毛羅歌)」 14수(首)에 대해 이형상 목사가 차운한 시이다.

188) 기우는구나: 이 구절 위에 “충암(冲庵) 시에는 왕왕 정(頂)자로 압운하곤 했다[冲庵詩往往押頂韻]”라는 주석이 달려있다.

巖竇谷邃晝霧昏
 鬼火螢燭相青熒
 丘陵墳衍各有祠
 翠桷朱萼天點星
 紗羅綾段色奪鮮
 釵纛旗光照纓
 山壇薦享若不誠
 自謂今時風雨冥
 田連阡陌勢捲壑
 堂積珍寶鸞垂翎
 君看遮歸語音訛
 馬槎呈怪蛇誇青
 燃燈時節最多忌
 大唐商舶神蚺蟒
 家薦野祀日繼夜
 半朔浦口行船停
 前擁後衛恣行臆
 歲儺神遊尤不經
 耗財嚇人罔有紀
 疾病災厄皆神聽
 人惟左道俗惟嗟
 大抵蠻風猶未醒
 僧尼絕種寺院廢

바위 구멍과 깊은 골짜, 낮에도 안개로 어둑하니
 도깨비불과 반딧불, 서로 푸른 빛을 내는구나.
 구릉과 평지, 물가에까지 모두 신당이 있는데
 푸른 서까래·붉은 용마루, 점점이 뜬 별 같구나.
 비단 두른 층층의 사라봉, 고운 풍광 빼앗겨 갈 때
 창검과 여러 깃발 격자창에 빛 튕겨내네.
 산신을 위한 제사에 정성 다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비바람으로 어두울 것이라 하네.
 밭 사이로 이어진 길은 골짜 감아 도는 형세인데
 신당에 쌓이는 재물들은 난새가 깃털 드리운 듯.¹⁸⁹⁾
 그대는 보았는가? 차귀(遮歸)라는 말이 와전되는 것을¹⁹⁰⁾
 말 모양 가지로 괴이 드러내고 업구렁이는 거만하구나.¹⁹¹⁾
 연등절 무렵에는 꺼리는 것이 가장 많은데
 중국 상인의 배조차 신력으로 비틀댄다지.
 집이나 들판에서의 제사, 밤까지 계속되고
 포구에서는 반달이나 배 다니지 않는다네.¹⁹²⁾
 앞뒤로 호위해가며 멋대로 방자하게 행동하는데
 매해 신을 위한 놀이는 더욱 상도에 벗어나네.
 재물 허비하고 사람들 으르는데 한정 없으니
 질병과 재액, 모두 신이 들어준다고 겁박하네.
 사람들 잘못된 도를 따라 풍속까지 난잡하니
 대개 남만의 풍속에서 여전히 깨지 못한 듯하네.
 승려와 비구니는 씨가 마르고 사찰은 무너져

189) 난새가……듯: 신당에 걸어놓는 형형색색의 천들에 대한 형용사로 보인다.

190) 그대는……것을: 차귀(遮歸)와 관련된 내용은 「지속(誌俗)」에 자세하다.

191) 말……거만하구나: 약마희(躍馬戲)를 말하고, 「지속(誌俗)」에 자세하다. 뒷부분의 청사(靑蛇)는 검(劍)의 이름이나 바다의 신, 그리고 업구렁이를 뜻하는 말이다.

192) 포구에서는……않는다네: 제주의 영등굿 기간을 말한다. 제주에서는 이 기간에는 바다로 나가지 않는다.

萬壽海輪香火冷 만수사와 해륜사에는 향불만 썰렁하구나.¹⁹³⁾¹⁹⁴⁾

沈吟我欲閱古乘 옛 기록 보며 침잠하여 읊어보고 싶건만
 舊跡盡付東流水 옛 자취 모두 동으로 흐르는 물에 떠내려 가버렸구나.
 東西縣村自何分 동서의 현(縣)과 촌(村)은 언제부터 나뉘었나?
 十二關防臨海涘 열두 관방 시설들은 모두 바닷가에 있구나.¹⁹⁵⁾
 當時大村歷歷尋 당시 대촌(大村)은 또렷하게 찾아지니
 三徒形局今三里 세 도(徒)의 형국이 지금 세 마을이네.
 分部按治世世承 부락 나누어 다스림 대대로 이어온 일
 四極從來元斷鰲 거북 다리 잘라 세상 세운 일과 같네.¹⁹⁶⁾
 朝宗一葉動天象 일엽편주로 조하하려니 별이 먼저 움직였으며
 星主王子恩渥遭 성주와 왕자는 두터운 은혜 만났네.
 官聯伯仲季失名 첫째·둘째에게 관작이 내려졌고, 막내는 이름 모르겠는데
 曰厚曰清其姓高 이름은 후(厚)와 청(淸), 성은 고(高)였네.
 朝東暮西逆順乍 아침저녁 동과 서로, 잠깐 반역했다가 순종하며¹⁹⁷⁾
 濟不爲池羅亦沼 백제나 신라에게도 멸망당하지 않았네.
 唐朝誥勅宋史載 당나라 시절의 문서, 송사(宋史)에 실려 있듯¹⁹⁸⁾
 古事分明名毛島 옛일에도 탁라(毛羅)라는 이름은 분명하구나.
 爲郡爲縣固不常 군(郡) 되었다가 현(縣) 되었다가 일정하지 않았으며
 恩率佐平知者少 은솔(恩率)·좌평(佐平)이었던 것, 아는 이 드물다네.
 文幸構亂別抄繼 문행노(文幸奴)가 엮은 난리, 삼별초가 이었는데¹⁹⁹⁾

193) 여기까지가 충암(冲庵) 김정(金淨)의 「우도가(牛島歌)」에 대해 이형상 목사가 차운한 시이다.

194) 이 구절에 ‘충암(冲庵)의 시풍은 차면서도 차지 않다. [冲庵詩風冷非冷]’이라는 주석이 달려있다.

195) 열두 관방 시설들은: 구진(九鎭)에다 세 읍성(邑城)을 더한 것이다.

196) 거북……일과: 원문은 ‘사극(四極)’으로, 하늘과 땅을 지탱하는 네 개의 기둥을 말한다. 옛날 여와(女媧)가 자라의 다리를 잘라서 사극(四極)을 세웠다는 설화에서 유래한 말이다. 《列子 湯問》

197) 아침저녁……서로: 아침에는 동쪽의 신라에게, 저녁에는 서쪽의 백제에게 조회하였다는 말이다.

198) 송사(宋史)에……있듯: 앞쪽 「지적(誌蹟)」 편에 관련된 내용이 보인다.

199) 문행노(文幸奴): 1267년(원종 8) 문행노(文幸奴)가 사람들을 규합해 민란을 일으켰었다.

崔托方慶名聲香 최탁(崔托)과 김방경(金方慶)의 명성 향기롭구나.²⁰⁰⁾
 元開阿幕爲監牧 원나라가 동서로 아막(阿幕) 두어 감목하면서
 摠官花赤驅乘黃 총관과 다루가치는 네 말이 끄는 수레 몰았네.²⁰¹⁾
 公濟都統互戡亂 문공제(文公濟)와 도통사가 번갈아 난리 진압했고²⁰²⁾
 萬戶始聞金仲光 만호(萬戶)로는 김중광(金仲光)이 처음 알려졌네.²⁰³⁾
 俄然牧伯入版圖 목백(牧伯)이 갑자기 스스로 복속해올 때,
 是時大明新破峽 이때 명(明)이 새로 운남(雲南) 정벌했네.²⁰⁴⁾
 恭惟聖朝榻無外 우리 조정 임금께서는 밖으로 여기지 않으셨고²⁰⁵⁾
 半刺按營恩命疊 수령이 감영 안무하니 은혜로운 명이 이어졌네.
 高二姓自削僭 고와 문, 두 성씨 스스로 참람 없애고자²⁰⁶⁾
 左右知官常例躡 좌우도지관 되니 상례를 따른 것이라네.²⁰⁷⁾
 吳公按州兩縣析 오공(吳公)이 안무할 적, 두 현으로 나뉘는데²⁰⁸⁾
 是後觀風堪可蹤 그 이후에야 다스림 따라 할 만하게 되었네.
 貪官汚吏口噴血 탐관과 오리들은 입에서 피를 뱉고
 碩輔良臣肩聳峯 훌륭한 신하들은 어깨 으쓱해졌네.
 元來民役貴寬免 원래 민역은 관대함과 면제를 귀하게 여기는데
 自古愁怨惟租庸 예로부터 원망은 오직 지세와 부역 때문이라네.

200) 최탁(崔托)……향기롭구나: 최탁(崔托)이 문행노(文幸奴), 김방경(金方慶)이 삼별초(三別抄)의 난을 진압했다는 말이다.

201) 네……수레: 원문은 ‘승황(乘黃)’이다. 수레 한 대를 끄는 네 마리의 말을 뜻하는 말이다.

202) 문공제(文公濟): 충숙왕(忠肅王) 5년에 초적(草賊) 사용(土用)·엄복(嚴卜)이 군사를 일으켜 난(亂)을 꾸미니, 제주사람 문공제(文公濟)가 군사를 일으켜 이를 모두 잡아 죽이고 조정에 보고하였다.

203) 김중광(金仲光)이……알려졌네: 제주만호 김중광(金仲光)이 역적 하치(哈赤)·강백안(姜伯顔) 등 13명을 베고, 처자를 광주·나주 두 고을에 나누어 귀양 보냈던 일을 말한다.

204) 명(明)이……정벌했네: 고려 우왕8년(1382) 7월에 명태조가 운남을 정벌하여 양왕(梁王)의 가족 백백태자(伯伯太子)와 그 아들 육십노(六十奴)를 제주에 안치했다.

205) 밖으로……않으시고: 원문은 ‘무외(無外)’이다. 왕은 천하를 집으로 삼으므로 바깥이 없다는 말이다.

206) 고와……없애고자: 1402년(태종 2) 성주 고봉례(高鳳禮)와 왕자 문충세(文忠世)가 입조한 뒤, 분수에 넘치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으니 이를 개칭해줄 것을 중앙에 청하였던 일을 말한다.

207) 좌우도지관: 성주(星州)·왕자(王子)제에 기인한 토관제가 1404년 이후 도주관좌도지관(都州官左都知管)·도주관우도지관(都州官右都知管)으로 개칭된 사실을 말한다.

208) 오공(吳公): 당시 도안무사 오식(吳澁)을 말한다. 태종 때 제주도안무사로 있으면서 기존의 제주목 외에 정의현과 대정현을 새로 설치하였다.

彈丸一島地且小
 陸是磐礁坪是海
 魚鹽銅鐵一無賴
 海藻山蔬生業在
 浮燥土性最水旱
 耕獲何望車馬載
 網席蓑衣掩體艱
 卉服殆同三古初
 公私責應獨馬牛
 晝夜逢點惟畋漁
 人口賦稅古亦無
 此身安得安吾廬
 持男易粟舊聞史
 賣父鬻妻今有處
 天倫至情豈敢殘
 死憂生計戈舂黍
 搥胸叩地漠無奈
 割情忍愛終如許
 愁懷惻愴入此髓
 恨氣丁寧干彼天
 衣裳露脫女體裸
 小袴寧分家與船
 年年國屯斃畜多
 毒遍隣族寒人烟
 東村若不雇當身
 北隣勢將奴吾弟

탄환같이 조금만 섬, 땅까지 또 적은데
 물은 돌밭이고 바다가 너른 들이라네.
 어염과 쇠 등은 조금도 의지할 바 없으니
 해초와 산나물에 생계가 달렸구나.
 뜨고 마른 땅이라, 장마와 가뭄이 모이는데
 수확을 어찌 수레나 말에 싣기를 바라겠나?
 망석이나 도롱이로는 몸조차 가리기 어렵고
 풀로 짠 옷은 아득한 옛날과 다름없네.
 공사 구별 없이 유독 말과 소만을 채근해대고
 주야로 점고 받으니, 오직 밭 갈고 고기 잡을 뿐.
 사람 수대로 걷는 세금은 고대에도 없던 일,
 이러니 내가 어찌 내 거처에서 편안하겠는가?
 아들로 곡식 바꾼 일, 옛 기록에서나 보았는데
 지금은 곳곳에서 제 아비와 제 처를 파는구나.
 천륜의 지극한 정, 어찌 감히 없앨 수 있겠는가마는
 죽도로 생계 걱정 해봐야, ‘창으로 기장 찢기’이네.²⁰⁹⁾
 가슴 두드리고 땅 쳐봐야 막막해 어쩔 도리 없으니
 정 끊고 사랑 참아가며 끝내 어찌해야 할 것인가.
 딱한 수심과 깊은 회한 이처럼 뼈에 사무치는데
 한스런 기운은 정녕 저 하늘이 원하는 것이던가?
 옷옷과 치마 벗어버려 여인의 속살 드러나고
 소중이로 집안일 뱃일 나누지 않고 편안하네.
 해마다 나라 목장에서 폐사되는 가축 많아
 이웃 친족까지 해 끼쳐 가구 수 줄어가네.
 동쪽 마을에 자신을 저당 잡혀 품 팔지 못하면
 북쪽 이웃에 내 아우 종으로 쥐야 할 형편이네.

209) ‘창으로……찢기’: 절구공이가 아닌 창으로 기장을 찢으면 기장이 제대로 찢어지지 않으므로, 노력에 비해 보람이 없음을 뜻한다.

朝廷德意豈其然
 虐吏端宜擯四裔
 高門需索日復日
 珠瑁粧匱俱責濟
 人人各爲子孫計
 越索何啻分千金
 王臣分義在職貢
 法外讐斂非世琛
 我亦嘗膺節制命
 一言半辭焉足深
 于時霈澤下玉墀
 闔島人民家室慶
 深仁爰及赤子骨
 十行綸綍光晶瑩
 歡聲四登感祝繼
 虐讐撫后眞響應
 窮閭老少不期會
 八百吏民來填隍
 浦邊北望禮拜勤
 靄靄忠精鋒露鋌
 然後叩門向余前
 僕僕稱頌歌聲揚
 曰我君恩至此極
 四萬蒼生今可息
 公屯死馬減半徵
 累千貧卒生意得

조정의 덕스러운 뜻이 어찌 그런 것이겠는가?
 흑리들은 처음부터 먼 지방으로 쫓아버려야지.
 권세 높은 집안의 토색질은 날마다 이어지고
 경대의 진주와 대모, 모두 제주에 책임 지우네.
 사람마다 각각 자손을 위해 생계를 도모하지만
 도 넘은 토색질, 어찌 다만 천금 나눌 뿐이겠는가?
 왕과 신하의 의리 나눔은 공물에 달렸다지만
 법 밖의 흑독한 징수는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네.
 나 역시 일찍이 절제사(節制使) 임명에 응하면서
 일말의 언사라도 어찌 충분히 깊을 수 있었겠는가?
 당시 임금의 은혜가 대궐 뜰에서 내려지자
 어찌 온 섬 백성 집마다 경사 아니었는가?
 임금의 깊은 사랑, 가여운 백성의 뼈에 미쳤고
 열 줄의 윤음(綸音)엔 광명이 맑고도 밝았네.²¹⁰⁾
 기쁨의 소리가 네 번 오르고 감축이 이어졌는데
 학대하면 원수 안무하면 성군이라 진실로 향응되었네.
 궁벽한 마을의 남녀노소 만날 기약도 하지 않았지만
 팔백 명의 아전들과 백성들 와서 성황당 메워버렸네.
 산저포 가에서 북쪽 바라보며 부지런히 배례하는데
 가슴 몽클한 충성스러운 마음 예리하게 드러났네.
 그 연후에 문 두드려 내 앞으로 와서
 번거롭게 칭송하는 노랫소리 드높았네.
 “우리 임금님의 은혜가 이처럼 지극하니
 사 만의 백성들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국가 목장의 죽은 말 배상, 징수 반감했으니
 수천 명의 가난한 말테우리들, 살 뜻 얻었네.

210) 윤음(綸音): 국왕이 관인과 인민을 타이르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西銓又許久勤窠 병조에서 다시 구근과(久勤窠) 허락했으니²¹¹⁾
 一軍將校皆有職 이제 모든 장교는 보직이 있게 되었네.
 浦民九十萬餘鰥 어민들 열에 아홉이 올리는 만여 개의 전복,
 給價自今年又年 올해부터는 매년 값을 받게 되었네.
 螟蛉祝蠶過房育 명령처럼 축 올려 고쳐 양자 들이는 일과²¹²⁾
 繼後給案王澤宣 가계 잇는 급안에도 임금의 은혜 내려졌네.²¹³⁾
 官耗減錄稅漸輕 관에서 모곡 줄여주니 점차 세금 가벼워져
 涸轍枯鱗翻吸川 고인 물에서 말라가던 물고기 냇물 마시듯.²¹⁴⁾
 窮民弱力曲曲護 가난한 백성의 쇠약한 힘, 곳곳마다 보호하러
 四船移來如父詔 네 척의 배로 곡식 옮김은 아버지의 부름 같았네.
 凡今六條尚浹肌 무릇 지금 여섯 조목은 아직까지 피부로 와 닿는데
 況復倫常光海徼 하물며 인륜 회복 위해 바닷가까지 살펴 비취주셨으니.
 天門九重邈難攀 아홉 겹 대궐문은 멀어 비록 눈에 잡히지는 않지만
 所貴君民肝膽照 귀한 바는 임금과 백성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
 相殘骨肉豈其情 골육끼리 서로 해지는 일이 어찌 그들 정이겠는가?
 瘦馬窮途思解鞍 수척한 말도 길이 막히면 안장 풀 생각하지 않던가.
 官財贖還曠世罕 관아 재물로 속환시켜 줌은 세상에 드물던 일이라
 積熱今朝身飢寒 쌓였던 열 오늘 아침에야 몸 날아갈 듯 시원해지네.
 島民父子自此定 섬의 아버지와 아들들 이에 안정되었으니
 肅肅恩情鵬路搏 엄정한 임금의 은정 만 리 길 날아왔구나.²¹⁵⁾
 彝倫生理一時新 인륜과 사는 이치가 한 번에 새로워지니

211) 구근과(久勤窠): 구근과(久勤窠)란 오랫동안 근무한 제주의 무관들을 위해 새 보직을 마련해준다는 의미이다. 『탐라장계초(耽羅狀啓抄)』 「제주군문장교전출(濟州軍門將校轉出).....복계(覆啓)」에 보인다.

212) 명령처럼.....일과: 명령(螟蛉)과 과방(過房)은 모두 양자를 들이는 일이다. 《詩經 小宛》

213) 가계.....내려졌네: 『탐라장계초(耽羅狀啓抄)』 「제주청계후급안장(濟州請繼後給案狀)」에 자세하다.

214) 고인 물에서: 원문의 학철(涸轍)이란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국에 남은 물을 말한다. 곧 죽을 처지에서 벗어나 살게 되었음을 말한다. 《莊子·外物》

215) 만.....날아왔구나: 『장자』 「소요유」에 이르기를 “봉새가 남쪽 바다로 옮겨 갈 때에는 물결을 치는 것이 삼천 리요, 회오리바람을 타고 구만 리를 올라가 여섯 달을 가셔야 신다[鵬之徙於南冥也 水擊三千里 搏扶搖而上者九萬里 去以六月息者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임금의 은덕이 먼 데까지 미쳤다는 말이다.

婦孺亦誇身世好 아녀자들과 어린아이들 역시 신세 좋아졌네.
 隆恩加處衆心激 융숭한 은혜 더해져 못 마음 격동되었으니
 約誓期將環我島 앞으로의 기한 약속하고 이 섬 돌아보았네.
 交拜不行禮儀疎 맞절도 행하지 않는 소홀한 예의와
 同姓相婚人理倒 동성끼리 혼인은 사람 사는 이치가 아니거늘.
 男稱拜門女無袴 남자는 배문(拜門) 한다하고 여자는 덧바지가 없으니²¹⁶⁾
 鶉鵲屢屢羞有歌 메추라기나 까치보다도 못하다는 노래까지 있건만.²¹⁷⁾
 淫哇五俗尙襲舊 오속절일마다 불리는 음탕한 노래, 여태까지 남아있는데²¹⁸⁾
 謝齒機頭誰擲梭 베틀가에서 누가 베틀 북을 던져 치아 부러뜨렸던가?²¹⁹⁾
 相將王化勸不率 재상들이 장차 왕화(王化)를 힘써 따르지 않더라도
 革除吾欲酬恩波 폐단 바꾸고 없애, 나 혼자라도 은혜에 보답하겠네.
 淫祠痼習亦無理 음사와 고질이 된 병폐, 진실로 이치 없음을
 斗覺年來山捲霧 근래 홀연히 마치 산안개 걷히듯 깨달았네.
 忱誠已堅撤罷議 이미 굳은 진심으로 음사 철폐 논의하는 것은
 是概新承殊渥顧 새로이 입은 임금의 두터운 은혜 돌아본 탓.
 言言當理節節哀 말마다 조리가 있고 구구절절 애통하니
 聽此不覺驚心形 이를 들으면 어느새 마음속으로 놀라네.
 三官報牒陸續到 세 관청에서 올린 문서 계속 이어 도착하니²²⁰⁾
 果是純誠非是名 과연 이런 순수한 정성, 명분만은 아니라네.
 時當臘風列炬猛 당시 설달 바람 불 때 늘어선 횃불 맹렬했었고
 百廿神堂燃火明 120여 개의 신당 불에 타면서 환하게 밝았네.

216) 배문(拜門): 신혼부부가 신부 집에 첫 나들이하는 것이다. 「지속(誌俗)」에 자세하다.

217) 메추라기나……있건만 『시경(詩經)』 「용풍(鄘風) 순분(鶉奔)」에, “메추리는 서로 짝을 지어 다정하게 날고 까지도 서로 짝을 지어 다정하게 나는구나[鶉之奔奔 鶉之疆疆]”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위(衛)나라 사람들이 선강(宣姜)의 음란함을 풍자하면서 메추리나 까치만도 못하다고 한 것이다.

염염(屢屢): 염이(屢)의 잘못으로, 문빚장을 뜻한다. 염의가(屢歌)는 백리해의 아내가 남편이 부귀하게 되어 자신을 잊어버리자, 문빚장[屢]으로 닭 삶아주던 남편을 원망하며 부른 노래이다.

218) 오속절일: 오속절일(五俗節日)이란 정조(正朝)·한식·단오·추석·동지 등 다섯 명절을 말한다.

219) 베틀가에서……부러뜨렸던가: 진(晉)나라 사곤(謝鯤)이라는 이가 이웃집 여인을 유혹하려고 하다가, 그녀가 길쌈을 하면서 던진 베틀의 북을 얻어맞고 치아 두 개가 부러졌던 일을 말한다. 《世說新語 賞譽》

220) 세 관청: 제주읍, 대정현, 정의현 세 읍(邑)의 관청을 말한다.

叢林佛象竝入灰 사찰의 불상들까지 아울러 잿더미가 되었으니
 鬼服神鐵如趨命 귀신 복장과 쇠붙이까지 명을 따르는 듯했네.
 家家齊憤恐或後 집마다 일제히 분발하면서도 후환 염려했지만
 抱柴焚膏男女競 쉼을 품고 기름에 불붙이며 남녀들 앞 다투었네.
 烟焰籠宙鬱幽散 연기와 화염 속의 신당, 외진 곳에서 창궐하다 사라져
 夏耘除莠秋洗鏡 여름에 김매고 풀 뽑아 가을에는 씻은 거울 같았네
 靈區物色獨太古 신령스러운 이 땅의 물색은 유독 태곳적 그것인지라
 巫佛與長知有期 무격·부처와 오래 더불어 있었지만 기한 있음 알았어야지.
 妖唇亂舌亦知愧 요망한 말 일삼던 이들 역시 부끄러움 알았는지
 數百巫覡爭來馳 수백 명의 무격(巫覡) 앞 다투어 내게로 달려왔네.
 頭低手高曰我曹 머리 조아리며 손을 높이 들며 말하길, “우리들은
 口無所讀心無知 입으로 읽는 바 없고 마음으로도 아는 바 없습니다.²²¹⁾
 妻無織布任呼寒 처는 포 짜는 일이 없으니 춥다고 호소하며 견디고
 夫不耕田焉食土 남편은 경작하지 않으니 어찌 땅이 먹여주겠습니까?
 飢寒迫膚死不避 주림과 추위가 압박하여 죽음 피할 길 없는 데다
 力役何暇分晴雨 부역까지, 어느 겨를에 맑고 흐림을 가리겠습니까?
 籲天天高跼地深 높은 하늘에 호소하고 깊이 땅바닥에 엎드려²²²⁾
 泰山黃堂何處虎 태산(泰山)의 장관은 어느 곳의 호랑이입니까?²²³⁾
 人生到此計無售 인생이 여기에 이르면 계책도 팔 데가 없는지라
 展轉投巫容貽餉 다시 무당질에 투신해 콧소리로 흥얼거렸습니다.
 其始自今願爲氓 지금부터 시작해서 진정한 백성 되기 원합니다.
 此意敢將干我侯 이런 뜻이니 감히 우리 사또를 범하겠습니까?”
 我聞此言惻然感 내가 이 말을 듣고 측은함 느껴져

221) 입으로……없습니다: 불경을 외우거나 마음으로 깨달은 불법이 없다는 말이다.

222) 호소하고: 원문은 ‘유천(籲天)’이다. 하늘에 호소하는 것을 말한다. 《書經 召誥》

223) 태산(泰山)의……호랑이입니까: 원문의 황당(黃堂)이란 웅황(雄黃)의 염료(染料)를 칠한 태수(太守)의 청사(廳舍)로, 보통 지방 장관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뒷부분의 어느 곳의 호랑이냐는 말은 공자의 일화 중,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사납다[苛政猛於虎]는 대목의 인용이다.

朝暮呼子均鳴鳩
爲儒爲墨各身謀
何乃金投而石擲
來受去懷理固然
化龍爲子嘗聞昔
羅濟陋習馴至斯
漸積如今非一夕
堪嗟下民亦可哀
飢將誰食寒誰衣
山林川澤積愁恨
可憐萬象昏陰扉
驅民納阱又從奪
忍令吾人禽獸歸
觀其政也聽其俗
滌舊從新嘉可取
焚祠坼廟古或有
禁令皆視人威武
茲州且譏劇南楚
貫瀆奚但迷東魯
恩頒七條萬姓悟
至化疇班吾聖王
千年薄俗一朝變
服皮今升君子堂

아침저녁으로 자식 부르듯 불러 고르게 해주었네.²²⁴⁾
유가 되거나 묵가 되거나 모두 자신 위해 사는데
어찌해서 금 던지다가 돌팔매질하는가?
와서 받고 가며 품는 이치가 진실로 그런 것이니
용이 변해 아들 된다는 말은 예전부터 들었네.
신라와 백제의 누습에 길들여져 여기까지 이른 것,
조금씩 쌓여 지금처럼 된 것이지 잠깐 새 아니라네.
탄식 건디는 하층의 백성 역시 불쌍히 여길만한데²²⁵⁾
끓주림과 추위에 장차 누가 먹이고 입혀 줄 것인가?
산림과 천택에 근심 쌓여 한이 맺혔는데
만상 가련하고 집은 어둡고 음침하구나.
백성 몰아 함정에 빠트리곤 다시 쫓아가 빼앗으니
차마 우리 백성들 짐승으로 돌아가게 하란 말인가?
다스림을 살핀다는 것은 본디 그 풍속 듣는 것,
구습 씻고 새로움 쫓으면 아름다움 취할만하네.
사당 불사르고 묘를 허는 일, 예전에도 간혹 있었건만
금지하라는 명령을 모든 이들이 겁박으로만 봐버리네.
이 지방은 또 음사 심한 것이 남만의 초(楚)나라 같아서
계속 더럽힌다면 어찌 우리나라를 미혹시킬 뿐이겠는가?
은혜롭게 반포된 일곱 조목에 모든 백성이 깨달아
지극한 교화 두루 나누어줬으니, 우리 성왕이시여.
천년의 부박한 풍속이 하루아침에 변하여
가족옷 입다가 이제 군자의 당에 올랐네.²²⁶⁾

224) 고르게 해주었네: 원문은 ‘시구(鳴鳩)’이다. 빠꾸기가 새끼를 먹일 때의 굶는 새끼가 없도록 공평하게 먹이를 나누어 주기 때문에, 공평하고 균등하게 남을 대할 때의 비유로 흔히 쓰인다. 《詩經 曹風 鳴鳩》

225) 탄식……여길만한데: 이 구절 위에 ‘이백시만상혼음비(李白詩萬象昏陰扉)’라는 주석이 달려있다. 흐리고 추적추적 비 내리니 만상이 어두워지고[萬象昏陰扉]라는 대목은 이백(李白)의 고풍(古風) 두 번째 시에 보이는 내용이다.

226) 당에 올랐네: 문화수준이 높아졌다는 의미이다. “자로(子路)는 마루에는 올랐으나 아직 방에는 들어오지 못했다[由也 升堂矣 未入於室也]”라고 하였다. 《論語 先進》

淳龐民習始歸正 매우 순박했던 풍습, 비로소 바르게 되었고
 域外文風期帝鄉 역외의 문풍은 이제 도성(都城) 기약할 수 있네.²²⁷⁾
 從知懷綏在寬仁 편안하게 어루만져준 은 넉넉한 너그러움에 달렸고
 薄賦輕徭而後富 세금과 요역 가벼워진 뒤에 부유해짐 알게 되었네.
 繭絲保障本無二 생계와 보장, 본디 둘이 아니니²²⁸⁾
 晉陽蠲減先夫數 진양(晉陽)에서 헤아려 조세 덜어준 일과 같네.²²⁹⁾
 承流宣化倘不愆 베푼 교화 이어받았다면 허물없었을 것이었거늘
 何事孩童緩就乳 무슨 까닭으로 어린애 젖 먹이는 일 늦추겠는가?
 惟其仁暴歲不同 다만 그 다스림의 어질고 사나움 세월 따라 같지 않아,
 所以民心殊萬般 백성의 마음이 만 갈래로 갈라져 같지 않게 된 것일 뿐.
 祈寒暑雨亦惟日 추위와 더위, 비와서 기도한다고 하면 나 역시 말하기를,
 壽域何須勞玉丹 “장수하는 땅이거늘 어찌 선약(仙藥)에 애써야 하겠는가.”
 安南日本血相視 안남이나 일본과는 서로 호시탐탐 보는지라
 撤彼桑土終濡翰 대비 없으면 끝내 날개를 적시게 되리라.²³⁰⁾
 波寄海外陸無援 파도에 맡겨진 해외라, 육지에서 도와줄 길 없지만
 形勝眞似蛟龍宅 형승은 진실로 교룡(蛟龍)이 사는 집 같네.
 委寄簡拔視他別 별도와 다른 지방으로 보아 대충 뽑아 맡겨 보내는데²³¹⁾
 北闕疇醫瞑眩藥 북쪽 대궐의 누가 강한 약을 써서 고쳐줄 것인가?²³²⁾
 孤危散落牧禦地 외롭고 위태로워 피폐한 이곳은 기르고 지켜야하는 땅,
 愷悌慈詳雄偉托 즐겁고 공경하며 자상하고 뛰어난 인물에게 맡겨야하리.

227) 도성(都城): 원문은 ‘제향(帝鄉)’이다. 천자(天子)의 고장, 즉 임금이 있는 서울이다.

228) 생계: 원문은 ‘견사(繭絲)’이다. 견사는 누에고치와 실이므로 백성의 생계를 뜻하는 말이다.

229) 진양(晉陽)에서……같네: 전국시대 조(趙)나라의 제후였던 조양자(趙襄子)는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세금을 적게 거두었던 진양(晉陽)으로 가서 나라를 보전했다. 《國語 晉語》

230) 대비……되리라: 원문은 ‘철피상두(撤彼桑土)’이다. 환란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여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장맛비가 아직 내리지 않을 때에, 저 뽕나무 뿌리를 거두어 모아다가 출입구를 단단히 엮어서 매어 놓는다면, 지금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혹이라도 감히 나를 업신여길 수 있겠는가(迨天之未陰雨 徹彼桑土 網繆牖戶 今此下民 或敢侮予)”라고 하였다. 《詩經 豳風 鴟鴞》

231) 대충……보내는데: 제주목사를 더 신중하게 가려 뽑아 보내야한다는 뜻이다.

232) 강한 약으로: 《서경(書經)》 ‘열명(說明)’ 편에 ‘약불명현 권질불추(藥弗明眩 厥疾弗瘳)’하는 구절이 있다. 눈 앞이 캄캄하고 어지러울 정도로 강한 약을 쓰지 않으면 중병이 낫지 않는다는 뜻이다.

廉平簡潔是政本 청렴과 공평, 간결함은 다스림의 근본이고
濟死籌邊均愛君 변방까지 헤아려 죽음에서 건져준 고른 임금의 사랑.
藩屏若知悍頭義 만약 이 변방 땅에게 용맹한 의로움 알게 해준다면
海可清波民可親 바다에는 푸른 파도만 치고 백성은 친애할 수 있으리.
滔滔前後舌欲短 앞뒤로 도도한 흙탕물이라, 혀가 짧아지려 하지만²³³⁾
祗恐元規塵汚人 원래 규정이 더러운 이들로 더럽혀질까 걱정되네.
爲良爲虐摠自我 어질거나 잔학하게 되는 것, 모두 나로부터 나오니,
步趣惟看方寸地 걸거나 뛰거나, 오직 자신의 마음 볼 줄 알아야하리.²³⁴⁾
徵諸簡冊袞鉞嚴 서책(書冊)에서 임금의 엄한 권위 드러나니
志切經綸須力致 간절한 뜻으로 경륜하되, 있는 힘 다해야지.
耳剽我欲效倉曹 귀동냥해가며 내가 창조(倉曹) 본받으려 했던 일은²³⁵⁾
肉譜期傳人物志 육보(肉譜)가 인물에 대한 기록 전한 기약과 같네.²³⁶⁾²³⁷⁾

233) 앞뒤로……하지만: 도도한 흙탕물이란 제주로 부임했던 탐관오리들을 말하며, 혀가 짧아지려한다는 말은 말하기 싫거나 입에 담기조차 싫다는 말이다.

234) 자신의 마음: 원문은 ‘방촌지(方寸地)’인데, 보통 자신의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235) 창조(倉曹): 한(漢)이나 당(唐) 때 창고를 관장하던 벼슬이름이다. 모든 것들을 모아 놓는 곳이 창고이듯, 이형상목사 자신이 제주를 다스렸던 모든 이들의 행적을 귀동냥해가며 모아냈다는 뜻이다.

236) 육보(肉譜): 당(唐)나라 이수소(李守素)의 별명으로, 성씨학(姓氏學)에 밝아 살아 있는 족보라는 의미로 ‘육보’라고 불렸다. 위 주석의 창조(倉曹)와 마찬가지로 제주를 다스렸던 모든 이들의 행적을 밝혔다는 말이다.

237) 여기까지가 최부(崔溥)의 「탐라시(耽羅詩) 35절(絶)」에 대해 이형상 목사가 차운한 시이다.

점필재 佔畢齋의 탁라가 毛羅歌 원운을 붙임

을유년 2월 28일에 직산(稷山)의 성환역(成歡驛)²³⁸에서 제주의 공약인(貢藥人) 김극수(金克修)도 역시 와 있었다. 그래서 밤에 얘기를 하는데 대강 그 풍토와 산물을 물어보고, 드디어 그 말을 기록해 두었다가 탁라가(毛羅歌) 14수를 지었다.

郵亭相揖若相親	우정(郵亭)에서 서로 읊하며 반갑게 만났는데
包重般般藥物珍	겉으로 싼 보자기에는 진기한 갖가지 약물.
衣袖帶腥言語澁	옷소매에는 비린내, 말은 알아듣기 어려우니
看君真是海中人	보건대, 그대는 진실로 바다 가운데 사람이구나.

當初鼎立是神人	당초 솔밭처럼 정립하였던 삼신인(三神人)
伉儷來從日出濱	짝은 해 뜨는 물가에서 쫓아왔다네.
百世婚姻只三姓	오랫동안의 혼인은 다만 세 성씨였고
遺風見說似朱陳	유풍 들어보니 주진(朱陳)과 비슷하구나. ²³⁹

星主已亡王子絕	성주와 왕자는 이미 망하고 끊어졌으니
神人祠廟亦荒涼	신인(神人)의 사당 역시 황량해졌다네.
歲時父老猶追遠	부로(父老)들은 여태 해마다 제사 드린다며
簫鼓爭陳廣壤堂	통소 불고 북치며 다투어 광양당에 진설한다네.

水路奚啻數千里	물길이 어찌 다만 수 천리뿐일까 마는
年年來往飽曾諳	해마다 오고가느라 일찍부터 잘 외운다네.

238) 성환역(成歡驛): 현재 충청남도 천안시이다.

239) 주진(朱陳): 주진촌(朱陳村)을 말한다. 중국의 서주(徐州) 고평현(古豐縣)에서 주씨(朱氏)와 진씨(陳氏) 두 성(姓)이 서로 혼인하면서 화목하게 살았던 촌락 이름인데, 여기서는 세 성씨가 서로 결혼하면서 화목하게 살았다는 뜻이다.

雲帆掛脚馳如箭
一夜便風到海南

구름 돛을 달면 바로 화살처럼 달려
하룻밤 순풍이면 해남에 도착한다네.

漢挈縹緲通房駟
雲錦離披水草間
一自胡元監牧後
驂騑歲歲入天閑

아득하고 아득한 한라산은 방사(房駟)와 통하여
구름 비단은 물풀 사이에 나뉘어 펼쳐졌구나.
한 번 원나라 목호들이 감목(監牧)한 뒤로부터
해마다 명마는 임금의 마구간으로 들어갔다네.

烏梅玳瑁墨珊瑚
附子青皮天下無
物產非惟東府庫
精英盡入活人須

오매(烏梅)와 대모(玳瑁), 그리고 검은 산호
향부자(香附子)와 청피(靑皮) 등은 천하 어디에도 없지.
그 물산은 오직 동방의 부고(府庫)일 뿐 아니라
그 정수까지 모두 사람 살리는 데로 들어간다네.

車螯海月與蠓山
巨口文鱗又幾般
日暮腥烟羃鄉井
水虞千舶汎鮮還

큰 조개와 해파리, 그리고 석화,²⁴⁰⁾
농어며 문린 외에 또 몇 가지인가.
해가 저물어 비린 연기 향정(鄉井) 덮으면
수우(水虞)의 많은 배, 생선 싣고 돌아온다네.

萬家橘柚飽秋霜
採着筠籠渡海洋
大官擎向彤墀進
宛宛猶全色味香

집집마다 귤과 유자 가을 서리에 잘 익어
상자마다 가득 따 담아 바다를 건너온다네.
고관이 이를 받들어 대궐에 진상하면²⁴¹⁾
빛과 맛과 향기가 완연히 그대로라네.

使君車騎簇長圍
雉兔麋麇百族披

사군의 수레와 기마대 길고 촘촘하게 에워싸
꿩 토끼 노루와 사슴 온갖 짐승이 쓰러지네.

240) 큰 조개: 해월(海月)과 차오(車螯) 모두 큰 조개를 의미한다. 해월은 수모류(水母類)에 딸린 강장(腔腸) 동물
의 하나. 차오는 큰 조개인 대합의 살 또는 패각을 말한다.

241) 대궐에: 원문은 '동지(彤墀)'이다. 동지란 붉은 색으로 칠한 뜰, 궁궐의 뜰이라는 말이다.

海島但無熊虎豹 林行露宿不驚疑	바다 가운데 섬이라 다만 곰과 범과 표범이 없어 숲길 가다가 노숙해도 놀랄 일 없다오.
庭除草際遇錢龍 祝酒焚香是土風 北人驚怕爭相笑 還怨吳公在竹筒	뜨락에서 풀을 베다가 큰 뱀을 만나면 분향하고 술 올리는 게 그 지방 풍속이라네. 육지 사람들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 다뒤틀 비웃으며 도리어 지네가 죽통에 있으면 원망한다오.
閭閻子弟游庠序 絃誦而今樂育多 滄海何曾斷地脈 翹材往往捷巍科	여염집 자제들이 향교에 유학하여 학문으로 많은 인재 길러냄 기뻐하지. 큰 바다라지만 어찌 지맥이야 끊어졌으랴 뛰어난 인재가 이따금 문과에도 오른다오. ²⁴²⁾
頭無岳上靈湫水 旱不能枯雨不肥 霹靂雲嵐生造次 遊人疇敢褻神威	두무악의 위 신령스런 연못의 물은 가물어도 안 마르고 비가와도 불지 않지. 천둥 벼락과 구름이 별안간에 일어나니 노니는 이들 감히 신위 가벼이 보겠는가.
火脫島西水相擊 風雷噴薄怒濤高 萬斛海鱸傾側過 行人性命若鴻毛	화탈도 서쪽은 물이 서로 부딪치어 ²⁴³⁾ 바람과 우레 몰아쳐 성난 파도 높게 이네. 큰 파도가 배 곁으로 기울어지며 지나는데 ²⁴⁴⁾ 나그네의 목숨이야 가볍기 그지없다오.
候風淹滯朝天館 妻子相看勸酒杯	순풍 기다리며 조천관에 머무노라면 처자들 서로 만나 술잔을 권한다네.

242) 문과: 원문은 ‘외과(巍科)’이다. 외과란 대과(大科), 즉 문과(文科)를 말한다.

243) 물이……부딪치어: 옛 사람들은 이 부근을 물마루, 즉 수종(水宗)이라 불렀다.

244) 큰 파도: 원문은 ‘해추(海鱸)’이다. 해추는 바다의 미꾸리라고도 하는데 그 크기가 고래의 몇 10배나 된다고 옛 사람들은 믿었다. 여기서는 큰 파도를 말하는듯하다.

日中霏霖霏霏雨 한낮에도 이슬비 부슬부슬 내리나니
知是鰈魚噴氣來 이는 큰 고래가 기를 뿜어서라네.²⁴⁵⁾

점필재(佔畢齋)의 탁라가(毛羅歌)를 살펴보니, 본주(本州)의 풍토와 산물에 관한 일들을 상세하게 다해 더 할 바가 없었다. 그러므로 삼가 이상과 같이 기록하여 명륜당 위에 걸어놓아, 이 지방을 다스리는 이들이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嘉靖) 15년(1536) 겨울, 행 제주목사 심연원(沈連源)이 삼가 기록하다.

245) 큰 고래: 원문은 ‘추어(鰈魚)’이다. 추어는 길이가 수천 리 되고 해저(海底)에서 혈거(穴居)하는데, 굴로 들어가면 바닷물이 밀물이 되고 굴에서 나오면 밀물이 물러가는데 그것이 굴을 드나드는데 일정한 절도가 있기 때문에 조수에 시간이 있게 되는 것이라 한다. 《水經》

충암冲庵 김정金淨의 우도가牛島歌 원운을 붙임²⁴⁶⁾

瀛州東頭鰲抃傾 영주 동쪽 끝은 바다거북이 박수치느라 기울었는지²⁴⁷⁾
 千年閱影涵重溟 천년동안 감춰졌던 자태그대로 큰 바다에 잠겨있네.
 群仙上訴攝五精 여러 신선 오행 주관하는 상제(上帝)께 호소하자²⁴⁸⁾
 鳳鼎一夜轟雷霆 하룻밤 어두컴컴한 사이에 천둥소리 요란했었네.

雲開霧廓忽湧出 구름과 안개 걷히며 홀연히 솟아난 산,
 瑞山新畫飛王庭 서산(瑞山)은 새로 그려져 대궐로 날았네.²⁴⁹⁾
 溟濤崩洶噬山腹 파도 무너지듯 용솨음치며 산허리 깨물어 가고
 谿澗洞天深雲扃 환히 열린 동천(洞天)에는 구름 빗장이 깊구나.

稜層鏤壁錦纈殷 층층의 이랑 새겨진 절벽은 물들인 큰 비단 같은데
 扶桑日照光晶熒 부상에서 솟은 해 비치니 수정처럼 반짝거리는구나.
 繁珠凝露濺輕濕 이슬 영긴 듯한 구슬들은 포말에 살짝 젖어있고
 壺中瑤碧躔列星 호리병 속 푸른 옥들은 벌여놓은 별들 같구나.

瓊宮淵底不可見 깊은 물속 용궁, 들여다 볼 수는 없어도
 有時隱隱窺窓櫺 이따금씩 은은하게 격자창으로 엿보이네.

246) 원래 이 시에는 “방생(方生)의 우도(牛島)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노래로써 흥을 붙인다[聞方生談牛島 歌以寄興]”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생(生)은 유생(儒生)이라는 말이고, 여기 방생(方生)이라는 인물은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에, “생(生)의 이름은 순현(舜賢)으로 판관의 처남[生名舜賢 判官之妻娣]”이라고 나온다.

247) 바다거북이……기울었는지: 원문은 ‘오변(鰲抃)인데, 오변지성(鰲抃之誠)의 준말이다. 자라가 발을 휘젓듯이 손뼉을 치며 기뻐하는 정성이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섬을 떠받들던 바다거북이 박수치며 기뻐 날뛰느라 섬 한 쪽이 기울었다는 의미이다.

248) 오행……상제(上帝)께: 원문은 ‘섭오정(攝五精)이다. 오정(五精)은 오행(五行)과 같다. 오행을 주재한다는 의미로 상제를 표현한다.

249) 서산(瑞山): 고려목종 10년에 폭발이 있었고, 태학박사 전공지가 그림을 그려 왕에게 바친 기록이 있다.

軒轅奏樂馮夷舞 玉簫竽篠來青冥	헌원(軒轅)이 연주하고 빙이(憑夷)는 춤추는가, ²⁵⁰⁾ 옥피리소리 아득한 푸른 바다 속에서 들려오네.
宛虹飲海垂長尾 羸鵬戲鶴飄翹翹 曉珠明定塵區黑 燭龍爛燁雙眼青	굽은 무지개 긴 꼬리 드리워 바다 마시는 듯 큰 봉새 학 희롱하며 나부끼며 나래치는 듯. 새벽녘 밝은 해는 어두운 속세 바로 잡으려는가, 촉룡의 불타는 두 눈, 푸른 광채 뿜는 듯하구나. ²⁵¹⁾
驂虯踏鱗多娉婷 天吳九首行玲嶸 幽沈水府囚百靈 太陰之窟玄機停	규룡 타고 잉어 밟아 가면 고운 것들 많을 테고 머리 아홉 물의 신까지 휘적휘적 물 속 다니겠지. ²⁵²⁾ 깊게 잠긴 용궁엔 모든 영물(靈物) 간혀있고 ²⁵³⁾ 달의 굴에는 깊고 묘한 이치 머물고 있네.
仇池禹穴傳神跡 惜許絕境訛圖經 蘭撓挈入攬神形 鐵笛吹裂老蛟聽	구지(仇池)와 우혈(禹穴)의 신이한 자취는 전해지는데 ²⁵⁴⁾ 절역에 허락된 경치인지라 도경(圖經)에서 빠져버렸네. 어지러워 배 난간 잡고 들어서니 귀신 나타나 움켜질 듯 찢어발기듯 불어대는 쇠 피리 소리는 늙은 교룡이 듣는가. ²⁵⁵⁾
水湧雲溟悄愁人 歸來怳兮夢未醒	물 솟구치고 구름 어두워 슬프고 근심스러운 이 돌아가려니, 황홀함이어 꿈이라면 깨지 말기를.

250) 헌원(軒轅)이……빙이(憑夷)는: 헌원은 중국신화의 황제(黃帝)이고, 빙이는 물의 신 하백(河伯)이다.

251) 촉룡: 촉룡(燭龍)은 중국 북쪽에 종산(鐘山)이란 영산(靈山)에 살고 있다고 하는 용신이다. 자연계를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진다. 《山海經》

252) 물의 신: 원문은 ‘천오(天吳)’로, 물의 신이다. 조양(朝陽) 골짜기에 있고 사람 얼굴이 8개, 8개의 발에 8개의 꼬리를 가졌으며 모두 청황(靑黃)의 빛깔이라 한다. 《山海經 海外東經》

253) 깊게……간혀있고: 『충암집(沖庵集)』에는 이 구절 뒤에 ‘비스듬히 난 비늘과 완악한 껍질 비린내가 독하다 [邪鱗頑甲毒風腥]’라는 구절이 있다. 하지만 이형상목사는 이를 연문(衍文)으로 판단하고 빼버린 듯하다.

254) 구지(仇池)와 우혈(禹穴): 구지는 중국 감숙성에 있는 산으로, 정상에 못이 있어 구지라 명명했는데, 이곳에 사는 물고기를 먹으면 신선이 된다는 곳이고, 우혈은 우(禹) 임금이 순수(巡狩)하다가 승하하여 묻혔다는 곳이다.

255) 찢어발기듯……소리는: 동굴 안쪽으로 치는 파도소리에 대한 형용이다.

嗟我只道隔門限 아아! 축신 된 나는 다만 갇힌 신세임을 말할 뿐,
安得列叟乘風冷 어찌하면 열어구(列禦寇)마냥 서늘한 바람 타볼까?²⁵⁶⁾

256) 어찌하면……열어구마냥: 열어구(列禦寇)는 열자(列子)이다. 그는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다가 15일 뒤에야 육지로 돌아왔다고 한다. 여기서는 자신 역시 열어구마냥 신선이 되고 싶다는 뜻이다. 《莊子 內篇 逍遙遊》

금남錦南 최부崔溥의 탐라시 35절구 원운를 붙임

渤海之南天接水
鯨潮鼉浪無涯涘
耽羅國在渺茫中
一點彈丸九百里

발해의 남쪽, 하늘이 바다와 맞닿은 곳
고래 파도와 악어 물결로 끝없는 물가.
탐라국은 그 아득하고 망망한 가운데 있어
한 점 탄환 같이 희미한 구 백리 거리라네.

中有青螺駕六鰲
巨靈擘破勢周遭
撐天圓嶠無頭處
翠壁一里千尺高

가운데 푸른 소라 같은 한라산, 여섯 바다거북에 올라탔는데
거대한 신령이 손가락으로 부순 듯, 주위를 두른 형세이네.
하늘 떠받친 원교(圓嶠)는 머리라고 할 곳 없고
푸른 절벽 1리 이고, 높이는 천척(千尺)이라네.

誰從壁頂鑿靈沼
嶠蛤幾廻貢貢鳥
折峙山房果若然
奇觀問却知多少

누가 정상 절벽에서 신령스런 못을 팠으며
공공조(貢貢鳥)는 몇 번이나 조개물고 맘돌았던가.
산봉우리 꺾어 던져 산방산 되었다니 과연 그럴싸하고
빼어난 볼거리는 물어보고 나서야 다소나마 알겠구나.

蒼松綠竹紫檀香
赤粟乳柑橘柚黃
白雪丈餘紅綿樣
四時留得青春光

창연한 소나무와 초록색 대, 그리고 자단향
붉은 밤과 유감(乳柑), 귤과 유자는 누렁구나.
눈처럼 흰, 한 길 남짓의 목화의 모양새에
사시 푸른 봄날의 풍광 머무를 수 있다오.

世傳東角東巫峽
絃管遙聞第幾疊
百里香雲繚繞中
仙曹此處應登躡

세상에 알려지기를, 산 동쪽이 동무협(東巫峽)이라
관현(管絃) 소리 아득하게 들리기 몇 번이던가?
백리 벌판에 만발한 흰 꽃, 사방 두른 가운데
신선들이 이런 경치 만났다면 당연히 올랐으리.

俯瞰人間隔世蹤 인간세상 굽어보니 속세의 자취와 멀고
 海中別有瀛洲峯 바다 가운데 별유천지가 영주 봉우리이라네.
 秦童漢使枉費力 진나라 아이들과 한나라 사신은 힘을 잘못 써
 遺與三韓作附庸 이 땅은 남겨져 삼한(三韓)에게 붙게 되었네.

南畔是山北畔海 남쪽 지경으로는 이 산, 북쪽 지경으로는 바다
 毛興古穴中間在 모흥(毛興)의 오래된 혈(穴)은 그 중간에 있지,
 雲烟埋沒事茫然 구름과 안개에 묻혀 옛일은 망연해졌으니
 欲問遺風今幾載 남겨진 풍속 묻고자 하지만 지금 몇 해이던가?

憶昔神人開國初 옛일 돌아보니, 삼신인 나라 열던 처음에
 山從游獵水從漁 산 따라 수렵했고, 물 따라 고기 잡았지.
 身如野鶴無歸着 몸은 들판의 새들처럼 돌아가 의탁할 곳 없었고
 地闊天高未有廬 땅은 광활하고 하늘은 높아 움막도 있지 못했지.

石函當日來何處 당시 돌 상자는 어느 곳에서 왔었나?
 知向郊原播稷黍 교외 들판에 피와 기장 파종할 줄 알았네.
 歲久朱陳成一村 오래도록 주씨와 진씨 한 마을 이루어
 子孫乃爾多如許 자손들 이와 같이 저처럼 많아졌네.

星芒初動鷄林天 계림의 하늘에 별빛이 처음 움직이자
 已艤耽津一葉船 탐진에는 이미 일엽편주가 정박하였네.
 恰似老人朝北斗 노인성이 북두칠성에 조하(朝賀)하듯
 從今始與通人烟 이때부터 비로소 인적이 왕래했었네.

好爵旋封兄及弟 좋은 작위, 형과 아우에게 돌아가며 봉해주었고
 榮還故國傳來裔 영화롭게 고국으로 돌아와 후예들에게 전했네.
 梯航款叩不辭頻 배에 올라 정성으로 찾기를 번거로움 불사하여

朝事新羅暮百濟 아침에는 신라, 저녁에는 백제에 조하하였네.

松岳龍興掃黑金 송악에서 왕이 일어나 궁예 쓸어버리자²⁵⁷⁾
預先歸去獻其琛 미리 먼저 귀의하여 공물을 드렸네.
柰何變作逋逃藪 어찌 변란 일으켜 숲으로 도망가 숨었나?
流入胡元染惡深 원나라 목호들 흘러들어 악에 오염되었네.

候風島口金方慶 후풍도 어귀에서는 김방경장군이
明月浦頭都統瑩 명월포 가에는 도통 최영이 있었네.
前後旌旗蓋海來 앞서거니 뒤서거니 깃발들 바다를 덮으니
渠心厭亂知相應 저들의 마음도 난리에 지쳐 호응을 알았네.

通精暴血濺池隍 김통정의 사나웠던 피, 못과 해자에 흠뿌려졌고
哈赤頑魂飛劔鏃 합적(哈赤)의 완악했던 혼, 검과 칼날에 날아갔네.
網盡鱸鯨付鼎鑊 나쁜 무리 일망타진하여 극형(極刑)에 처하자²⁵⁸⁾
年來無復海波揚 그 해 이래 해파(海波)는 다시 솟구치지 않았네.

到頭安堵復蘇息 마침내 안도하여 다시 살아나 쉴 수 있었고
戈獵謀生任所得 수렵으로 먹고살며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네.
解棹扁舟向北風 배 다루는 법 알아 조각배로 북풍에 배 띄워
却將土物供臣職 다시 토산물을 보내며 신하된 직분 다했네.

爾來一百十餘年 이 이후 일백 십 여 년 동안
贏得王家德化宣 영주(瀛洲)는 왕가의 덕화 입었네.
文物儘從周禮樂 문물은 죄 주나라의 예악 따랐으며

257) 궁예 쓸어버리자: 흑금(黑金)은 검은 쇠로 철원(鐵原)을 가리키는데, 전하여 궁예(弓裔)가 세운 태봉(泰封)을 가리킨다.

258) 극형(極刑)에 처하자: 원문은 ‘정확(鼎鑊)’이다. 전국시대 죄인(罪人)을 삶아 죽이던 큰 솥이다.

版圖編入禹山川 영토로 편입됨은 우임금의 산천과 같네.²⁵⁹⁾

我今萬里擎丹詔 내 지금 만 리 길 조칙 받들어
 跋涉遠來竝海徼 산 넘고 물 건너 멀리 같이 바다로 들어가네.
 又有同舟許使君 또 같은 배에 허(許) 사군(使君) 있으니²⁶⁰⁾
 一番傾蓋膽相照 한 번 친해지자 서로 마음 알았네.²⁶¹⁾

館頭巖畔卸征鞍 관두량(館頭梁) 바위 가에 말안장 내렸는데²⁶²⁾
 海色天光入望寒 시야로 들어오는 바다풍경과 하늘빛 차갑구나.
 貫月槎浮縱所適 달을 켜 떼배는 갈 곳으로 치달리는데²⁶³⁾
 南溟無際學鵬搏 가없는 남명바다는 봉새의 날갯짓 배웠는가?²⁶⁴⁾

孤帆却被天風好 외로운 돛은 도리어 좋은 순풍을 입고
 驀地飛經火脫島 말 달리듯 화탈섬 나는 듯 지났네.
 暫試青蛇掣海雲 잠시 바다 신이 시험 삼아 바다구름 누르는지²⁶⁵⁾
 蜃樓蛟室紛顛倒 신기루와 교룡의 집까지 어지럽게 뒤집어지네.

底處一聲送櫓歌 어느 곳에서 한 바탕 뱃노래 보내오는데

259) 우임금의 산천: 중국 우(禹) 임금이 영토를 확정지은 일을 말한다.

260) 허(許)……있으니: 최부의 『금남표해록』에 신임 제주목사 허희(許熙)와 함께 관두량(館頭梁)에서 배를 타서 12일 저녁 조천관에 내렸다는 내용이 보인다.

261) 친해지자: 원문은 ‘경개(傾蓋)’이다. 수레를 멈추고 덮개를 기울인다는 뜻으로, 우연히 한 번 보고 서로 친해짐을 뜻하는 말이다.

262) 관두량(館頭梁): 원문의 관두(館頭)는 관두량(館頭梁)을 말한다. 전라남도 해남현 남쪽 관두산 밑에 있었던 포구로 제주를 왕래하는 배가 이 산 밑에 머물곤 했다.

263) 달을……떼배는: 『습유기(拾遺記)』에, “요(堯) 임금이 위(位)에 오른 지 30년에 떼[槎]가 서해(西海)에 떠올랐는데, 떼 위에 빛이 있어 밤에는 밝고 낮에는 꺼지므로 관월사(貫月槎) 혹은 괘성사(卦星槎)라 일컫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264) 봉새의 날갯짓 배웠는가: 『장자(莊子)』 「소요유(逍遙遊)」에, “북쪽 바다에 크기가 수천 리나 되는 곤(鯨)이라는 물고기가 변하여 봉(鵬)이란 새가 되는데, 이 새가 남쪽 바다로 갈 때 구만리를 날아올라 여섯 달을 가셔야 쉰다.”라고 하였다.

265) 바다 신: 원문은 ‘청사(靑蛇)’이다. 푸른 뱀이라는 말로, 보통 동쪽 바다를 관장하는 해신을 말한다.

迓船來赴疾於梭 마중 나온 배 쏜살같이 달려오네.
蓬窓揭了問前程 봉창 걷어 올리고 앞으로 얼마나 남았냐고 물으니,
館在朝天影蘸波 “관(館)은 조천에 있는데, 파도에 보이지 않습니다.”

海吐瑞山供逸興 서산 토해낸 바다는 빼어난 흥 제공하고
龍蟠牛島呈祥霧 용 서린 우도에는 상서로운 안개 드리웠네.
山川喜我從槎來 산천까지 내 사행(槎行) 온 일 기뻐해주는지
我亦有情堪指顧 나 역시 정이 있어 돌보아줌 감당하네.

燕尾蜂腰千萬形 제비꼬리 벌의 허리 같은 천만 형상
爭流競秀不知名 다투어 흐르고 다투어 솟았는데 이름조차 알지 못하네.
微茫樹色畫圖裏 희미하고 아득한 숲의 풍경, 그림 속 풍경 같고
日暈紅霞照眼明 햇무리와 붉은 노을, 눈에 비춰 흰하네.

遠人頗識尊王命 먼 지역 사람이라도 왕명이 존엄함은 잘 알아
扶我登途笳鼓競 길에 오르는 나를 부축해 다투어 악기소리 올리네.
浦口巉巖道士羊 포구의 험한 바위는 도사의 양인 듯하고
路周磊落仙人銃 길 가 무너지는 돌무더기는 신선의 총인 듯.

靑鳥彩鸞如有期 푸른 새와 다채로운 난새는 마치 기약 있었다는 듯
護予呵擁城中馳 나를 보호해 길을 열어가며 성 안으로 치달는구나.²⁶⁶⁾
奔迎拜跪稍知禮 분주하게 맞아 꿇어 배례하니 조금은 예를 아는듯한데
聒耳語音譯後知 시끄러운 말소리 들어도 통역해준 뒤에야 알아듣네.

便從父老問風土 부로(父老)들을 불러 모아 이 지방 풍토 물어보니,
冬苦風威夏苦雨 “겨울은 바람이 드세 괴롭고 여름은 비에 괴롭지요.”

266) 길을 열어가며: 원문은 ‘가옹(呵擁)’이다. 존귀한 사람의 행차 앞에서 종자(從者)가 큰 소리를 질러 행인을 금하며 응위하는 일을 말한다.

草木昆虫傲雪霜 초목과 곤충은 눈과 서리를 우습게 알고
禽無鶴鵠獸無虎 새 중에는 부엉이·까치, 들짐승에는 호랑이가 없네.

人知種植飽齰齰 사람들은 농사를 알아 배불리 먹고 코골며 자며
不羨江陵千戶候 강릉(江陵)의 천호후(千戶候)를 부러워하지 않네.
渾把生涯登壽域 온 생애를 수역에 올라 살았으니
閭閻到處杖皆鳩 집집 도처마다 구순의 지팡이 짚은 늙은이들.

嫌將歲月虛拋擲 세월을 헛되이 내던져 보냄을 싫어해
照里鞦韆傳自昔 조리희나 그네뛰기 등은 예부터 전해졌네.
僧刹了無香火時 승과 사찰은 전혀 없어 제사를 드릴 때는
駢闐簫鼓燃燈夕 북·피리 소리 요란한 연등하는 날 저녁이네.

革帶芒鞋葛織衣 가죽 띠에 짚신, 칩으로 짠 옷을 입고
石田茅屋矮柴扉 돌밭에 덧집, 사립문은 낮게 돌렸네.
負瓶村婦汲泉去 허벅진 촌 아낙은 물 길러 가고
橫笛堤兒牧馬歸 둑에서 젓대 부는 아이들은 말 몰고 돌아오네.

民風淳儉看來取 백성의 풍속은 순박함 보면 알게 되니
不必彎絃徒尙武 활시위 당기며 상무(尙武)만 할 필요는 없지.
絃誦東西精舍中 동재(東齋)와 서재(西齋)에서 책을 읽는데²⁶⁷⁾
元來人傑擬鄒魯 원래부터 인걸이라면 공맹(孔孟) 본받아야지.

路入杏壇謁素王 행단(杏壇) 길로 걸어 들어가 공자를 알현하니
靑衿揖我明倫堂 청금(靑衿)들이 명륜당에서 나에게 예를 표하네.
誰知萬里滄溟外 누가 알 것인가? 만 리 바다 밖에서

267) 책을 읽는데: 원문은 ‘현송(絃誦)’이다. 거문고를 타면서 시를 읊음, 곧 학문을 닦음을 이르는 말이다. 《論語 爲政》

有此衣冠禮義鄉 이처럼 의관 갖추고 예의를 표할 줄.

更誇物產荊揚富 물산 다시 과장하면 형주나 양주보다 풍부하고
珍寶精華那可數 진귀한 보물과 정화,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으랴?
玳瑁蟻蛛貝與螺 대모며 진주, 그리고 조개와 소라
靑皮白蠟石鍾乳 청피와 백랍, 그리고 석종유까지.

乃知仙藥百千般 모든 선약(仙藥) 다 갖추었음 알겠으니
箇裡分明有煉丹 그 중에는 분명 신선되는 단약도 있으리.
收拾鑪中九轉後 그것들을 솥 안에서 아홉 번 뒤은 뒤에는
定應白日可飛翰 정녕 대낮에도 하늘 날아오를 수 있으리.

我來得觀神仙宅 내 와서 직접 보니 이곳은 신선들의 고향
採了天台劉阮藥 천태산에서 캐던 유신과 완조의 약초일세.²⁶⁸⁾
願學麻姑看海桑 마고(麻姑)를 배워 상전벽해 보길 원한다면
應將此身壺中托 응당 이 몸을 호리병 속에 의탁해야 하리.²⁶⁹⁾

紫殿九重憶聖君 구중의 궁궐에 계신 성군 그리워함은
白雲千里戀雙親 천리 흰 구름 밖의 양친 그리워함과 같네.²⁷⁰⁾
此身猶未全忠孝 이 몸 여태도 온전히 충효 다하지 못하는데
不忍堪爲方外人 차마 외방 사람 되는 것 감당할 수 없다네.

268) 유신과 완조: 동한(東漢) 때 천태산(天台山)의 선경에 들어가서 약초를 캐다가 선녀를 만나 반년을 살았다는 유신(劉晨)과 완조(阮肇)의 고사를 말한다. 《太平廣記 卷61》

269) 호리병 속에: 호중(壺中)은 호리병 속의 선경(仙境)이라는 말이다. 후한(後漢)의 술사(術士) 비장방(費長房)이 시장에서 약을 파는 선인(仙人) 호공(壺公)의 총애를 받아 그의 호리병 속으로 들어갔더니, 그 안에 별천지가 펼쳐져 있더라는 전설에서 유래한 말이다. 《後漢書 卷82下 方術列傳下 費長房》

270) 흰 구름: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고향 혹은 산림에 돌아가 은거하는 것을 뜻한다. 당(唐)나라 때 적인걸(狄仁傑)이 멀리 흰 구름[白雲] 아래 계시는 부모를 그리워했다는 고사에서 연유하는 말이다. 《新唐書 卷115 狄仁傑傳》

豈獨瀛洲在此地 어찌 영주(瀛洲)는 다만 이곳에만 있는 것이던가?
求之人世不難致 사람 살만한 세상 구하면 도달하기 어렵지 않건만.
莫如還向華山陽 돌아가 화산(華山) 남쪽으로 향하는 것만 못하리니²⁷¹⁾
保我平生伊尹志 내 평생 이윤(伊尹)의 뜻 보전하면 살아보리라.²⁷²⁾

머칠 안에 적고 편집한 내용이어서, 문장이 풍취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읽는 이들의 너그러움을 바란다.

271) 화산(華山): 서울 삼각산의 옛 별칭이 화산(華山)이다. 화산 남쪽이란 한양(漢陽)을 말한다.

272) 이윤(伊尹)의 뜻: 『孟子』 「萬章上」에 “이윤은 유신의 들판에서 밭 갈면서도 요순의 도를 즐겼다(伊尹耕於有莘之野而樂堯舜之道焉)”라는 내용이 보인다.

南
宦
博
物
原
文

南宦博物

南宦博物目錄

邑號 路程 海島 候地 勝蹟 姓人 俗文 武田 產禽 獸草 木果 馬牛 魚藥 貢賦
役祠 關防 烽倉 廨兵 工奴婢 吏行 古名宦
荒服願戴歌 毛羅歌 牛島歌 耽羅詩

南宦博物

孝彥書問耽羅古蹟，且曰，將以廣異聞，作南宦博物一萬三千八百五十餘言，書贈。甲申初秋，題于永陽之浩然亭。¹⁾

誌邑號

本九韓之一，初稱毛羅。[安弘記，列九韓，毛羅居第四。]
或稱耽羅。[新羅時所封。以高厚等，泊耽津，朝新羅而名之。耽津，今康津縣。]
或稱耽牟羅。[百濟時所封。韓文亦曰，耽牟羅。]
或稱東瀛洲。[世傳，秦漢二帝求神仙時，方士稱三神山，俱在我東。金剛爲蓬萊，智異爲方丈，漢挈爲瀛洲。且島有東瀛洲山，抑以此稱之歟？]
濟州。[高麗忠烈王二十一年乙未，改爲濟州。]

誌路程

幅員四百八十里，東西一百七十里。北至海一里，南至海一百二十里。大路周回三百七十里。東至旌義縣界八十里，西至大靜縣界八十一里。
子距海南館頭梁九百七十里。[朝天館，得埋石，古刻亦如此，而身親歷見，似不過六百餘里。] 乙距對馬島，二千餘里。辰距江戶[倭京]，四千餘里。異距玉球島[日本]，

1) 甲申……然亭: 문중본[정문연본·문화재청본]에는 12자가 없다.

三千餘里。巳距一岐島[日本]，三千五百餘里。丙距女人國，八千餘里。午距琉球國，五千餘里。丁距安南國，一萬七千餘里。未距暹羅國及占城，萬餘里。坤距寧波府，八千餘里。申距蘇杭州，七千餘里。

庚距楊州，七千里。辛距山東省，萬餘里。戌距青州，萬餘里。[他國漂到人所傳如此。本島漂還人中，亦多有年老解事者，每如此云。]

蓋自島出陸者，正南風，由朝天館或禾北浦開洋，出於火脫·斜鼠之間，歷甫吉之鯨頭，取廣鵝前路，抵於葛頭·魚蘭則靈巖也。梨津·加里浦則康津也。館頭·莞島則海南也。其或橫風而漂出，火脫之內則泊於楸子，外則珍島，又西則黑山·紅衣·可佳，又西則外洋。又或西風而入於白梁，則不可謂之不利，而又東則東餘鼠，又東則青山，又東則三島。不幸而又東或南，則玉球島·一岐島，乃其漂到也。若發於大靜，則西風可抵白梁，發於旌義，則東風可抵楸子，而以其有搜檢之故[牧使軍官按簿點名，以防其奸僞]，禾北·朝天兩浦之外，例不許他梁出入。且漢拏一帶，遮截其南，雖得順風，未及大洋之前，風勢颯迴，不利於張帆，所以為候風之難也。

誌海

全羅南海之外，有所謂楸子·東餘鼠·青山等島。此為內洋所盡處。西自楸子，東至青山一帶，謂之濟海，且稱水宗。[二水相交，而其實非水宗。]海形，南低北高，入順出逆。其間海色深碧，水之積於地者，極厚。令舟人繩之，則皆一百五十丈。東海雖曰無潮，此處逐日兩時，略有來往。但迅疾不及西海，漲不過數丈而止。意或萬水所匯之處，地不足東南，故升降所壓，異於陸地，以致出入之不猛歟？潮之出於馬島上下，由青山楸子之前後者，入於全羅忠清之境。由大脫內外而入者，朝於山東·青·齊之界。此既兩潮相會之交，波紋至闊。高浪異常，異國船漂到者，舉皆覆沒。若不得十分順風，數日不能離此海，來往盤旋於渦洄之間。前時，倭船之向中原者，除非失風迷路，絕不入此。其或從風到來，輒皆傾敗，此為北海海程，而漢拏以南，俱係外洋，洋中布帆，往往望見，至或聞砲響。蓋是吳越抵長崎島[日本]之直路也。崔錦南[溥]漂海錄曰，自楸子前草蘭島，漂流七晝夜，過青海，入白海。今登漢拏而望，則極西有白色如沙汀，疑是白海之瞭。

誌島

卯有牛島，形如臥牛。在旌義境，別防首山兩鎮之間。無樹木，只產楮。今丁丑年，新設牧場，周五十里。水路十里，波極險難渡。東南魚龍窟，石宇天成，狀如鑿筒，長八九百尺，廣二百尺。張帆棹入，高亦容桅。日光浮曜水，清冽如碧琉璃。海氣薰人，如入煖碓。其底深不測。輿地誌及林子順[悌]小乘·金冲菴[淨]風土錄·金清陰[尙憲]南槎錄皆曰，俗稱神龍所處，近之則往往有大風雷雨，拔木損禾。對岸亦禁鼓角鷄犬之聲。否則必致雷雨風災之異，以故人無往者。守令教授幕僚吏民，交謁更諫余，以新設牧場，所不可不見。過路歷入，傍有水牛。驚叫墮水，聲如衝山。又有怪禽，形白鷗而稍大，色青鮮觜，脚俱赤，數百爲群，紛紛飛出，此固諸海所未有之鳥。老漁相傳，自古不知其名。窟既向南，且無人迹，故來棲也。前面石擁，若無所通，稍進則復有石門自削。舟入其中，亦可藏五六艘。氣寒凜，毛髮竦然，水光幽幽，若有鬼神異物，陰相聚屯。仰見白石團團，如日如月，如碗如杯，如鵝卵，如彈丸者，錯落爲星斗。蓋渾窟皆蒼黑，而白石間之，得爲星月之光也。是日，天朗無風，俗說虛矣。

亥有大火脫，與都近川相對，在楸子西南。自濟至楸子之半，周數里，全石，巉削其尖，有泉無樹。產草柔韌，可作器皿²⁾。

乾有小火脫，與涯月相對。比大火脫，差西南，亦皆石屏。兩島之間，波極洶湧，船多觸碎，不可以泊，往來者，甚苦之。

戌有飛揚，與明月相對。水路五里，周十里，產箭竹。崔瑩討哈赤時，泊此，破賊於明月。

大靜西，有竹島。水路十里，四面皆石，東南有船泊處。

竹島南，有蓋波。水路三十里，周四十里，無樹木，多茂草，爲私馬場。

高麗穆宗五年六月，有山湧海中，山開四孔，赤水湧出，五日而止，皆成瓦石。十年，瑞山湧出海中，遣太學博士田拱之，往覘之。人言，山之始出也，雲霧晦冥，地動如雷，凡七晝夜。始開霽，山可百餘丈，周圍四十餘里，無草木，烟氣常羃其上，望之如石琉黃。拱之不敢近，躬至山下，圖形以進。輿地誌曰，今屬大靜，疑是此島，而南槎錄以濟州之飛揚島，當之。飛揚之周，不滿十里。且牛島之外，元無三四十里可回之島。麗

2) 血: 문중본에는 ‘皿’으로 되어 있다. 내용상 ‘皿’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史所圖，四十餘里者，非此，無可彷彿，而古老吏民，無有傳說，堪可埋沒。

蓋波東南，有摩蘿。水路二十里，周五里。

摩蘿東，有貫島。周五里，有石，對峙南北。其東又有大石，特立如城門，俗號曰八雲石。

旌義西，有虎島。[輿地所謂凡島。石壁擁立，雜卉蔥鬱，惟一道可通。]

斗落島。[地誌所謂豆落。]

禿島。[今之文島也。島石皆麤黑，而獨此島色白，如削如磨。且多奇磐怪壁。]

森島·知歸島·草島，俱在於洪爐古縣，近岸而小。麗末，元牧子石加乙碑·肖古道甫介等，逃據此島，崔瑩聚戰艦環之，縋兵而上，肖墜崖死，石就擒。右屬三邑，皆無人居。

楸子，屬靈巖郡，周三十里。兩峯屹立，草木茂密。在州北壬子之間，水路七百七十里，[諺傳雖如此，不過五百里。]距甫吉七十里。自甫吉距魚蘭三十里。有水站古址，成均館置屯監。身島乃其主峯。高麗三別抄之亂，金方慶與蒙古忻都，至此候風，終成大功。濟人思之，號曰候風島。與大靜境相對。

清路·知道·草蘭·愁德四島，俱在楸子西南。距楸子，或二十里，或三十里。石勢險惡，且無水泉。橫風到此者，不得近岸，依島下碇，暫避風浪而已。崔錦南絕纜³⁾漂流者，草蘭也。又有一嶼，在波上如鬢，濟人號以遊女島。南槎錄曰，濟州女倍男數，無夫甚多，衣食極艱。北地商賈，以興販入歸，州之遊女，梳粧治容，浦口簇望。遙見此島，如張帆巨艦，錯認爲商船，相顧而喜。好事者，因以名島。

黑山，在州西北一千五百餘里，周三十五里。古稱黑山縣，遺址尚存。宋史，自明州定海縣，便風三日入洋，又五日抵黑山，卽此島也。今有屯監，屬羅州。距羅，水路九百里。

紅衣·可佳兩島，亦羅州地方，在黑山西南。距州，一千二百餘里。距羅州，水路一千三百里，皆有民居。

斜鼠，在楸子東南，周三里，距州，七百餘里。無人家，以其有水港，漁船全集。濟船之失風者，賴此多全。

東餘鼠，康津也。在斜鼠東，與州境別防鎮相對。水路九百餘里。無人無港，漂到者有害無益。

3) 纜: 문중본에는 ‘纜’으로 되어 있다. 내용상 ‘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青山，亦係康津。在東餘鼠之東北，與旌義境相對。水路一千一百餘里。民多港穩。

三島，在青山東南。距州，一千四百餘里。田民隸長興府。

白梁，本海南縣之白島也。甫吉在西，鋤安在東，者只在前，露島在後，東西廣鵝，又在甫吉之西。大抵土沃樹密，多人居，有形勝。

莞島，在白梁東北，周二百九十里，卽新羅之清海鎮也。與珍島之碧波津，俱屬海南。

巨趨里，周三十里。每應骨，周十五里。大磨月，周二十里。竹項，周十里。道巨有，周二十里。皆在珍島南，自白梁至此，爲內洋。右屬陸邑，民家或有或無。

誌候

地誌，春夏雲霧海冥，至秋冬開霽。艸木昆虫，經冬不死。地多暴風。

風土錄曰，此邑風土，別是一區，事事殊異。冬溫夏涼，變錯無恒。風氣似暄，而着人甚尖利。衣食難節，易於生疾，加以雲霧恒陰，蒸濕沸鬱。地多虫類，蠅蚊尤甚，蜈蚣蟻蚓諸雜蠢蠕之物，皆經冬不死。南槎錄曰，余於九月下碇，正月掛席，正是再霽之時，而其間五箇月，得見三光者，僅數十日。此外恒陰不開，不雨則雪，風則無日不吹。貧殘無衣者，多穿網席蓑衣，以禦冬寒。自京被罪入去而無衣赤脫者，亦隨俗耐寒。民多癩疾瘡痍滿體者，必是風土所厲。又曰，春夏晝霧之時，一島如在甌中，咫尺不辨，與人對坐，但聞語音，不見其面云。而余嘗經一年乃出，其間概多風颺，而不至瘴壯，晝霧雨雪，亦不甚數。一月內，陰翳略不過四五日。對面不見之說，大不相類，豈時有古今而然歟？若其蛇虺蝮蝎蝴蝶蠓蠛蜘蛛之屬，冬夏長在。韓文公潮州詩曰，窮冬或搖扇，盛夏或重裘，語不虛矣。

誌地

隸全羅之域，房之餘分也。[與我東之箕尾異野，宜乎風土之自別也。]山川形局，與陸地大異。面勢平彌，全無脚脊。遼然陰沙。間成阜谷，其或稱岳者，[方音，稱岳曰，兀音。]峯無尖削，頂多污澤。平地突起，若造山焉。川皆滲湯，如非急雨漲溢之時，舉皆曠乾。此谷之水，橫漏⁴⁾於彼脚之外，概緣積石爲山，略有膚土也。藪則[方音，稱藪曰，

4) 漏: 문중본에는 ‘潰’로 되어 있다.

花。]⁵⁾山腰以下及處處坪谷，自成林樾。大者五六十里，少不下十餘里。喬木參天，翳日障風，蔓藤纏葛，縈紆鋪羅。一島形勝，大抵如此。

當余之始渡海也，帆出于甫吉前洋，遙望漢挈，[其曰漢挈者，雲漢可挈引也。一云頭無岳，以峯之皆平也。一云圓山，以穹窿而圓也。一云釜岳，以頂有池，如釜也。高六十里，長二百里，峻極乎天，盤據於三邑之間。望之雖不高大，雲霧常在其腰，可想其峻也。]高挿於雲霄之表，有如一字屏障，蔽却南維。凡所接，皆水國，高浪[如城如屋，條往條來。]巨浸，[水天相接，極目無涯。]吸鯨[出沒船頭，噴沫蔽空。]飛魚[形如秀魚，長可一尺。骨翅清薄，距水一丈，其飛甚疾，百步而止。又有一魚，先到其處，當其投水，輒皆吞食。船人曰，此魚甚嗜飛魚，疾行先到，無有不吞。入島後，得見飛魚，其味勝於秀魚。]，無非詭於目者。吾嘗見東西海，其廣雖闊，尚有島嶼之間。又嘗身在岸上，心有所依，不知其至此之大也。時當春暮，[是壬午三月二十五日也。]風迅潮急，[舟行甚駛。船人曰，銃丸必落後，試之，果然。]已未掛席，戌初下碇，即所謂濟州也。家家橘柚，處處驂騑，奇磬暗礁，可喜可吁。但石色麤惡，土性浮燥，丘陵之墳衍，為可憎耳。

上官，不多日，猝理筇屐，[四月十五日]曉行四十里，平明到山底。[官基亦上趾也。地勢漸高，到此始峻削。地誌，大靜有一鳥道。今則三邑各有迷徑。]一帶綿繡，入眼眩曜，如帷如裳，盡列茵鋪者，皆映山紅。紅花爛發，間以松篁芳艸軟綠，是為初頭興趣。舍轎乘馬，轉入林藪，曲曲谿澗，蔥蒨可愛，蔽天雜木。[冬春栢，山柚子，二年木，零陵香，鹿角，松，榧子，側栢，黃蘗，赤栗，加時栗，龍木，樗木，桑木，楓木，漆木，厚朴。]簇立傘覆，琪花瑤艸，[或青或白，或紅或黃。]蓊鬱聳翠，怪禽異虫，[或大或小，或鮮或麤。]和鳴巖邃，古老山尺，亦不知名。時或縱目於人跡不到之壑，[兩崖陡絕，攀躋不及。]盤松細莎，瀟灑幽閑，有如仙冠道服，陰相遊遨。誠使秦漢二天子見之，得微有庶幾之望乎？抱壁攀藤，細徑亦迷。搥衣岸幘，偃僂貼鞍，行盡十餘里，始見天日。[林藪盡處。]是概山腰也。間間植立者，五六丈香木，[萬里受風，從古不長。]密密布地者，盈尺綿竹，而香則皮剝體白，竹則葉枯莖摧，是不耐風寒而死也。馬鬣馬尾，胃掛於枯木之上。前導者曰，深冬積雪，或至百丈，[非但山高多雪，風捲衆峯，自至於近百丈。]山馬飢死於高梢，雪消之後，肉為烏鳶所啄，片片破皮，尚留柯頭。嗟夫！浦邊點雪，

5) [] : 박물관본·문중본에는 ‘則’ 뒤에 있다. 문맥에 따라 바로잡는다.

落地便消, [島中氣暖, 冬無片氷.] 獨此深谷, 沒壑埋樹. 彼馬之自放自牧者, 過高至死, 士大夫知所處矣. 自此, 山路益艱, 步步危險. 肩輿扶推, 寸寸前進. 又過十餘里, 則上峯也. 挽人携筇, 蹣跚登眺, 巍然一釜, [頂陷有池, 所見如此.] 高撐於大海中. 土色赤黑, 殆同於經火之壁.

南槎錄至比於劫灰, 此則誕也. 想其極寒極熱, 雲蒸霧沸, 土脈自失其性也. 香竹亦不得着根, 或有蔓香躑躅, 縈絡於巖隙, 介介矮盤, 盆而植之, 皆當爲第一妙品. 四無翔走, 螻蟻亦絕. 山南草木, 經冬亦青. 崖北積雪, 盛夏猶在. [官用水片, 自山腰而繼之.] 五月着襦, 八月襲裘. 咫尺之間, 冷熱如此, 世路炎涼, 又何可言也. [風土錄⁶⁾曰, “山之全體, 退而却立. 仰乎其外, 則穹窿而若不高峻, 陂陁而似非峭拔, 乃與原野之中, 卓峙之岳同, 而無復超特艱險之狀. 進而躋攀, 行乎其內, 則巖岩而崖壁屏圍, 透迤而洞壑窟黠, 與崑崙之虛⁷⁾板洞之谷一, 而多物外淨偉之趣, 如釜之孱石, 七八仞而虎蹲, 如竿之瘦檜, 四五把而麻立. 梅檀香木, 叢生蒙密, 山精谷魑, 亭午遊戲. 風颼颼而吹微, 笙簫琴瑟之聲, 動於遠近, 雲靄飄而掩靄, 綵帛繡段之光, 羃乎表裡. 高處凜森危而劍戟東立, 低處半凸凹而鑊棍排⁸⁾拋. 岡嶺交走, 幾斷復續, 未乃顧合. 坑谷坼戲⁹⁾, 底陷而下幽, 長又¹⁰⁾曠. 高低者錯落, 深淺者冥迷, 蔽虧天日, 不分四隅¹¹⁾, 此爲一山東西南北之大概云.” 今以形局觀之, 初無支脚, 渾山皆疊石, 年久川舂, 山骨自露, 爲阜爲谷, 狀趣不一, 詭石徒¹²⁾岸, 自不得不爾也.] 坐對穴望峯, 峯有一竅, 可窺雲天. 俯瞰絕壑, 千丈削壁, 下臨無地, 骨驚魂悸, 有不忍垂堂者矣. 四圍峯巒, 如釜如郭, 周可十餘里, [小乘曰, 十八里.] 深可八百尺. 其下有白鹿潭, 圓徑四百步, 水深不過數丈. [地誌云, 深不可測, 人喧則風雨暴作者, 誤傳也.] 漲不常滿者, 無源之水, 瀦而爲澤, 積雨過量, 則滲洩於北邊絕壁而然也. 無魚無草, 畔皆清沙. 地誌曰,

6) 風土錄: 본문 내용은 『篠叢遺稿』의 「尊者庵改構侑因文」의 일부이다.

7) 虛: 「尊者庵改構侑因文」·문중본에는 ‘墟’으로 되어 있다. 내용상 ‘墟’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8) 排: 「尊者庵改構侑因文」에는 ‘拋’로 되어 있다.

9) 戲: 정문연본과 문화재청본에도 ‘戲’로 되어 있으나, 「尊者庵改構侑因文」에 따라 ‘豁’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10) 又: 「尊者庵改構侑因文」에는 ‘又’뒤에 ‘陝’이 있다.

11) 隅: 「尊者庵改構侑因文」에는 ‘隔’으로 되어 있다.

12) 徒: 「尊者庵改構侑因文」·문중본에는 ‘陡’로 되어 있다. 내용상 ‘陡’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群仙來飲白鹿，所以有潭名者，虛也。小乘曰，人間風日，遠隔三千者，可謂善言名狀，而今之四傍，有微徑獸迹，白鹿飲澗，理或然矣。[仙經曰，鹿一千歲，色蒼，又百歲，色白，又五百年，色玄。南槎錄曰，諺傳，李思瑩及李慶祿，按州時，獵白鹿。小乘所謂，白髮翁騎白鹿嘯唏云者，誇之也。]但所異者，潭傍有蛤殼，皆言海鳥所含，其鳴貢貢，故名其鳥曰，貢鳥。半百里山頂，殷勤輸致，良亦勞矣。與填海之精衛，抑何相反也。稍定喘息，倚石四望三邑。[濟州在山北，邑內三里，東面三十四里，西面五十三里，南面五里，合九十五里，烟戶七千三百十九戶。旌義在左翼之東，邑內一里，東面十里，西面十二里，合二十二里，烟戶一千四百三十六戶。大靜在右翼之西，邑內一里，東面九里，西面二里，合十二里，烟戶七百九十七戶。]

九鎮[禾北所，或云別刀，在州東十里，有候風館。朝天館，在禾北東十里，亦有候風館。別防所，在朝天東五十五里，有倉穀，正德庚午，撤金寧鎮，移設于此。首山所，在旌義東北三十里，西歸所，在旌義西南七十里。摹瑟所，在大靜西南十里。遮歸所，在大靜西二十七里。明月所，在州西八十里，有倉穀。涯月所，在州西四十里。皆各有城郭·軍器·助防將。]鼎列碁布。

如城山·山房·松岳之斗起海中，文島·牛島·飛揚·蓋波·磨蘿之點泛波上者，拍拍然，如在目前。東自三島·青山·東餘鼠·白梁·斜鼠，西至楸子·黑山·紅衣·可佳·大小火脫，錯落於縹茫之中，珍島·海南·康津·靈岩·光州·長興·寶城，熹微於雲露之外。蜿蜿蜒蜒，自作波濤之狀，造物亦巧矣。山脈四出，虎行龜盤。[峯不尖，其行且鈍，故所見如此。]

其岳之在北，曰，三義讓，[在州南十五里。]曰，雲雨路，[在州東南二十五里。]曰，悅安止，[在州南二十里。]曰，御乘生，[在州南二十五里，頂有池，周百步。諺傳，此岳下，生御乘馬]曰，勞老客，[在州南十八里。]曰，感恩德，[在州西南三十四里。]曰，踏印，[在州東南二十五里。]曰，倒轉，[在州東南三十里。]曰，長兀，[在州東南四十五里。四峯之中，一峯最高。上有龍池，徑五十步，深不可測。邊積蛤殼，如白鹿潭，亦貢鳥所輸云。]曰，紗羅，[在州東六里。]曰，元堂，[在州東二十里。峯有龜池，多有蘋藻龜鰲，大旱不渴。]曰，郭支，[在州西四十五里。]曰，相時，[在州西六十里。]曰，曉星，[在州西南五十里。]曰，靈通，[在州南十五里。]曰，洞山，[在州南二十五里，凡九十九洞。]曰，笠山，[在州東五十二里，上有蓮池。]曰，箕，[在州東南三十五里，形如箕。]曰，黑，[在州西五十里，峯甚平廣，左右有谷。]曰，猪，[在州東七十五里。]曰，獐，[在州東南

六十六里.]者, 濟州也。

東南曰, 三梅陽. [在縣西七十五里, 其中寬敞, 有稻田數十頃.] 曰, 瀛洲, [在縣北五里.] 曰, 成佛, [在縣北五里.] 曰, 感恩, [在縣北二十二里.] 曰, 水城, [在縣北三十里, 崖如城, 中有大池.] 曰, 水盈, [在縣北三十里, 頂有池.] 曰, 閑坐, [在縣東七里.] 曰, 禿達, [在縣東二十里.] 曰, 指尾, [在縣南三十五里.] 曰, 水頂, [在縣南三十里, 頂有池, 深無底.] 曰, 雲之, [在縣西三十三里.] 曰, 地稅, [在縣南四十里, 周三十里.] 曰, 紫蒲, [在縣西四十里, 周三十里.] 曰, 懸蘿, [在縣西五十里.] 曰, 城板, [在縣西五十里, 石壁如城板.] 曰, 靈泉, [在縣西五十里.] 曰, 斗, [在縣東二十七里.] 曰, 達, [在縣南九里.] 曰, 水, [在縣南四十五里, 頂有龍湫, 深不可測.] 曰, 方, [在漢挈絕頂, 形正方, 如人鑿成. 其下莎草成蹊, 香風滿山, 況聞笙絃之聲. 俗傳神仙所遊.] 曰, 兔, [在縣南十七里.] 曰, 鷹[在縣西二十里]者, 旌義也。

西南曰, 柿木, [在大靜北二十五里, 有泉, 又有斗坐館.] 曰, 遮歸, [在縣西二十五里.] 曰, 摹瑟, [在縣西五里.] 曰, 孤根, [在縣東五十七里. 巔有大穴, 深不可測, 周十七里. 地誌, 邑人文秩失財, 疑置於此, 以索縋下百丈, 穴底木葉頽積, 得不傷.] 曰, 龜, [在縣東四十五里.] 曰, 蠓, [在縣東二十五里.] 曰, 弓, [在縣東四十里.] 曰, 簞[在縣南五里.]者, 大靜也。

川曰, 山底也, [在州東城中流二里, 入健入浦.] 禾北也, [在禾北所.] 屏門也, [在州西城外, 入伐浪浦.] 介路也, [在旌義東三里, 抱城西流二里許, 有深淵, 城中汲之.] 水望也, [在旌義西三十里.] 靈泉也, [在旌義西五十五里.] 洪爐也, [在旌義西七十二里.] 紺山也, [在大靜東二十五里.] 塞達也, [在大靜東三十五里.] 大加來也, [在大靜東五十里.] 小加來也. [在大靜東五十五里.]

藪曰, 猫坪也, [在州東南二十三里.] 金寧也, [在州東五十里, 周五十里.] 黏木也, [在州西南六十里.] 蓋沙也, [在州西七十里, 周五十里.] 暗藪也, [在州東九十五里, 周三十餘里.] 木橋也, [在旌義東十七里.] 大藪也, [在旌義南四里.] 所近也, [在大靜西二十六里.] 板橋也, [在大靜西五里.] 螺藪也. [在大靜東十里.]

其他若泉. [島內, 俱無甘泉. 汲於十里之內者, 爲近. 泉遠, 或至三四十里, 而味鹹不忍飲. 土着習不知苦, 外人飲之, 則輒嘔噦生病. 惟州之嘉樂泉, 在城內石穴, 或湧或渴, 傳是金冲庵謫居時所鑿. 明月所有一甘泉, 亦不甚美, 而州之東城內, 有曰山底

泉者, 石槽長三間, 廣一間, 泉脈從四面湧出, 味極甘冽, 冬暖如湯, 夏冷如水. 城內三千餘戶, 皆汲於此, 而自古及今, 少無匱渴之時, 實是京外所罕之名泉. 有土疾者, 飲輒自差.]

若淵, [川流雖皆滲漏, 泓而爲淵者, 亦多.]

若浦, [環三邑, 凡有之七十九浦]之屬, 點指悅目, 抱懷自曠.

西麓五十里外, 有曰瀛室洞府, 俗名五百將軍洞也. 千尋蒼壁, 環爲列屏, 上有怪石, 狀如羅漢者, 凡五百. 下有三瀑, 傾瀉一壑, 傍築古壇, 壇上植桃, 獨立於叢竹之間. 南麓有樹, 非栢非杉, 非檀非檜, 隱隱如幢蓋, 傳以爲桂也. 又有蔓芝着地, 茸茸莖有細毛, 色類青苔, 隨節生根. 或如釵股, 或如絹絲, 味甘而香, 雖非桂芝, 然亦異矣. 上有修行洞, 洞有七星臺, 坐禪岩云. 是古僧入定之墟, 其曰尊者庵. [冲庵記¹³⁾曰, 尊者之爲庵, 肇造於三姓初起之時, 久傳於三邑鼎峙之後, 以言其基也, 則主峯磅礴而陡圓, 峯嶺而漸底, 恍若鸞鳳翱翔而下蹲, 愛視其雛者, 玄武之奇也. 寒泉源深, 而鏘注, 澄綠香冽, 所謂月德者¹⁴⁾方而不渴於嘆乾者, 朱雀之異也. 迤邐而蜿蜒, 腰如左臂之欲解其紐者, 青龍之歸也. 拖尾而復行, 頭如右手之將¹⁵⁾按其膝者, 白虎之美也. 以言乎其境, 則奇巖也, 怪石也. 雕鐫斲削而矗聳, 離立凝立, 欹立耦立, 如譚語, 如偶語, 如相顧追隨而行, 是化工之殷勤而成之歟? 佳木焉, 異樹焉, 染飾青蔥而森密, 枝縮背縮, 橫縮偃縮¹⁶⁾, 若爭長, 若爭秀, 若亂起舞揖而列, 是后媪之盡蟲屬而植之歟? 神仙應眞, 常若逍遙逡巡於其間, 怪禽奇獸, 四時翱翔彳亍于其中, 此則景概之眞¹⁷⁾也. 至於長嶺圓岳, 重抱竝起, 紅雲綠霧, 噴噴白日, 不遠於百步之外而跬步, 碧海青¹⁸⁾波, 按藍堆雪, 紫鳳蒼鵬, 蔽空飛騰. 未近於一置之內而三¹⁹⁾澆當. 其雨霽雲銷, 天如新鏡, 野馬風掃, 纖埃滅盡. 洞視萬里, 天外海邦, 昭然如碁子之散. 及夫風盲雨

13) 冲庵記: 본문은 『篠叢遺稿』 「尊者庵改構侑因文」의 일부를 변형하여 기록한 것이며, 『冲庵集』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14) 者: 문중본에도 ‘者’로 되어 있으나, 「尊者庵改構侑因文」에 따라 ‘其’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15) 將: 「尊者庵改構侑因文」·문중본에는 ‘欲’으로 되어 있다. 내용상 ‘欲’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16) 枝縮……偃縮: 「尊者庵改構侑因文」에는 ‘扶縮背縮偃’으로 되어 있다.

17) 眞: 「尊者庵改構侑因文」에는 ‘具’로 되어 있다.

18) 青: 「尊者庵改構侑因文」에는 ‘素’로 되어 있다.

19) 而三: 「尊者庵改構侑因文」에 따라 ‘三’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聾，乾暮坤夕，馮馮翼翼，睢睢盱盱，咫尺未辨，大塊渾沌，濛然如鵝卵之中。於是，塵寰之擾擾去矣，方外之玄玄全矣。茲乃列子禦寇書圓嶠之山也。東方曼倩記，瀛洲之地也云。是不無誇大鋪張之言，而趣味則盡矣。今無居僧，但有弊塚數間。]亦各有殊眇，小乘所謂行行仙趣，步步奇觀者。真記實也。西望天際，有白色如沙²⁰⁾，乃漂海錄所稱白海也。以向衰之眼，能睨過萬里之海程，其亦幸也。傍有老吏，嘗自安南漂還。手持過海日記，向余膝行而前曰，彼爲馬島也，江戶也，玉球島也，一歧島也，女人國也，琉璃國也，安南國也，暹羅國也，占城也，滿刺加也，寧波府也，蘇抗州也，揚州也，山東也，青州也。[日記中，備載風土物產，蓋與李芝峯問答，略同。且曰，留安南三年，適逢登萊賈舶，約以大米六百石，歷彼海入中國地方，處處搜檢，潛匿船篷，由蘇抗之界，還泊于大靜云。其時啓聞亦如此。]歷歷計數，如指諸掌。况徜徉，目眯心惑。但覺天爲蓋，而水爲地，脗合於脚下。其外復有人居，卽吾所坐之石。正當天下之中，均一齊整，四無歪罅，其視禹貢之以嵩高爲中。利瑪竇之以日本東南爲中者，不啻相懸，豈其各奮於丘垤也。魯夫子登東山小天下，吾嘗於局外識之，今果驗矣。吾儕手閱輿地圖，胸藏古人書，以理觀物，則天益高，而海益闊，所不可窮也。以物觀物，則手可指而尺可暨。西洋瀚海，亦不過如斯而止耳。冲庵曰，男兒落地，橫截巨溟，足此異區，目此異俗。蓋有欲來不得，欲止不免，似亦冥數前定者，益知爲達觀也。丘陵淵谷，伎倆於濤²¹⁾，土之中狀態本如此。向吾之偃息庄間，想如蠶蜂之叢，而飄然灑然，有難以言語形容者矣。最是夙信。平生似不虛度，而煌煌壽曜，適不相值，俗緣未盡而然歟？[風土錄註曰，惟登中原衡岳及此山，可見老人星。南槎錄曰，春秋二分，可望一半。沈節制連源·李士亭之菡，皆得見云。]顧謂從行守令曰，山高而頂陷地凹，而足舉此峯，中峙衆岳星羅，舉一島，而命名曰蓮葉露珠形，豈不可乎哉？且也開關之際，萬物消融，剛變爲柔，柔變爲剛，辦得此崇崗巨壑，夫豈有島陸之別乎？想厥山脚從陸入來，風打水齧，終古崩穿。今雖有海潮所間，氣脈之連絡，觀於此，可知也。廚人中有鮑漢，舉手而點曰，彼洋劔石，攢插於沿海浦邊，此所以環島無船港，而石脈相連，纍纍於大小火脫，至於楸子·白梁，以達於陸邑。中有槐根十餘圍者，尙在海底，明是未海前陸植。余曰，碧海桑田，理或然矣。遂以漢挈爲西頭東足，衆皆唯唯而罷。晡時下山。未

20) 沙: 문중본에는 ‘有白色如沙汀’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상 ‘汀’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여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21) 濤: 문중본에는 ‘濤’로 되어 있다.

及腰半，忽有高聲者曰，此時蜃樓，亦一奇事。余又席石而諦視之。大小火脫，始如屋轎，或頭大而腹小，或趾尖而肩低。看看漸化，倏倏乍變，如土阜，如玉簪，如走蓋，如臥牛，如船而閣，如僧而拱，如挾鳳而翔者，如駕虹而橋者。或青或白，紅紫間綴。奇奇怪怪，態千狀萬，層楹傑構，不時而成。北海一面，若繡屏焉。落霞殘照，掩靄明滅，形形色色，動可吁駭。意者，天公憐余之窄，悶余之疎，寬之以巨海，密之以雕鏤，俾知其變幻之不常。今行所得，不既多乎？相與拍手而下，薄曛還營。午有一陣驟雨，大過浥塵。吾儕之竟日嘯傲於晴雲之上者，真是三天洞府，而非人寰世界也。

誌勝

環島，皆石也。轟轟詭詭，岸蹲海植²²⁾。非山盡海。海自穿山。鯨波噴薄，極目可駭。且多有山藪澗壑，幽淡奇壯，何地不勝，而最可愛者，翠屏潭。[一名龍湫。在州西城二里。此爲屏門川下流，兩崖削石，壁立數十丈，下流清潭，長數百間，廣一百尺。水深亦數丈，中多礮石，杜冲·柑榴，羅生兩崖。舟遊甚適。]

龍頭。[在翠屏潭西崖，臨海轟石。狀如龍頭，高可十丈，頂平可坐。左右又有怪岩，俯瞰探鰓。]

長沙。[在州東五十六里。長十五里，此是海浪所淘之處。潮縮日曬之後，乘風飛流，自近而遠，自卑而高，積漸增益，成堆如山。涯月·別防近處，亦有之。]

夾財巖。[在明月西五里。形如石宇，狀甚穹窿。上鋪白沙，下有大穴。燃炬以入，寬可八十步。西北又有二窟，名曰小夾財。在西者僅五十步，在東者百步。後漸低小，不可入，故深淺不可測。枯骨雲積，偷兒輩盜殺牛馬而然也。三窟多有蝙蝠，或有色白而體大者。又產石鍾乳凝結者，或如馬乳，或如流蘇²³⁾。未結者點滴如雨，濕人衣冠，出穴則便成沙石。蓋是僻處行奸，如此，陰之一字，何地不邪也？]

金寧窟。[在金寧村南五里，廣可三十尺，高可五六丈，深可五里。兩傍全石，如臺如壁。蓋亦穹窿，炬入其中，氣陰濕而狀奇怪，此亦產石鍾乳。]

都近川。[方音俚澁，呼朝貢曰，都近。在州西二十里，一名水精川。川之上流，瀑飛數十尺，伏流七八里，從石隙湧出，遂爲深淵。地誌有物如水獺，如大狗，潛伏變化，見

22) 植: 문중본에는 ‘蓄’으로 되어 있다.

23) 或如……流蘇: 문중본에는 ‘或如流蘇, 或如馬乳’로 되어 있다.

人寶物，攬入淵中。今無此物，只產銀口魚。]

無愁川。[在州西南十八里，是爲朝貢川上流也。兩岸石壁，大奇險。]

東巫峽。[古記曰，漢挈東有東巫峽，神仙所居。其東又有瀛洲，世稱耽羅爲瀛洲。]

穿石。[在旌義南十里，石立有穴。]

城山。[在旌義北三十里，距州一百二十里。與牛島之魚龍窟，相對。城高三百餘丈，全體層疊，削立於大洋中。概其漢挈一枝，落爲丘陵，東北至海邊小麓，蜿蜒入海五里，猝然束聳。外面四壁如鏟削，如鏡磨，磊磊落落，鳥獸亦不通跡。西岩有立石，如人如獸，如屋如城，高皆數百尺，其間有石棧，崎嶇艱險。至城腰，尤仄鑿石攀附，僅通一徑，亦不可以行。架木石爲棧道，盤回曲轉，行數百步，始至山頂。時當五更，月沈西洋，惟見侗儻地，聞其波浪而已。俄而東方漸曙，海色漸明，一朵芙蓉，擎出龍宮，躍海懸空，萬象皆照，世安有幽暗事耶？前此之累觀於東海及萊海者，每嫌其霧翳之障。是日也，纖雲四捲，海天無礙，身在層濤洶湧之中，快靚扶桑浴日之光。一片靈臺，爽然豁然，羽化登仙，殆無以過矣。攀崖俯視，三面皆水國，鯨濤鼉浪，激觸山根，鷗鷺水牛之來往岩隙者，紛紛如蛾蟬之動，而目力矍眇，股栗心掉，西城一面，雖曰連陸，如線之麓虯盤蛇走於大浪之外，削立千仞，飛鳥亦倦，觸目爽神，不可以立知命者矣。城內如釜鬲，深可百餘丈，平鋪寬敞，只有柑橘數百株。天作石城，周圍於七八里，人烟隔在數十里之外，眼底無喧擾糞壤之態，世所謂神仙，若果有之，決不當捨此而他居也。以其地僻，倭寇之侵掠我境者，必藏於此。二去丁丑，括民爲城居之計，且構鎮海堂於西麓，無水無土，生理不售。今皆撤罷，只存遺址。]

正方淵。[在旌義西六十八里。島中山形，舉皆頹榻，而獨此麓甚端正。一帶蒼壁，至海而盡，高可數十丈，上有盤松，下有巨浪，西巖有長瀑八十餘尺，倒瀉海洋，真可謂第一名區。]

天池淵。[在西歸西北。削峯相抱，如弓而彎者，周遭於左右，如矢之括者，攢插其中。回視左肩懸瀑，亦長可亞於正方。]

小天池淵。[在大靜東三十五里，是爲塞達川下流。南槎錄曰，自海口左右，石壁擁屏，逶迤窈窕²⁴⁾。洞中樹木，皆冬青。從壁上行數里，由一條路，攀緣而下，巖狂谷狼²⁵⁾，白

24) 窈窕: 문중본에는 없다.

25) 狂谷狼: 문중본에는 '狼'으로 되어 있다.

晝陰沈，如藏風聚雨，鬼神吟嘯，令人寒涼。凝肅奇狀，幽怪不可備說。瀑水上流，自漢挈山南谷中發源，其間五六十里，或平鋪散流，或遇陷成潭，到此掛席，轟雷噴雪，聲聞數里。若兩道白虹，俯飲天釜。形勝實與朴淵伯仲，而瀑流高下，洞門寬狹，或有不相及處。但隱秘海外，遊觀之所不及，世人罕有知其勝者。地誌亦闕而不載，良可惜也云。今有艸屋三間，棲於東岩。]

山房。[在大靜東十里，穹窿一岳，陡立海岸，高可五百丈，周可十里，全體皆石，四皆絕險，人跡不通。惟東有一條路，攀崖而上。雜卉苞生，鹿猪產雛，山南中央，有石窟，如倚廣。水自窟，蓋點滴而下，以槽承之，清冽味甘。古有竺徒，作佛于其中，號曰窟庵。其南有穴，名暗門。兩石自劈，竅可一尺，深可百尺，長亦至五十餘尺。其北有大穴，深不可測，號曰彼生門。金自祥山房記曰，石瓦自蓋而積雨不能漏，石簞自鋪，而墅火不能燒，石壁自立，而狂風不能搖，石泉自湧，而行潦不能污。南槎錄曰，諺傳，上古虞人登漢挈山，以弓弣摩擊天腹，天帝怒，折柱峯，移峙于山²⁶⁾，今觀螺藪自山麓至此三十里間，雜石傾倒撩亂，宛有轉山之樣，好事者爲此說云。]

松岳。[在大靜南十五里。小乘曰，山勢斗起，平野南馳，入海而斷。其上平如掌樣，梯北有奇岩對立，儼一石門。路從石門，入短岫，若假山。縱橫列置，眞造化之戲劇尤可怪者。斷壁高可千仞，而皆有波濤嚙食之狀。前有一朶橫沙爲峯，而上有海水往來之痕。以此觀之，黃塵清水之說，豈孟浪也。南槎錄曰，山無遠勢，斗起海上，周回厓十數里，蜿蜒磅礴，東南一隅，平衍爲壇墀，可坐屢百人，其下陡絕，不啻數萬仞，屹立無底。鯨濤洶湧，極望連空，更無一點島嶼云。今觀山勢，周厓五里，高不及城山，數萬仞之說，其或誤傳歟？其左傍有兄弟島，削石兀立於海中，勢甚危怪。回視山房等處，石壁清沙，据列三十餘里，此實可奇。] 乃其尤也。其他山岳·海島·泉石·林藪·艸木·花卉之可奇可喜者，不可憚²⁷⁾記。

誌蹟

初高乙那·良乙那·夫乙那兄弟三人，分處其地，名其所居曰徒。[高氏世系錄曰，三人射矢卜地，高所居曰第一徒，漢挈山北一徒里。良所居曰，第二徒，漢挈右翼之南山房

26) 山: 문중본에는 '此'로 되어 있다. 내용상 '此'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27) 憚: 문중본에는 '彈'으로 되어 있다. 내용상 '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里。夫所居曰，第三徒，漢挈左翼之南土山里。九百年之後，三人各自射石，以試勇力，高爲上，良爲中，夫爲下。故民心竝歸于高，以高爲君長，以良爲臣，以夫爲民。國號𦍋牟，以其牟穀茂盛也。今之州城內，分三部曰一徒，曰二徒，曰三徒，徒字疑是都字之誤，而方音稱徒曰乃，似是其時所稱也。]

新羅時，高乙那十五代孫，高厚·高濤[世系曰初名孕，後改以濤。]與其季[史失其名]，來朝。先是，太史占之曰，客星現於南方，異國人來朝之象。至是王喜號厚曰星主，[以其動天象也。]濤曰王子，[以其出袴下也。]季曰徒內，賜國號曰耽羅，各賜寶蓋衣帶而遣之。

自此，子孫蕃盛，以高爲星主，良爲王子，夫爲徒上，其後改良爲梁。[世系曰，烈宗朝耽羅王，遣廣巡使良宕·按撫使夫繼良，入朝，重爵賞以遣，改良爲梁，改夫爲浮。此爲梁浮二姓之始。]其後，服事百濟。

文周王二年丙辰，拜耽羅使者，爲恩率，封星主爲佐平。[恩率·佐平，百濟官名。]

東城王二十年庚辰²⁸⁾，以耽羅不修職貢，親至武珍州[光州]，其主[世系曰高昭。]遣使乞罪止兵。然乍順乍逆，戰討不息。

及百濟亡，新羅文武王元年壬戌，其主佐平徒冬音律，來降。

高麗太宗二十年戊戌，遣太子末老，[世系曰，星主高自豎遣子末老。]來朝。仍賜星主王子之爵。

肅宗十年乙酉，改𦍋羅爲耽羅郡。毅宗時降爲縣，置令。高宗時，置副使。

元宗八年丁卯，草賊文幸奴，搆亂，副使崔托誅之。十一年庚午，反賊金通精領三別抄，據珍島，翌年辛未來據侵掠。星主高仁朝·王子文昌佑等，以聞。越三年癸酉，王命金方慶等，合元兵討之。翌年甲戌，元設招討使。

忠烈王元年乙亥，元復號耽羅。二年丙子，元設軍民摠官府。[以高仁朝爲總官，適爲摠官副，文愼爲同知總官，塔兒副判，高貞幹知事，金叔提控進士，鄭混梁琪知房進士，夫貞才·高順時·文節隨·趙有賢·安庇爲令司行署府使事。]

三年丁丑，以島屬房星分野，立東西阿幕。[以塔羅赤爲達魯花赤，載馬牛駝驢羊來，放于首山坪。]

十年甲申，元革總官府置耽羅軍民安撫使府。[以塔羅赤爲達魯花赤，高仁朝安撫使，

28) 辰: 문중본 『탐라지』에는 ‘申’으로 되어 있다. 내용상 ‘申’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文昌佑府使, 汀總都達同知事, 蔡有仁簽事行署府事.]

二十年甲午, 王朝元, 請還耽羅. 元丞相完澤等, 奏帝還隸于我. 翌年乙未, 改爲濟州, [以趙任爲都指招使, 崔瑞爲牧使, 池南翼爲判官. 丁酉以蔡得公爲防禦使, 林叔爲萬戶都指揮使.], 置牧使判官.

二十六年庚子, 設東西道縣. [今之貴日·高內·涯月·郭支·歸德·明月·新村·咸德·金寧·狐村·洪爐·狍來·山房·遮歸等地也. 大村設戶長三人, 城上一人, 中村戶長二人, 小村一人. 舊說, 新羅封高厚時, 置村. 高麗毅宗時, 分爲縣. 元宗時, 三別抄合爲一州. 至是又設縣村云者, 理或然也. 年代未詳.]

是年, 元奇皇后又放廐馬. [以仁朝之弟秀佐爲星主, 公濟爲王子.]

二十八年壬寅, 元立軍民萬戶府.

三十一年乙巳, 復還于我.

忠肅王五年戊午, 艸賊士用岩卜等, 起兵作亂. 王子文公濟, 舉兵誅之, 聞于元, 復置官吏.

恭愍王十一年壬寅, [世系曰, 又封高福壽爲星主.] 元牧子訴于元, 復置萬戶府. [元以副樞文·阿但不花爲整治事. 阿但不花與本國賤隸金長老, 到州, 杖萬戶朴都孫, 沈于海.]

十六年丁未, 元亡, 大明太祖卽位, 州復來屬于我. [時元牧子, 强悍累殺萬戶以叛. 及金庾之討牧子, 王奏請自署官吏, 擇獻牧子所養馬如故事, 帝從之.]

十八年乙酉, 始以金世奉爲安撫使.

二十一年壬子, 元牧子石加乙碑·肖古道甫介等, 自稱東西哈赤, 殺害官吏. 王子文臣輔遣其弟臣弼, [世系曰, 遣其弟臣吉.]以聞. 越二年甲寅, 王遣都統使崔瑩, 討平之. 以金忠²⁹⁾光爲萬戶兼牧使.

禡七年辛酉, 始置判官, 本朝 因之.

我太祖大王六年丁丑, 革萬戶, 置牧使僉節制使.

恭靖大王二年庚辰, 以判官兼教授.

太宗大王元年辛巳, 復置安撫使兼牧使.

二年壬午, 星主高鳳禮·王子文忠世等, 以星主王子之號, 似涉僭, 擬請改之. 以星主

29) 忠: 문중본『탐라지』에는 ‘仲’으로 되어 있다. 내용상 ‘仲’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爲左都知管, 王子爲右都知管.

八年戊子, 革東西阿幕, 置監牧官.

十三年癸酉, 別屯教授.

十六年丙申, 安撫使吳湜啓建大靜·旌義兩縣.

世宗大王十年戊申, 革監牧官, 以判官兼之.

二十五年癸亥, 以安撫使, 兼牧使, 知監牧事.

二十七年乙丑, 革左右都知管. 以邑人有識者, 爲上鎮撫副鎮撫, 分掌防禦之事. [世系曰, 以高乙那六十一代孫高承祖, 爲三邑都知上鎮撫云. 上下千餘年間, 必有州乘, 而世宗大王十七年, 崔山海³⁰爲安撫時, 官府失火, 文籍盡灰云.]

端宗大王二年甲戌, 以安撫使兼監牧使.

世宗³¹大王十二年丙戌, 改安撫使兼監牧使. 置鎮, 以兵馬水軍節制使兼牧使, 以判官, 兼監牧官節制都尉.

睿宗大王元年乙丑, 復置牧使兼兵馬水軍節制使, 以判官兼節制都尉監牧官.

宣祖大王己丑, 善山人吉雲節與益山人蘇德裕·海南僧惠修等, 入來本州, 潛誘土民文忠基·洪敬源等十餘人, 謀殺牧使以下三邑守令, 舉州以叛. 將約日舉事, 適事未就而謀洩, 雲節自首.

[此則出於南槎錄, 而本州官奴義男植伊孝一信吉元生等, 乙卯年呈巡撫御史李選親題踏印, 所志曰, 吉三峯, 以鄭汝立餘黨, 亡命, 變名曰雲節, 益山僧人衍法主, 變姓名曰蘇德裕. 一時入來, 官妓之爲雲節所狎者, 發告雲節凶謀云. 其妓之孫文斗星, 時爲鎮撫, 亦曰其祖母以此免賤云.]

辛丑六月初四日, 牧使成允文馳啓, 庭鞠施刑. 九月, 金清陰以巡撫御史, 入島宣諭. [出於觀風案, 清陰南槎錄, 卽其時所撰也.]

孝廟朝, 土人金大吉, 願納山馬二百餘匹. 朝廷嘉其志, 以其子孫世世承襲監牧其馬. 今上丙寅, 陸地人梁禹轍, 自作匿名書, 潛置三姓穴, 自告於官. 械送京獄, 得情置法, 誣援島民, 卽爲放送.

今癸未年, 以牛島馬無監牧, 余啓請別防鎮助防將, 兼監牧看養, 朝廷許之.

30) 崔山海: ‘崔海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31) 宗: 문중본에는 ‘祖’로 되어 있다. 내용상 ‘祖’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卽今官員, 牧使·判官·教授各一員, 縣監[旌義·大靜.]二員, 監牧官一員, 兼監牧四員, [判官·旌義·大靜·別防鎮助防將.] 審藥·漢譯·倭譯各一員, 檢律. 自二去戊午, 朝廷不爲差遣, 使律生勘律. 此其沿革大概也.

誌姓

高·良[後改爲梁.]·夫, 最先. 其後有文[寶城之福城人, 來婿于高, 有繼爲王子者.]·鄭·金·李·文·安·玄·咸·楊者, 竝屬本州之縣. 金·李·朴·林·兪·周·趙·宋·鄭·洪·徐·崔·吳·車·池·韓·馬者, 竝自他來. 趙·李·石·肖·姜·鄭·張·宋·周·秦者, 竝屬于元, 牧馬時遺種也. 梁·安·姜·對之屬于雲南者. 大明初平定雲南, 徙梁王家, 屬安置于州. 互相藤葛, 雖各有派別, 皆源於三姓云.

誌人

新羅

高厚·高清.

高麗

高維 [始仕王國, 賓貢登第, 官至右僕射.] ·高兆基 [維之子. 睿宗朝登第, 官至政堂文學·參知政事, 進中書侍郎平章事.] ·高適 [兆基之孫, 爲本州留總官.]

本朝

高宗³²⁾ [適之十代孫, 登第, 官至漢城判尹.] ·高台弼 [得宗之子, 登第, 官至開城留守.] ·高台鼎 [台弼之弟, 己卯科壯元, 官至奉常寺正.]

質清敏性, 穎悟少淳, 謹多才藝.

風土錄曰, 人心鹵莽, 漁利爲事, 不知廉恥爲何事.

南槎錄曰, 外似愚蠢, 內多巧慧, 嘗言自己困苦之事, 守宰無狀之實, 一一貫穿, 甚有條理. 且雜義理, 動人傾聽, 雖非全然鹵莽之類. 自冲菴所見之時, 亦近百年, 安知不

32) 高宗: 문종본에는 ‘高得宗’으로 되어 있다. 내용상 ‘高得宗’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由漸染王化日就善俗之致也. 若其漁利, 不知廉恥, 則前後承流者, 滔滔皆是, 上行下效之語, 豈誣也云.

今觀吏胥文筆工匠技藝, 介介奇巧. 島中儒生, 雖有賦詩³³⁾, 齟齬可羞. 余抄十三人, [進士吳廷賓·幼學金繼重·梁維赫·田萬成·金鼎實·鄭敞遠·李始泰·高福星·高處安·梁遇賢·高萬甲·鄭敞道·高世東, 此則自營供饋. 其餘濟州二十人, 旌義七人, 大靜五人, 勿論四時, 會減給料, 永爲定式.]使之製策, 十日之內, 舉皆成篇, 日益鍊熟, 亦多騷韻. []³⁴⁾小童之稍解文字者, 教以影算, 一朔內習熟, 多至八十餘人. 兩縣亦多成就, 可見其才品之不濁矣.

誌俗

區域自別, 風土頓殊, 習尚流俗, 動輒駭人. 特以王靈, 外暢文物, 漸染, 版圖內附, 苞茅歲貢, 姑以最著者言之.

人多壽考. [地誌, 少疾病, 無夭禮, 年至八九十者多云, 而問于土人皆曰, 古多有一百二十餘歲人, 乙丙癘疫, 幾盡死亡. 及至老人宴來集者, 一百二歲一人, 一百一歲二人, 九十以上二十九人, 八十以上二百十一人, 而筋力壯健, 略無摧頹之氣. 冲菴所謂壽星所照者, 信不虛矣.]

女多男少. [每年敗船, 沒死甚衆, 故男貴女賤. 至殘者, 亦畜二三妻, 或有十餘妻者. 生男則曰鯨魷之食, 不甚愛重, 惟生女, 然後喜曰, 是當養吾, 情亦憾矣.]

癡儉有禮讓 [衣食朴陋, 無所芬華. 富饒者衣葛, 亦不繼鹽醬. 雖由稀貴, 蓋緣癡儉而然也. 若其謙讓曲有禮意, 每當聖廟焚香及釋奠時, 儒生輩行祭, 及相揖禮節, 甚爲閑習, 且有法式. 往來官門者, 雖庸愚下賤, 亦善於禮. 遇官人於道, 則奔匿不現, 其或未及避者, 俯伏道傍, 不敢舉頭.]

婚禮拜門. [地誌, 求婚者, 必備酒肉, 納采者, 亦然. 婚夕, 婿備酒肉, 謁婦之父母, 饌小則女不出, 醉後乃入房. 今亦有此俗. 且不擇同姓及近族, 又不行交拜禮. 余累次曉

33) 賦詩: 박물관본에는 '賦詩'로 되어 있으나, 내용상 '詩賦'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34) []: 정문연본에는 [其後 年, 吳廷賓·鄭敞遠·高世泰·皆登文科, 方做即官守令.]까지만 보이고, 문화재청본에는 [其後 年, 吳廷賓·鄭敞遠·高世泰·皆登文科, 方做即官守令. 又於丙申取文科三人, 僅與前後計, 文科六人, 皆自十三人出.] 라는 내용까지 보인다.

喻。且下男女禮服於鄉廳，則拜門酒肉，果即停癢，而交拜之禮，婿婦皆以爲羞，甚至有涕泣者。及其習熟之後，人皆善之。今則公私賤皆行之云。]

俚語艱澁。[地誌，俚語艱澁，先高後低。以京爲西那，以藪爲高³⁵花，以岳爲兀音，以瓜爲蹄，以口爲勒，以艸羈爲祿大，以鐵銜爲加達。小乘曰，往往雜以文字。若男子之尊稱曰官官，若土字蒜³⁶字，不用方音，不好字，皆用漢音。風土錄曰，語音細高如針刺，多不可曉。余觀聲音之啁啾，彷彿倭人文字之雜用，酷似中華，常時問答，多如老乞大。至於驅牛馬之聲，譯舌曰，尤不可分別。官人所言，略同京師，而自中酬酢之音，全未曉解。村女之告訴官門者，如鴿舌，如針刺，尤不可聽，必使吏輩翻譯，而後知之。風氣與華不隔而然耶？元朝牧子輩相雜傳習而然耶？]

土瘠民貧。[南槎錄，地多岩石，鋪土數寸，不產麻綿，衣食俱乏，惟採海物，以仰生業。]

踏田八陽。[高麗文宗十二年，門下省奏曰，耽羅地瘠民貧，惟以木道經紀謀生。州記曰，土性浮燥，墾田者必驅牛馬以踏之。連耕二三年，則穀穗無實，不得已又墾新田。功倍獲少，所以民多困窮。余觀田品，果爲淺埴，不踏則不播，不糞則不秀，故驅出牛馬，而終日蹂躪，謂之踏田。囚其牛馬於築場之內，晝夜糞田，謂之八陽，蓋其土性，或有膏沃，所獲倍於陸地，而不得連耕則然矣。且驅牛馬者，以嘯而不以聲。]

女役甚重 [官有潛女案，進上藿鮓，皆責於此。旌義大靜，至以寺婢定給收³⁷保。閭閻間汲泉刈穀採柴採鮓，及凡諸力役，皆令女人當之。土俗，負而不戴，汲水者亦背木桶，而無頭戴者。且無裙，但以麻索縈腰，以數尺麤布，縫係於索之前面，惟掩其陰而已。脫衣脫裳，露身露臀，參³⁸不忍見。在邑內者，當其出入之時，或穿衣裳，而俗古民習，恬不知愧。每對吏民，言其不可之由，知其有羞恥，然後下令禁之³⁹。人皆曰，永革此習云，而安知其不如舊也。然妓娼之稍饒者，無不被羅綺曳綃縠，彷彿關西。]

不用網罟。[地誌，山險海惡，不用網罟，魚則釣，獸則射。]

不貴京職。[地誌，京城隔遠，仕宦爲難，土人有才幹物望者，求爲鎮撫，故俗以執事官衙爲榮，不知京職之貴。風土錄曰，自品官下至微者，皆交結朝貴，其豪右求爲鎮撫，

35) 高: 문중본에는 없다. 高花는 “꽃”으로 읽는다.

36) 蒜: 문중본에는 ‘蒜’로 되어 있다.

37) 收: 문중본에는 ‘牧’으로 되어 있다.

38) 參: 문중본에는 ‘慘’로 되어 있다. 내용상 ‘慘’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39) 之: 문중본에는 ‘止’로 되어 있다.

次者旅帥，次者書員知印貢生，各以漁利爲事。毫縷細，故皆有贈賂，以強制弱，以暴劫仁，故官員之有廉義者，蚩氓⁴⁰⁾懷其惠而笑其迂。卽今三邑亦有文斜⁴¹⁾二人，而門無訪者，道無揖者。人之待之，反不如面任將官云。]

聚石築垣。[地誌，古無田畔，強暴竝吞。金坵爲判官時，令各爲垣，民皆便之。今之田畔家傍，皆各有墻，非特定界，亦以禦場馬云。]

家無竈埃。[屋皆艸蓋，而不編不網，積艸厚覆，以摠密結者，畏風也。無埃者，潛水之類，入於暖房，則皮坼肉爛，必生大病，故寢地之風，自古成俗。或有老父母者，或有小埃，而亦千百之一。竈則獨鼎而炊。]

有砧無杵。[自古無舂。女人數三或七人，手擣木臼，而杵聲淒楚，雜以庸言，男之力役者亦然。搗衣無砧，以手敲打。冶爐，無踏以手鼓橐。]

市無買賣。[古老相傳，自古守令之欲行場市者，令民聚市，則擔負逢點而已，絕無買賣。蓋其愚迷之類，每遇行商，和賣於其家者，惡其市直之一定也。是故，自古及今，元無場市。且民貧役重，生計茫然，賣父母，鬻妻子之習，自古成俗。余之狀啓，略曰，諸道牧場，皆有位田，且不立番。春秋點馬之後，通計故失之數，許多戶保，均一分定，牧子之每年所徵，多不過木疋，小或至米斗，而田畝所獲，綽有餘裕，故其生可保，其價易辦，而本島則不然。七千六百餘馬，六百二十餘牛，散處於六十三場之內，牧子一千二百名，皆以公賤，隨闕充定。既無位田，且甚貧殘，毋論四時，分番守直，斃馬中皮張現存者，雖不責徵，三百餘里艸樹中，或有過時腐傷者，或有禽獸啄食者，或有皮存而標無者，則竝與遺失者，而責立一人之一年所徵，或至十餘馬。此是他道牧場所無之役，而赤立之民，無以辦出，終至於賣父母，鬻妻子，雇當身之境，世安有如許風俗乎？無妻子則賣父母，無同生則雇當身。前賣未贖，後馬又徵，割情忍愛，搥胸叩地，此時此狀，天亦變色。古罕今甚，展轉成俗。以聖朝貴人賤畜之義觀之，則殘害天倫者，固爲大變，習而不以爲怪者，尤是大變。分付三邑，使之抄報，則賣父母五名，鬻妻子八名，雇當身十九名，賣同生二十六名，都合五十八名，以堂堂禮義之邦，氓俗至此，豈非萬萬可羞者乎？年限價本，成冊上送于備邊司。既已現發，則所當自官優

40) 氓: 『冲庵集』에는 ‘氓’으로 되어 있다.

41) 斜: 문중본에는 ‘科’로 되어 있다. 내용상 ‘科’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恤，以示國⁴²⁾家德意，而若自臣營變通，則怨歸於國，惠歸於臣，所不敢爲也。特令常平倉，以本州耗穀，參酌上下，以爲贖還之地，而此既天下萬古所無之俗也，不可不嚴立科條，扶植倫紀，而不厚其生，徒禁其賣，則正所謂欲其入而閉其戶也。少依黑牛之例，減半徵馬，則法不屈，而民或支矣。又立禁令，使不得買賣骨肉，何如？上允之。贖還其已賣者，又立禁條。買者賣者，各有其罪論，以朝家德意，則民皆歡忻，鼓舞而罷。]

照里戲。[地誌，每歲八月十五日，男女共聚歌舞，分作左右隊，曳大索兩端，以決勝負，爲之照里戲。又於是日，作鞦韆及捕鷄之戲。今則曳索鞦韆，行於端午日，無復有捕鷄。]

田頭起墳。[地誌，治喪，百日而除。略掘田頭以起墳。間或有行三年者，俗不用地理卜筮，又不用浮屠法而⁴³⁾。今則三年喪，人皆行之。地理卜筮，或有用者。每年稱以業中徵出麤布二疋，會錄於常平廳。所謂業中，蓋指地術，必是耽羅舊例，而田頭起墳，今猶古矣。]

無寺無僧尼。[寺刹基址之在於三邑者，甚多。地誌·風土錄·南槎錄，皆曰，有僧無尼，而卽今島中元無僧尼，寺刹亦皆撤罷。州城東有萬壽寺，西有海輪寺，各有佛像，常時無典守者，自里中，定一人看護。且於四名日，相聚禮佛而已。余謂漸不可長，卽毀兩寺，移建公廨。大靜境惟一尊者菴，只是艸屋數間，亦無居僧。但於別星上山時，宿息而已。舉一島五百里幅員，今無寺刹佛像僧尼，亦無念佛者，可謂佛道之辰。]

尚淫祀。[州記，俗尚淫祀，乃於山藪川池丘陵墳衍木石，俱設神祀。每歲元日至上元巫覡共擎神纛，作儺戲。錚鼓旗幟，槍劔前導，出入閭閻。官員以下，爭捐衣服財穀，以祭之。又於二月朔日，歸德金寧等處，立木竿十二，迎神以祭之。居涯月者，得槎形如馬頭者，飾以采帛，作躍馬戲，以娛神，至翌日乃罷，謂之燃燈。是月禁乘船，又於春秋，男女群聚於廣壤堂遮歸堂，具酒食祭神。又地多蛇虺蜈蚣，若見灰色，以爲遮歸之神，禁不殺。所謂遮歸者，方音甚訛，呼蛇鬼曰遮歸。風土錄曰，酷崇祀鬼，男巫甚多，嚇人災禍，取財如土，朔望七七，殺牲以祭。又曰，氓俗，鄙而癡野，機而好殺⁴⁴⁾。]

42) 國: 문중본에는 ‘朝’로 되어 있다.

43) 而: 문중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云’으로 되어 있다. 내용상 ‘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44) 殺: 『冲庵集』에는 ‘教’로 되어 있다.

凡有所祈禳疾厄，得喪禍福，一聽於神，疾病甚，畏服藥，謂鬼怒，至死不悟。俗甚忌蛇，奉以爲神，見則呪酒，不敢驅殺。南槎錄曰，俗以二月爲燃燈節。諺傳，大唐商人船敗，漂沒者，四體分解，頭骨入於濟之東於等浦，手足入於濟之西南高內涯月明月等浦。故其里之人，自正月二十八日，化米於村中，至二月初五日，爲祭燃燈神。每年正月晦時，有風自西海來，則謂之他方之神來矣。聚群巫，作野祀，以夜繼晝，出入村家。至二月上旬，又造舟形，俱帆檣，汎之于浦口，謂之送神。是時，風自東北來，則謂之他方之神去矣。自二月初吉，至于望後，絕不放船。惟進上之船，被官家督令，不拘俗忌。然往往致敗者多，土人必執此爲咎。又曰，此俗今猶不革，如廣壤遮歸等淫祀，簫鼓不絕，土人敬畏如天。凡一家大小事，必先祈禱于此處，然後敢行。正朝，則迎神入城，謂之神遊，村人爭出衣服，以施之。又曰，村人臨老得病，彌留危苦者，其子女虔誠祈禱。若不可瘳，願鬼速令就死，毋爲久苦。如此者，咸稱孝誠。此蓋蠻風之未盡變者云。今則去去益甚。甚至於掠奪牛馬田莊，雜聚行淫，比前尤加。

余又狀啓，略曰，巫覡輩惑誣之習，自是天下萬古所共有之痼弊，言亦無益，而至於本島，尤有別焉。既無上下名分，又無義理所識。故家家設位，處處立祠，崇奉之習，比內服倍百。彼所謂男覡女巫，揚揚氣使，無賴之輩，稱以堂漢，互相結契，其數過千。或討食於閭閻，或屠牛於神堂，村民之留置綿布及紬段者，初以鬼崇牀⁴⁵⁾之。若不出施，則稱以鬼差，發送堂漢，結縛掠奪，甚至於奪其牛馬，其數近百。又至奪其田畝，各自分食，或稱位田，或稱捨施，田連阡陌，堂積珠貝。凡於行船之時，只知有神崇，不知有官令。進上船待風之際，亦必下直於神堂。似此風習，他邑所無。人心順逆，自古靡定，雜類爲群，亦涉可慮。觀其形勢，不止於惑世誣民而已。雖欲禁止，其勢末由。及臣巡歷之時，三邑人民，千百爲群，處處頌祝者，無非今番備局回啓中，變通之惠澤也。前月二十日，鄉所儒生武士吏胥及各面面任，各里里任，相會於淨處潔地，北向四拜後，八百餘人來告於臣曰，今此國恩，古所未有。死馬徵半，則牧子可保，槌鯪給價，則浦民可生。耗穀給官，則民役可寬，退船劃給，則巨役可除，久勤調用，則仕路可通，繼後給案，則絕祀可續，凡此六惠，已極銘骨，而贖還賣鬻，且立禁制。自此，島民可有父子。聖德如天，無可酬報，北向拜恩，只伸下情而已。恩既至此，忱誠自激，民等亦有所相議矣。島俗質質，不霑聖化，同姓及近族之相婚，婚姻時交拜之不行，男

45) 牀: 문중본에는 ‘牀’으로 되어 있다. 내용상 ‘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婚之送饌，女體之不掩。及有妻而娶妻，有夫而改夫者，最爲可羞。自今爲始，互相禁止。若其淫祀，各各毀撤，以表其含恩戀德之忱，至誠懇惻，一齊來訴。所奪民田文券，都封來納。臣初甚怪之，設辭詰問，則果是實情也。君民分義，固當如是之意，曉諭以送矣。果有翌日，各自燒火三邑所在神堂一百二十九處，及私家禱神之物，路傍叢林之處，巫覡輩神衣神鐵，一尪燒燼，甚至於掘木根毀佛像，今無一物。留在三邑守令，連續牒報。又於翌日，巫男數百，齊進呼訴曰，此非民等樂爲之事。官用綿布，全責於巫覡，赤手空拳，無可備納，互相投巫，展轉成俗。今既革罷此弊，永絕巫案置簿，又爲除去，則世世相禁，人人各勵，永廢巫名，願爲凡民。父老中，稍有知識者，連續來告曰，淫祀既已革罷，醫藥不可不勉，而本州審藥，每以不知藥名者，苟充差遣。願以此意，啓達於朝廷，稍知醫理者，連續差送，則民心可固，積弊可除。縷縷來訴言甚切。至史記中，雖或有淫祠撤破之時，或爲奏聞[狄仁傑]，或發禁令[張南軒]，皆自官家勒毀。此則既無朝令，又無官禁，而累千年痼習，一朝掃盡，誠爲多幸。又聞，民間皆以爲前此，崇奉非不致誠，而盲風怪雨，每傷禾穀，又多覆舟矣。今則燒毀半年，有益無害，前之見欺，極是憤事。男女老少，見輒相賀，仇視巫覡，羞與爲伍。今年痘疫遍滿三邑，而皆不設神床，人人服藥，此實前古所未有之異事。既是荒服願戴之事，係關聖德，不可不達。審藥差送一款，衆民所願，亦涉有理。每當遞代之時，各別擇送事，令該院定式施行，何如？既已正書，未及封啓而歸矣。今聞後至者到境，翌日，大行神祀。又令巫輩速作神堂，且罷醫生，民皆膽落。至有等狀請寢者，而猶不少緩，且作巫女案。仍前收布，巫輩各出財力，已設二神堂云，[]⁴⁶⁾

村無盜賊。[閭里及道路 絕無強盜。牛馬農器穀物露置原野，而無一見偷。或有穿窬被捉者，民以爲可殺，渠亦自知其必死。]者可尙可駭。

噫！風俗者，長民之所當先，而庸夫忽之，教化者，治民之不可緩，而俗吏慢之。況此絕海俗殊，人別其所懷，綏視內服，尤異。古不云乎？孟方則水正，聲發而響應，操風化者，宜有所審處。

46) []: 박물관본이나 정문연본에는 보이지 않은 내용이다. 문화재청본에는 [又聞, 到今年丙申, 尙未更設云]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誌文

鄉校, 舊在嘉樂川西岸上, 萬曆壬午, 移建于東南城內. 奉安位數, 同於成均館. 校生時數, 三百五十餘人. 旌義鄉校, 在縣西城內. 校生時數, 一百八十餘人. 大靜鄉校, 舊在北城中, 移于東門外, 還移于西城內, 今在於城南簞山下. 校生時數, 六十餘人. 兩縣奉安位數, 與諸縣同.

余之狀啓, 略曰, 本島士風, 已無可言, 而聖廟至於翰艸, 耳聞目見, 可駭可羞. 臣於到任之後, 兩縣雖未及巡檢, 本州則每朔望焚香後, 奉審形勢, 則上雨傍風, 事體未安. 從享兩廡位板, 間或沾濕. 訪問兩縣, 則大靜縣 大聖以下, 二十位位板, 折裂破毀, 字劃不明. 甚至於不辨某位之境. 聞來尤極駭然. 分付三邑, 使各奉審後牒報, 則本州判官李泰顯, 旌義縣監金益九, 大靜縣監崔東濟, 各各牒呈內云云. 絕海文教, 雖曰埋沒, 聖廟位板, 已至於此. 殿宇墻壁之雨漏頽落, 床卓鋪陳之折傷腐朽, 有不暇論. 自前拋棄, 不爲修改之罪, 在所難免. 三邑齋任及色吏, 自臣營從重刑推, 各其有頃處, 具由馳啓. 修改及移還安日子, 量其渡海遲速, 參酌推擇. 香祝栗木, 令該曹, 急速下送, 何如? 上允之.

三邑殿宇·明倫堂·東西齋及祭器祭服床卓鋪陳沒數修改位板之破傷, 或改造或改題, 後舉行, 形止又爲啓聞. 且令三邑鄉校及各面, 俱出訓長. [濟州都訓長梁維赫, 東中面梁元泌, 西中面梁廣廈, 別防面高世俊, 嚴壯面安宅, 涯月面邊希簾, 輓飛面梁重球, 明月面梁振演, 大靜都訓長前縣監文榮後, 旌義都訓長高世維.] 所抄儒生, [濟州二百七十七人, 旌義一百六十一人, 大靜四十二人.] 每朔望, 書徒納官, 隨其勤慢, 各施賞罰. 貢生五百餘人, 亦定訓長, 教其文算. 一年之後, 各自奮勵, 及其巡講之時, 多有經書背講者, 堪可嘉尚. [47)

誌武

武藝, 自是長技, 而家貧役重, 無暇鍊習. 況無出身仕宦之望, 故人皆拋棄, 不能自振. 余令三邑, 差出教射長於各里. [濟州五十人, 旌義七人, 大靜五人.] 勿論公私

47) [] : 정문연본에는 ‘[其後, 文科三人, 并出於五年之內, 見上人物條. 今年丙申, 又別遣御史抄出文科三人]’ 라는 내용이 보이고, 문화재청본에는 ‘[亦自此中出.]’라는 내용까지 보인다.

賤，皆令習射，朔望劃紙納官，亦施賞罰，所抄射員，[濟州一千一百七十餘人，旌義三百五十餘人，大靜一百六十餘人.]亦皆爭先。當其試射之時，多有沒技之類。蓋其才品，最長於騎射。[]⁴⁸⁾

誌田

厥田下中，厥土黑墳，種宜黍·稷·秈·秫·菽·麥·蕎麥·蔗艸[味甘且茂 似是宜土.]。大靜只有若干水田。旌義甚鮮，濟州尤少。壬午年，濟州田畝三千三百五十七結三十三負九束，旌義一百四十結三十二負五束，大靜一百四十九結九十一負四束。麻則取陸種落子，未及三年，其大如櫻。絲類於臬，不堪紡績。綿亦絕貴。大靜一面，畧有耕者，而核大氈䟽 暖衣纁絲，俱不合用。余令兩縣，⁴⁹⁾亦皆勸耕，未知秋稔之如何耳。

誌產

產有鬃物·螺鈿·涼臺·帽子·首髻[人髮甚長故也.]，而無綿布·陶瓦·陶器·銅鐵 及鹽 [旌義有鹽田一處，所煮甚些。南槎錄曰，古不產鹽。二去戊午，姜侶爲牧使時，教以煮法。一釜所煮，厖四五斗，而味頗苦。余貿鐵四千餘斤，鑄作三釜，濟州二釜，大靜一釜，出給民間。且致陸地鹽漢，一朔學習，一釜所煮，多至六十餘斗。今則庶可蒙利云.]且山林至賤者桑木，而島民不知蠶績之方。余令曉諭，三邑各備，蠶種一張者，厖一千五百餘戶云。而未及經夏而歸，其後形止，姑未有聞。

誌禽

禽有鷹·雉·烏·鴟·鷲[無胡鷲.]·雀·鷗·鷺·野鶴·鶉·鷩·雁·梟·鸛鷀，無鸛·鵠[地誌無鸛鷀者，誤傳也.]。

誌獸

獸有狸·獠[土猪]·猪·獐·鹿[諺傳，海魚化爲獐鹿，或有半變未及化者。余見漢挈雖大，

48) []: 문화재청본에는 [其後 年, 十三人同登武科.]라는 추가된 내용이 보인다.

49) 縣: 문중본에는 ‘邑’으로 되어 있다.

除其山腰以下馬場所設處，則長廣不滿數百里。而公私所捉，一年竝計，當至數千，終無稀貴之時，變化之說，理固然矣。而無虎·豹·熊·羆·豺·狼·狐·兔之屬。

誌草

草多荒茅，長或過仞。菜多薇·蕨，櫛立如束。蒿·苜·蔓菁·囊荷之類，冬夏長青。且多香蔬，而無細莎。

誌木

無灰木[出牛島及火脫等處，在海柔脆，出水堅硬。]·山柚子·二年木·櫨木[有腦香氣，似是龍腦木，而不知採之之法。本草曰，泄氣則無液，此或斧斤所侵而未成耶?]·蔓香木·浮香木·青楊木[樹如楊，葉如真松而細嫩。]·金桐木[葉如樗皮有刺。可作琴。]·黏木[皮如厚朴，擣爲末。水洗去滓，取汁着物，則烏鼠虫蛇之類，黏合如膠，不能搖動。]·無患子·冬春栢·側栢·樗木·桑木·漆木，及名不知，四時青者甚多，而無槐·桐·垂楊，但二衙有一柳[漂海漢人曰，西域柳。]，垂絲數丈，末稍有白花如蓼。

誌果

嘉靖丙戌，牧使李壽童設園於五防護所，栽植柑橘，以所在軍士，兼爲典守，其後漸爲加設。曰東·曰西·曰南·曰北[在東軒傍，構橘林堂。]·曰中·曰別·曰新·曰延老·曰小林·曰新村·曰朝天館·曰咸德·曰古磯池·曰先訖·曰北浦·曰金寧·曰青洞磊·曰猫伊·曰老兄·曰德泉·曰海安·曰龍佐洞·曰牛羅屎·曰光令·曰夫面·曰月溪·曰板旨·曰文中·曰龍先達里者，濟州也。曰邑內曰羔屯[卽監司高得宗遺址也。斷礎頽垣，宛然如昨。橘柚成林，梅植屈曲。南槎錄曰，洞庭有橘而無梅，西湖有梅而無橘，今者，西湖洞庭，俱在眼前。]曰法華·曰洞水·曰暗林·曰丫岳，大靜也。曰亭子·曰獨鶴·曰城山[勝景見上。]·曰牛陳田·曰禁勿·曰上牛屯·曰元通者，旌義也。凡四十二處，直軍八百八十餘名，晝夜守直，民不堪苦。若以風致言之，秋冬葉落之時，獨果園粧春，綠陰蔽天。黃團暎日，樹樹玲瓏，葉葉燦爛。或如鵝卵，或如鷄卵。間以梅花，雜以梔子。觴詠其下，不覺冬威之按節。各處果園，大抵如此，而濟州之北園，旌義之城山，大靜之羔屯，最爲絕勝。

壬午年，唐金橘[大如鷄卵，九月最先熟。濟州之北果園，只有二株，每年所結，多不至數十箇，輒以金橘代封矣。壬午年，封進一千一百餘箇，前古所無云。]·金橘[大如唐金橘，其熟差晚。味亦少酸。時存一百六十五株，結實一萬八百三十三箇。]·洞庭橘[比金橘差小，酸味稍勝。至十月而熟。時存二十八株，結實三千三百六十四箇。]·乳柑[樹如柚子，差小而皮薄且滑。體如金橘，味甚甘微酸，十月而熟。時存四十五株，結實四千七百八十五箇。]·柑子[葉最厚而實皮微香。時存一百二十株，結實四萬八千九百四十七箇。]·青橘[皮類唐柚而小。此爲青皮，秋冬極酸，不可食。二三月，酸味稍減。五六月舊實爛黃，新實青嫩。同在一枚，所見奇絕。味極甘，如以蜜和醋。至七月，實中之核，皆化爲水，至八九月還青核更成，味還酸，與新無異。時存二百五十五株，結實七萬四百三十八箇。]·山橘[此爲陳皮。實小子如柚，而味甘酸，十一月而熟。時存二千二百五十二株，結實十八萬五千四百五十五箇。]·石金橘[大如鳩卵，味極甘無酸。十一月熟。時存五株，結實一千二十一箇。此則不爲封進。]·橙子橘[杜詩所謂，霜橙壓香橘者，此也。體小味酸。時存十五株，結實四千三百六十九箇。此亦不爲封進。]·唐柚子[樹如柚，實大如木瓜，可容一升。香不及柚子而極多水，甚爽快。巨實懸垂，黃爛可珍。菓譜所謂荔子橘疑是也。時存一百七十三株，結實九千五百三十三箇。]·柚子[枝葉多刺，而實皮最香，比全羅沿海所在尤大。時存三千六百二十株，結實二萬二千四十一箇。]

大抵此類花皆白，樹高不過三丈。大⁵⁰⁾或如柱，枝幹亦大。喜叢生，或至數十株相連。皮甚薄，古者黃紫苔剝，新者青駁。但不可爲接，必皆叢生，而亦或爲枳。此外私柑橘，亦定直軍看養，至秋計數，熟後摘入。每一箇柑子·乳柑分田米一合，金橘·洞庭橘·青橘·山橘以下，每二箇一合。元無⁵¹⁾題給。

榧子·石榴·赤栗[如橡實而味甘。焦可以療飢。]·可是栗[似栗而味焦。]·菩提實[有兩種，一大如蓮子，秋結實，經冬至春而熟。俗傳治泄痢。]·瀛洲實[生漢拏山上，實如奈，色黑而甘。]·塵角實[即陸地謂鹿貫子。陸產則實青，而不食，此則色丹而甘滑。]·燕覆子[風土錄，實大如木瓜，皮丹黑，剖之則子如林下夫人，而異子差大味差濃。蓋林下夫人之種而差大。聞海南等邊海處或有之，州記曰，海南等地果有之。問於解醫者，則採

50) 大: 문중본에는 ‘大’ 뒤에 ‘者’가 있다.

51) 無: 문중본에는 ‘會’로 되어 있다.

其藤，代木通用之，功效倍勝。又本草云，子如算囊，俗所謂燕覆子，形彎曲而外面坼裂，不如算囊，而意此真燕覆子云。今觀其形，皮不坼，則與林下夫人不同。燕覆子真偽亦未可知，而味極甘滑清爽，似是下痰之藥也。其他櫻桃·僧桃·菱仁·芡仁·李奈·林禽·銀杏及杏等物與陸地一樣而梨·棗·柿·栗甚稀而全惡海松子·木瓜之屬元無。

誌馬牛

三邑牧場六十三內，濟州第一所天·地·玄·黃·宇·宙·出字及別牧場天·地二字，屬於別防所。第二所洪·荒·月·盈四字，屬於朝天所。日·昃二字屬於禾北所。結字及第三所辰·宿·致·雨·露字及大三所爲·麗字，屬於涯月所。第四所張·寒·來·暑及大一所往·秋·收·冬·藏·閏·霜·金·生字，屬於明月所。大靜玄·黃·宇字，屬於摹瑟所。列字·別玄字，屬於遮歸所。旌義第一所李·奈·芥·薑·海·河·淡，第二所鱗·潛·羽·翔，第三所龍·師·火字，屬於首山所。菜·重·鹹字，屬於西歸⁵²⁾。山屯屬於監牧官，牛島屬於別防所。又有黑牛場。壬午年籍付七千六百九十九匹內，山屯二千三百七十五匹。生產一千六百七十四匹，物故五百二十二匹。

蓋其土風最於牧馬。公私屯馬，各自爲群，不逃不雜。自成部落，如有統領，互相追逐。此既自放自牧者，便是山獸，而無一踉齧。出陸家養之後，始有傷人之意。蓋苦維繫而然也。才品則走步頗多，而體大駿骨絕無所見。第於巡點之時，山馬性惡，以四五丈大木結爲環場，五千軍卒圍，而驅之其中。數匹尤極傑驚，潰其五千之圍，超其五丈之柵。累巡驅入，終不得點烙。俗以爲馬王也，龍種飛馬之諺，其或仍此而發歟。然法久弊生，馬政極濶。

余之狀啓略曰，島中之事莫大於馬政，民力之困，亦莫甚於馬政。急之則害於民，緩之則損於公。自古治島之難於得中者此也。而臣意，則文弊而尚質，事窮則必變。貴人賤畜，雖爲王政所先，天廐路仗，專以此島爲重。參酌公私利害，則其勢不得不扶公。而牧場凡事，百孔千瘡，元數大縮，徒擁虛簿。與朝家所重，不啻相反，而細觀弊癘，則皆由於不遵事目而然也。先王制法，至詳且密，若不撓改，何弊敢乘。而闔境吏民，皆欲利己，則喜譽惡謗，乃人之情。法安得不變，馬安得不病乎。國屯半入於私場，公馬

52) 西歸: 문중본에는 '屬於西歸所'로 되어 있다. 내용상 '屬於西歸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甚至於濫騎。而官次有同逆旅，王法反爲籓籬，悠泛玩揭⁵³⁾，今至於莫可變通之境。耳聞目見，不覺寒心。小小弊癘，雖不敢上煩天聽，撮其大者，啓聞後錄。此皆不悅於民者，揆以損上益下之義，則臣罪亦大。而不一變通，終至於貢馬闕封，而後已。不得不冒昧煩稟。今不必創立新規，申飭舊法，而足矣。令廟堂從長稟處何如？仍請五條立法，上允之。

巡歷後，狀啓略曰，馬政寒心之由，曾已累度啓達。及今點烙之時，親爲看審，則八千餘匹馬群中，雖或有才品頗好者，體大駿骨絕無所見，此甚可慮。二十年馬籍詳細相考，則一年內，故失或出於一千七百匹之外，生產或入於六百六十匹之內，馬政之虛疎，推此可知。每一搜覽，不覺寒心。今年各屯，合以計之，則生產比前稍加，故失比前稍減。上年則三邑守令與牧使，相繼遞代，雖不可爲準，姑以庚辰比較，則庚辰生產一千八匹，今年生產一千六百七十八匹。庚辰故斃一千一百一十一匹，今年故斃五百二十四匹。庚辰闕失三百八十二匹，今年闕失六十七匹。今夏封進馬四百三十四匹，今年生產比庚辰所加者，六百七十四匹。故斃比庚辰所減者，五百八十七匹。闕失比庚辰所減者，三百十五匹，生產之加，故斃闕失之減，及今年封進之數，合以計之，則今年馬匹之，比庚辰所加者，二千六匹。此雖由於頃日覆啓中五條立法之致，莫非三邑及山馬監牧官申飭馬政之致。行之不久，已有實效，誠爲多幸，云云。

黑牛三場時存六百二十頭，每年封進二十頭。大抵島多黑牛，間或有駁色而黃牛絕乏。私屯牛馬，或至四五百頭，而馬之純色及表赤多·仇郎·紫騮者·佛驄加羅·驄仇郎·榆驄·烟雪阿加里·溫清加羅·白松骨，可合封進之類，竝與雌馬，而不許出陸，亦其禁制然也。

誌魚

海底皆石，且無潮汐之浦。漁場魚網俱無所施。只以所釣言之，鮫魚[俗名沙魚，大者十餘丈。而吞釣者，非索絕，則船覆。所捉者，厖一丈。]·鱷魚[明月等處多有之，或爲害人。]·鯨魚[海族中，此物甚巨大，或至數千里，非特吞舟而已。南蠻諸國，皆弩射云。而我國則不然。東北兩界，時有斃掛者，此島亦然。當余之在任時，果有斃鯨漂掛浦邊。

53) 揭: 게(揭)의 잘못이다. 완게(玩揭)라는 말은 완세게일(玩歲愒日)의 축약으로 한가하게 헛되이 세월만 보낸다는 의미이다.

身親見之，長一百二十五尺，廣十尺，高三十二尺，自腰至腹，簾肉層纏，軟顛浮搖，有如張幕，岐口至頂。其孔如斗，此爲噴水所射也。首類鸛尾類魚，矐目尖鼻，便是魚也。左右有膀，卽俗所謂振禦。長可二丈，廣可一丈。其所謂鬚者，自鼻至頂，兩行簇立，摠二百四十餘介。而次次漸高，高者二尺，低者一尺，廣皆八九寸。植植相連，有如鉅板之未分。但其末細散，視若馬鬃。古語曰，掀天髻鬣者此也。脊骨可鑿爲白，肋骨可架爲橋。頭有弩鐵數百云，是倭人所射也。腰脊間間肉破云，是衆魚所噬也。其大至此，故莫禁群小之侵，與弱肉強食者，可謂相反也。脂油亦至八十石。所見極壯，而皆曰，此爲今年生，可想其大者之尤大也。·文魚[特絡蹄之大者，而味甚不佳]·望魚[狀如鱸魚，胎化而不卵育]·刀魚·古刀魚·行魚·生魚·玉頭魚·飛魚[詳地]·銀口魚·秀魚[旌義只有所捉處，而多膏少味]·烏賊魚[比陸邑甚巨]·魴魚·鰻[甚大且多]海參·紅蛤·蟻珠·玳瑁[或生擒，或得殼]·貝子·鸚鵡螺[出牛島]·懈[大靜有所產，而味甚惡]·白蛤[出旌義]·牡蠣[產大靜，而體甚大，可灸不可醢]·海獺[出大小火脫]·水獺[牛島等處，或有之]·可之[產牛島，形如獺，皮如水牛]·藿[沿海近處蘿生，石上此爲至賤]·青角·黃角·牛毛 此外諸族 非釣所得 有無莫知[澤無鯉蠡鮎鱧，且有龜而無鼈，山無蜂蜜雀瓮]。

誌藥

鹿茸·松寄生·桑寄生·香蕈[俗名藁古]·陳皮[山橘之皮]·青皮[青橘之皮]·梔子·茴香·八角香·零陵香·安息香[黃漆木汁]·枳殼·枳實·厚朴·苦棟⁵⁴⁾根·海桐皮·葶澄茄·石斛·無患子·蜀椒·杜冲·天門冬·麥門冬·香附子·蔓荊子·半夏·石鍾乳·白蠟·石決明·五味子[體如山葡萄，色赤黑。少酸多甘。余之狀啓略曰，本島五味子，世稱絕味，雖以本草及先輩所論觀之。本草曰，產朝鮮者良又云，味甘者爲上。先正臣金淨濟州風土錄曰，我國產者，實紫少味多酸，猶見重於本草。此土產者，必高於天下無疑矣。非但古人所論如此，體大味甘，又非陸產之比也。本州藥材中，半夏·香附子之屬，物產中，早藿藿耳之類，皆在貢案。况此佳品，又合御供者，而反爲落漏。本島民力雖難於進上輸納，此是天下所無之物，則揆以分義，不當掩置。五味子五斗，今番歲抄，進上時，一體監

54)棟:棟의 오기이다.

封，上送于廚院，明年爲始，仍爲貢獻何如？] 此外雖有若干常材，參⁵⁵⁾尤絕無，桔梗沙參⁵⁶⁾之屬，甚麤細，不堪入藥。藪間奇花異草，必有延年益壽之藥，而無有知者。秦漢時所謂不老長生之名，其或指此歟。

誌貢

余之狀啓略曰，本島處於窮海之外，區域自別，風土頓殊，人民習俗，齟齬可羞。特以王靈外暢，文物漸染。版圖內附，苞茅歲貢。而幅員至少，生齒不繁，田結陳起，竝不滿於三千二百。戶口三邑竝，莖至於九千二百。比之畿甸，不免爲中邑，上納元數，視統營不啻百倍。以畿邑至殘之力，當統營百倍之役，則民生困瘁，不言可想。若以物種言之，則一年內，貢馬四五百匹，各鯁九千餘貼，烏賊魚七百餘貼，酸果三萬八千餘箇，馬鞍四五十部，鹿皮五六十令，獐皮五十令，鹿舌五六十箇，鹿尾五六十箇，鹿脯二百餘條，各種藥材四百七十餘斤，馬衣諸緣六百八十餘部。其他藁古·榧子·白蠟·山柚子·二年木·弓帛·筒箇·螺鈿·鮑甲·驄結·涼臺帽子，及梳省·衫帳，小小雜物，皆係貢獻。何敢一毫言勞？而九千之戶三千之結，酬應此役，則島民弱力，此亦難支。又況營本官九鎮堡，凡百支供，與六十三牧場，四十二果園，六十三烽臺束伍三千七百餘名，牙兵九百九十餘名，牧子一千二百餘名，果園直八百八十餘名，船格三百餘名，烽軍四百九十餘名，差備軍一百餘名，城丁軍二千八百餘名，隨率軍四百八十餘名，留直軍五百餘名，旗幟軍二百餘名，都合爲一萬一千六百餘名。及紙匠·騎步兵·官吏·鎮撫·吹手·羅將·軍牢·官奴，百工之役，皆自此中責出，一人常兼十役。男女各有身貢，毋論文武出身，皆以人口抄出，每名五升，逐年督捧，生髮未燥，輒有所役。此實八路各官，所無之規也。田土若不瘠薄，魚鹽或有所賴，則皆是職分，何必厚慮？而石角耕穫，有同兒戲，鹽盆魚網，初不知法，官有百出之役，民無數日之暇。若是而能有生道者，未之有也。前後守臣，豈不欲啓稟變通？而三邑守令，俱非朝廷嚮用之窠也。每以如臣魯劣，苟充差遣，蹤跡冷落，言語蹇澁，有意未吐，苟延瓜期。間或有一二狀聞，則廟堂覆啓時，或謂猥越，或云荒雜，每每防啓，以致所請未獲貽笑不貲。雖至愚之人，莫不自愛其身，孰肯爲其民，而害其己乎？螻蟻微臣，亦忝重寄，其所臚列，寧

55) 參: 문중본에는 '蓼'로 되어 있다. 내용상 '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56) 沙參: 내용상 '沙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有一取？而赴任又在於夏節極農之後，封域之內，足跡未及。耳聞不如目見，做時難於說時。極知僭瑣無所逃罪，而國事終不可不顧也，民瘼終不可不恤也。採訪物情，參考騰錄，若干條件，啓聞後錄[七條見上淫祀]。朝廷不知臣之不肖，既畀此任，則所陳邊情，不可不察。且臣於待罪楊州時，忽蒙晝停引見，妄陳曠世別恩。聖明不以煩猥爲罪，特減萬餘石還穀，八十同身布。又令永減大同戶給斗米。耆舊童穉，迄今感祝，至欲勒石而記事。況此海外窮民與內服不同，其所懷綏理，宜自別。今臣所稟，雖涉荒蕪，一言半辭，焉可誣也？特霽格外之恩，以結島民之心，則荒服願戴，不獨專美於前代。令廟堂援例稟處從長指揮何如？後錄七條，上皆允之。男女老少，舉皆鼓舞。撤罷淫祀，蓋出於此。

誌賦役

稅法無正，當初經界，已非打量，卽今年分，又近貂道。除其陳災，隨結收捧。每負米太，則一升五合，山米田米，則七合五夕。此則田賦也。所謂大同，勿論上下，抄出男丁，每口田米五升。此外無他結役。蓂古·白蠟收於軍兵，藿·鮑·魚·蟹捧於鮑漢，凡諸力役，及柴·草·雉·鷄等物，皆責烟戶。

誌祠

三姓祠[壬午年創建，祀三姓始祖]·社稷壇·風雲雷雨壇[俱在南三里]·城隍祠[祀漢紀信者也。在州南十六里，漢拏山下]·厲壇[在州西二里]·蠱祠[在南果園]·醮祠[在小林果園]·橘林書院[祀金冲菴，在文廟南]。

○兩縣各有社稷·城隍·厲壇，在所當敬。而淫祠之廣壤堂·遮歸祠·川外祠·新春祠，及各面各官所在者，凡一百二十九處。俱有棟宇，瀆誣甚久。今皆燒燼，無一餘存[詳見淫祠]。

余之狀啓略曰，國之大事，在祀與戎。禮之品節，惟祭最重。而本島祭禮，訛舛甚多。節目間事，自有典禮，雖不敢上陳，不可不稟定者，啓聞後錄，令該曹考禮，稟處何如？後錄曰，風雲雷雨，載在中祀。雖以祝文言之，御諱稱臣，體禮截然，各道州縣所不敢行祭。若以位次言之，則風雲雷雨居中，山川居左，城隍居右。而本州舊例，每於春秋，

社稷祭日，別設一壇於社稷壇下，以祭風雲雷雨。又作位板，奉安於社稷位板之室。想必承襲耽羅之舊例。然版籍內附州牧，設官之後，則所當啓稟變通，而何至今因循。臣於社稷入齋之日，始聞有此例，既不敢因仍行禮。又不敢無端撤罷，分付本官，依臚錄，儒生攝行，緣由稟啓。泰山不享季氏之旅，況是州縣之官，分所不敢，告由撤罷，埋其位板，似或得宜。若以猝然撤罷爲難，則必有下送香祝，然後守臣似當攝行。典禮則竝祭於山川成隍之壇爲可，而此則別祭於社稷下壇，似無意義，考禮稟處何如？老人星及馬祖祭之載於小祀者，禮法本意，至深且密。所謂馬祖者，概指房星所屬，天駟之神也。本州既以房星分野，作爲牧場。老人星獨現於中土衡嶽及本州漢拏山，東史及儒賢文集，照然載錄。果是分野及所照之域，則歲降香祝，依禮設行，似得祀典本意。考禮稟處何如？嶽·海·瀆之載於祈告祭典，名山大川之載於小祀者，亦有禮義。而漢拏山及大海，自是著稱於中土者，一依州縣名山大川之例，降香祝行祀，似合事宜。考禮稟處何如？歷代始祖之祭，出於聖廟寬大之典。故金海等地，亦有之。本島三姓穴因其島俗質沒，古無祀典，近年以來，設壇行禮矣。卽今島民合力立廟，以高乙那·良乙那·夫乙那爲主壁，以高厚·高清及季爲配享，以爲春秋享祀之計。島中人民無非三姓子孫，島民之立廟，情禮卽然。而彼皆享國之人，揆以邦憲，不當埋沒。且高厚·高清及其季，始朝新羅，仍爲內附於版籍，當時褒以星主·王子之號，到今不怠貢茅粟米之職。其在報功慰悅之道，又不當任作私廟。及其奉安位板之後，更爲啓聞，以爲稟旨賜額之地何如？

禮曹覆啓內，取考五禮儀，州縣只祭社稷·文宣王·醮祭·厲祭·禋祭，則州縣之不敢行祭於風雲雷雨。實如狀啓所陳。本州之獨有此祀典，必襲耽羅之舊例者，亦如狀啓所陳。則本州雖以海外別域，有異陸邑。且其祀典之流來，亦已久遠，而既非典禮所載。守臣有此狀聞之後，則又令因循不罷，事極未安。似當有撤罷之舉。風雲雷雨之祭，今若撤罷，則其位次及社稷祭日別爲設壇當否，亦非可論。岳·海·瀆及名山大川之載於小祀，亦如狀啓所陳。則本州漢拏山及大海，依名山大川之例，竝行祀典亦似合宜。而漢拏山之行祀，亦係創始，則俱難輕議。本州三姓穴，島民等立廟，以三乙那爲主享，以高厚等爲配，以爲享祀之計。彼皆享國之人，不當埋沒云者，既不無所據。高厚等內附之功，宜爲配食，亦如狀啓所陳。而三乙那雖是本島人物之肇始，其與高句麗百濟新羅等三國有異。而仍其後裔之私立廟宇，自朝家因以宣額，揆以事體，亦未知其恰

當。自本州參酌定式，助其祭需，似爲得體，以此分付何如？

余又再啓曰，當初啓稟時，猝聞有此例，敢陳未安之由矣。其後詳查，則非但本州爲然。旌義大靜，亦皆如此，城隍位板奉安於官廳，厲祭時行禮於北郊。此外又造城隍位板，別藏於社壇，與山川位板，竝祭於風雲雷雨。城隍位板既在於官廳，則又造位板，極涉無識。山川位板，亦是他道州縣所無，而獨本州爲其風雲雷雨之祭，別造山川位板，疊造城隍位板，揆以禮法萬分未安。今若撤罷，則別造之山川位板，疊造之城隍位板，竝與風雲雷雨位板，而埋安撤罷乎？緣其分義之不敢。雖爲埋安，若無告由之祭，則亦甚未安。而覆啓內，不爲舉論此一款。令該曹更爲稟處何如？考見五禮儀，則州縣社稷，只祭正位而無配。本州則正位之外，又造配位位板，元無行祭之時。只於祈雨祭時，竝祭於正位，既是禮法所無。則何造其位板，既造位板，則又何不行祭乎？島中凡事，雖皆如此，莫重祭禮，不可襲謬，敢此煩稟。配位位板，亦依風雲雷雨之例，告由埋安乎？竝令該曹稟處何如？名山大川之載於小祀，既是典禮。故如雉岳紺岳之小小山岳，亦載於祀典，漢拏山以海外名山，著稱於中土，其所表表，非如雉岳紺岳之類。則揆以禮法，不當屈此伸彼。本州以海外別域，既不得聯絡內地，而凡所施設自專。爲一方之中，有此中土見稱之名山，則當初落漏於祀典，必有曲折。若以常情論之，則聖朝典禮，專用五禮儀。而五禮儀纂成在於成化年間。其時本州乍順乍逆，不可謂之內服也。其或因此，而不及於祀典耶？及今內附之後，以如此名山，終不行祭，則以法以禮，似涉未安。若謂之事係創始，而該曹不得擅便。則雖爲議大臣定奪，係關祀典，不容少忽，令該曹博考典禮更爲稟處何如？未及見覆啓而歸，採施與否，姑未有聞。而厲壇位板十八位，以小小松木倉卒斲削，不中程式，以栗木依禮改造。

誌關防

四圍劔石束立，浦邊無可泊舟。自古倭船之侵掠，無一得利者此也。中古禾北·朝天·魚登·涯月·明月等浦，各有戰艦，以其多礁難用，今皆毀破。只於九鎮，團作陸軍。烽火二舉，則束伍軍兵，各其信地聚待。三舉則守堞軍登城。四舉粧藥，五舉接戰者，自是約條。雖值荒唐船漂到，未及問情之前，舉皆如此。或欲練習，夜半吹角於將臺，則州城中男女老少，執器登城。莫敢少緩，可見其防禦之密也。

誌烽

環四面，烽燧烟臺，凡六十三處。各置別將望漢烽軍，晝夜守番，東西相准，以達於營門。常時一舉，荒唐船現形二舉。近境三舉。犯境四舉。接戰五舉。夜炬晝烟，不敢差謬。若值雲暗，口傳相報。右⁵⁷⁾有一烽於漢挈山腰，及海南之白梁，以通緩急矣。海霧常羃，今皆撤罷。

誌倉

州倉各穀三萬四十四石。東倉二千八百六十九石，西倉三千三百十石。旌義四千二百五十六石，大靜一千九百五十七石。營穀三邑竝計一萬一千七百餘石。穀多民少，糶糴實難地，霧長鎖腐朽最易。

誌廡

瀛洲館[三十五間，在北城內，即客舍也。]·觀德亭[十八間，在弘化閣南，左衛廊四十八間，譯生·毛匠·床匠·羅將·藥房·羶匠·吹手·旗手·放炮手·箭匠·弓匠，所處也。右衛廊五十六間，歇廳·營吏廳·贊籌軒·洗兵軒·旗牌·牙兵·定甲·知印·假率·醫局·武學·軍器·馬廄，所處也。宏偉壯麗，可亞於統營之洗兵館，常爲武藝試才所。]·上衙[三十七間]·延曦閣[即東軒，在弘化閣北，凡十四間。]·望京樓[在東軒傍，凡十七間，北望滄海，極目浩渺。]·鍾樓[三間，即東軒外大門。]·橘林堂[五間，在東軒東，窓壓北果園，滿目柑橘。]·愛梅軒[八間]·友蓮堂[十間，有蓮池。]·弘化閣[九間，在上衙南。]·軍官廳[三十一間]·公須[十八間]·營廳[三十間]·軍牢廳[四間]·馬房[六間]·別廳[三間]·軍器[十四間]·藏春院[四間]·紫電庫·清霜庫[四間，在運籌堂西偏。]·火藥庫[四間，在運籌堂西偏。]·戶籍庫[在鍾樓西]·鎮撫廳[七間]·教坊·將官廳[八間]·三學廳[十二間]·鄉廳[十二間]·州司[三間]·營繕·冊板庫·旗幟庫·司倉[六十間]·軍餉庫[十七間]·二衙[四十七間，在南城。]·察眉軒[即二衙外東軒]·生白軒[內東軒]·運籌堂[九間，在城內東南角。]·牧軍官廳[八間]·牧假率廳[三間]·牧公須[十間]·牧作廳[七間]·官奴房[十二間]·刑獄[二十一間]·鄉校[七十一間]·明倫堂[十二間]·東西齋[二十間]·講堂[七間，即教授所處。]·書院

57) 右: 문중본에는 ‘古’로 되어 있다. 내용상 ‘古’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六間]·博審堂[七間]·藏修堂[九間]·爨室[五間, 在南果園.]·三姓廟[二十五間, 在南城內.]·濟衆樓[六間, 卽東城門.]·定遠樓[六間, 卽南城門.]·白虎樓[六間, 卽西城門.]·拱辰樓[卽虹門北水口]·南水口[虹門俯瞰絕壁, 奇古可翫.]·擊臺[二十八所, 各一間.]·演武亭[十間, 在南城外一里, 常時閱武之場.]。兩縣九鎮, 皆有客館, 而卑陋湫隘, 不堪休息。

誌兵

助防將九人·千總三人·把總六人·哨官三十人·馬隊別將一人·哨官五人·牙兵哨官四人·城將四人·大靜城將四人·旌義城將二人·教鍊官十二人·旗牌官九十四人·出身三十四人·軍官三百五十六人·影職一百十二人·訓導十七人·武學一百七十四人·定虜衛一百二十六人·旅帥六人·甲士九十五人·騎兵七百九十一名·步兵一千九十名·隊正五十一名·旗手八十四名·羅將六十一名·吹手一百三名·軍牢一百二十七名·更漏直六名, 各軍總數, 已見貢誌, 此不更論。

余之狀啓略曰, 各軍門將校之久勤遷轉, 非特激勸而已。積仕之中, 間或有可惜之才故也。本島邈在於海外絕域, 東隣日本, 南接琉球·安南, 西通燕·齊·吳·越。往來布帛, 漂到甚數, 實是我國之藩屏。而孤寄無援, 非如東萊·義州之聯絡內地也。晝夜守直, 殆甚於京司立番。其所勤勞, 實爲殘忍, 數十年積仕, 終未得一命, 大小人民, 舉皆解體。衣服之地, 文物索然, 時有文武出身, 皆未得官爵而死。故島中風習, 不貴京職, 未免爲蠹蠹之歸。九鎮堡助防將及東伍牙兵將官, 一依楊·廣州水原之例, 久勤遷轉, 使海外賈沒之地, 得爲衣冠之鄉何如? 上允之。

誌工

工房各工, 四百四十八名, 軍器匠人, 三百二十五名。三邑各有, 數百餘名, 分六番。晝夜聚待, 而技藝皆極工巧。

誌奴婢

官奴[時存一百一十一名。樂工七名, 營及唱二十六名, 牧及唱二十一名.]·官婢[時存

八十三名, 妓生六十六名.]·內需司[奴婢, 時存四百二十七口.]·各司[奴婢, 時存二萬三千九百四十八口.]·大君房[奴婢, 時存二十六口.]·鄉校[奴婢, 時存二十一口.]·書院[奴婢, 時存七口.] 此外陸居奴婢, 自都會收貢入送。

誌吏

吏七百三十人·小童一百八十六人·鎮撫一百十九人·醫生六十二人·律生三十二人·漢譯生五十六人·倭譯生三十三人。分六番, 每朔五日立役。而吏·戶·禮·兵·刑·工·都訓導·營廳戶房·馬兵房·船色·軍餉色·軍器色·通引。各一人給代長番。

誌行

孝子 金秤[其母居金寧村, 秤以記官在官門, 聞母患腫氣絕, 卽脫鞋笠疾走。一日再割其脛肉, 取血和酒, 以進母復甦。終養二十餘年。成化丁未事聞旌閭.]·秦大石[步兵也, 早喪父奉母, 母有脚病, 坐立須人。大石入番則負來城中, 乞米供養。退番則負行諸處, 必備所食。育妻子, 則恐養母不專, 不娶獨居, 手執炊爨。崇禎七年旌門.]·烈女 天德[早喪其夫, 哀誠兩盡, 朝夕上食。三年後, 設朔望奠, 人多悅色貪財。或呈于官, 以杖劫之, 或說其父, 以利誘之。而以死自誓, 至於斷髮結咽, 幾死復甦, 終身守節。萬曆五年旌門.]·國只[私婢也, 品官洪質之妾。青年喪夫。人貪財色, 以豪勢劫之者多。國只棄其產業, 移居夫黨之家, 終身守節。崇禎七年旌門.]·高麗 鄭氏[旌義人, 職員石那里浦介之妻。夫死於哈赤之亂, 安撫史軍官強欲娶之。引刀自刎, 以死自誓。事聞旌閭.]

誌古

三姓穴[在州南三里。卽古毛興穴。高麗史·古記云 厥初無人物, 三神人從地湧出。今鎮山北麓有穴曰毛興, 是其地也。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三人遊獵荒僻, 皮衣肉食。一日見紫泥封木函, 浮至東海濱。就而開之, 內有石函, 有一紅帶紫衣使者。隨來開函, 有青衣處女三, 及諸駒犢五穀種。乃曰, 我是日本國使也, 吾王生此三女云, 西海中岳, 降神子三人, 將欲開國, 而無配匹, 於是命臣, 侍三女而來。宜

作配，以成大業。使者忽乘雲而去。三人以歲次分娶之，就泉甘土肥處，射矢卜地。良乙那所居曰第一徒，高乙那所居曰第二徒，夫乙那所居曰第三徒。始播五穀，且牧駒犢，日就富庶。嘉靖年間，牧使李壽童築石牆周二百八十餘尺，立紅門於穴北。三姓子孫，春秋致祀，今則三穴皆塞，荊棘蕪沒。但見三石鼎立，其下微陷而已。廣壤神祠在其東，徒爲巫覡輩簫鼓之場。余惟，開闢之初，陰陽綜錯，及至寅會，一萬年綱緼，交感而後，始克生物。所以有空桑巨跡之諺也。然所謂氣化者，亦有所據，不過曰乾道坤道而已。夫豈有石穴生人之理乎？孔子刪詩書，斷自唐虞，蓋以已會以前，世道鴻荒，荒史所錄，不可盡信也。自是以來，史正言的，中國載籍，已無可怪。今此三神，果出九韓之時，則上至神市檀君，幾至數千餘年距，箕子亦過千歲。顧安有反理之事乎？且宋史，有船漂到崑山縣，有一文書，乃唐朝誥勅毛羅島云。自有人物，至於唐時，盛衰累換，東方易世，亦至數四，此時氣數，已薄矣。人物之始生於本島者，果近於理乎？東史詭誕，已不足徵，況是未有文字之前，過千年，緲茫之說，孰見而孰傳乎？想厥島象，必有君長，分部按治。如鷄林之六村者，理勢然矣。三姓相傳之說，轉入怪奇，以訛傳訛神，而異之。誇張於通陸之時，高麗古記之隨聞隨錄者，亦不足深責也。每逢父老，以理諭之曰，數寸之穴，寧可生人？既云地湧，則何分兄弟？既爲兄弟，則何謂三姓？石函三姝，若自日本，則日本亦人也，望氣而送，乘雲而去者，是又何樣事理乎？或曰漢挈山神之弟，又曰過千年長生，筆之於書，懸之於板。反常逆理，自辱其先。爲其子孫者，不亦羞乎？勿論年代久近，立廟享祀，情禮卽然。而不此之爲，反淫其祠，耳聞目見，可駭可愕云。爾則名爲士子者。初不解惑，及其覺悟之後，奮然齊憤，撤淫祠而立廟，以三乙那爲主壁，高厚等三人爲配享，民俗於是乎始正矣。以此啓聞，則令本州，助其祭需之意，已有上命。故淫祠位田，全數劃給，使爲享祀之資矣。後官以爲無益，勤令毀撤，島民三千餘人，晝夜號哭，厯得不破。而財穀典僕，竝皆屬公，移屬位田。又還淫祠云。]

七星圖 [三姓初出，分占三徒，倣北斗形，築臺分據，名曰七星圖。今其遺址在於州城內]

大村 [合三徒居，爲大村。今亦謂城內曰大村。]

高齡田 [古稱古齡浦。今之城內三姓祠坐地也。諺傳唐船來敗處。今治田者，或得碼瑙等寶物，以爲唐船所遺。今觀漢挈山下，海濱巖石，皆有海水所嚙處，則疑上古盡爲滄

海, 今變爲桑田云.]

三射石 [在州東十一里. 諺傳三姓卜地時, 所射石, 至今射痕猶在.]

健入浦 [在州東北一里. 俗傳高厚等, 朝新羅 還泊族屬會迎于此.]

古土城 [在州西南三十六里. 周十五里, 三別抄所築也. 今皆頽圯.]

古城 [在州城西北有遺址.]

古長城 [沿海環築, 周三百餘里. 高麗元宗時, 三別抄叛據珍島, 王遣侍郎高汝林等, 領兵一千以備之. 因築長城, 今之沿海間間破城, 卽其遺址.]

缸坡城 [在州西二十五里. 城中有泉. 高麗元宗十二年, 遣金方慶, 討三別抄於珍島破之, 金通精率三別抄, 來據貴日村, 築此城以拒之. 方慶等進攻拔之, 令千戶尹年寶華領兵四百及官軍一千人, 留鎮以還.]

涯月木城 [在州西四十里. 卽三別抄所築, 以御官軍處.]

東濟院 [在州東九里. 有遺址, 卽李文京陳兵處.]

達魯花赤府 [高麗忠烈王時, 元塔羅赤放牛馬駝驢羊于首山坪. 仍設達魯花赤府, 今其遺址, 在城北海岸.]

軍民安撫使府 [元罷達魯花赤府, 設軍民安撫使府.]

松淡川 [在州東十三里. 李文京縱兵焚掠, 高汝林等逆戰于此, 不克. 文京盡殺官軍, 據于朝天浦.]

貴日縣 [在州西二十五里.]

高內縣 [在州西三十五里.]

涯月縣 [在州西四十里.]

郭支縣 [在州西四十五里.]

歸德縣 [在州西十五⁵⁸⁾里. 高麗熙宗七年, 陞州之, 石淺村爲歸德縣.]

明月縣 [在州西六十里.]

新村縣 [在州東二十里.]

咸德縣 [在州東三十里.]

金寧縣 [在州東五十里.]

國屯田 [嘉靖辛巳, 牧使李耘, 因軍資不足, 啓請設立. 民不堪命. 嘉靖丙戌, 牧使李

58) 十五: 문중본에는 ‘五十’으로 되어 있다. 내용상 ‘五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壽童, 啓聞革罷.]

高得宗舊居 [在今南城內, 爲果園.]

判書井 [在嘉樂泉東北, 脈出石間, 清冷味甘. 冲菴謫居所鑿.]

古旌義 [在旌義東二十七里, 元牧子哈赤, 殺濟州萬戶于此. 初分三邑時, 置縣于此. 近牛島, 晨昏敲角, 大風累作, 禾稼不登, 倭賊迭侵. 世宗五年, 安撫使鄭幹啓移于晋舍. 卽今治也.]

兔山縣 [在旌義西五十里.]

洪爐縣 [在旌義西六十一里.]

首山坪 [在首山所西南, 高麗忠烈王時, 元塔羅赤等, 來放馬牛駝驢羊此坪.]

瑞山 [見上誌島.]

猊來縣 [大靜東二十五里.]

竹島 [在大靜. 我太宗六年, 倭賊來侵, 自旌義列艦至于此島. 安撫使李元恒判官陳遵擊却之. 其在高麗也, 忠惠王後二年, 寇旌義, 翌年以七百餘艘來侵. 忠定王三年寇貴日, 恭愍王元年寇友浦. 八年侵大村, 辛禡二年大學來侵. 我太宗元年寇郭支, 四年寇高內及明月. 六年寇此島, 八年寇朝貢川. 十八年入牛屯·友浦·遮歸等地. 文宗元年, 又入寇, 安撫使李鳴謙擊之. 前後入寇, 一無得志者, 環島石壁鋪列海中, 眞天作之險, 賊艘所不能泊也.]

光海安置所 [在濟州望京樓之⁵⁹⁾西城內. 老吏所記曰, 丁丑六月初六日, 以廢朝安置事, 中使·別將·內官·都事·大殿別監·內人·書吏·羅將, 押來於等浦入泊. 明日入州圍籬, 內人二竝入. 杜門封鑰後, 都事等五員還京, 東伍留陣軍中三十名輪廻守直. 庚辰⁶⁰⁾六月三十日午後, 內人言內, 光海卽得重病. 七月初一日氣絕, 內人慟哭. 使其內官問于內人, 則氣絕已久, 假作小斂云. 牧使卽傳三邑守令, 聚會十分完議, 初三日, 拔開封門, 改小斂. 執事則使出身·校生等, 庶人例, 初四日入棺. 卽刻還爲杜門. 自得病日, 連三日封啓, 輕快船出送. 同月二十七日, 以護喪事, 禮曹參議·正郎·中使·別監·書吏入來于別刀浦. 翌日直來安置所, 撤圍籬. 銘旌則正郎書之, 俛衾覆棺, 移殯

59) 望京樓之: 박물관본에서만 보이는 내용이다. 문중본[정문연본·문화재청본]에는 보이지 않는다.

60) 庚辰: 1640년으로 노리(老吏)의 기록 오기이다. 광해군은 辛巳(1941년, 인조9년) 7월 1일에 유배지인 제주에서 사망했다.

于觀德亭。大祭則三邑輪廻，時祭則牧官獨當。支供則一邑一員。喪輦所入，分定三邑，差使員旌義縣差定造作。八月初五日下午浦，十六日放船還泊。十八日出去。]

誌名宦

高麗

耽羅令 崔陟卿 [毅宗時，到官興利革弊民，皆安之。其後耽羅苦被侵暴，以叛曰，若得陟卿爲令，當釋兵。王曰，有賢如此，何不用之？召賜綾絹，卽除耽羅令，耽羅人聞其至，輕舟迎之。比入境，皆投戈羅拜曰，公來吾屬生矣，卽安堵。]·安撫使 趙冬曦 [毅宗時，討平土賊良守之亂，持節宣諭。]·判官 金坵 [考滿入拜直翰林院。]·副使 慶世封·金之錫 [高宗朝人，州俗，男年十五以上歲貢豆一斛，衙吏歲貢馬一匹，副使判官分受之。之錫到卽蠲之。政清如水。民稱之曰，前有世封，後有之錫。]·牧使 李伯謙 [忠肅朝，賊魁使用·金成等，嘯聚凶徒，逐星主王子，以叛曰，若得李伯謙來撫，吾豈叛乎？乃遣伯謙，招撫之。]·司錄 田祿生 [忠惠朝，登第。]·都巡問使 尹時遇 [恭愍五年，以贊成事來。]·安撫使 林熙載 [恭愍六年。]·牧使 朴允青 [恭愍十八年。]·安撫使 曹益清·牧使 成俊德 [恭愍時，星主高福壽叛，請隸于元主，以俊德鎮之。]·宣撫使 林樸 [恭愍朝，至州謂其萬戶曰，達達牧子，喜反側，宜盡心撫綏。又謂星主王子曰，君輩服事歷代，歷代待君輩，甚厚矣。宜各一心，勿與牧子扇變。皆俯伏曰，王官皆如林宣撫，我輩何至叛乎？]·萬戶兼牧使 金仲光。

本朝

都安撫使兼判牧事 崔海山·判官兼儒學教授 韓彝·安撫使兼判牧事 吳湜 [啓建兩縣。]·辛淑晴·安撫使兼牧使 奇虔 [性執而廉。謹州產鰻魚一不近口。曰，民害至此，吾忍食諸。]·節制使兼牧使 李由義·文汝良·李約束 [知大體，至今稱之。]·李從允 [政尙清簡，吏愛民悅，考滿請留。卒于官。]·閔暉·金肆·方有寧 [竝以廉簡稱之。]·成秀才 [廉正嚴默，吏不恣奸。]·李壽童 [罷國屯，置果園。]·宋麟壽 [號圭菴，配享冲菴祠。]·沈連源·趙士秀·林享秀·南致勤 [捕倭有功。]·金秀文 [倭賊圍城三日，乃退追擊斬獲，又捕九艘。]·閔應瑞 [清簡。]·判官 趙仁後 [革弊興學，清簡自奉。]·牧使兼節制使 林晋 [清簡善政。]·沈演 [清簡善政，民立鐵碑懷之。]·判官 劉克良·牧使 崔汝霖·金應南 [皆清謹，吏民追思不

已.]·判官 金緻[分六番, 革衆弊. 其法至今行之.]·牧使 閔機[清白]·李元鎮[綜核博古, 多所施設. 又作耽羅誌.]·李繪[清簡善賑.]·崔寬·姜世龜[皆極清簡, 至今稱之曰, 前有崔使, 後有姜使.]

此外可褒可尙者, 不可勝記. 若其貪官虐吏, 言之污口. 壬午年與余同仕者, 判官文科李泰顯·大靜縣監文科崔東濟·旌義縣監文科金益九·武科朴尙夏·教授文科李東植, 金園皓·監牧官賞職金振燦·審藥醫科尹起殷·前銜崔屋漢·譯科吳震昌, 李禧·倭學前銜朴世英, 崔壽宗也. 軍官, 則武科折衝李鼎鎮·李廷楷·武科禦侮李孝一·武科武臣兼宣傳官李亨昌·金羽遷·閑良前行花島鎮別將金振淇·閑良前萬戶柳星瑞·武科判官全爾壕·閑良司果崔尙燿·金萬鍾·崔尙泰·都漢弼·鄭東潤·柳瑾·洪遇聖·洪時範·河益清·武科司果權倬·閑良張壽天·尹虎翼·崔致崙, 乃其前後帶率也.⁶¹⁾

荒服願戴歌

[謹次佔畢齋毛羅歌十四絕, 金冲菴牛島歌, 崔錦南耽羅詩三十五絕. 凡一百五十六韻.]

房星之分國以南 海有名區吾目親 超然空外絕世紛 地無喧囂山多珍
秦皇漢武謾相待 此中焯灼多仙人 蒼茫古蹟紀毛羅 石穴云生三姓人
陶甄造化自有漸 玉女焉能來海濱 耽津星舶理或然 舌及牟羅難重陳
圖傳七星石矢古 處處崩城雲雨涼 撐空挈岳屋蹲鶯 秀色玲瓏金玉堂
長生靈藥此地秘 岐伯軒皇曾未諳 城山瑞山極環奇 瀛室山房西又南
弓磨柱折說荒唐 龍窟且爭眞贗間 砢然兩穴產鍾乳 夾財金寧開大閑
龍湫穿石互有勝 巫峽流沙猶散瑚 天淵深邃正方端 半空飛瀑人間無
山多水痕海有槐 桑田碧海知斯須 靈沼千尺絕巔在 巨擘何年開此山
蛤殼輸山石輸海 貢鳥精衛非一般 西洋雪色白海瞭 北島沙光青鳥還
文島松岳轟轟奇 鰲戴螺鬢今幾霜 南蠻吳越指點間 水天如接波汪洋
吾觀物色足天下 橘柚零陵安息香 鯨鯢鮫鱔摠絲釣 鹿猪雉獐皆打圍
螺玳或自海島拾 珠貝時從蚌蛤披 蠶繭犄角廟享入 渥注龍種天馬疑

61) 문화재청본은 「북설습령(北屑拾零)」이 이어진다. 문화재청본에는 「황복대원가(荒服願戴歌)」 등의 시가 없다. 이하는 박물관본에만 확인된다.

禽無鸛鵲獸無惡 原野山樊多地龍 蜈蚣蛇虺寔繁徒 蝴蝶蚊蠅能耐風
窮冬薰熱或搖扇 盛夏炎蒸疑入筒 山南草木凍不死 潭北冰雪蒸猶多
居民習性亦癡儉 土俗何關文武科 春秋二分老宿現 過百期頤猶健肥
鬻堂子衿禮數閑 童穉亦知官長威 男無家役女卜負 舍傍田畔墻垣高
方音艱澁雜漢倭 惻惻杵聲如細毛 婚非合卺拜不交 婿禮惟知勤酒杯
蠻邦菘蕒大如椽 往往沙邊蘆實來 田頭起墳莽相連 土瘠民貧家業傾⁶²⁾
驅牛以嘯踏田播 藻藿收來杯視溟 寧飈捲石瘴雨頻 白日軒檻生風霆
家無竈埃寢皆地 斗屋何曾寬戶庭 蕭條村落絕偷盜 人不相猜門不扃
巖竇谷邃晝霧昏 鬼火螢燭相青熒 丘陵墳衍各有祠 翠桷朱甍天點星
紗羅綾段色奪鮮 釵纛旗旄光照檣 山壇薦享若不誠 自謂今時風雨冥
田連阡陌勢捲壑 堂積珍寶鸞垂翎 君看遮歸語音訛 馬槎呈怪蛇誇青
燃燈時節最多忌 大唐商舶神鈴屨 家薦野祀日繼夜 半朔浦口行船停
前擁後衛恣行臆 歲儺神遊尤不經 耗財嚇人罔有紀 疾病災厄皆神聽
人惟左道俗惟嘍 大抵蠻風猶未醒 僧尼絕種寺院廢 萬壽海輪香火冷⁶³⁾
沈吟我欲閱古乘 舊跡盡付東流水 東西縣村自何分 十二關防臨海涘
當時大村歷歷尋 三徒形局今三里 分部按治世世承 四極從來元斷鰲
朝宗一葉動天象 星主王子恩渥遭 官聯伯仲季失名 曰厚曰清其姓高
朝東暮西逆順乍 濟不爲池羅亦沼 唐朝誥勅宋史載 古事分明名毛島
爲郡爲縣固不常 恩率佐平知者少 文幸構亂別抄繼 崔托方慶名聲香
元開阿幕爲監牧 摠官花赤驅乘黃 公濟都統互戡亂 萬戶始聞金仲光
俄然牧伯入版圖 是時大明新破峽 恭惟聖朝榻無外 半刺按營恩命疊
高文二姓自削僭 左右知官常例躡 吳公按州兩縣析 是後觀風堪可蹤
貪官污吏口噴血 碩輔良臣肩聳峯 元來民役貴寬免 自古愁怨惟租庸
彈丸一島地且小 陸是磐礁坪是海 魚鹽銅鐵一無賴 海藻山蔬生業在
浮燥土性最水旱 耕穫何望車馬載 網席蓑衣掩體艱 卉服殆同三古初
公私責應獨馬牛 晝夜逢點惟畋漁 人口賦稅古亦無 此身安得安吾廬

62) 土瘠民貧家業傾: 이 구절 위에 ‘冲庵詩往往押頂韻’이라는 주석이 있다.

63) 萬壽海輪香火冷: 이 구절 다음에 ‘冲庵詩風冷非冷’이라는 주석이 있다.

持男易粟舊聞史 賣父鬻妻今有處 天倫至情豈敢殘 死憂生計戈舂黍
搥胸叩地漠無奈 割情忍愛終如許 愁懷惻愴入此髓 恨氣丁寧干彼天
衣裳露脫女體裸 小袴寧分家與船 年年國屯斃畜多 毒遍隣族寒人烟
東村若不雇當身 北隣勢將奴吾弟 朝廷德意豈其然 虐吏端宜擯四裔
高門需索日復日 珠瑁粧匱俱責濟 人人各爲子孫計 越索何啻分千金
王臣分義在職貢 法外讐斂非世琛 我亦嘗膺節制命 一言半辭焉足深
于時霈澤下玉墀 闔島人民家室慶 深仁爰及赤子骨 十行綸綍光晶瑩
歡聲四登感祝繼 虐讐撫后眞響應 窮閭老少不期會 八百吏民來填隍
浦邊北望禮拜勤 靄靄忠精鋒露鉞 然後叩門向余前 僕僕稱頌歌聲揚
曰我君恩至此極 四萬蒼生今可息 公屯死馬減半徵 累千貧卒生意得
西銓又許久勤窠 一軍將校皆有職 浦民九十萬餘鰥 給價自今年又年
螟蛉祝釐過房育 繼後給案王澤宣 官耗減錄稅漸輕 涸轍枯鱗翻吸川
窮民弱力曲曲護 四船移來如父詔 凡今六條尙浹肌 况復倫常光海徼
天門九重邈難攀 所貴君民肝膽照 相殘骨肉豈其情 瘦馬窮途思解鞍
官財贖還曠世罕 積熱今朝身徂寒 島民父子自此定 肅肅恩情鵬路搏
彝倫生理一時新 婦孺亦誇身世好 隆恩加處衆心激 約誓期將環我島
交拜不行禮儀疎 同姓相婚人理倒 男稱拜門女無袴 鶉鷄屢屐羞有歌
淫哇五俗尙襲舊 謝齒機頭誰擲梭 相將王化勛不率 革除吾欲酬恩波
淫祠痼習亦無理 斗覺年來山捲霧 忱誠已堅撤罷議 是概新承殊渥顧
言言當理節節哀 聽此不覺驚心形 三官報牒陸續到 果是純誠非是名
時當臘風列炬猛 百廿神堂燃火明 叢林佛象竝入灰 鬼服神鐵如趨命
家家齊憤恐或後 抱柴焚膏男女競 烟焰籠宙鬱幽散 夏耘除莠秋洗鏡
靈區物色獨太古 巫佛與長知有期 妖唇亂舌亦知愧 數百巫覡爭來馳
頭低手高曰我曹 口無所讀心無知 妻無織布任呼寒 夫不耕田焉食土
飢寒迫膚死不避 力役何暇分晴雨 籲天天高跼地深 泰山黃堂何處虎
人生到此計無售 展轉投巫容貽餉 其始自今願爲氓 此意敢將干我侯
我聞此言惻然感 朝暮呼子均鳴鳩 爲儒爲墨各身謀 何乃金投而石擲
來受去懷理固然 化龍爲子嘗聞昔 羅濟陋習馴至斯 漸積如今非一夕

堪嗟下民亦可哀⁶⁴⁾ 飢將誰食寒誰衣 山林川澤積愁恨 可憐萬象昏陰扉
 驅民納阱又從奪 忍令吾人禽獸歸 觀其政也聽其俗 滌舊從新嘉可取
 焚祠坼廟古或有 禁令皆視人威武 茲州且襪劇南楚 貫瀆奚但迷東魯
 恩頒七條萬姓悟 至化疇班吾聖王 千年薄俗一朝變 服皮今升君子堂
 淳龐民習始歸正 域外文風期帝鄉 從知懷綏在寬仁 薄賦輕徭而後富
 繭絲保障本無二 晉陽蠲減先夫數 承流宣化倘不愆 何事孩童緩就乳
 惟其仁暴歲不同 所以民心殊萬般 祈寒暑雨亦惟曰 壽域何須勞玉丹
 安南日本血相視 撤非⁶⁵⁾ 桑土終濡翰 波寄海外陸無援 形勝真似蛟龍宅
 委寄簡拔視他別 北闕疇醫瞑眩藥 孤危散落牧禦地 愷悌慈詳雄偉托
 廉平簡潔是政本 濟死籌邊均愛君 藩屏若知悍頭義 海可清波民可親
 滔滔前後舌欲短 祗恐元規塵汚人 爲良爲虐摠自我 步趣惟看方寸地
 徵諸簡冊袞鉞嚴 志切經綸須力致 耳剽我欲效倉曹 肉譜期傳人物志

附佔畢齋毛羅歌

[乙酉二月二十八日, 宿稷山之城歡驛. 濟州貢藥人金克修亦來, 因夜話略問風土物產. 遂錄其言, 爲賦毛羅歌十四首.]

郵亭相揖若相親 包重般般藥物珍 衣袖帶腥言語澁 看君真是海中人
 當初鼎立是神人 伉儷來從日出濱 百世婚姻只三姓 遺風見說似朱陳
 星主已亡王子絕 神人祠廟亦荒涼 歲時父老猶追遠 簫鼓爭陳廣壤堂
 水路奚啻數千里 年年來往飽曾諳 雲帆掛脚馳如箭 一夜便風到海南
 漢挈縹緲⁶⁶⁾ 通房駟 雲錦離披水草間 一自胡元監牧後 驩驩歲歲入天閑
 烏梅玳瑁墨珊瑚 附子青皮天下無 物產非惟東府庫 精英盡入活人須
 車螯蛤⁶⁷⁾ 月與蠓山 巨口文鱗又幾般 日暮腥烟羈鄉井 水虞千舶沉鮮還
 萬家橘柚飽秋霜 採着筠籠渡海洋 大官擊向彤墀進 宛宛猶全色味香

64) 堪嗟下民亦可哀: 이 구절 위에 ‘李白詩萬象昏陰扉’라는 주석이 있다.

65) 非: 『詩經』에는 ‘彼’로 되어 있다. 내용상 ‘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66) 緲: 『점필재집(佔畢齋集)』에는 ‘氣’로 되어 있다.

67) 蛤: 『점필재집』에는 ‘海’로 되어 있다. 내용상 ‘海’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使君車騎簇長圍 雉兔麋麇百族披 海島但無熊虎豹 林行露宿不驚疑
庭除草際遇錢龍 祝酒焚香是土風 北人驚怕爭相笑 還怨吳公在竹筒
閭閻子弟游庠序 絃誦而今樂育多 滄海何曾斷地脈 翹材往往捷巍科
頭無岳上靈湫水 旱不能枯雨不肥 霹靂雲嵐生造次 遊人疇敢褻神威
火脫島西水相擊 風雷噴薄怒濤高 萬斛海鱗傾側過 行人性命若鴻毛
候風淹滯朝天謁 妻子相看勸酒杯 日中霖霖霏霏雨 知是鰈魚噴氣來

[按佔畢齋毛羅歌，於本州風土物產之事，詳盡無餘，故謹錄如右，掛諸明倫堂上，以備觀民風者得焉。嘉靖十五年冬，行牧使沈連源謹誌。]

附金冲庵牛島歌

瀛州東頭鰲抃傾 千年閔影涵重溟 群仙上訴攝五精 屬聶一夜轟雷霆
雲開霧廓忽湧出 瑞山新畫飛王庭 溟濤崩洶嚙山腹 豁訝洞天深雲扃
稜層鏤壁錦纈殷 扶桑日照光晶熒 繁珠凝露濺輕濕 壺中瑤碧躔列星
瓊宮淵底不可見 有時隱隱窺窓櫺 軒轅奏樂馮夷舞 玉簫竅篠來青冥
完⁶⁸⁾虹飲海垂長尾 羸鵬戲鶴飄翅翎 曉珠明定塵區黑 燭龍爛燁雙眼青
驂虬踏鯨多娉婷 天吳九首行鈴屨 幽沈水府囚百靈⁶⁹⁾ 大⁷⁰⁾陰之窟玄機停
仇池禹穴傳神跡 惜許絕境訛圖經 蘭撓挈入攬⁷¹⁾神形 鐵笛吹裂老蛟⁷²⁾聽
水湧⁷³⁾雲溟悄愁人 歸來怳兮夢未醒 嗟我只道隔門限 安得列叟乘風冷

附崔錦南耽羅詩三十五絕

渤海之南天接水 鱗潮鼉浪無涯涘 耽羅國在渺茫中 一點彈丸九百里
中有青螺駕六鰲 巨靈擘破勢周遭 撐天圓嶠無頭處 翠壁一里千尺高
誰從壁頂鑿靈沼 嶠蛤幾迴貢貢鳥 折峙山房果若然 奇觀問却知多少

68) 完: 『冲庵集』에는 ‘宛’로 되어 있다. 내용상 ‘宛’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69) 幽沈水府囚百靈: 『冲庵集』에는 이 구절 뒤에 ‘邪鱗頑甲毒風腥’이 있다.

70) 大: 내용상 ‘太’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71) 攬: 『冲庵集』에는 ‘攬’로 되어 있다. 내용상 ‘攬’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72) 蛟: 『冲庵集』에는 ‘怪’로 되어 있다.

73) 湧: 『冲庵集』에는 ‘咽’로 되어 있다.

蒼松綠竹紫檀香 赤栗乳柑橘柚黃 白雪丈餘紅綿樣 四時留得青春光
世傳東角東巫峽 絃管遙聞第幾疊 百里香雲繚繞中 仙曹此處應登躡
俯瞰人間隔世蹤 海中別有瀛洲峯 秦童漢使枉費力 遺與三韓作附庸
南畔是山北畔海 毛興古穴中間在 雲烟埋沒事茫然 欲問遺風今幾載
憶昔神人開國初 山從游獵水從漁 身如野鶴無歸着 地闊天高未有廬
石函當日來何處 知向郊原播稷黍 歲久朱陳成一村 子孫乃爾多如許
星芒初動鷄林天 已艤耽津一葉船 恰似老人朝北斗 從今始與通人烟
好爵旋封兄及弟 榮還故國傳來裔 梯航款叩不辭頻 朝事新羅暮百濟
松岳龍興掃黑金 預先歸去獻其琛 柰何變作逋逃藪 流入胡元染惡深
候風島口金方慶 明月浦頭都統瑩 前後旌旗蓋海來 渠心厭亂知相應
通精暴血濺池隍 哈赤頑魂飛釵鋌 網盡鱸鯨付鼎鑊 年來無復海波揚
到頭安堵復蘇息 戈獵謀生任所得 解棹扁舟向北風 却將土物供臣職
爾來一百十餘年 贏得王家德化宣 文物儘從周禮樂 版圖編入禹山川
我今萬里擎丹詔 跋涉遠來竝海徼 又有同舟許使君 一番傾蓋膽相照
館頭巖畔卸征鞍 海色天光入望寒 貫月槎浮縱所適 南溟無際學鵬搏
孤帆却被天風好 驀地飛經火脫島 暫試青蛇掣海雲 蜃樓蛟室紛顛倒
底處一聲送櫓歌 迓船來赴疾於梭 蓬窓揭了問前程 館在朝天影蘸波
海吐瑞山供逸興 龍蟠牛島呈祥霧 山川喜我從槎來 我亦有情堪指顧
燕尾蜂腰千萬形 爭流競秀不知名 微茫樹色畫圖裏 日暈紅霞照眼明
遠人頗識尊王命 扶我登途笳鼓競 浦口巉巖道士羊 路周磊落仙人銃
青鳥彩鸞如有期 護予呵擁城中馳 奔迎拜跪稍知禮 聒耳語音譯後知
便從父老問風土 冬苦風威夏苦雨 草木昆虫傲雪霜 禽無鶻鵠獸無虎
人知種植飽駒駒 不羨江陵千戶侯 渾把生涯登壽域 閭閻到處杖皆鳩
嫌將歲月虛拋擲 照里鞦韆傳自昔 僧刹了無香火時 駢闐簫鼓燃燈夕
革帶芒鞋葛織衣 石田茅屋矮柴扉 負瓶村婦汲泉去 橫笛堤兒牧馬歸
民風淳儉看來取 不必彎絃徒尚武 絃誦東西精舍中 元來人傑擬鄒魯
路入杏壇謁素王 青衿揖我明倫堂 誰知萬里滄溟外 有此衣冠禮義鄉
更誇物產荊揚富 珍寶精華那可數 玳瑁蠙珠貝與螺 青皮白蠟石鍾乳

南宦博物

乃知仙藥百千般 箇裡分明有煉丹 收拾鑑中九轉後 定應白日可飛翰
我來得覩神仙宅 採了天台劉阮藥 願學麻姑看海桑 應將此身壺中托
紫殿九重憶聖君 白雲千里戀雙親 此身猶未全忠孝 不忍堪爲方外人
豈獨瀛洲在此地 求之人世不難致 莫如還向華山陽 保我平生伊尹志
[謾輯於數日之內, 文不成趣, 覽者恕之.]

찾아보기(索引)

<ㄱ>

- 가가도(可佳島) 13, 19, 27
 가락천(嘉樂泉) 31, 65
 가리포(加里浦) 13
 가의도(紅衣島) 19
 갈두포(葛頭浦) 13
 감산천(紺山川) 30
 감은(感恩) 29
 감은덕(感恩德) 28
 강세구(姜世龜) 124
 강진(康津) 13, 19, 20, 27
 강호(江戶) 12
 개로천(介路川) 30
 개사(蓋沙) 31
 개파도(蓋波島, 가파도) 17, 18, 27
 거추리도(巨趨里島) 20
 건입포(健入浦) 30, 117
 경두(鯨頭) 13
 경세봉(慶世封) 121
 고근(孤根) 30
 고기(古記) 114
 고내(高內) 45, 60
 고내현(高內縣) 118
 고득종(高得宗) 50, 76, 118
 고려고기(高麗古記) 116
 고려사(高麗史) 114
 고령전(高齡田) 117
 고만갑(高萬甲) 51
 고만첨(高萬瞻) 51
 고말로(高末老) 44
 고복성(高福星) 51
 고복수(高福壽) 46, 122
 고봉례(高鳳禮) 46
 고성(古城) 117
 고세동(高世東) 51
 고세유(高世維) 66
 고세준(高世俊) 66
 고세태(高世泰) 51
 고소(高昭) 44
 고순시(高順時) 45
 고승조(高承祖) 47
 고씨세계록(高氏世系錄) 43
 고여림(高汝林) 117, 118
 고유(高維) 50
 고인조(高仁朝) 44, 45
 고잉(高孕) 43
 고자견(高自豎) 44
 고장성(古長城) 117
 고적(高適) 44, 50
 고정(高貞) 45
 고정의(古旌義) 119
 고조기(高兆基) 50

- 고처안(高處安) 51
고청(高淸) 43, 50, 98, 131
고태정(高台鼎) 50
고태필(高台弼) 50
고토성(古土城) 117
고후(高厚) 11, 43, 45, 50, 98, 99, 131
곤산현(崑山縣) 115
공조(貢鳥) 26, 28
과해일기(過海日記) 33
곽지(郭支) 28, 45, 118
관도(貫島) 18
관두량(館頭梁) 12, 13
광아도(廣鵝島) 12
광양(廣壤) 60
광양당(廣壤堂) 59, 95
광양신사(廣壤神祠) 114
광주(光州) 27
광해군(光海君) 120
광해안치소(光海安置所) 119
국둔전(國屯田) 118
국지(國只) 112
군민안무사부(軍民安撫使府) 118
굴암(窟庵) 41
궁(弓) 30
권탁(權倬) 125
귀(龜) 30
귀덕(歸德) 45, 59, 118
귀일(貴日) 45, 118, 119
굴림서원(橘林書院) 95
금남표해록(錦南漂海錄) 14
기(箕) 28
기건(奇虔) 122
기미성(箕尾星) 22
기황후(奇皇后) 45
길삼봉(吉三峯) 48
길운절(吉雲節) 47, 48
김계중(金繼重) 51
김구(金丘) 56, 121
김극수(金克修) 141
김녕(金寧) 31, 45, 59, 118
김녕굴(金寧窟) 38, 127
김대길(金大吉) 48
김률(金碑) 123
김만종(金萬鍾) 125
김방경(金方慶) 19, 44, 117, 132, 150
김상헌(淸陰 金尙憲) 16, 48
김세봉(金世奉) 46
김수문(金秀文) 123
김숙(金叔) 45
김우천(金羽遷) 124
김원호(金園皓) 124
김유(金庾) 46
김응남(金應南) 123
김익구(金益九) 65, 124
김자상(金自祥) 41
김장로(金長老) 46

- 김정(冲菴 金淨) 16, 31, 34, 51, 88, 95,
119, 126, 131
- 김정실(金鼎實) 51
- 김종직(金宗直) 126
- 김중광(金仲光) 46, 122, 132
- 김지석(金之錫) 121
- 김진기(金振淇) 124
- 김진혁(金振赫) 124
- 김치(金緻) 123
- 김통정(金通精) 44, 117, 150
- 김평(金秤) 112
- <L>
- 나수(螺藪) 31
- 나주(羅州) 19
- 남사록(南槎錄) 16, 18, 19, 21, 24, 26, 35,
40, 41, 47, 48, 50, 54, 58, 60, 69, 76
- 남수구(南水口) 106
- 남치근(南致勤) 123
- 내주(萊州) 34
- 노걸대(老乞大) 53
- 노로객(勞老客) 28
- 노인성(老人星) 35, 97, 129, 149
- <C>
- 달(達) 29
- 달로화적부(達魯花赤府) 118
- 담(簞) 30
- 답인(踏印) 28
- 대가래천(大加來川) 30
- 대마도(對馬島) 12
- 대마월도(大磨月島) 20
- 대소화탈도(大小火脫島) 27, 35, 36
- 대수(大藪) 31
- 대촌(大村) 117, 119
- 대화탈도(大火脫島) 14, 17
- 도거유도(道巨有島) 20
- 도근천(都近川) 17, 38
- 도동음률(徒冬音律) 44
- 도전(倒轉) 28
- 도한필(都漢弼) 125
- 독달(禿達) 29
- 독도(禿島) 18
- 독사(蠹祠) 95
- 동광아도(東廣鵝島) 20
- 동래(東萊) 108
- 동무협(東巫峽) 38
- 동방만천(東方曼倩) 33
- 동사(東史) 97
- 동산(洞山) 28
- 동여서도(東餘鼠島) 13, 14, 19, 20, 27
- 동정호(洞庭湖) 76
- 동제원(東濟院) 118
- 두(斗) 29
- 두락(豆落) 18
- 두락도(斗落島) 18

두무악(頭無岳) 22
두보(杜甫) 78
두좌관(斗坐館) 30
등주(登州) 34

<ㄹ>

마도(馬島) 14, 33
마라도(摩羅島) 18, 27
마조제(馬祖祭) 97
만랄가(滿刺加) 34
만수사(萬壽寺) 58, 131
망경루(望京樓) 119
매응골도(每應骨島) 20
명월(明月) 17, 37, 45, 60, 101, 118
명월소(明月所) 27, 31, 80
명주(明州) 19
모슬(摹瑟) 30
모슬소(摹瑟所) 27, 80
모흥혈(毛興穴) 114
목교(木橋) 31
묘평(猫坪) 31
무수천(無愁川) 38
무진주(武珍州) 44
무협(巫峽) 127
문공제(文公濟) 45, 46, 132
문도(文島, 문섬) 18, 27, 128
문두성(文斗星) 48
문신(文愼) 44

문여량(文汝良) 122
문영후(文榮後) 66
문절수(文節隨) 45
문질(文秩) 30
문창우(文昌佑) 44, 45
문충기(文忠基) 47
문충세(文忠世) 46
문행노(文幸奴) 44, 131
민기(閔機) 124
민응서(閔應瑞) 123
민휘(閔暉) 123

<ㅂ>

박도순(朴都孫) 46
박상하(朴尙夏) 124
박세영(朴世英) 124
박윤청(朴允靑) 122
방(方) 29
방성(房星) 22
방유녕(方有寧) 123
백도(白島) 20
백량(白梁) 13, 20, 27, 35, 102
백록담(白鹿潭) 26
백해(白海) 15, 33, 128
백호(白湖) 16
범도(凡島) 18
벽파진(碧波津) 20
변희로(邊希簾) 66

- 별도(別刀) 27
 별방(別防) 16, 19, 27, 37, 80
 병문천(屏門川) 30, 37
 보길도(甫吉島) 12, 18, 20, 22
 보성(寶城) 27
 본초강목(本草綱目) 79, 88
 부계량(夫繼良) 43
 부악(釜岳) 22
 부정재(夫貞才) 45
 부추문(副樞文) 46
 북수구(北水口) 106
 비양도(飛揚島) 17, 18, 27

 <人>
 사기(史記) 63
 사라(紗羅) 28
 사서도(斜鼠島) 12, 19
 사용(士用) 46
 사직(社稷) 95
 사직단(社稷壇) 95
 산둥(山東) 12, 14, 34
 산방(山房) 27, 41, 42, 43, 45, 127
 산저천(山底川) 30, 31
 삼도(三島) 13, 18, 20, 27
 삼매양(三梅陽) 29
 삼사석(三射石) 117, 126
 삼성사(三姓祠) 95
 삼성혈(三姓穴) 98, 114

 삼의양(三義讓) 28
 상시(相時) 28
 색달천(塞達川) 30, 40
 서광아도(西廣鵝島) 20
 서귀소(西歸所) 27, 80
 서산(瑞山) 17, 119, 127
 서안도(鋤安島) 20
 서호(西湖) 76
 석가을비(石加乙碑) 18, 46
 석나리보개(石那里浦介) 113
 석천촌(石淺村) 118
 선경(仙經) 26
 섬라국(暹羅國) 12, 34
 성불(成佛) 29
 성산(城山) 27, 39, 42, 127
 성수재(成秀才) 123
 성윤문(成允文) 48
 성준덕(成俊德) 122
 성판(城板) 29
 성환역(成歡驛) 141
 성황사(城隍祠) 95
 소가래천(小加來川) 30
 소근(所近) 31
 소덕유(蘇德裕) 47, 48
 소승(小乘) 16, 26, 33, 41, 53
 소주(蘇州) 12, 34
 소천지연(小天池淵) 40
 소협재(小夾財) 37

소화탈도(小火脫島) 17
송담천(松澗川) 118
송사(宋史)』 115
송악산(松岳山) 27, 41, 128
송인수(宋麟壽) 123
수(水) 29
수덕도(愁德島) 19
수망천(水望川) 30
수산소(首山所) 27, 80, 119
수산진(首山鎭) 16
수산평(首山坪) 45, 119
수성(水城) 29
수영(水盈) 29
수정(水頂) 29
수정천(水精川) 38
수좌(秀佐) 45
수행동(修行洞) 32
송고산(嵩高山) 34
시목(柿木) 30
식이(植伊) 48
신길(信吉) 46, 48
신숙청(辛淑晴) 122
신유(神遊) 60
신촌(新村) 45, 118
신춘사(新春祠) 96
신필(臣弼) 46
심연(沈演) 123
심연원(沈連源) 35, 123, 144

<O>

아단불화(阿但不花) 46
안남(安南) 33, 34, 108, 139
안남국(安南國) 12, 34
안비(安庇) 45
안택(安宅) 66
안홍기(安弘記) 11
암문(暗門) 41
암복(岩卜) 46
암수(暗藪) 31
애월(涯月) 17, 37, 45, 60, 101, 118
애월목성(涯月木城) 118
애월소(涯月所) 27, 80
약마희(躍馬戲) 59
양광하(梁廣廈) 66
양기(梁琪) 45
양우철(梁禹轍) 48
양우현(梁遇賢) 51
양원필(梁元泌) 66
양유혁(梁維赫) 51, 66
양주(楊州) 12, 34
양중구(梁重球) 66
양진연(梁振演) 66
양탕(良宕) 43
어등(於等) 101
어등포(於等浦) 60
어란포(魚蘭浦) 12, 19
어룡굴(魚龍窟) 16, 39, 127

- 여승생(御乘生) 28
 여단(厲壇) 95
 여서도(斜鼠島) 27
 여인국(女人國) 12, 34
 여지(輿地) 18
 여지도(輿地圖) 34
 여지지(輿地誌) 16, 18
 연등(燃燈) 59
 연등절(燃燈節) 60
 연법주(衍法主) 48
 열안지(悅安止) 28
 열어구(列禦寇) 33, 147
 영실(靈室) 31, 127
 영암(靈巖) 13, 18, 27
 영주산(瀛洲山) 29, 38
 영천(靈泉) 29
 영천천(靈泉川) 30
 영통(靈通) 28
 영파부(寧波府) 12, 34
 예래(猯來) 45, 119
 오례의(五禮儀) 98, 99
 오백장군동(百將將軍洞) 31
 오식(吳湜) 47, 122, 132
 오정빈(吳廷賓) 51
 오진창(吳震昌) 124
 옥구도(玉球島) 12, 13, 34
 완도(莞島) 13, 20
 완조(阮肇) 154
 완택(完澤) 45
 용두(龍頭) 37
 용추(龍湫) 37, 127
 우도(牛島) 16, 18, 27, 39, 80, 85
 우도가(牛島歌) 126
 우둔(牛屯) 119
 우포(友浦) 119
 운남(雲南) 49, 132
 운우로(雲雨路) 28
 운지(雲之) 29
 원교산(圓嶠山) 33
 원당(元堂) 28
 원산(圓山) 22
 원생(元生) 48
 원악(圓岳) 33
 유구(琉球) 108
 유구국(琉球國) 12
 유극량(劉克良) 123
 유근(柳瑾) 125
 유녀도(遊女島) 19
 유리국(琉璃國) 34
 유성서(柳星瑞) 124
 유신(劉晨) 154
 윤기은(尹起殷) 124
 윤년보(尹年寶) 117
 윤시우(尹時遇) 122
 윤호익(尹虎翼) 125
 음사(淫祀) 92

응(鷹) 29
의남(義男) 48
의주(義州) 108
이경록(李慶祿) 26
이괴(李檉) 124
이동식(李東植) 124
이마두(利瑪竇) 34
이명겸(李鳴謙) 119
이문경(李文京) 118
이백겸(李伯謙) 121
이사영(李思瑩) 26
이선(李選) 48
이수동(李壽童) 75, 114, 118, 123
이시태(李始泰) 51
이약동(李約束) 123
이운(李耘) 118
이원진(李元鎭) 124
이원항(李元恒) 119
이유의(李由義) 122
이윤(伊尹) 155
이정진(李鼎鎭) 124
이정해(李廷楷) 124
이종윤(李從允) 123
이지봉(李芝峯) 34
이지함(李之菡) 35
이진(梨津) 13
이태현(李泰顯) 65, 124
이형창(李亨昌) 124

이효일(李孝一) 124
이희(李禧) 124
일도리(一徒里) 43
일본(日本) 139
일지도(一岐島) 12, 13, 34
임박(林樸) 122
임숙(林叔) 45
임제(林悌) 16
임진(林晋) 123
임형수(林享秀) 123
임희재(林熙載) 122
입산(笠山) 28

<ㅈ>

자지도(者只島) 20
자포(紫蒲) 29
잠녀안(潛女案) 54
장(獐) 28
장기도(長崎島) 14
장남헌(張南軒) 63
장령(長嶺) 33
장사(長沙) 37
장수천(張壽天) 125
장울(長兀) 28
장흥(長興) 27
장흥부(長興府) 20
저(猪) 28
적인걸(狄仁傑) 63

- 전공지(田拱之) 17
 전녹생(田祿生) 122
 전만성(田萬成) 51
 전이호(全爾壕) 124
 점목(黏木) 31
 점산(簞山) 65
 점성(占城) 12, 34
 정동윤(鄭東潤) 125
 정방연(正方淵) 40
 정씨(鄭氏) 113
 정여립(鄭汝立) 48
 정위(精衛) 26
 정창도(鄭敞道) 51
 정창원(鄭敞遠) 51
 정총(汀總) 45
 정혼(鄭混) 45
 제해(濟海) 14
 조공천(朝貢川) 38
 조동희(趙冬曦) 121
 조리희(照里戲) 58
 조사수(趙士秀) 123
 조유현(趙有賢) 45
 조익청(曹益淸) 122
 조인후(趙仁後) 123
 조임(趙任) 45
 조천(朝天) 101
 조천관(朝天館) 12, 27
 조천소(朝天所) 80
 존자암(尊者庵) 32, 59
 좌선암(坐禪岩) 32
 주기(州記) 54, 59, 79
 죽도(竹島) 17, 119
 죽항도(竹項島) 20
 지귀도(知歸島) 18
 지남익(池南翼) 45
 지도(知道) 19
 지미(指尾) 29
 지세(地稅) 29
 지지(地誌) 18, 21, 23, 26, 30, 38, 40, 53,
 55, 58, 70, 85
 직산(稷山) 141
 진대석(秦大石) 112
 진도(珍島) 13, 20, 27, 44, 117
 진준(陳遵) 119
 진해당(鎭海堂) 40

 <大>
 차귀(遮歸) 30, 45, 60, 119
 차귀당(遮歸堂) 59
 차귀사(遮歸祠) 95
 차귀소(遮歸所) 27, 80
 채득공(蔡得公) 45
 채유인(蔡有仁) 45
 천덕(天德) 112
 천석(穿石) 38, 127
 천외사(川外祠) 95

천지연(天池淵) 40
청로도(淸路島) 19
청산도(靑山島) 13, 14, 20, 27
청주(靑州) 12, 14
청해진(淸海鎭) 20
초고도보개(尙古道甫介) 18, 46
초도(草島) 18
초란도(草蘭島) 14, 19
최관(崔寬) 124
최동제(崔東濟) 65, 124
최부(崔溥) 14, 19, 126
최산해(崔山海) 47
최상습(崔尙燭) 125
최상태(崔尙泰) 125
최서(崔瑞) 45
최수종(崔壽宗) 124
최여림(崔汝霖) 123
최영(崔瑩) 17, 18, 46, 150
최척경(崔陟卿) 121
최치륜(崔致崙) 125
최탁(崔托) 44, 132
최해산(崔海山) 122
최후(崔厓) 124
추자도(楸子島) 13, 14, 18, 19, 27, 35
충암기(冲庵記) 32
취병담(翠屏潭) 37
칠성대(七星臺) 32
칠성도(七星圖) 117, 126

<E>

탁라가(毛羅歌) 126
탐라구례(耽羅舊例) 58, 96, 98
탐라시(耽羅詩) 126
탐모라(耽牟羅) 11
탐라적(塔羅赤) 45, 118, 119
탑아(塔兒) 45
토(兔) 29
토산리(土山里) 43
토산현(免山縣) 119
통영(統營) 90

<II>

판교(板橋) 31
판서정(判書井) 118
팔양(八陽) 54
팔운석(八雲石) 18
포사(醕祠) 95
표해록(漂海錄) 33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 95, 96
풍토록(風土錄) 16, 21, 25, 35, 50, 53, 58,
59, 79, 88

피생문(彼生門) 41

<H>

하익청(河益淸) 125
한유(韓愈) 11, 21

- 한이(韓彝) 122
 한좌(閑坐) 29
 함덕(咸德) 45
 함덕현(咸德縣) 118
 합적(哈赤) 17, 150
 항주(抗州) 12, 34
 항파성(缸坡城) 117
 해남(海南) 13, 27, 79
 해남현(海南縣) 20
 해륜사(海輪寺) 58, 131
 향교(鄕校) 65
 허희(許熙) 151
 현라(懸蘿) 29
 혈망봉(穴望峯) 26
 협재(夾財) 127
 협재암(夾財巖) 37
 형악(衡岳) 35, 97
 형제도(兄弟島) 42
 혜수(惠修) 47
 호(蠓) 30
 호도(虎島) 18
 호촌(狐村) 45
 홍경원(洪敬源) 47
 홍로(洪爐) 45
 홍로천(洪爐川) 30
 홍로현(洪爐縣) 119
 홍시범(洪時範) 125
 홍우성(洪遇聖) 125
 홍의도(紅衣島) 13, 27
 홍질(洪質) 112
 화북(禾北) 101
 화북소(禾北所) 27, 80
 화북천(禾北川) 30
 화북포(禾北浦) 12
 화탈도(火脫島) 12, 13
 효성(曉星) 28
 효언(孝彦) 10
 효일(孝一) 48
 흑(黑) 28
 흑산도(黑山島) 13, 19, 27
 흔도(忻都) 19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역사자료총서6

남환박물관 南宦博物

발행인	노정래(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발행일	2022년 6월 11일
기획	박용범(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연구과장)
편집	백지현(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감수	김익수
번역	김새미오, 이진영
인쇄	제주콤
정가	비매품
발간등록번호	79-6500450-000044-01
ISBN	979-11-87075-16-5 93090

이 자료집에 실린 글과 사진의 저작권은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 있으며,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남
환
박
물

南
宦
博
物

